文峯書院과 高陽八賢

高陽鄕校

文峯書院과 高陽八賢

高陽鄕校

文峯書院 과 高陽八賢을 發刊하면서

어느 時代나 地方에는 그때 그 고장대로 歷史와 전통을 만들고 빛내는 상황이 있듯이 우리 고양 땅에도 많은 인물과 事件과 발자취가 있음은 周知의 일이고 자랑인 것이다.

그 중에 文峯書院 과 高陽八賢 은 우리 高陽에 대한 自負心과 愛鄕心을 자리매김하게 한 하나의 動力이요 源泉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분들의 高孤한 生涯와 學文과 哲學은 우리들에게 自尊心을 이었고 바른 삶을 세워 갈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서원은 비록 毁撤되였으나 곧 復設되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이번에 경기도 문화재단과 고양시의 협조로 이 책을 내기까지 고양문화원과 문봉서원 이은만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끈질긴 노력과 활동이 있었기에 可能했고 主 內用도 轉載내지는 轉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冊이 나오기까지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책을 인쇄하시는 광일인쇄 김수동 사장님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 11.

高陽鄕校 典校　李世濬

祝刊辭

고양시의 오랜 역사 속에는 뛰어난 사상과 훌륭한 학문으로 나라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으며 후학들의 배움에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뒷날에는 高陽八賢이라 불려지고, 賜額 文峰書院에 모시고 祭香을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우러러 모시고, 배움으로써 고양시의 참 발전에 뜻을 두어 고양향교가 앞장서 文峰書院 과 高陽八賢이라는 책을 발간하시니 진심어린 기쁨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양시민은 이 책을 통하여 고양시의 인물로 학국역사에 뛰어난 사상과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여덟 분을 배우게 되고, 그 분들의 정신적 세계를 접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됨을 매우 뜻 깊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발전과 부흥은 나라의 역사를 중히 여기고 역사 속 교훈을 중히 여기는 지도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양시민께서는 이 책을 통하여 고양시의 精神文化遺産의 일부나마 기억하고, 고양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高陽鄕校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2005. 11. .

고양문화원 원장 오 수 길

祝刊辭

- 국가와 민족 그리고 地方이나 한 家門은 선조, 선현 의 독특한 가르침과 전통문화에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가문의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 고양은 조선조 초 중기를 통하여 巨木의 性理學者들이 모여 사시면서 學問을 연구하고 나라의 정사에 이르기까지 선도적 역할을 한위대한 先賢의 위업을 肅宗大王 시 賜額된 문봉서원 의 모셔진 여덟 분의 가르침 과 그 정신은 고양의 支柱로서 "강직한 선비의 고장" 으로 특수성을 이어받은 고양시민의 정신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 이에 그 정신과 학설을 각계 전문가의 조사 연구된 자료로 寶冊을 발간하여 시민이 익혀 고양의 문화 창달로 발전승화 시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애써주신 문봉서원 이은만 원장과 각계 전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경기도 문화재단의 지원금으로 발간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발행자인 이세준 전교의 고마움을 드높이고.

-이 책이 고양시민의 강직한 선비정신 함양과 선양으로 발전시켜 아름다운 문화의 고장 건설에 시민운동으로 계승발전 을 기원합니다.

2005. 11.

성균관 유도회 고양시지부 회장 이영찬

祝刊辭

논어에 '견현사제(見賢思齊)'란 글귀가 있다. 어진이를 보고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으로 구별해야 할까. 그 기준은 여러 각도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역시 같은 책에서 '삼인행(三人行)에 필유아사(必有我師)'란 말이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 중에는 나보다 어리석은 이가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이가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이의 언행을 보고서 자신을 반성해 볼 기회를 삼음으로써 그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란 공자처럼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다. 가능하면 나보다 어진이를 모델로 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봉서원(文峯書院)과 고양팔현(高陽八賢)'은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미 몇 백년 전의 인물을 저울대 위에 얹어놓고 그들의 행적을 더듬어 현대를 살아가는 얄팍한 인정에 단비를 내리려는 의도는 한낱 행정적인 업적 위주의 소치는 아니다. 고양군에 살고 있는 모든 군민들에게 고향의 뿌리를 찾고 거기서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방향을 찾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책은 고양팔현(高陽八賢)에 대한 개개인의 인물과 그것을 종합적으로 엮은 커다란 덩어리와, 문봉서원(文峯書院)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처음 생각했던 것은 비전문적인 지식층의 사람에게 읽혀지도록 쉽게 써달라고 원고를 청탁했었다. 그러나 원고를 써 내려가는 동안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바이다.

문장은 어려운 곳이 많아도 끝까지 읽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문봉서원 원장
이 은 만

목 차

문봉서원(文峯書院)과 고양팔현(高陽八賢)

고양군(高陽郡)과 문봉서원(文峯書院)

고양군의 연혁 … 윤경로 … 10
문봉서원의 창건과 발전 … 윤경로 … 22
조선조 선비와 문봉서원 팔현 … 윤사순 … 38

고양팔현(高陽八賢)

행촌(杏村) 민순(閔純)의 산림학자적(山林學者的) 성격 … 김성규… 61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의 생애와 사상 … 정후수… 97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의 생애와 사상 … 유권종… 121
복재(服齋) 기준(奇遵)의 도학사상 … 김기현…158
추만 정지운의 생애와 사상 … 정대환…188
모당(慕堂) 홍리상(洪履祥)의 생애와 사상 … 임민혁…213
석탄(石灘) 이신의(李愼儀)의 생애와 사상 … 임민혁…248
만회(晩晦) 이유겸(李有謙)의 생애와 사상 … 임종욱…282

문봉서원과 고양팔현

고양군의 연혁

윤 경 로[1]

1

서울과 경계를 이루며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군은 본래 고봉현과 행주현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먼저 고봉현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의 달을성현(達乙省縣)이었다. 그 후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면서 경덕왕은 달을성현을 고봉이라 개칭하고 교하군의 속현으로 만들었다. 고봉은 고봉(高烽)이라고도 쓰였다. 이것은 김부식에 의하면 한씨(漢氏) 미녀가 달을성현 높은 산 위에서 봉화를 올려 안장왕(安藏王, 고구려 22대왕, 519~531)을 맞이하였던 까닭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 행주는 본래 백제의 개백현으로 문주왕 원년(475)에 고구려(장수왕 63년)가 이 땅을 취하면서 지명을 왕봉(王逢)으로 고쳤다. 왕봉의 명칭 역시 김부식이 이르기를 한씨 미녀가 개백현에서 안장왕을 맞이하였다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 후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우왕(遇王)이라 고치고 한양군의 속현이 되

1)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장 겸 교수, 문학박사

었다. 이것을 고려 태조 23년(940)에는 오늘날의 명칭인 행주로 다시 개칭하였다. 행주의 읍호는 고려 성종연간에 덕양(德陽)이라 정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명칭의 역사적인 유래와 의미를 지닌 고봉과 행주는 고려 현종 9년(1018)에 모두 양주로 예속되고 말았다.

조선이 건국되자 지방세력의 강력한 통제와 왕조개창에 협력한 자들에 대한 논공행상의 필요에서 대폭적인 외관파견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태조 3년(1394)에 이루어졌고, 고봉에도 비소로 감무(監務)가 설치되었다. 감무는 현령을 둘 수 없는 작은 현의 감독관으로서 현령의 전신이다. 이에 따라 고봉에는 부원(富原), 행주, 황조향(荒調鄕, 속칭 주엽리라고도 한다)이 예속되면서 양주의 속현에서 벗어났다. 부원현은 본래 과주(果州)에 속하였던 용산처가 고려 충렬왕 10년(1284)에 고쳐진 이름이며, 황조향은 부평부(富平府)에 속하였었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는 고봉, 덕양 두 현의 이름 중 고봉의 첫 자와 덕양의 끝 자를 따서 지금의 이름인 고양이라 고치고, 비로소 현감을 두었다. 이것은 지역실정을 무시한 다수의 지방관 파견과 지나치게 세분된 고을의 난립으로 지방행정의 비능률화와 불합리성을 야기하자 적절한 선에서의 고을의 통폐합과 명칭의 개편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고을의 통폐합과 읍호의 변경은 그 지방주민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행주 주민들은 옛날에는 행주가 덕양현으로서 고봉을 관할 하에 두었었음을 상기하고, 이제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읍호가 아주 없어져 버린 것은 상당한 자존심의 문제로서 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그들은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을 보게 된 것이다. 성종 2년(1471)에는 경릉(조선 덕종과 그 비인 소혜왕후의 능)이 있다는 이유로 고양현을 군으로 승격하였다. 이렇게 고양군은 명칭의 변

천과 함께 꾸준히 시대에 따라 발전적인 역사를 지녀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산군대에 이르러 그의 포악성과 폐정으로 각종의 사건, 사화가 발생하였고, 그 영향으로 고양군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연산군은 갑자년(1504)에 고양군을 혁파하고 유행수렵구역(遊幸狩獵區域)으로 정하였다. 도성 밖의 인가를 철거하고, 한성으로 통하는 도로는 노량진 방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막아 일반의 교통을 차단하였다. 또한 유수지역(遊狩地域)을 확장하여 고양뿐 아니라 서울 인근 군인 양주, 파주 등지까지 미쳤으며 이어 광주, 양천에 이르렀다. 더욱이 그는 이곳 백성들을 추방하고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들을 대신 살게 하였으니 백성들의 원망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정으로 중종이 즉위하자 그는 연산군의 폐정을 개혁하는 한편 각 군을 복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많은 세월을 요하였다.[2] 따라서 군은 큰 변화 없이 조선 말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조선후기에도 지방조직은 전기의 것이 그대로 계승되었다. 각 고을은 읍세의 대소, 혹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의 차등이 있었지만 가장 일반적인 행정단위인 군, 현은 대개 10개 미만의 면으로 고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중앙의 행정관이 파견되지 않는 면에는 호적 등 기타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면임과 면내의 농업을 권과하는 권농관이 있었고 이들은 근실한 현지인 중에서 수령이 임명하였다. 면 아래에서 최말단 행정조직인 리가 있었는데 리에는 이정이 있어 몇 개의 자연촌락을 관할하였다.

조선 세종 당시 고양군으로 사방경계는 동쪽으로 양주까지 6리, 서쪽으로 교하까지 30리, 남쪽으로 한강까지 15리, 북쪽으로 원평(파주)에 이르기까지 15리였다. 호구는 679호이고, 인구는 1,314

2)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권6, 연산조고사본말(燕山朝故事本末)

명, 전지는 6,326결이었다.[3] 그러나 1755년(영조 31)의 「고양군지(高陽郡誌)」를 보면, 고양군은 총 7면(사리대면(沙里大面), 원당면(元堂面), 구이동면(九耳洞面), 송산면(松山面), 중면(中面), 이포면(已浦面), 구지도면(求知道面), 하도면(下道面)) 40개리에 3508호, 인구 13878명 (남 6802명, 여 7076명)으로[4] 세종 당시와 비교하여 약 10배에 달하는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지방제도의 일대 개혁이 단행되었다. 즉 종래의 8도제를 폐지하고 한성부 이하 23부가 설치되어 각부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었다. 이때 1년 3개월간 한성부는 한성군 이하 11개군을 관할하였는데, 고양군은 여기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음 해 건양 원년(1896) 8월 4일 칙령 제36호에 의해 실시된 13도제로 바뀌었으며, 고양군은 경기도의 4등군이 되었다. 190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고양군의 연혁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5]

1946년에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사대문을 둘러싼 외곽지대에서 불암산 북쪽과 한강 남쪽을 뺀 지역이 모두 고양군 땅이었다. 그러던 것이 식민지시대인 1936년 4월과 해방 뒤인 1949년 8월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고양군의 동쪽 일대가 서울시로 넘어가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성북구로 갈라져 나갔다. 이에 따라 1961년에는 그때까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서울운동장 맞은편에 있던 고양군청을 고양군 원당면 주교리로 옮겼다. 1973년에는 다시 서울시에 맞붙은 신도읍 땅에서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가 서울시로 넘어가 버렸다.[6]

이처럼 많은 땅이 서울시에 넘어가고 오늘날 고양군에 남은 땅

---

3) 「세종실록지리지」권148, 양주도호부 고양현
4) 이석희(李錫禧), 「고양군지(高陽郡誌)」
5) 고양군지(高陽郡誌)편찬위원회, 「고양군지(高陽郡誌)」, 1987, p.64
6) 한국의 발견 V. 2., 「경기도」, (뿌리깊은 나무, 1983)

은 266.5평방 킬로미터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군 중에서 경상북도 울릉군과 경상남도 통영군 다음으로 좁은 면적이다. 그나마 울릉군과 통영군은 섬과 바다를 포함한 것인 만큼 내륙 안에 있는 군으로서는 고양군이 가장 작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년 도	연 혁
1906. 9. 24	칙령 제49호로 양주군(楊州郡) 신혈면(神穴面)이 고양군에 편입됨
1910. 8. 23.	
1911. 4. 1.	경기도고시 제6호로 군내 이동(里洞) 합병 개칭
1914. 4. 1.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고양군은 9면 50개리 관할. 사리대면(沙里大面), 신혈면(神穴面), 원당면(元堂面), 하도면(下道面), 중면(中面), 구이면(九耳面), 송산면(松山面), 구지도면(求知道面), 이포면(已浦面),
1936. 4. 1..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고양군은 12면 155개리 관할. 용강면(龍江面), 연희면(延禧面), 은평면(恩平面), 숭인면(崇仁面), □도면(□島面), 한지면(漢芝面), 벽제면(碧蹄面), 신도면(神道面), 원당면(元堂面), 지도면(知道面), 송포면(松浦面), 중면(中面)
1949. 8. 15.	부령 제8호(1936. 2. 24. 공포)로 용강(龍江), 연희(延禧), 한지(漢芝)의 3개면이 경성부(京城府)로 편입
1961. 8. 7.	법률 제159호(1949. 8. 13. 공포)와 법률 제160호(1949. 8. 13. 공포)로 은평(恩平), 숭인(崇仁), □도(□島)의 3개면이 서울특별시로 편입(6면)
1967. 3. 28.	각령 제87호(1961. 8. 7. 공포)로 군청위치를 서울특별시에서 원당면(元堂面)주교리(舟橋里) 97의 1번지로 이전
1973. 7. 1.	군 조례 제126호(1967. 3. 28. 공포)로 신도면(神道面) 화전출장소(花田出張所)를 설치
1979. 5. 1.	법률 제2596호(1973. 3. 12. 공포)로 신도면(神道面)의 구파발리(舊把撥里), 진관내리(津寬內里), 진관외리(津寬外里)를 서울특별시로 편입. 대통령령 제6543호(1973. 3. 12. 공포)로 신도면(神道面)을 읍으로 승격(1읍5면)
1980. 12. 1.	대통령령 제9409호(1979. 4. 7. 공포)로 원당면(元堂面)을 읍으로 승격(2읍 4면)
1985. 10. 1.	대통령령 제10005호(1980. 10. 21. 공포)로 중면(中面)이 일산읍(一山邑)으로, 벽제면(碧蹄面)이 벽제읍(碧蹄邑)으로 승격(4읍 2면)
	대통령령 제11772호(1985. 9. 27. 공포)로 지도면(知道面)이 지도읍(知道邑)으로, 화전출장소(花田出張所)가 화전읍(花田邑)으로 승격(6읍 1면)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은 서울의 서북에 인접한 지리적인 위치관계로 시기적으로 독특한 발달사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고양군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자 특징의 하나인 '고양8현(高陽八賢)'을 배출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이 시대의 고양의 특수한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고양은 조선왕조가 성립된 이래 중요한 외교관계였던 대명관계에서 서울의 관문 구실을 한 교통의 요지였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따르면, 고양군은 조선시대에 전국의 도로망의 중심이었던 '9대로'에 들던 관서로가 지나는 통로였다. 한양에서 의주까지 잇는 이 관서로에는 큰 역관이 12개가 있어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던 사신들이 머물러 쉬었다. 벽제읍 고양리에 있던 벽제관은 그 첫 번째 역관으로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이 서울로 들어가지 전에 반드시 하룻밤을 묵고 예의를 갖추어서 서울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지금 서대문구 독립문 자리에 세워져 임금이 몸소 중국사신을 영송하던 모화관(慕華館)에 버금가던 중요한 곳이었다. 또 지도면 강매리와 벽제읍 문봉리, 성석리에는 각각 봉화둑이 있어 평안북도 강계와 의주에서 오는 군사소식을 곧바로 서울의 목멱산(지금의 남산)으로 알려주었다.

이처럼 평안도 쪽에서 서울로 오는 통로의 구실을 했던 고양군은 사신들만 드나들었던 곳이 아니라 관서지방 사람들이 서울을 드나들 때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수비하는 외곽지대로서 군사적 역할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강무장(講武場), 수렵장으로서의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세종 30년(1448) 군내의 혜음산(惠陰山), 대자암산(大慈庵山), 말질산(末叱山)을 강무장으로 삼아 이 일대를 금렵구역으로 지정하였다.[7] 일단 강무장으로 지정되면 금렵은 물론 벌목까지 금하

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렇게 하면 인근 주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세종의 특별한 배려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더라도 강무 시에는 어가를 따르는 수많은 관료와 군인들이 동원되므로 화곡(禾穀)을 짓밟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그 폐단은 더욱 심각하였다. 그는 강무라 핑계 대고 날마다 수렵으로 세월을 보내자 서울 인근고을들이 받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시사(時事)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조정과 민간에서는 크게 기휘(忌諱)로 알았다. 마침 광주와 고양군민으로 지언(池彦), 이오을(李吾乙), 말장수(末長守) 등이 무도한 말들을 했다고 하여 연산군은 그들을 능지처사(陵遲處死)하고 가산을 적몰하였다. 이 사건은 가뜩이나 이 지역을 수렵장으로 만들려는 연산군에게 좋은 구실을 주었다. 이에 연산군은 왕 10년 4월 의정부, 육조, 한성부, 대간, 홍문관을 불러 광주와 고양의 혁파문제를 의논하게 하였다. 처음 유순(柳洵) 등 대신들은 예로부터 선왕의 능침이 있는 곳은 함부로 혁파하지 않는 것인데 광주와 고양은 능침이 있으므로 불가하다고 말하였고, 죄인이 살던 지역만 떼어 다른 고을로 붙이고 두 고을은 그대로 두자는 타협안도 나왔으나 결국 혁파되고 말았다.[8] 이어 8월에는 고양을 수렵장으로 만들어 금표를 세우고 군창의 곡식을 파주로 옮겼다. 그는 응사(鷹師) 만여명을 두어 항상 사냥하는데 따라다니게 하였다.[9] 그리고 11년 7월에는 금표지역을 더욱 확대하였다. 즉 동북으로는 광주, 양주, 포천, 영평에서 서남으로는 파주, 고양, 양천, 금천, 과천, 통진, 김포에 이르는 지역으로 사방에 금표를 세웠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 5백여 호는 모조리 축출되었고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를 옮겨 살게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

7) 「세종실록(世宗實錄)」권122, 세종 30년 12월 10일조
8)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권52, 연산군 10년 4월 25일조
9)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권6, 연산조고사본말(燕山朝故事本末)

들은 생업을 잃게 되고 또 금표 밖의 사람들도 나무나 풀을 베러 잘못 금표를 범하게 되면 죄를 따지지 않고 죽임을 당하였다. 가만히 있으면 굶어죽고 움직이면 베어 죽임을 당할 형편이 된 것이다.[10] 이 외에도 서울에서 가까운 관계로 전생서(典牲署)나 예빈사(禮賓寺)에서 기르는 양과 돼지의 사료재배용 농장이 설치되어 그것의 재배, 수확한 사료의 수송 등을 주민이 담당하게 되니 이에 따른 고통도 많았다.[11]

셋째 고양은 서울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거리도 30리~4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능침 장소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위치였다. 고양군의 능묘는 주로 서오릉(西五陵)과 서삼릉(西三陵)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서삼릉 일대에는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소경원(昭慶園)을 비롯, 왕자와 빈, 후궁, 왕녀들의 무덤이 30~40기나 흩어져 있어 마치 조선왕실의 가족묘지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양은 교통의 요지로서, 강무 내지는 수렵장으로서, 소릉·원·묘의 집합지로서 조선왕조 측 입장에서 보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고양군민들은 각종 노역에 동원되고 활동의 제약을 받는 등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고양군 자체의 경제적, 독자적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3

고양군의 성씨에 대한 기록을 보면, 1430년대에 조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에 고봉의 토성(土姓)은 고(高)씨뿐이고 망성(亡姓)은 진(陳), 강(姜), 송(宋), 전(全)이며, 행주는

10)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권58, 연산군 11년 7월 1일조
1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29, 세종 7년 8월 22일조

토성이 김(金), 기(奇), 은(殷), 전(全) 4성이며 망성은 최(崔), 강(姜), 부(傅), 즉(則), 고(高), 나(那), 차(車) 7성이고 래(來)성이 이(李)씨인데,[12]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는 토성과 망성의 구분 없이 고봉에서 황보(皇甫)씨 하나가 추가되며, 나머지는 같다.[13]

이와 같이 고양군의 토성은 고봉이 5개성, 행주가 11개성으로 도합 16개성이다. 따라서 이들 11개성은 고양을 본관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1960년대에 실시한 국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양을 본관으로 파악된 34개 성씨 중 황보와 나씨를 제외한 14개 성씨가 지리지에 나타난 성씨에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토성들의 정착시기와 과정, 동족부락의 형성 및 재지적 기반의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 관계자료가 발굴된 것이 없어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고양군 내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왕 및 왕족의 묘소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낙향한 선비나 관리들의 사묘들도 꽤 많이 분포되어 있다. 사인(私人)들 가운데는 고양8현 외에도 걸출한 인물들이 다수 배출되어 고양군의 학문적 토양을 배태시키고, 그를 기반으로 고양군이 기호사림의 일향으로 학문적 처사적 사회적인 꾸준한 발전을 도모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역시 향촌 내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사료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아 몇몇 대표적인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학문적 발전 및 성향에 대한 편린만을 일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지만 고양군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택했을 따름이다. 그리고 여기

12)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 권148, 양주도호부(楊州都護府) 고양현(高陽縣)
13)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에서 살펴볼 인물 가운데 고양8현은 이미 자세하게 연구된 바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고양에서 가장 아끼는 인물 중의 한사람은 고려 말의 장군 최영이다. 그의 무덤이 벽제읍 대자2리 대자산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무공은 매우 드높았으며, 평소에 청렴결백하고 재물을 탐내는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최영의 말처럼 무덤 위에 지금도 풀이 나지 않는다고 씌어 있듯이 그것은 장군의 혼령의 힘이 대단했기 때문이라고 대자리 노인들은 말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빈과 애국의 정신이 고양군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것은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또한 들 수 있는 인물들은 행주기씨 가문 출신들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제11권 고양군조를 보면, 기홍수(奇洪壽), 기수전(奇守全), 기자오(奇子敖), 기건(奇虔) 등이 인물조에 등재되어 있다. 기자오는 고려의 인물로 정중부가 무신난을 일으켜 정권을 농단하게 된 이후로 권신이 잇달았으나, 초용하게 도리로써 왕실을 붙들어 옛 왕업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기건은 청렴개결하여 현달한 인물로 벼슬이 판한성부사에 이르렀다. 또한 들 수 있는 가문은 함종(咸從) 어씨(魚氏)이다. 어세겸(魚世謙)[14]과 어세공(魚世恭)형제는 조선 초기의 명신들이다. 이들은 세조 2년(1456)에 함께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문명이 널리 알려져 세조 5년에 허종, 이극균, 민수, 이숙잠, 정효상, 이영은 등과 함께 선발되었다.[15] 더욱이 어세공은 동왕 8년에 세조가 문신으로 하여금 학문을 권장하는 방책의 하나로 대표적인 연

14) 연산군의 상신(相臣)이요, 갑자화적(甲子禍籍)에 오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6, 연산조고사본말(燕山朝故事本末)

15) 「세조실록(世祖實錄)」권16, 세조 5년 6월 기묘조(己卯條)

소문신을 선발하여 한직에 제수시키고 예문관직을 겸대하여 경일직숙하면서 서로 토론강습케 하였는데 이때에 김종직, 이파, 정난종, 이맹현, 김종연, 유문통, 송춘림, 이순명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16] 동왕 10년 7월에는 이들 소장문신들을 천문, 풍수, 율려, 의학, 음양, 사학, 시학 등 7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각 문에 배속시켰는데 어세공은 율려문에 속하였다.[17] 그리고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서호산인 신효와 성종의 맏형으로 문장에 뛰어났던 월산대군 이정, 태조의 형 이계원의 아들로 태종 때의 문신이었던 이천우, 태종의 넷째 아들 이종, 중종 때의 문신이었던 이의 등이 있다. 이들도 역시 고양 출신이 아닌 자들이 많으나 고양에 묻힘으로써 군민들에게 각각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고양군 내의 인물은 고양8현으로 불리는 이들이었다. 김정국의 형인 모재 김안국은 김굉필의 제자인 동시에 조광조와는 동문으로 사림파의 거두였으며, 초당 허엽은 어려서 모재에게서 글을 배우기도 하였다. 즉 사림파가 정계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고양군 내의 학문적 성향은 학통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민순은 화담 서경덕의 제자요 홍이상과 이신의는 민순의 제자이다. 또한 화담의 문인으로 초당 허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추강 남효온은 김종직의 문인이자 생육신으로 추앙되는 인물이며, 사재 김정국은 역시 김굉필의 문인으로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고양군 망동에 은거하여 후학의 양성에 전력하였다. 정지운은 효의로 이름높은 사재의 문인이며, 사단칠정론의 단초를 연 인물이다. 이유겸은 사계 김장생의 문인이며, 기준은 조정암과 사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김종직을 정점으로 남효온, 김굉필, 조광조, 김정국으로 이어지는 계통과 화담 서경덕을 문인

16) 「세조실록(世祖實錄)」권28, 세조 8년 6월 계유조(癸酉條)

17) 「세조실록(世祖實錄)」권32, 세조 10년 7월 무인조(戊寅條)

으로 민순, 허엽 등으로 이어지는 계통의 두 계열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학통은 고양군의 학문적 다양성과 풍부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이들은 학계와 정계에서 수기와 도학의 실천에 철저한 인물들이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고양 출신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은 먼저 한국 성리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문의 연원이 다양함으로써 성리학의 계통을 고루 수용, 섭취한 지역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들은 선비의 정신 중 출처거취에 철저했다는 사실이다. 사세의 판단에 따라 위국의 방법을 달리하여 정계에 진출한다거나 은둔처사로서 후학의 양성에 진력하는 등 도학의 실천에 노력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인 및 관인들의 학문적 교훈적 영향은 고양군 내의 후인들에게 지대하였으리라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고양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욱 발전된 측면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어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문봉서원(文峯書院)의 창건과 발전

윤 경 로

머리말
1. 조선기(朝鮮期) 서원(書院) 성립과 보급
2. 문봉서원의 창건
3. 고양8현의 제향(祭享) 및 사회적 역할
맺음말

머리말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문봉리 빙석촌 입구에 위치해 있던 문봉서원[18]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원 중의 하나이다. 서원은 16세기 사족들의 공론에 의해 향촌사회가 운영되고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고양되던 조선 유교사회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여 서원의 난립현상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각종의 폐해는 서원의 본래의 목적 및 기능을 외면한 채 불학무식의 피역자가 모여드는 연수로 변모하거나 농민수탈기관으로 화하고 당쟁의 소굴로 변모하는 데서 나타났다. 이것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18) 영조 31년(1755)에 이석희(李錫禧)가 편찬한 「고양군지」를 보면, 문봉서원지(址)는 사리현리(沙里峴里)의 단지연(丹芝淵) 위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원당면(元堂面)으로 이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때 문봉서원도 함께 훼철되고 말았다.

고양군에서는 현재 행주서원(幸州書院)과 용강서원(龍江書院)이 남아있다. 행주서원은 권율(權慄) 장군의 행주산성전공을 기리기 위해 조선 헌종 7년(1841)에 왕명에 의해 건립되면서 바로 사액되었다. 이 서원은 당초의 권율장군의 사당인 기공사(紀功祠)와 부속건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용강서원은 설립연대를 알 수 없으며, 1980년에 중건되었다. 이 서원에는 고려 고종(高宗) 때의 무신 충정공(忠靖公) 박지(朴遲)와 조선 태종 때의 충민공(忠愍公) 박순(朴淳)을 제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서원과 문봉서원을 비교할 때, 양자는 서원 본래의 역할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정부의 교화적 인물존숭책이면서 문중의 조상의 위업을 기리는 개인에 대한 의례적 성격이 강한 반면, 후자는 강학 및 장수처로서 뿐만 아니라 선현의 유덕을 본받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문봉서원에 대한 연구 및 현재 고양문화원에서 추진 중인 복원계획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조선조 서원의 성립과 보급

서원이 처음 출연한 시기는 16세기 중엽인 중종 38년(1543)이다. 이후 서원은 점차 널리 보급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선초 이래 계속되어 온 사림의 향촌활동이 배경이 되고 있다.[19] 사림세력은 향촌질서 확립과 자기세력기반 구축을 위한 향사음례(鄕射飮禮)의 실시, 유향소(留鄕所)의 부립(復立), 사마소(司馬所)의

19) 서원의 성립과 보급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였다.
이태진(李泰鎭), <사림(士林)과 서원(書院)>, 「한국사」12, (국사편찬위원회, 1978)
정만조(鄭萬祚), <조선 서원의 성립과정>, 「한국사론(韓國史論)」8, (국사편찬위원회, 1981)
————————,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 「한국사론(韓國史論)」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부설(復設), 향약보급운동을 활발히 하여 교화와 교육을 표방함으로써 사림의 결집을 도모하고 그 구심체로서 서원이 배태되고 성립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서원이 중종 말년에 출현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동기는 관학의 쇠퇴와 사림의 성장에 있다. 선초의 관학기관은 국가의 필요상 교화적 성격보다는 과거준비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였다. 학교에 입학한 양인 자제들은 각종의 특권(역의무 등)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양인 자제의 학교입학에 따른 주요 관심사는 군역의 면제였다. 선초에는 학교입적자가 대부분 양반자제였다. 이 후 양인의 학교입학이 허용되면서 군역을 모피하고자 하는 자들이 학교로 모여들어 관학은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양반자제들의 관학기피현상을 초래한 반면에 서당, 서원 등 사학기관이 발달하게 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원은 당시의 사림파가 문묘종사운동과 교화론을 펴면서 양반중심의 향촌질서 확립과 중앙에서의 왕도정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가운데 설립된 사림의 결집체이기도 하였다. 사림은 당시의 관학이 오로지 과거공부 위주로만 운영됨에 따라 명리만 좇게 하여 사습(士習)을 부정(不淨)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학교의 수거(修擧)와 같은 외형적인 조처가 아니라 사림 스스로의 수련과 내적 성숙을 통한 자발적인 흥기를 꾀하게 하는 사림위주의 흥학책 마련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도학정치의 재현을 위한 인심의 순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향약, 소학의 보급 및 문묘종사운동을 추진하였다. 물론 조광조 등 중종대에 활약했던 사림계 관료들이 성균관과 향교를 외면한다거나 학교의 진흥에 유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신계 관료들은 학교를 중심으로한 흥학론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사림계가 지적하는 사습의 부정과 같은 문제는 사림자제

의 취학기피로 인한 관학, 특히 향교의 쇠퇴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는 비단 사습부정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관리의 충원을 위한 인재양성 차원에서도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므로 사족자제의 학교복귀를 유도하여 침체된 관학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장(師長)과 사유(師儒)의 부득(不得)이 유생의 불취학과 관학퇴이의 요인이라 하여 택사(擇師)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유생을 관학취학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학생권학절목을 마련하고 학제와 과거와의 연관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종 37년 이래로 정계에 진출한 사림은 교화책인 향약, 소학의 시행을 재론하는 가운데 거기에 대응하는 공신계 관료의 지방학제 진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서 행부사과(行副司果) 어득강(魚得江)에 의해 중국의 서원제도입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어득강은 중국에 있어서 한대(漢代)의 정현(鄭玄)이나 수(隋)의 왕통(王通), 당(唐)의 이발(李渤)과 같은 대유(大儒)에 의한 취도강학(聚道講學)의 성행을 지적하고는 그것의 토대로서 정사(精舍)나 서원의 제도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특히 송대의 주희(朱熹)가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세우고 이발의 구기(舊基)에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수축한 사실을 들면서 이러한 정사, 서원류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하예지유(遐裔之儒)가 문업(問業)치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충청, 강원, 전라도에는 한곳, 경상도에는 좌우도에 대찰(大刹)을 하나식 지정하여 도내의 명유(名儒)와 유생을 함께 취집케 하며 몇 달간씩 독서하도록 하되, 거기에 소요되는 식량과 제반경비는 주군(州郡)의 학전(學田)에서 마련토록 하고 부족한 양은 관에서 보조케 할 것이며 수령과 교수로 시관(試官)을 삼아 우수자에게 과거응시의 특전을 부여하는 등 권과제술(勸課製術)케 할 것을 요청하였다. 지금까지의 향교중심 흥학책에서 처음으로 향교가 아닌 교학기구로서 서원제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득강의 이러한 견해는 조광조계열 사림의 교화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림계가 위인지학(爲人之學)이라 하여 배척하는 사장(제술)(詞章)(製述)과 과거를 그가 중하게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같은 상소문에서 근세의 사론이 후진을 권려할 목적으로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이인을 높이고 있지마는, 그렇다고 하여 양인에게 의정(議政)의 관작을 추증한 것은 너무 외람된 일이니 일, 이등을 깎아내려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조광조계 사류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사림계의 교화론에 맞서 공신계의 흥학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쇠퇴한 향교를 보조하는 기구로서 서원의 존재가 사림계가 아니라 오히려 공신계열에 속하는 인물인 어득강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고, 내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인 바, 주세붕(周世鵬)의 서원건립은 조정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조선에 있어서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은 풍기군수(豊基郡守)이던 주세붕에 의해 중종 38년 창건되었다. 주세붕은 중종 36년 7월 풍기군수로 부임, 이듬해 관내인 순흥에 그 지방출신으로 여말(麗末)의 유학자이던 안향(安珦)을 제향하는 사묘를 세웠다. 그러나 주세붕의 비사림적 체질로 인하여 처음에는 사림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향교보조적 기구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퇴계에 의하여 서원은 사림의 강학, 장수처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면서 사림세력의 향촌활동에서의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고, 선조대 이후 사림이 정치사회학적으로 우위를 확보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나 선조, 광해군, 인조대까지만 하여도 사림에 의해 수행되는 붕당정치가 명분과 시비명변 위주로 전개되지 못하고, 또 향촌에서도 사족의 활동기반으로서 유향소, 향사, 향교, 향회 그리고 향안, 향약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서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기간에 있어서 서원은 집권세력의 도학적 정통성 부여를 위한 자파계 인물의 제향처나 사림의 확보를 위한 사림양성소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그리고 향안 등과 마찬가지로 사림간의 상호 결속을 위한 취회소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원이 정치,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그 역할이 커진 것은 17세기 후반에 들어와 붕당정치가 성리학적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명분과 의리중심으로 전환되고, 향촌사림의 여론이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 사회적으로도 임란 이후 형성되어온 족계에 바탕한 동족촌락이 이 시기 향촌사회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면서부터였다. 우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서원은 중앙의 정치문제에 대하여 향촌사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차적 거점이 되었으며 또 통교를 통하여 의론을 교환, 조정하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붕당정치는 서원을 통해 수렴된 사림의 공론이 자파계 관료나 유소봉헌을 통하여 정치에 반영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니, 요컨대 서원은 사림공론에 의한 붕당정치 실현의 기반이었던 셈이다. 현종, 숙종대의 명분론 중심의 붕당정치의 전개는 바로 이 서원에 토대하였던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서원의 건립도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한편 동족집단 내부의 상호결속과 그 동족집단의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초기의 가묘, 서당 형태에서 점차 서원의 건립으로 유도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원은 족적 기반의 중심기구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 향안, 향약 등 사족간의 결속을 보장하던 자치조직이 쇠퇴하였던 현상은 사족들로 하여금 문중적 보장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였으며 이러한 가문의식의 현저한 발휘 속에 서원의 역할도 문중 내 현조의 제향을 통한 향중에서의 벌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유지, 문중자제의 교육과 교화를 통한 문중 내

윤리질서의 유지 등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원은 붕당정치하 자파 지지세력의 확산을 꾀하는 당인들과, 중앙에로의 진출을 희구하는 향촌사림세력사이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는 매개체적 구실도 하였다. 정쟁에서 희생된 인물을 제향함으로써 각 정파는 명분의 정당성과 여론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고 향촌사림은 이를 통하여 중앙관인과의 연결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붕당정치의 이러한 경향과 향촌사회에서의 가문 동족의식의 부상은 결과적으로 사림간의 공론과 명분론 자체를 퇴색시켰다. 그러므로 서원 역시 숙종말 영조대에 와서는 폐단이 보다 두드러지게 되어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고 끝내는 단지 족당기지로 화하고 대민작폐의 온상으로 변모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2. 문봉서원의 창건

문봉서원은 조선조 숙종 14년(1688)에 건립되어 35년(1709)에 왕으로부터 사액(賜額)을 받은 고양군 최초의 서원이지만 현존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건립과 사액시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20]과 「동유서원총록(東儒書院叢錄)」건(乾)[21]의 경기도 편에 의거해 보더라도 그렇고, 기타 「서원가고(書院可攷)」[22]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서원총록(書院叢錄)」을 보면, 숙종 17년(1691) 10월 21일 특진관(特進官) 유하익(兪夏益)이 계(啓)한 바에 따르면 고양 유생들이 선정신(先正臣) 남효온(南孝溫), 김정국(金正國), 기준(奇遵), 민순(閔純)의 사우(祠宇)에 정지운(鄭之雲)과 홍리상(洪履祥)을 배향하고 사액해

20)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1) 「서원지총서(書院誌叢書)」1, <동유서원총록(東儒書院叢錄)> 건(乾), (민족문화사, 1987)
22) 「서원가고(書院可攷)」, (규장각도서, 136)

줄 것을 진소(陳疏)하고 있다.[23] 이 계는 유하익이 남효온의 외손으로 사실 외선조인 남효온이 배향된 사우의 추배(追配)와 사액을 청하였을 경우 혐애(嫌碍)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소관을 차관(次官)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청하는 것이었다. 이때는 이현(二賢)의 추배만 이루어지고 사액은 허락되지 않았다.

2년 후인 숙종 19년에 진사 유재중(兪載重) 등이 올린 상소를 보면

> (전략) 四賢之德馨在人 多士之景靡已 曾在辛卯年間以建祠 崇奉之意 仰伸之懇 特蒙允許 經紀材力 爰作妥靈之所 而故處士鄭之雲(중략) 故以四賢竝享 而二臣亦配 願賜扁額 以慰士林之望(하략)[24]

라고 한 것처럼 남효온 등 4인에 대한 사인(士人)의 경모가 그치지 않아 신묘년간(효종 2년, 1651)에 이미 이들의 사당(사우)가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때 편액의 하사를 청했으나 당시 서원의 난립과 이를 청하는 예가 많아 일단 보류되었다. 여기에서 문봉서원은 사우가 점차 발전하여 숙종 14년에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유하익의 계나 유재중의 소에는 문봉서원의 호칭보다는 오히려 이를 사우라 칭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위와 같은 계나 소 그리고 사액 이전에 이미 문봉서원이 건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문봉서원에 대한 사액이 숙종 35년에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때 숙종이 지어주었다고 하는 제문을 보면, 건립과 사액시기는 더욱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먼저 그 내용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숙종어제(肅宗御製) 치제문(致祭文)

---

23) 「서원담록(書院謄錄)」 권3, 숙종 17년 신미(辛未) 10월 21일조
24) 상게서 권3, 숙종 19년 계유(癸酉) 12월 26일조

덕성이 모인 곳 예부터 고양이라. 진주못 기(杞)덤불 군자의 고을일세. 고요를 익히는 오두막집이 있어 참됨을 감추고 성정을 길렀도다.

난향(蘭香)을 못 감추고 소명을 받들어 여러 번 나갔더니, 백립(白笠)을 쓰기로 제도를 정하여 이 나라 상례(喪禮)를 바로 잡았더라.

아! 그 처사(處士) 기절(氣節)도 당당하네. 학문은 연원 있어 종적(踪跡)은 명장(名場)을 벗어났네. 소릉(昭陵)을 회복하자는 한 소장(疏章)은 늠름하기 추상일세.

시랑(侍郞)은 명철하여 휴형(休亨)에 늦게 갔네. 관직을 뜬구름같이 여기고 성현이 끼쳐준 글 가태 같이 즐겼도다. 나아감과 물러남을 때에 따랐으니, 사림의 법도가 되었도다.

강직한 시강(侍講)은 당세의 진유(眞儒)였네. 맑은 것 드날리고 탁한 것은 떨쳐 당우(唐虞)로 회귀코자 뜻하였네. 단호(短弧)의 활시위를 가만히 당겨 쏘니 품어온 깊은 한을 천대(泉臺)에 쌓았도다.

정추만, 홍모당이여 김모재, 만행촌 두 스승 문하에서 일찍이 배웠거니, 주역의 깊은 뜻 골똘히 파헤쳐, 무짐(無朕)이 묘한 이치의 속 깊이 탐구하고 천명을 도식으로 밝히니, 대현(大賢)이 칭송하고 끌어올리네. 이치가 정치하고 미묘함을 다하니 그 현묘함이 스승의 뜻에 맞도다.

강론하는 자리에서 모책을 진달하니 천은의 내리심이 저으기 지극했네.

여기에 어진 이 여섯 분, 먼저하고 뒤하여 한 골에서 태어났네. 학문은 이미 도를 지키고, 행실 또한 미풍을 만들었다.

어진 이의 남긴 풍도가 충만함이 어제인 양하여 수많은 선비들이 흠모의 정을 일으켜 이 자리를 가려서 사당을 세웠도다.

장수(藏修)할 자리를 얻어서 세월이 흐른지 이미 오래라. 이제사 상소한 뜻을 맞추어 마땅히 현판을 걸고 이 같은 사연을 신하시켜 고하노니, 답지 못한 제물이나 기꺼이 흠향할지어다.[25]

위의 제문은 지제교(知製敎) 정사신(丁思愼)이 지은 것으로 숙종의 석탄과 만회를 제외한 6현에 대한 흠모의 정과 그들의 인품 및 학문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제문이 문봉서원 사액시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시기는 을축(숙종 11년, 1685) 8월 29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오기(誤記)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정사신은 숙종 17년(1691)에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라는 사실로만 보아도 그렇다.[26] 그러면 숙종의 치제문은 과연 문봉서원 사액시에 내린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제문 전두(前頭)에 석탄(石灘) 이신의(李愼儀)와 만회(晩悔) 이유겸(李有謙)을 추향한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석탄과 만회의 추향은 유학(幼學) 신필(申泌) 등이 숙종 45년(1719)에 올린 소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27]

이상에서처럼 문봉서원의 건립과 사액시기는 모호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유학 신필 등의 소에 의하면 석탄과 만회를 추향토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하면서 구체적으로 문봉서원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이미 문봉서원이 건립되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숙종이 내린 제문은 사액 뿐 아니라 석탄과 만회의 추향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면 「풍홍보감(豊洪寶鑑)」의 연대기록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문봉서원의 명칭은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숙종의 사액 이전에 결정되어 숙종 45년에 편액이 하사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숙종 14년에 창건되었다고 하는 문봉서원의 건립시기도 숙종 19년에 올린 유재중의 소에서 이를 사우라 칭하는 것으로 보아 의문이 아닐 수 없으나, 그 기원은

---

25) 「풍홍보감(豊洪寶鑑)」

26)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태학사, 1988), 숙종조 신미(辛未) 17년 증광방(增廣榜)

27) 「석탄집(石灘集)」곤(坤), 연보(年譜)

효종 2년으로 소급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사우와 서원은 조선후기에는 이미 그 구분이 유명무실해져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고양8현의 제향 및 사회적 역할

문봉서원에는 소위 '고양8현'이라고 불리는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데 행촌 민순, 남효온, 사재 김정국, 복재 기준, 추만 정지운, 모당 홍리상, 석탄 이신의, 만회 이유겸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서원에의 배향은 그 선후가 있게 마련이며, 지역적 세력기반의 성쇠에 따라 입출배(入出配)가 있었는데 문봉서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지(京畿誌)」(1842~1843)의 고양군편을 보면, 문봉서원에는 8현이 아니라 서호산인(西湖散人) 혹은 서호효창(西湖曉窓)이라 불리는 신효(申曉)가 추가되어 9현이 배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 이 기록을 보면, 신효는 군의 남쪽 30리 지경인 구지도면(求知道面) 강고산(江古山)에 그의 묘가 있는데 그는 '寓居本朝 擢魁科以司諫院正言罷歸村野不仕 自號西湖散人'이라고 하여 조선 태종 2년(1402) 임오방(壬午榜)에 문과 장원을 하였다.[29] 그는 우정언(右正言)에 이르렀으나, 태종조에 왕지(王旨)를 거스르고 행주로 퇴거하였다. 그 후 성문(城門)에 일체 자취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신효는 평산인(平山人)으로 대제학 즙의 손자요, 세종 때의 상신 인재공(寅齋公) 개(槪)의 제(弟)이다. 평산신씨의 시조는 고려 개국공신인 장절공(壯節公) 신숭겸(申崇謙)으로 효는 그의 14세

---

28) 「읍지(邑誌)」10, 경기도 1, 경기지(京畿誌) 제2책, 고양군읍지(高陽郡邑誌), (아세아문화사, 1985)

29)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p.106 참조

손으로 이때에 이르러 평산신씨도 11개의 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효는 정언공파(正言公派)의 파조(派祖)가 된다.[30]

사람들은 신효를 칭하기를 인재공보다 낫다고 하고 다투어서 공을 천거하였다. 그러나 신효는 병세(竝世)를 거부하고 수신에 전념하였다고 한다.[31] 그 후 노이(盧異)와 이양명(李陽明)으로 더불어 헌부로부터 추핵당하였다고 한다. 노이와 이양명(초명(初名) 경생(敬生))은 태조 병자년에 생원들로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각각 정언과 사예(司藝)에 이르렀다.[32]

14C~15C의 인물인 신효가 문봉서원에 추배된 것은 군지의 기록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0년이 지난 후의 일이 된다. 그러나 그의 추배에 대한 관계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전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군지의 기록을 자못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관력과 인품, 그리고 그 후손의 성장정도 및 고양에서의 세거 여부 등으로 보아 8현의 배향 이후 일시적으로 추배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경위는 자료가 없어 잘 알 수가 없다.

고향 8현의 위차(位次)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민순, 남효온, 김정국, 기준이 가장 먼저요, 다음이 정지운, 홍리상 그리고 이신의, 이유겸 순이다. 그러면 고양8현에 대한 당시 고양군 내의 유림들의 인식은 어떠했는가. 서원의 건립과 추배의 주체세력은 누구이며,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어떠했는가. 이것은 문봉서원의 사회적 역할과 실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를 추배소를 통하여 살펴보자.

진사 유재중 등이 올린 상소를 보면,

---

30) 「평산신씨족보(平山申氏族譜)」

31)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신흠(申欽) 찬(撰), 묘비명

32)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p.98 참조

선정신(先正臣) 민순(閔純)은 학문을 함양한 공과 출처거취의 바름이 탁탁(卓卓)하여 사람이 가히 미칠 수 없는 것이 있다. 남효온은 청조준절(淸操峻節)하여 진실로 백세의 스승이요, 김정국은 도덕의 연원이 기묘제현(己卯諸賢)의 추중(推重)한 바가 되었으며, 기준은 충효대절(忠孝大節)하여 죽음에 임했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다.(중략) 고처사(故處士) 정지운은 정국의 문인이요, 고대헌(故大憲) 홍이상은 순의 문인으로 모두 강도(講道)의 공이 있다.(하략)[33]

라고 하고, 숙종 4년(1719) 9월 18일에 고양유학 신필(申泌) 등이 올린 상서에는 이신의와 이유겸에 대하여

고참판(古參判) 이신의는 선정신 민순의 고제(高弟)라. 광해군의 모후유폐에 신의는 붓을 떨쳐 헌의하니 회령(會寧)으로 유배되었다. 인조반정으로 발탁되어 질(秩)을 높이었다. 선정신 김장생이 칭하기를 그 사우는 연원이 있으며, 몸을 강상에 맡겼다고 하고, 선정신 송시열이 칭하기를 그 학문의 공이 크며, 웅어(熊魚)를 취사(取舍)할 줄 알았다고 하였으니 이 모두는 불역지론(不易之論)이라. 고참판(高參判) 이유겸은 처음에 조수륜(趙守倫)의 문하에서 놀고 후에 김장생에게 나아가 배우니 장생이 칭찬해 마지 않았다. 광해시에 항소하여 피고되고 계해에 김집(金集), 성문준(成文濬) 등과 함께 유일지사(遺逸之士)로서 피천되어 바로 현재(懸宰)에 제수되어 영읍(嶺邑)에 있게 되었다. 인조시 강명렴간(剛明廉簡)으로써 포상받았다. 송시열이 그 비문을 찬하였는데 담옹(潭翁)의 계통을 잇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였으니, 담옹은 곧 선정신 이이(李珥)라.(하략)[34]

라고 하여 고양8현에 대한 당시 유림들의 인식이 그대로 잘 나타

33) 「서원담록(書院謄錄)」권3, 숙종 19년 계유(癸酉) 12월 26일조
34) 상게서 권5, 숙종 45년 기해(己亥) 9월 18일조

나 있다. 즉 고양8현은 도학적 연원이 바르고 깊은 관인이요 학자로서 모현존사(慕賢尊師)할 만한 인물들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이 문봉서원에 제향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추만과 모당 그리고 석탄과 만회의 추배가 일향(一鄕)의 공공지의(共公之議)에서 나왔으며, 또한 다사(多士)의 존모지성(尊慕之誠)을 위무하는 방편에서 사액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문봉서원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먼저 사묘가 건립되고 나서 이에 출입하는 유생의 장수를 위하여 서원이 건립된 것으로 서원은 사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묘는 존현을 통한 교화의 수단이므로 결국 서원건립의 근본 동기는 교화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홍계적(洪啓迪)이 찬한 석탄과 만회의 '추향소'를 보면,

> 尊崇儒賢 表章節義 有國之常典 風化之所關也(중략) 凡道可以楷模多士行可以風俗 百代者必建祠而俎豆之 賁額而褒奬之 鄕無不享之賢(중략) 其所以修擧彝典 樹之風聲者 於是乎殆無餘憾矣 然而草野學問節行之士 或有年代已遠未及登聞 而崇表之典有所未加者 則斯豈非聖世之闕事 而士林之羞恥也[35]

이라고 하여 유현(儒賢)을 존숭(尊崇)하고 절의(節義)를 표장(表奬)하는 것은 국가의 상전(常典)이요 풍화(風化)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촌에서는 사묘를 세워 유현(儒賢)을 제향하고 있는데, 이들 초야(草野)의 학문과 절행(節行)이 있는 선비를 등문(登聞), 숭표(崇表)치 않으면 이는 성세(聖世)의 궐사(闕事)요 사림(士林)의 수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원의 향촌교화는 관학, 즉 향교의 피폐에 원인이 있다. 고양향교는 태조 7년(1398)에 먼저 문묘로서 벽제면(碧蹄面)

---

35) 「석탄집(石灘集)」곤(坤), 홍계적(洪啓迪) 찬(撰), 고양장보추향문봉서원소(高陽章甫追享文峯書院疏).

대자리(大慈里) 향교곡(鄕校谷(향교골))에 창건되었다. 이것이 언제 교육기관으로 발전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고양향교는 3년 후에 재건되었으나, 숙종 15년(1689)에 고양리로 이설하였다.

향교의 입학은 양인자제들에게도 허용이 되었다. 관학생은 각종의 특권, 특히 국가로부터 부과되는 역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이들의 최대관심사는 군역의 면제였다. 조선 중기 이후의 방납의 폐단 등 사회경제적인 모순은 양인의 피역을 부채질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향교모속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향교가 피역의 소굴로 화하면서 양반 자제들은 향교의 입록을 기피하였다. 그리하여 양반들은 관학의 부흥과 교화의 구심체로서 서원의 설립과 그 보급이 활발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원유, 원생을 칭하면서 과거를 준비하고 역을 면제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에 더욱 극심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고양향교는 관련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추측된다.

맺 음 말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개략적으로나마 문봉서원의 건립과 발전과정 그리고 그 사회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서원은 지방사족의 동향과 향촌사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별, 유형별 사례연구가 많은 경험을 통하여 필요불가결한 방법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도 또한 알고 있다. 즉 사료의 편린이라도 당시의 역사적 추이와 실상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정한 제약적 조건이 수반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서원에 대한 개별연구도 문중과 지방의 특징적 제약 하에서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다행히 문봉서원에 제향된 고양8현이 도학적 성리학자요 지치(至治)의 구현을 추구하는 관인으로 후학의 양성과 학행의 모범을 보였고, 이들의 유덕을 본받으면서 강학과 교화를 위해 유림의 중의를 모아 서원이 건립된 것은 서원 본래의 목적과 의의에 어긋남이 없다. 그러나 간혹 문중(가문)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계기로 씨족 혹은 가문간의 대립과 경쟁을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도 노정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점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서원은 어느 특정한 한 가문의 위상을 높이려는 이기적 목적물로 이용되기 보다는 반대로 존현을 통한 교화의 수단임을 알고 각 지방의 서원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서원을 복원하는 진정한 의미와 그 존재가치 및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조 선비와 문봉서원 팔현(八賢)

윤 사 순[36]

문봉서원은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문봉리에 세워졌던 서원이다. 숙종 14(1688)년에 창건되어 숙종 35(1709)년에 사액(賜額)까지 받은 서원이었는데, 고종 2(1865)년 대원군의 서원철폐 정책으로 훼철되었다. 문봉서원은 조선후기에 연천(연천군(漣川郡) 백학면(百鶴面), 고랑포리(高浪浦里))의 임강서원(臨江書院, 1680~1864)과 아울러 서울근역(洛下)의 인재를 많이 길러낸 서원으로 손꼽히던 곳이다. 이 서원이 고양에 자리했던 까닭에, 이 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과 관련있는 현인들을 제향 존모하고 있었다. 그렇게 배향된 현인들이 이른바 「고양팔현(高陽八賢)」으로 일컬어지는 다음 여덟분이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단종2, 1454-성종23, 1492),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 성종17, 1485-중종36, 1541), 복재(服齋) 기준(奇遵, 성종23, 1492-중종16, 1521),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 중종4, 1509-명종16, 1561), 행촌(杏村) 민순(閔純, 중종14, 1519-선조24, 1591), 모당(慕堂) 홍리상(洪履祥, 명종4, 1549-광해7, 1615), 석탄(石灘) 이신의(李愼儀, 명종6, 1551-인조5,

---

36) 고려대 철학과 교수, 철학박사

1627), 만회(晩晦) 이유겸(李有謙, 선조19, 1586-현종4, 1663)

어진 사람이라는 의미의 「현인(賢人)」이란 「군자」, 「인인(仁人)」및 「선비」와도 통하는, 특히 「선비다운 선비」가 곧 현인이다. 「성인」이 이상인(理想人) 중에도 완전무결하다고 상정된 다분히 가상적 이상인데 비해, 현인·군자·선비는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 이상인이다.

이러한 이상적 인간상이 항상 유학에서만 말하여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유학의 이상인으로 지칭되는 것이 상례이다. 특히 팔현(八賢)은 분명히 유학, 그중에도 조선시대의 통치원리였던 성리학의 입장에서(현인을) 말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상이 아무리 이상시되었을지라도, 지난날의 인간상인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조선시대라는 시대배경이 이 점을 증언해 준다.

그러나 전시대의 유학이라 하여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학에 기초한 현인, 군자 또는 선비도 결함만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인간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임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그릴 때, 우리는 오늘의 인간상을 점검해 보기도 하지만, 흘러간 인간상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인의 전형을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일환으로 찾아보게 된다. 현인으로 평가된 선비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그러한 인물들이 조선시대라는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여기 팔현은 어떤 측면으로해서 현인의 호칭을 듣고 존중받게 되었을까?

선비(士)의 의미는 일정하게 규정되어 오지 않았다. 굳이 캔다면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지적과 같이 「독서인(讀書人)」이라는 이해가 대체적인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러한 뜻에서는 오늘의 지식인 내지 지성인에 해당하는 용어가 곧 선비였다고 할

수 있다. 독서에 의하여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력과 경세술을 가졌기 때문에, 선비는 과거를 거치든 않든 일정한 벼슬아치가 되게 마련이었다. 「사(士)」라는 말이 흔히 「대부(大夫)」라는 말과 짝하여 「사대부(士大夫)」로 일컬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사대부로 일컬어질 경우, 선비는 곧 양반에 속하였던 것이 또한 조선시대의 현상이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리 및 관리 후보로서의 양반·지배층의 지식인 내지 지성인이 곧 조선시대의 선비였다.

그러나 선비와 관리가 결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선비가 관리로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될 자질이 갖추어진 다음 여건이 허락할 때 하게 될(達則兼善天下) 뿐, 결코 관리를 종국의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 선비에게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선비로 되게 하는 근본 필수요건은 지식의 추구와 더불어 수양에 의한 덕의 겸비이다. 유덕(有德)의 조건이야말로 독서와 더불어 선비의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다. 부덕한 인간은 아무리 지식을 축적했더라도 선비로 특히 현인, 군자라는 선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공자는 그렇게 지식만을 쌓은 재승박덕(才勝薄德)한 인간을 가리켜 군자와 반대되는 의미의 「소인(小人)」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선비로 인정받는 데에는 유덕의 조건이 오히려 지식 이상으로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비로 되는 데에는 덕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었다는 점에서 선비는 한낱 관리를 지향하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관리조차 초월하는 차원에서, 현실을 폭넓게 깊이 있게 진단하면서, 국가·사회를 이끌어가는 철인(哲人) 기질의 지성인이 곧 선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선비를 되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선비정신의 이러한 점에 있다.

공자는 인간을 인간답게 또는 선비를 선비답게 하는 덕을 세

가지 들었다. 「지(智)·인(仁)·용(勇)」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들이 덕 중에 가장 중요한 것(三達德)이다. 그리고 이 셋 중에도 대표적인 한 가지만 익히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마련인 덕이 곧 「인(仁)」이다. 이 인에 대한 공자의 이론이 그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게 된 연유도 여기에 있다.

덕을 쌓는 일은 물론 자기 수양 즉 수기(修己)의 실천이다. 공자에 의하면 덕 중에도 인의 덕을 쌓는 수양은 바로 자신의 본능적·이기적 욕구를 이겨내고 예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克己復禮爲仁)이다. 인을 성취키 위한 수양에서는 본능적·이기적 욕구를 이겨내는 일과 예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요체를 이룬다. 이기적 욕구의 극복이 실상 예에 합치되는 행위의 전단계이고 보면, 예에 합치되는 행위와 실천이 인을 성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자가 일찍이 "군자는 예를 터전으로 하여 선다"(君子立於禮)고 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그의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살피면 선비는 독서 이전에 우선 이기적 욕구를 극복하고 합례적(合禮的) 행위를 할 수 있는 높은 윤리의식 또는 도덕적 품격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행(禮行)에 의한 도덕적 품격을 갖춘 위에 지식의 습득이 남 못지않을 때 선비로서 인정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선비에게서 예가 중요시된다고 해서, 형식적인 예에 치중하는 것이 곧 선비라 이해하면 곤란하다. 대체로 어느 경우에나 지나침은 모자람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공자였던 까닭에, 그는 인위적으로 개발된 측면(문, 文)과 함께 타고난 바탕(질, 質)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야 군자(文質彬彬爲君子)라고 하였다. 이 때의 타고난 바탕을 공자는 본능적 욕구라고만 생각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것을 그는 정직함(직, 直) 즉 순박한

질직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에 한다면, 결국 선비를 선비답게 하는 조건은 덕으로 불려지는 원만한 인격의 소유임을 알게 된다.

원만한 인격의 덕을 중요시하는 데서 공자 이후 유학자들은 중용(中庸)의 정신을 역설하였다. 중용은 「지나침(過)과 모자람(不及)이 없는 것」이며, 「어느 한편에 기울거나 치우침이 없는 것」(불편(不偏)·불의(不倚))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때(時)와 장소(處)에 적합한 법도에 들어맞음(時中)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기울고 치우침이 없다는 것은 편견·편애가 없음, 즉 공평무사(公平無私)함을 의미한다. 중용정신의 이러한 특성은 결국 함께 더불어 행동하되, 마찰과 갈등을 일으킴이 없이 잘 조화로운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공자는 말하길 "군자는 남과 더불어 잘 조화하지만 패거리를 이루지는 않는다"(和而不同)고 하였다. 한패를 이루면서도 화합하지 못하는 것(同而不和)은 이른바 소인의 생활태도이다.

선비다운 특징이 이와 같이 중용정신으로 이름지어지는 원만한 인격인 것을 자칫 오해하여, 주관과 지조 없음 따위로 짐작하면 아니 된다. 오히려 원만한 인격은 뚜렷한 주관, 지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확실한 주관과 지조 자체가 인격의 뒷받침을 받고서 가능함에 주의해야 한다. 주관과 지조 자체가 인격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공자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유의할 만하다. "삼군을 거느리는 장수는 빼앗을 수 있어도, 필부의 뜻(志)은 빼앗을 수 없다"(三軍可奪帥 匹夫不可奪志也))는 것이다. 평범한 필부를 두고도 이렇게 말하는 정도이고 보면, 선비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선비의 경우야말로 아예 지절에 살고 죽는 인간임에 틀림없다. 맹자가 말한 호연(浩然)의 기개(氣槪)를 지닌 대장부의 후보가 곧 선비라 하겠다.

이러한 지절(志節)과 기개는 선비에 있어 맹목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그 지절과 기개는 항상 지향하는 바가 있다. 이미 선비는 여건에 따라 관리로 된다고 하였듯이, 바람직한 경세(經世)를 목적으로 하여 그것들이 발휘된다. 원래 유학(儒學)은 수기(修己)와 더불어 안인(安人)((치인(治人))을 이상으로 삼는다. 때문에 덕을 쌓는 수기의 과업 없이 일정한 수준에 오른 다음에는 안인(安人)의 이상을 펴고자 한다. 이때 안인(安人)하는 방법은 반드시 관리로 되어야 하는 식으로 일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평민의 입장보다는 관리의 입장이 더 적극적으로 그 이상을 펼 수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안인(安人)하는 경세(經世)의 이상적 꿈을 위해 얼마나 열정을 바치느냐가 선비의 선비다움을 좌우한다.

공자도 지적하였듯이 원래 사람다운 사람(군자)은 학문(道)을 배울수록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못난 사람(소인)은 배울수록 남을 잘 부려먹으려 든다. 이기적인 욕구를 이겨내는 수양으로 덕을 쌓은 선비는 어떻겠는가? 선비야말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仁人)이다.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비는 남들과 화합하려 노력하고, 남을 위해 사리사욕을 뛰어 넘는다. 한마디로 해서 이(利)보다 의(義)를 생각(견리사의(見利思義))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마저 희생(살신성인(殺身成仁))하기를 주저치 않는다. 여기서 「봉공(奉公)」의 정신이 곧 선비의 정신이 된다. 봉공에 투철한 까닭에, 선비가 곧 「나라의 으뜸되는 힘」(國之元氣)이라고 믿게 된다. 나라를 떠받드는 근본적인 힘, 그것이 곧 선비라고 옛사람들은 확신하였다.

이제 과거 우리나라에 실제로 생존했던 선비를 살펴, 우리의 구체적인 선비의 모습과 선비의 정신을 확인하기로 하자.

우리의 역사에서도 유학에 입각한 선비의 모습을 고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유학이 고대 삼국시대부터 도입·수용되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역사상 선비의식이 유학에 의해 가장 강하게 부각·강조된 것은 성리학이 관학 내지 통치원리로 채택된 조선조에서의 일이다. 특히 15·16세기 사화기(士禍期)라는 한 시대의 주역으로 활동한 일련의 인물들이 사림파라는 역사상의 특수 인맥 또는 집단을 형성하고부터, 바람직한 선비와 그 정신에 대한 각성이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여졌던 것이다.

역사학에서는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1482-1519)·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 등을 사림파의 학자, 즉 선비의 전형으로 꼽고 있다. 다만, 이 중에도 더 엄격히 말한다면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활약한 이른바 전기 사림파 학자들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이 사화기의 주역이었던 점에서, 더욱 선비의 전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전기 사림파 학자들로 눈을 돌릴 때, 필자는 특히 한훤당(김굉필)과 정암(조광조)을 주목하고 싶다. 왜냐하면 서로 스승과 제자 관계인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사화의 격랑에서 목숨까지 잃을 만큼, 선비로서의 소신에 철저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아래에서 보듯 선비로서는 대조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훤당은 세조의 왕위찬탈을 조의제문(弔義帝文)으로 비판한 점필재(김종직)의 문인으로, 45세(연산4년)와 51세(연산10년) 때에 각각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겪었다. 그만큼 사화에 시달린 인물이다.

이러한 한훤당이 지니고 있던 독특한 면모는 <소학(小學)>을 남달리 중요시한 점이다. 그의 소학 중시는 스승인 점필재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라고 전해지지만, 아무튼 그는 일생동안 소학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30세 무렵까지는 이것 외의 다른 글을 읽

지 않을 정도로 소학의 학습과 실천에 철저하였다. 그의 소학 중시경향은 심지어 30세무렵까지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임을 자칭하는 정도였고, "글 공부를 하고서도 천기(天氣)를 알지 못하다 소학 책 중에서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네"(業文猶未識天氣小學書中悟昨非)라는 시를 남기는 것이었다.

소학이란 주희(朱熹)의 문인인 유청지(劉淸之)가 지은 책으로, 입교(立敎)·명륜(明倫)·경신(敬身)·계고(稽古)의 네 편으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마음가짐(心術之要)과 몸가짐(威儀之則)을 비롯하여, 오륜(五倫)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다. 이러한 소학은 결국 성리학적 율신(律身) 수기(修己)를 가르치는 성격의 서적이다. 그러므로 한훤당의 소학 중시경향은 곧 소학에 의거하여 수기적(修己的) 의리(義理)의 실천에 모범을 보인 의미를 지닌다. 사실 소학 내용의 자발적 적극적 실천은 당시 선비사회의 공통적인 풍조였다. 조정에서도 물론 그것을 장려하였지만, 선비사회의 자발적인 실천의 적극성이 조정의 시책을 앞질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소학 실천의 면모는 분명히 당시 선비의 공통적 면모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한훤당의 소학 중시가 결코 맹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소학과 관련되는 그나름의 자기 수양(修己)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다른 일반 학자들보다 그가 좀 더 돋보이는 이유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고요함(靜)을 움직임(動)의 기틀(靜者動之基也)로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움직임의 성질 즉 양(陽)의 성질을 가진 하늘(天)이나 해(日)는 땅(地)이나 달(月)의 음(陰)을 기틀로 하기 때문이다. 인의예지(仁義禮智)의 행위를 해야 하는 인간의 경우라 하여 예외가 아니다. 인간이 부당한 행위 즉 망동을 범하지 않기 위해, "정(靜)을 위주로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靜)을 위주로 하는 수기(修己)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래 이기적인 악(惡)을 없애는 일은 「마음을 바르게」(正心)하고, 「본성을 따르지」(率性) 않고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선을 행하려는 윤리 도덕의식이 있는 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본성을 따르는 수기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도덕행위인 「인의예지 효제충신」은 근본적으로 경(敬)과 성(誠)이 없고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敬)과 성(誠)의 마음가짐 역시 수기의 구체적 항목으로 요청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같은 한훤당의 행동과 사상을 종합한다면, 결국 수기의 철학을 가지고 그 실천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수기적 의리의 구현에 앞장 선 선비가 바로 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훤당으로 해서 사림파의 선비정신은 철저한 수양에 의한 고상한 인품 내지 고고한 인격의 형성을 하나의 필수 요건으로 꼽게 되었다. 사실 조선조 유학인 성리학은 일명 의리지학(義理之學)이니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 변칭될 만큼, 올바른 행위를 위한 도리의 추구와 그 실현을 가장 중요시한 학문이었다. 때문에 성리학으로 교육받은 선비일수록 철저한 수양에 의하여 도덕 법칙으로서의 의리의 인지와 그 실천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였던 것이다.

사화로 귀양살이하는 한훤당을 17세 때에 만나, 그 문인이 된 정암(靜庵, 조광조)의 경우는 선비로서 또 다른 면모를 보인다. 정암은 무엇보다도 이상정치를 의미하는 지치(至治)를 역설·지향하여, 수기(修己)보다 경세(經世)의 치인(治人) 측면에 남긴 업적으로 선비다운 면모를 보인 학자이다.

유학에서의 이상적 정치는 공자·맹자에 의해 제시된 인정(仁政)·왕도정치로서의 덕치(德治)·예치(禮治)이다. 이것을 정암은 때로 지치(至治)로 부르거나 도치(道治)라고도 한다. 그는 이것을 군왕의 「정(正)」과 「선(善)」에 의한 정치라고 풀이한다. 이러한 정(正)과 선(善)의 정치를 역설한 까닭은 아마도 그 직전의

연산군의 타락과 횡포로부터 받은 충격 때문일 것이다. 연산의 타락 횡포에 대한 반정(反正) 정권인 중종정권에서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정암은 그 반정 정권의 정책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그에 의하면 군왕이 실행해야 할 정(正)과 선(善)은 바꿔 말해 「의(義)」와 「공(公)」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정암은 올바른 정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군왕이 항상 의(義)와 리(利), 공(公)과 사(私)를 분명 엄격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테면 사(私)와 이(利)에서 벗어나 의(義)와 공(公)을 위하고 의와 공의 입장에 서려는 태도가 정치에 임하는 기본 태도임을 주장한다.

군왕이 취하는 공과 의의 입장은 결국 자신의 사리사욕과 반대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입장이다. 위민(爲民) 애민(愛民) 이민(利民)이라는 말을 이런 맥락에서 그는 무수히 되풀이한다. 공자 이래 유학의 이상적 정치가 곧 민본(民本) 위민(爲民)의 성격을 띤 정치임을 그는 다시금 분명히 한다. 군주 관리 등 지배층은 국민을 위하려는 목적에서 있게 된 이외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배층은 항상 이 점을 마음에 새겨두고 통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민(爲民)의 시각에서 펼쳐야 하는 구체적 시책으로는 공부(貢賦)의 경감을 으뜸으로 꼽는다. 당시 민생이 곤궁한 까닭은 무엇보다도 부세(賦稅)가 과중하기 때문이고, 특히 부패한 관리들이 공납을 과중히 징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납을 경감시키는 일이 곧 민생을 도탄에서 구출할 수 있는 첩경임을 그는 역설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까지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公)의 입장에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은 군왕 뿐 아니라 관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현인과 군자의 선별과 간택이

이런 맥락에서 중요시된다. 사리사욕만 좇는 불현(不賢) 소인(小人)을 버리고, 봉공(奉公)정신에 투철한 현인·군자를 찾고, 그들을 중신(重臣)으로 중용할 것이며, 중용 후에는 믿고 일을 오랫동안 맡겨야 한다. 현인을 중용하고, 큰 일을 맡기느냐 못하느냐에 군왕의 현명이 달렸다고 그는 주장한다. 당시 현량과(賢良科)는 바로 그의 이러한 의지에서 설치된 것이다.

어진 이를 필요로 하는 까닭은 그의 어진 생각과 바르게 내놓는 말이 정책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왕이 만능이 아닌 이상, 아무리 군주체제를 이상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보필자로서의 현관(賢官)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암은 어진 생각과 바른 말이 제대로 전달될 언로(言路)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 확장을 역설한다. 언로가 트이고 막힘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것이 거의 주장이다. 간언(諫言)을 맡은 신하는 소신대로 기탄없이 솔직히 무슨 일이든 다 말해야 하고, 군왕은 또 그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인·군자가 곧 선비(士)이고 보면, 그 집합인 사림(士林)이야말로 인재 배출의 터전인 셈이다. 정암이 군왕에게 사림의 보호를 건의한 것도 이 같은 뜻에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사화로 인해 사림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음을 개탄하면서, 사림파 학자답게 사림을 아끼고 정책적으로 존중할 것을 건의한다.

정암은 연이은 사화 후 사대부의 기개, 즉 사기(士氣) 또한 저하되고 침체 일로에 있음을 직시하면서 그 진흥책을 제시하였다. 그 한 예로 사화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김일손(金馹孫)·김굉필(金宏弼) 등의 증작(贈爵)과 문묘종사(文廟從祀)를 건의·실현케 하는 한편, 반정(反正) 때에 부정하게 받은 공신호(功臣號)를 바로 잡도록 한다. 훈구대신의 세력을 감소시키는 이 공신호의 개정이 곧 그의 정적을 대량 증가시킨 계기가 되었다. 부정과 맞서는 것은 그의 생리와도 같은 의리구현의 방도였다.

그는 선비의 권리 못지 않게 그 책무도 강조하였다. 오히려 책무의 이행에 더 치중한 느낌을 들게 한다. 원래 선비란 나라를 떠받드는 동량이라는 뜻에서 흔히 「나라의 원기(元氣)」라고 함을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그 역시 이러한 선비관을 계승한다. 그리하여 이상적인 정치가 실현되고 안 됨은 오직 선비의 기풍인 사습(士習)의 건전함 여부에 달렸다고 한다. 말하자면 선비의 책임은 봉공(奉公)인 까닭에, 그 책임을 다할 때 민생이 향상되고 마침내 국가가 흥성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뜻에서 그는 당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곧 사습(士習)의 부정(不正) 부화(浮華)로 간주하고, 국가 장래를 우려하여 그 교정을 꾀하였다. 그의 유신(咸與維新)에 대한 발언이 바로 그 사습의 교정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선비들의 건전한 의식개혁으로 그는 유신을 제창하였다.

의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룬 정암의 업적으로, 당시 그에 의해 추진된 소격서(昭格署)의 혁파를 들 수 있다. 조선 초 성리학의 관학(통치원리)화와 더불어 적극 불교를 배척하였던 까닭에, 이때에는 불교보다 도교가 문제시되었다. 성리학자들이 이단시하는 도교가 별로 배척되지 않아 이때까지 그 총본산인 소격서가 엄존한 상태였으므로, 정암은 그것을 문제삼았던 것이다. 소격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도교의 신앙활동을 그는 불건전한 정신적 해독의 원천으로 판단하여, 마침내 도교배척의 일환으로 그것을 혁파시켰다. 반면 그는 향약운동을 적극 전개, 성리학적 예속의 시행을 강화하여 나아갔다. 이 향약운동을 통한 예속시행의 적극화는 물론 통치원리의 국민의식화, 즉 일종의 국민윤리 보급의 적극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상과 같이 정암은 성리학적 이상정치의 실현을 위해 여러 개혁책을 실천에 옮겼다. 反正정권에서 개혁을 통한 이상정치의 실현을 도모하다가 끝내 목숨을 바친 그였다. 그는 38세의 젊은 나

이로 기묘사화(己卯士禍)를 맞아야 했고, 그러한 불운을 통해 그 한 시대 사림의 정신적 선도자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가 위민(爲民) 애민(愛民) 이민(利民)으로 언표되는 공과 의를 펼치는데 자신을 희생함으로 해서, 이 땅의 선비정신에는 멸사봉공의 정신이 선비정신의 으뜸가는 특성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곧 한훤당과 대조되는 그의 선비로서의 면모요 선비정신의 특징이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로 해서, 우리가 이룩한 선비 역시 수양에 의한 고결한 품격과 아울러 봉공의 의리를 실천하는 정신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고매한 인격과 봉공의 의리실천이 바로 선비를 선비답게 하는 필수불가결의 요건임이 우리 역사에게도 확인된 셈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소유하지 못한다면, 결코 선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문봉서원에 배향된 팔현(八賢)은 단순히 고양땅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서원에 배향된 학자들이 아니다. 고양땅과 물론 연고있다는 이유도 작용하였겠지만, 그보다 더 선행하는 배향 이유는 이들의 인품과 업적이 당시 선비로서 인정받는데 결함이 없다는 것, 오히려 선비로서 귀감이 된다는 평가에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배향 자체가 이들을 존모하는 뜻에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선비로서 귀감이 될 만큼 뛰어난 조건 위에, 마침 고양과 일정한 지연(地緣)이 있는 조건으로 해서 이들은 문봉서원에 배향되었고, 그리하여 특히 이곳의 후학들로부터 존숭 받게 되었다.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 모당(慕堂) 홍리상(洪履祥) 같은 학자는 이곳 고양을 선대이래의 생활터전으로 하여, 이곳에서(이포(已浦)와 귀이동(歸耳洞)) 태어난 경우이고, 다른 학자들은 20대(이신의(李愼儀)) 혹은 30대(남효온(南孝溫), 김정국(金正國))

부터 이곳의 산천과 인심을 좇아 이사 온 학자들이다. 필자의 과문으로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행촌(杏村) 민순(閔純), 만회(晩晦) 이유겸(李有謙) 역시 이곳 출신이거나, 적어도 이사 와서 이곳에 살았던 경우라고 추정된다. 행촌 같은 학자의 묘가 이곳(신도읍(神道邑) 현천리(玄川里))에 있는 사실이라든가 사제(師弟) 연원 관계를 고려할 때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사제 연원의 이른바 학연(學緣)을 살피면, 이들 팔현(八賢)이야말로 당시 사림의 주요 인물들과 직접 연결되었음을 확인케 된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은 점필재(김종직)의 문인이고,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은 한훤당의 문인이며 복재(服齋) 기준(奇遵)은 정암과 일찍부터 교유하여 그 영향을 받은 터였다. 점필재-한훤당-정암은 이른바 전기 사림파의 정맥(正脈)이므로, 그 선비의 성격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은 모재(慕齋)·사재(思齋)(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 형제의 문인이고 행촌(杏村) 민순(閔純)은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1489-1546)의 문인이다. 모재·사재 형제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암의 지치(至治)정신을 따라 행동하다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당했던 인물들이며, 화담은 과거의 합격으로 관계 진출이 가능하였음에도 입신양명의 속된 생활을 초탈하고 극빈한 속에서 초인적 자세로 학문과 후진양성에 진력한 고매한 학자였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세대가 이들보다 훨씬 뒤지는 모당(홍리상), 석탄(이신의), 만회(이유겸)는 각기 행촌, 초당(草堂) 허엽(許曄)과 행촌, 풍옥헌(風玉軒) 조수륜(趙守倫)의 문인이다. 행촌이 초당(허엽:1517, 중종 12~1580, 선조13) 역시 화담의 문인이다. 일찍이 명종 때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으로 입시하여 임금께 정암과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의 신원(伸寃)을 청하다가 파직된 일이 있으며, 한때 동인(東人)의 영수 역할도 한 당인(黨人)기질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사망 후에는 청백리에 녹선(錄選)되기도 하였다. 풍옥헌(조수륜:1555 명종10~1612, 광해4)은 우계(牛溪) 성혼(成渾:1535~1598)의 문인으로 대흥현감(大興縣監), 평택현감(平澤縣監) 정도의 벼슬 밖에 하지 않았으나, 광해군 때(1612) 일어난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옥사하였다가 인조반정 후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그러므로 팔현(八賢)이 영향을 받은 스승들 대부분이 당대의 선비로 인정받던 인물들이거나 대표적 선비로 추앙받던 선비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원관계는 결국 팔현(八賢)의 교육환경 자체가 남달리 좋은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좋은 여건에서 좋은 선비가 나오게 되는 것은 자연하고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팔현(八賢)을 일컬어지는 이들 자신의 선비 됨 일 것이다. 위에서 살핀 선비의 조건을 이들이 과연 어떤 면으로 어떻게 갖추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궁극적인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수양에 의한 유덕(有德)의 측면부터 살피기로 한다.

추강은 일찍이 소학의 교육에 남보다 앞섰던 점필재의 문인이었던 관계로 소학의 실천에 철저하였다. 소학에 대한 조정과 사림의 본격적인 중요시는15세기 말 추강의 활동기부터였다. 이때부터 조정에서는 소학을 본격적으로 보급·장려하였고, 앞에서 말한대로 사림사회에서는 그들대로 자진하여 그것을 교육하고 몸소 실천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추강은 기질이 활달하고 술과 거문고를 좋아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의 스승과 당시 사림에서의 소학 중시영향 때문이었던지, 소학의 철저한 실천에 자진·참여하였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소학 실천은 <조선왕조실록>에 까지 기록되어 전해지는 정도이다. 소학에 입각한 이 정도의 수양이 결국 뒤에 소개할 그의 공인으로서의 특출한 처세도

가능하였다고 믿어진다.

사재(思齋)는 반평생(30 무렵까지)이나 소학동자(小學童子)를 자칭하여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고 철저히 실천하였고, 그리하여 실로 소학실천의 제일인자로 이름난 한훤당의 제자이니, 더 말할 나위 없겠다. 복재 역시 그의 문집에 의하면 소학을 위시하여 근사록(近思錄)과 성리대전(性理大典)을 가장 중요시하였다고 한다. 추만의 경우는 특별한 수양의 과정이나 그 관계의 교육에 관한 기록이 전하여지지 않지만, 벼슬할 재능과 학식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일생을 포의(布衣)로 지내며, 가난 속에서 안빈낙도(安貧樂道)하였다. 그의 안빈낙도는 수양에 있어 공자의 제자 중 으뜸이라는 안회(安回)의 그것과 견주어지는 것이었으므로, 그의 수양의 경지야말로 대단하였음을 짐작케 된다.

행촌은 효행으로 벼슬에 천거된 사실로도 그의 수양의 성격과 수준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찍이 스승인 화담에게서 정(靜)을 위주로, 정(靜)에 주력하는 수양법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서재를 「습정(習靜)」이라 이름하였고, 이런 연유로 사람들은 그를 「습정선생(習靜先生)」이라고도 칭하였던 것이다. 사람들(김우옹(金宇顒) 등)이 당시 그를 「진현인(眞賢人)」이라 평가하고 존모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평가가 결코 그의 이 같은 수양에 의한 인격형성 없이 나오게 된 것은 아니라고 믿어진다.

모당(慕堂) 역시 대단한 효자이다. 그의 호를 모당이라고 한 이유도 그의 부친 별세 후 3년 간의 여막(廬幕)생활을 마치고서도 부친에 대한 친모(親慕)의 정을 못 잊었던 데에 있었다. 또한 소학과 심경(心經) 및 근사록(近思錄)을 중요시한 것도 당시의 다른 성리학자들과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전적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수양과 더불어 타인을 교육한 것은 석탄과 만회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다만 석탄과 만회는 가례(家禮)의 주해(이신의

(李愼儀) 가례답록(家禮劄錄))와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두 학자는 이러한 예서(禮書)를 바탕으로 수양과 구도(求道)의 수준이 남달랐던 까닭에, 유일지사(遺逸之士)로 천거되어 벼슬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천거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의 수양과 덕망(德望)은 입증되고 남음이 있다.

이렇게 보면 팔현(八賢)은 과연 수기(修己)의 한 측면만 살피더라도 어느 하나 현인(賢人)군자(君子) 아니라고 평가될 인물이 없다. 모두가 한결같이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유덕(有德)한 선비임에 틀림없다. 이에 치인(治人) 측면의 처세(處世)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이들이 공인으로서 보인 처세의 모습을 살펴야 할 것이다.

팔현(八賢)이 생존했던 시대는(남효온에서부터 이유겸까지) 단종2년(1454)~현종4년(1663)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 일어난 주요 사건 특히 주요 정치적 사건은 세조의 왕위찬탈(1455), 무오사화(연산4, 1498), 중종반정(연산12, 1506), 기묘사화(중종14, 1519), 임진왜란(선조25, 1592), 인조반정(광해15, 1623), 정묘호란(인조5, 1627), 병자호란(인조14, 1636)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팔현(八賢)의 시대환경에 대한 대응, 특히 정치 사회적인 행동 내지 태도 표명은 대체로 이러한 사건들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처하는 자세나 행동 여하가 결국 이들 팔현(八賢)의 선비다움을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강은 27세 때(성종11, 1480)에 과거(진사과)에 합격하였지만, 평생 벼슬은 하지 않았다. 일찍이 세조의 찬탈에 저항한 사육신을 흠모한 그는 만년에 <육신전(六臣傳)>을 지어 세상에 육신(六臣)의 절의(節義)를 전하였고, 젊어서부터 속기(俗氣)를 떨쳐

버리고 초연한 삶을 택하였다. 절의정신이 드높은 한훤당과 일두와도 사귀었지만, 절의정신과 함께 초속(超俗)정신을 익힌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1435~1493)을 더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그 자신도 일생을 시와 술 및 거문고와 짝하였다. 이총(李摠), 이정은(李貞恩), 홍유손(洪裕孫), 한경기(韓景琦), 우선언(禹善言), 조자지(趙自知) 등과 어울려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하나로 자처하였다. 그렇다고 그가 현실을 저버린 기세적(棄世的)이거나 불의를 묵과하던 문약인(文弱人)은 아니었다. 그 좋은 예가 성종에게(1478) 소릉복위(昭陵復位)의 상소문을 올린 것이다. 소릉 건이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후 꿈에 단종의 모후(현덕왕후(顯德王后)가 나타나 아들의 살해를 책하였다고 해서 그 단종 모후의 능을 물가에 이장한 것(昭陵)을 뜻한다. 추강은 이 능의 복귀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소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 갑자사화(연산 10) 때 이것이 오히려 문제되어 마침내 그가 부관참시(副棺斬屍)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이렇게 때묻지 않은 일생을 보냈을 뿐 아니라 두 번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절의를 드높인 업적으로 해서, 「생육신(生六臣)」의 하나로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되었다. 중종8년(1513) 소릉이 추복(追復)되면서, 그도 신원(伸寃)되고 좌승지로 추증되었으며, 정조6년(1782) 다시 이조판서에 추증, 생육신의 창절사(彰節祠)에 제향되었던 것이다. 문봉서원 외에 장흥(長興)의 예양서원(汭陽書院), 의령(宜寧)의 향사(鄕祠), 함양(咸陽)의 서산서원(西山書院) 등 여러 곳에서 그를 제향한 사실은 바로 조선시대 그가 얼마나 선비로서 인정받았는가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은 비록 기묘명인(己卯名人)의 중추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그들과 연루되어 기묘사화 때(35세) 파관의 화를 입었다. 그가 고양의 망동(茫洞)으로 옮겨 온 것도 이

때의 일이다. 28세 때에는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로 동료들과 소릉(昭陵)의 복위를 극론하는 기개도 보였다.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면서 <경민편(警民編)>을 간포하고 <학령(學令)>24조를 지었으며, 그 후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을 편찬하여, 백성의 교육과 의료에 관심을 쏟았었다. 전라 관찰사를 지낼 때에는 <편민거폐(便民祛弊)> 10여조를 왕께 지어 올려 시행케 함으로써, 관리로서 맡은 바 위민(爲民)의 임무를 다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그가 <기묘당적(己卯黨籍)>을 지어 기묘사화 때의 피화(被禍)사실을 세상에 드러낸 것은 바로 그의 공인으로서의 정신적인 위치가 사림파를 지향한 것이었음을 증거하는 업적이다.

복재(服齋) 기준(奇遵)은 19세 때 10살 위인 정암(조광조)을 따라 함께 공부한 인연으로, 중종의 반정 정권에서도 그와 함께 활약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다. 중종9년(1514) 과거(별시(別試))에 합격하여, 이듬해에 곧 경연시강관(經筵侍講官)이 되었는데, 기묘년(중종14)에는 28세의 나이로 홍문관(弘文館) 직제학(直提學)으로 특진, 정암과 제반 개혁을 도모하였다. 이때 이른바 「위훈(僞勳)」정리 등이 훈구파를 크게 자극하여, 마침내 훈구파의 모략에 의함 봉당의 죄목으로(정암과 함께) 처형(중종16) 당하였다. 그가 「기묘명인(己卯名人)」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당시 사화(士禍)의 핵심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은 가난한 환경이었지만 벼슬을 단념하고 일생을 수양과 구도(求道)에만 힘썼다고 하였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특별한 모습은 그에게 찾아지지 않는다. 학문에만 종사한 그가 사회에 남긴 공헌은 역시 그의 뛰어난 연구업적이다. 그는 당시 호남의 대표적 학자인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등과 사귀면서 <천명도(天命圖)>와 그 해설서인 <천명도해(天命圖解)>를 지었다. 이 저작은 후에 퇴계

(退溪) 이황(李滉:1501~1572)와 몇 차례 수정·개작의 과정을 거쳤고, 그런 끝에 퇴계는 그 나름의 <천명신도(天命新道)>와 그 해설<천명도설(天命圖說)>을 짓게 되었다.

그리고 퇴계의 이것이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1527~1572)과의 저 유명한 「사단칠정이기론변(四端七情理氣論辨)」을 일으켰던 것이다. 사칠론변(四七論辨)이 조선조 성리학을 대표하는 연구업적의 하나이고,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이 추만의 천명도(天命圖)였음을 고려하면, 그의 학문적 공헌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가늠하게 된다. 순수한 재야학자로서 연구에 전념하던 동시에 안빈낙도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추만이었다.

어려서 낙봉(駱峯) 신광한(申光漢:1688~?)에게서 사장학(詞章學)을 익힌 행촌(杏村) 민순(閔純)은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하였다. 그 문장력으로 해서 향시(鄕試)에서 장원을 한 일도 있다. 그러나 평생 순수 재야학자로 일관한 화담에게서 정(靜)에 의한 위기(爲己)의 수양설을 배우고부터는 벼슬을 하찮게 여기었던 그였다. 효행으로 천거되어, 용강현령(龍剛縣令), 청풍군수(淸風郡守), 수안군수(遂安郡守), 통례원통례(通禮院通禮) 등 실제로 벼슬도 크게 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관리로서 취한 그의 태도는 남다른 것이었다.

당시는 동서분당(東西分黨)의 현상이 본격화 되어가던 때라 지배층의 알력이 심해졌었는데, 그만은 어느 편당에도 기울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의 관리로서의 태도가 공평정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는 또 예(禮), 특히 국가의 전례(典禮)에 대한 식견이 매우 높았다. 당시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상(喪)에 예관(禮官)이 저지른 잘못을 그가 시정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하였다. 즉 그 때(喪) 예관은 단순히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거하여 모든 신료들로 하여금 검은 모대(帽帶)(오사모(烏紗帽)와 흑각대(黑角帶))를 사용토록 하였는데, 그가 송(宋)의 사례를

들어 백모(白帽)로 바꾸도록 상소하여 시정케 한 것이 그것이다. 성리학적 예치를 가장 이상시한 것이 조선조임을 고려하면, 이것은 바로 그가 지닌 이상정치 구현능력의 뛰어남을 증언하는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절(氣節)을 숭상한 수우당(守愚堂) 최영경(崔永慶:1529~1590)은 그를 재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인물로 보았고,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는 상례건(喪禮件) 이후 그(민순)가 소인배의 질시로 해서 관계를 떠났다고 생각하며 매우 아쉬워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조금도 나무랄 데 없이 모범적인 관리의 행적을 남긴 이가 또 모당(홍리상)이다. 31세 때(1579) 과거에 일등으로 합격하여 예조좌랑(禮曺佐郞)으로 벼슬길에 오른 이후 승지, 경상관찰사, 대사헌대사성, 호조참판, 개성유수 등을 거치며 60 이후까지 별다른 파란 없이 순탄한 벼슬살이로 일관하였다. 그의 순탄한 벼슬살이 이면에는 탁월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능력이 작용하였다. 그 한 실례가 곧 경상관찰사를 한 다음 경상도가 관리하기에 너무 크다고 판단, 좌우도(左右道)로 분리 관장케 한 것이다. 또 관리로서 지닌 그의 큰 장점은 청렴결백하였다는 점이다. 벼슬살이 20년이 지난 뒤까지도 가난을 면치 못한 그였다. 50 무렵 이후 걸군소(乞郡疏)를 올려 지방관으로 나아갔던 까닭은 그 가난 때문이었다. 청렴하였기 때문에 기절(氣節)을 펼 수 있었던 것도 빠뜨릴 수 없다. 그는 경연석상에서 정여립(鄭汝立)이 율곡을 비방하자 기탄없이 직척(直斥)하였고, 광해군에게는 붕당의 화를 극언, 임금이 먼저 본원의 바탕을 세워 사정을 분별할 것을 촉구하는 강골(剛骨)의 모습도 보였다. 청백리에 강골의 기절(氣節), 이것이 특히 공인으로서 그의 선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이다.

석탄(石灘) 이신의(李愼儀) 야말로 의를 위해서는 강골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낸 선비이다. 광해군이 모후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려 할 때(1617), 대의로 항론·극언하다가 회령(會寧), 흥양(興陽) 등으로 유배당한 것이 그의 그러한 모습 중의 하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병(鄕兵) 3백여 인을 이끌고 참전·구국의 선봉에 섰던 것이 또한 예이다. 직산(稷山)현감으로 있을 때(46세, 선조29) 부여에서 이몽학(李夢鶴)의 반란이 일어나자 당시 천안군수 정호인(鄭好仁)과 군사 8천을 이끌고 가 반군을 궤멸한 것도 같은 예에 속한다. 해주목사 때(57세) 그곳의 민전을 함부로 빼앗아 왕자들의 전장(田莊)으로 한 것을 그가 다시 빼앗아 양민(주민)들에게 되돌려 준 사례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당시 왕자들이 선조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청원함에, 선조조차 "너희들이 삼갈지어다. 해주목사는 나 또한 꺼리느니라"하였다는 일화는 그의 의로움 앞에서는 왕권(王權)도 무색하였음을 뜻한다. 그 의로움이 곧 위민(爲民)이었던 점에서, 그는 본분을 다하고 남음이 없었던 관리의 이상적 전형에 해당한다. 괴산군수직을 떠날 때(53세)나 해주목사직을 마감하고 귀향할 때(60세)나 그곳 향민들이 눈물로 더 머물러 줄 것을 간청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만회(晩晦)이유겸(李有謙) 역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관인이다. 광해군이 모후를 폐위하려 할 때, 그것이 불의임을 극론하는 항소(抗訴)를 올려 오지로 유배당하였었고, 지방관으로 있을 때는 위민(爲民)의 덕행(德行)으로 해서 민심을 독차지하였다. 즉 모종사건에 연루되어 파천된다는 소식에 고을 백성들이 무리지어 곡식으로 대속(代贖)할 것을 청원한 사실이 곧 그러한 것이다. 그밖에 그의 스승인 풍옥헌(風玉軒) 조수륜(趙守倫)이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연루되어(광해4) 죽음을 당하여 버려졌을 때, 그가 시체를 거두어 예로써 장사지낸 것 또한 군사부(君師父)를 일체시하던 당시의 가치관 즉 제자의 의리를 실천에 옮긴 사례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모로나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곧 의리의 실천에 미진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관리와 같은 공인일 때 본분이 지닌 의리의 폭과 깊이는 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어렵기 마련이다. 하물며 선비를 「나라의 으뜸가는 기운」으로 규정한 경우에야 더 말할 것이 없다. 이제까지 살핀 팔현(八賢)은 이런 의미의 선비 역할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비답게, 선비의 본분을 다하여, 작게는 문봉서원이 자리한 고양땅을 빛내고, 크게는 이 나라의 역사의 한 장을 빛내는데 공헌한 분들이다.

행촌(杏村) 민순(閔純)의 산림학자적(山林學者的) 성격

김 성 규*

1. 머리말

숙종 14(1688)년에 건립되어 35(1709)년에 왕으로부터 사액(賜額)받은 문봉서원[37]은 경기도 고양군 최초의 서원이었다. 오늘날 남아있지 못하고 있는 이 서원에는 보통 '고양팔현(高陽八賢)'이라고 불리우는 조선조 유학자들의 위패가 봉안(奉安)되어 있었다고 한다. 곧 행촌(杏村) 민순(閔純, 1519~1591)·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1454~1492)·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 1485~1541)·복재(服齋) 기준(奇遵, 1492~1521)·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 1509~1561)·모당(慕堂) 홍리상(洪履祥, 1549~1615)·석탄(石灘) 이신의(李愼儀, 1551~1627)·만회(晩晦) 이유겸(李有謙, 1581~1663) 등 15~17세기의 팔현(八賢)이 바로 그들이다. 당시 편액을 하사한 숙종은 이들 유학자 여덟 명의 덕과 학문을 기리는 제문도 함께 보냈는데, 이 가운데 개성(開城)의

---

* 한성대·성균관대 강사, 문학박사

37)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고양군조(高陽郡條).

화곡서원(花谷書院)에도 제향(祭享)된 행촌(杏村) 민순(閔純)의 경우 그 제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덕성이 모인 곳 예부터 고양(高陽)이라. 진주 연못 기(杞)나무 덤불 군자의 고을일세. 고요함을 익히는 오두막집(습정서재, 習靜書齋)이 있어 참됨(진, 眞)을 감추고 성정(性情)을 길렀도다.
>
> 난향(蘭香)을 못 감추어 소명(召命)을 받들고서 여러 번 나갔더니 군상(君喪)에 백립(白笠)을 쓰기로 정제(定制)하여 이 나라 상례(喪禮)를 바르게 만들었도다.

위 제문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행촌(杏村) 민순(閔純)이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습정(習靜)에 주력한 진군자(眞君子)이며, 조정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상례(喪禮)를 바로잡은 인물이었다는 두 가지 점이다. 당시 성리학을 익히고 실천궁행하는 수많은 사대부가운데 특별히 그를 진군자라고 일컬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가 바로잡은 상례(喪禮)는 과연 어떤 것이었으며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대부의 삶의 양식은 중앙의 관인(官人)으로 나아감을 뜻하는 '출(出)'과 시골의 전원으로 은퇴함을 뜻하는 '처(處)'의 두 방면이 있다. 이 '출(出)·처(處)'는 정치권력에 대한 개인의 입장 곧 삶의 자세를 결판내는 개념으로 사대부 사회에서 특수하게 중대한 의미를 담고 쓰였다. 출(出)에 의해서는 관료적 생활과 처(處)에 의해서는 처사적 생활의 양면의 세계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민순(民純)의 경우 그 한 면모를 위의 제문을 통하여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그의 생평(生平)과 정치·사회적 활동 및 문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의 인간상을 편린이나마 이해하여 보기로 한다.[38]

2. 가계(家系)와 생애~노성숙유(老成宿儒)의 덕행과 삶

습정선생(習靜先生) 민순(閔純)은 중종 14(1519)년 11월 25일 출생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한 해 전인 선조 24(1591)년 10월 9일에 삶을 마감하였다. 그의 묘갈(墓碣)이 현재 경기도 고양군 화전읍 현천리(玄川里)에 남아있는데 그 묘갈명(墓碣銘)을 찬술한 이는 문인이었던 영원군(寧原君) 홍가신(洪可臣)이고, 쓴 이는 지돈영부사(知敦寧府事) 김현성(金玄成)이다.[39] 현존하는 이 묘갈명을 통해 그의 가계(家系) 및 생애(生涯)의 대략을 파악할 수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잠시 홍가신(洪可臣)이지은 비문의 전문을 번역해 아래에 옮겨보기로 한다.

朝鮮國通訓大夫通禮院右通禮習靜先生閔公墓碣銘 幷序

선생의 성은 민씨이고 이름은 순이요 자는 경초(景初)이고 관향이 여흥(驪興)이다. 고려조의 문하시중(門下侍中) 문경공(文敬公) 영모(令謨)의 후손으로 적덕(積德)의 지극한 후덕(厚德)으로 대대로 위인(偉人)이 태어났으니, 유(愉)는 대제학(大提學) 여흥군(驪興君)이고 지생(知生)은 병조참판(兵曹參判)이고, 심언(審言)은 개성유수(開城留守)로 병조참판의 증직(贈職)이 있었으니, 선생에게는 고조부가 된다. 유수공(留守公)이 사과(司果) 담원(澹源)을 낳고, 사과공(司果公)이 성균전적(成均典籍) 양(樑)을 낳고, 전적공(典籍公) 장사랑(將仕郞) 학수(鶴壽)를 낳으니 이 분이 선생의 아버님이시다. 병조참판 유자공(柳自恭)의 따님에 장가들어 정덕(正德) 기묘(己卯) 11월 25일에 선생을 낳으셨다.

---

38) 이 논의를 전개하는 가운데 혹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음을 미리 밝혀 둔다.

39) 신흠(申欽), 「청창연담(淸窓軟談)하, 김현성(金玄成)저 字餘慶 號南窓 詩藻雅 祖唐詩 時有極可愛者.

선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바탕을 지니셨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이 있었으나 그 요령을 알지 못하여 처음에는 낙봉(駱峰) 신광한(申光漢)에게서 배웠다. 문장에 자못 소문이 났으며 향시(鄕試)에서 장원을 하였다. 그리고서는 사장(詞章)의 문(文)은 선비가 자신을 위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여 서화담(徐花潭) 선생을 찾아가 수업(受業)했다. 정(靜)을 주로 하라는 학설을 듣고 깊이 심취하여 서재를 습정(習靜)이라 이름했다. 견고히 가다듬어 항상 보고 듣는 그 밖의 것을 초월하여 더욱 생각 속에 싹트는 것을 삼았다. 기선악(幾善惡) 삼자(三字)의 뜻을 터득하여 극히 정절하며 논리가 깊으니 듣는 이들이 모두 승복하였다. 일찍이 배우는 이에게 이르기를, '전에 온암사(蘊菴寺)에 있으며 공부할 때에 마음과 몸이 평안하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한 번 눈에 스쳐간 문자는 다 외울 수가 있었으니, 사람이 정(靜)에 주력하면 총명이 절로 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하시었다.

평상시에도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혼자 방안에 앉아 옷깃을 여며 정좌하고 계시면 우뚝히 동상(銅像)이 앉아 있는 듯하였다. 항시 연평(延平) 이씨(李氏)가 말한 희노애락미발지설(喜怒哀樂未發之說)을 강조하여 그것을 반복하여 몸소 인득(認得)하였다. 논설은 보통이 아닌 듯이 말씀하시나, 생각은 항상 평담(平談)한 중에도 심히 멋이 있었다. 일을 처리하심은 통속(通俗)을 벗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의리로 따져보면 처음부터 윤리에 어긋남이 없었다. 대저 무젖어 닦은 깊이와 두터이 다져진 근기(根基)가 분명하신 행동에 구김이 없이 남들이 따를 수가 없었다.

문자를 보시는데 있어서도 훈고(訓詁)에 집착되지 않고, 먼저 큰 요지부터 파악하였다. 경학에 정통하고 분명하시며, 역리(易理)에 더욱 깊으셨다. 그렇지만 남에게는 경솔히 말씀하지 않고 후학들에게 들어 가르치심은 모두 실행의 학문이었다.

궁벽(窮僻)한 곳에 두문(杜門)하고 계셔 남에게 알리기를 바라지 않

았고, 가세(家勢)가 쓸쓸하여도 늘 여유 있는 듯이 처세하였다. 손님을 맞으면 없는 중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어쩌다 술이 취하여도 언소동작(言笑動作)이 평상시의 법도를 잃지 않았고, 다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일 뿐이었다. 선조(宣祖) 초에 선생을 효행으로 조정에 알리는 이가 있어서 효릉참봉(孝陵參奉)으로 발탁되었다. 학행이 구비되었다 하여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로 특진되었고, 형·공조좌랑(刑·工曹佐郞)으로 옮겼다가 토산현감(兎山縣監)이 되었으며, 사직하고 돌아왔더니 또 사축서(司畜署) 사온서령(司醞署令)으로 발탁되었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내리니 굳게 사양하다가 나아갔다. 그때가 마침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상(喪)이 졸곡(卒哭)이 되어 복을 바꿔 입는 때였다. 예관(禮官)이 '국조왕례의(國朝王禮儀)'에 따라 오사모(烏紗帽)와 흑각대(黑角帶)를 임시 상복으로 정하니 선생이 개탄하면서, 삼년의 상은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것이라 하여 곧 상소를 올려 송(宋)의 효종(孝宗)이 백모(白帽)로 삼년을 마친 제도를 따르게 하였다. 임금은 그 논거를 따라 하게 하니 선비들이 서로 경하(慶賀)하며 옛 제도를 점차 좇게 되었다고 하였다.

용강현령(龍岡縣令)·청풍군수(淸風郡守)로 나갔다가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으로 소환(召還)되었고, 또 수안군수(遂安郡守)로 갔다가 얼마 안 되어 사직하고 돌아왔다. 이르는 곳마다 지성으로 살피고 충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니 백성이 사랑으로 받들었다. 수안군(遂安郡)에 있을 때 임금이 포상하면서 '청렴·간결로 스스로 지켜 학교를 힘써 세우고 묵은 폐정을 개혁하여 사람마다 유임되기를 바라니 지극히 가상한 일이다'하였다.

선생께서 세상 여러 일을 경력하면서 자기의 도를 끝내 행할 수 없고, 자기의 뜻이 끝내 펴질 수 없을 것을 알자 벼슬살이의 정이 더욱 멀어지고, 퇴거(退去)할 생각이 굳어졌다. 그 뒤로 백천군수(白川郡守)·연안(延安)·성천(成川)·인천부사(仁川府使) 등을 여러

번 내렸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공조좌랑(工曹佐郞)·종묘서령(宗廟署令)·군자(軍資)·악장사존사재(樂掌司尊司宰)·첨정사재(僉正司宰)·예빈정(禮賓正)·통례원통례(通例院通禮) 등을 내렸지만 부임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였으니 모두 별 생각이 없어서였다.

당시 조정에서 설국(設局)하여 중외(中外)의 유신(儒臣)을 널리 선발하여 소학(小學)·사서(四書)의 음석(音釋)을 교정할 때 여러 차례 불러들였지만 모두 병을 이유로 사양하였다. 비록 집에 계시더라도 시대를 걱정하는 생각이 늘 끊이지 않았고, 혹 시정(時政)의 잘못을 들으면 쓸쓸히 불안하시어 근심스러운 안색이 나타났다. 수십 년 동안 선비들의 당론이 둘로 갈려 시비가 서로 엇갈리는 때라 비록 명인석사(名人碩士)라 할지라도 이 무리에 지목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연(貞然)히 지켜 시종 흔들리지 않아 일대(一代)의 완인(完人)이 되기는 오직 선생 한 분 뿐이었다.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겨 장사랑공(將仕郞公)이 창(瘡)병을 앓으시매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옷을 벗고 자는 일이 없었으며 약은 손수 조제하여 비록 독사 같은 독물(毒物)이라도 종들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 상(喪)을 당해서는 예를 다하시고 죽과 채소만 잡수시며, 묘소에 거처하시면서 지나치게 애통해 하여 여위시기 그지없었다. 원근(遠近)에서 와 보는 이마다 감동하여 성복(誠服)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수우당(守愚堂) 최영경(崔永慶)은 평생 남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유독 선생만은 깊이 공경하여, '민모(閔某)는 성의가 간절하니 만약 재상의 지위에라도 있게 했더라면 임금께서 감동하여 계발(啓發)되는 점이 많았을 것이다'하였으니 한 세대에서 촉망받음이 이와 같았다. 학생들이 멀리에서 모여들어도 선생은 일찍이 사도(師道)로 자처하시는 일이 없고 처지에 따라 문답하되 성심으로 유도하여 정성을 다해 마지않았다. 지난 정묘년간(丁卯年間)에 가신(可臣)이 동지들과 찾아가 뵙고 하루를 모시고 앉았는데 다만 그 언어동작이 공손하고 평안하신 것만을 뵈올 뿐이었

고, 천지를 놀래킬만한 논설이나, 현묘하고 기특한 의미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물러나 배우려고 하니 말씀이나 모습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덕성에서 배워 힘을 얻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역시 처음에는 책을 읽어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학문에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

아! 선생의 덕과 재주도 이 세대에 유용하게 되지 못했고, 문하(門下)의 선비도 역시 그 분의 오묘한 뜻을 더 펴내지 못하여 선생께서 체(體)·용(龍)을 밝히고 응용한 학문이 거의 살아나지 못하였으니, 어찌 우리 동지들만의 불행이겠는가? 가신(可臣)이 오늘날 궁벽한 시골에서 병을 앓고 있어 점점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옛날의 배움이 막혀버렸고 게으름도 심해졌다. 선생께서 전날에 기대하셨던 뜻을 저버리게 되었으니 황홀히 선생의 기상(氣象)을 생각하여 사사로이 말하노라.

선생의 학문은 화담(花潭)에게서 시작하여 정(程)·주(朱)에게로 귀착(歸着)된 분인가, 정(程)·주(朱)에게 귀착하여 구산(龜山)에게서 더욱 얻음이 있어 법문(法門)이 서로 전하여진 분인가. 그렇지 않다면 주자(朱子)가 연평(延平) 이선생(李先生)을 칭찬하는 말에, '온순·겸손하고 중후하여 사람들이 오래 함께 있어도 깊이를 알 수 없으니 참으로 군자로구나'하였는데, 어쩌면 선생의 덕행이 이것들과 하나하나 꼭 들어맞는다. 후세에 이 덕을 아는 이는 분별하리라.

만력(萬曆) 신묘년(辛卯年) 10월 초 9일 고양군 행주리(杏州里)에서 작고하시니 향년 73세이셨다. 다음 해 정월에 같은 마을 을좌신향(乙坐辛向)의 능원에 장례하니 선영(先塋)을 따른 것이다.

선생은 종실(宗室) 청풍부령(淸風府令) 철옥(哲玉)의 따님에게 장가들었고, 두 번째로 평양 조씨(趙氏) 충의위(忠義衛) 감(瑊)의 따님께 장가들었다. 두 아들을 두니 맏이는 경남(敬男)인데 사산감역(四山監役)이고, 다음은 시남(試男)인데 일찍 죽었다. 감역(監役)은 충의위(忠義衛) 이홍(李洪)의 따님을 얻어 이남(二男)을 두니, 응신(應

辰)과 응욱(應昱)이다.

명(銘)하되, 위엄을 갖추어 외모(外貌)를 볼 만한 것은 배움에서이냐, 고금(古今)을 익히 알아 언론(言論)이 해박함도 배움에서이냐, 문사(文辭)가 아름다워 의리를 이루는 것도 배움에서이냐. 이 세 가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자 문하의 덕목에 가까워진 자 지극히 아름답구나.

우리 선생의 배우심은 일용(日用)의 사물의 가까운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천리를 항상 마음 속에서 운행하고 있다. 말씀은 어둔하여 부족한 자 같으나, 간결하면서도 이치에 맞고, 실지인 듯하면서 사리에 통한다. 세도와 영리에는 겁내시어 어리석은 이처럼 물러나셨다. 의를 보시면 용기가 나 분육(墳育)같은 장사와 같았다. 의관은 속류(俗流)와 다를 바 없었지만 마음은 맑은 달이나 바람처럼 트였다.

행주(幸州)의 동쪽과 한강의 북쪽 꺼칠한 구역이 선생의 옛집이니, 백보 근처의 선대(先代) 무덤의 곁이다. 넉자의 광역(壙域) 안의 한 조각 돌에 내 명(銘)을 쓰노니, 지나가는 이도 한 번쯤 절을 하소.

(만력(萬曆) 39년<광해군(光海君) 3년(1611)> 8월 일 세움) <윗점-필자>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다소 장황하지만 묘갈명(墓碣銘) 전문을 인용해 보았다. 사람의 일생을 글로 적어서 서술하는 문학 가운데 객관적 서술과 공식적 평가만 갖추어서 교술문학(敎述文學)의 본령에 충실한 경우는 행장(行狀)·묘지(墓誌) 같은 것들에서 볼 수 있다.[40] 일반적으로 행장은 죽은 인물의 일생에 관한 공식적인 서술이고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나 개인적인 회고 같은 것은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 행장의 객관적 사실과 공식적 견해도 상황

4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p.104, 1983

에 따라서는 상당히 왜곡·변질될 수 있다. 한편 무덤이나 비석을 세우고 거기 새겨놓자고 쓰는 글인 묘비는 묻힌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나가는 길손이라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돌에 새겨서는 무덤 속에 시신과 함께 묻어놓자고 쓰는 글인 묘지(墓誌)는 고인의 가족이 부탁해서 쓰기 일쑤이고 고인의 행적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과 공식적인 평가를 표방하는 글이다. 그런데 이 묘지(墓誌)의 찬술자는 죽어 묻힌 이와 어떤 사이이며, 지난 날을 회고하노라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는가 하는 것들을 친근하고도 자상하게 늘어놓을 여우를 가지기로 한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 민순(閔純)의 제자이었던 홍가신(洪可臣)은 스승의 학덕과 업적 기타 일상생활의 요모조모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사실에 근거하여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은 묘갈명(墓碣銘)을 찬술하였을 것이다. 물론 그가 스승을 추모하고 기리려고 했던 나머지 자신만의 주관적인 견해나 개인적인 회고가 상당히 개입되었고 침소봉대한 면모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홍가신(洪可臣)의 글은 일단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공식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것은 민순(閔純)의 삶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짤막한 글을 통하여서도 대략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좌통례(前左通禮) 민순(閔純)이 죽었다. 민순(閔純)이 당초 수안군수(遂安郡守)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드디어 퇴휴(退休)의 뜻을 결단하였다. 그 전후로 임명된 것이 내외관(內外官)으로 10여 번이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경사(經史)를 교정하는데 여러 번 특별히 불렀으나 또한 나아가지 않고서 한가로이 살면서 가르치니 학생들이 떼 지어 몰려들었으나 일찍이 사도(師道)로서 자처하지 않았고 오직 물음에 답할 뿐이었다. 이즈음 선비들의 의론이 둘로 나뉘어 옳고 그름을 다투니 비록 명유명사(名儒名士)나 현재상

(賢宰相) 일지라도 그 지목되어 방상(謗傷)을 입지 않음이 없었으되 오직 민순(閔純)은 염연자수(恬然自守)하니, 비록 소인이라도 또한 감히 비방을 하지 못하니 대저 (그가) 일찍이 기미를 분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경덕(徐敬德)에게 배웠는데 윤리가 하늘처럼 독실하고 어버이 섬김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애초에는 효성으로 소문이 났으나 나중에는 유학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문인인 홍가신(洪可臣)은 주자(朱子)가 이연평(李延平)을 칭찬하는 말을 이끌어 말하기를, '(그는) 온겸각후(溫謙慤厚)하여 남들과 더불어 처함에 오래되어도 그 끝을 볼 수 없는 우뚝한 군자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민순(閔純)의 덕행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41]

윗 글을 기록한 사관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알기 어렵다. 그는 홍가신(洪可臣)의 묘갈명을 참조·요약하여 실록에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에 남을 공식적인 서술이 된 셈이다. 요컨대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이미 말했듯이 세인(世人)의 민순(閔純)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에 있다. 즉 효행으로 천거된 그는 일찍이 선과 악의 기미를 분별할 수 있었으므로 동인이나 서인 양 당파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자수(自守)하였고, 온겸각후(溫謙慤厚)한 품성의 그는 한가로이 은퇴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으며, 당시 참된 현인(賢人)으로 일컬어졌다는 점이다.

3. 학문적 계통과 정양지공(靜養之功)

홍가신(洪可臣)의 묘갈명에 의하면, 민순(閔純)은 당초 낙봉(駱峰) 신광한(申光漢)에게서 사장학(詞章學)을 익혔다고 한다. 뛰어난 문장력을 갖게 된 그는 향시(鄕試)에서 장원을 하였다. 그

41)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권25, 24년 10월조

러나 그는 마침내 사장학(詞章學)은 마음의 바른 자세를 가다듬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다. 대체로 당시 사대부들은 문학다운 문학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길은 따로따로일 수 없고, 또 이는 궁극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일로 통한다고 여겼다. 이것은 도문일치(道文一致)의 관념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이들은 도(道)는 본(本)이요 문(文)은 말(末)이라고 주장했다. 시 창작은 여기(餘技)라고도 하였다. 이 본말(本末)의 논리 형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道)가 근본임은 명분일 뿐이었고, 조선조 사대부사회의 실제는 문(文)이 중시되곤 하였다. 오직 문학의 재능으로 청화(淸華)의 요직을 담당하고 가문을 장식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이에 맞서서 신진사림(사림파)들은 근본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부화(浮華)해지는 문장풍조를 쇄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립관계가 16세기 전반기에는 극한으로 치달아 사화(士禍)와 같은 피를 흘리는 싸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훈구파 대 사림파 곧 사장파(詞章派)와 도학파(道學派)의 대결을 말한다. 마침내 이 대결은 16세기 중엽에 사림파의 승리로 종결이 되었다. 사장론(詞章論)이 후퇴되고 문학은 도학(道學)의 이론 규정을 받게 된다. 문학이 도학(道學)에 보다 밀착하게 되는(문학은 도학의 일부로 합일되는) 경향이 이 즈음의 특징이었다.

민순(閔純)은 당시 부화(浮華)해지는 사장(詞章)의 문장풍조를 못마땅하게 여겼음이 분명하다. 문학이 자기성찰의 구실을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는 한마디로 조충전각지도(彫篆篆刻之徒)가 되기를 꺼리고 경명행수지사(經明行修之士)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유자(儒者)로서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위해 그는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을 찾아가 수업했다고 한다. 그에게서 정(靜)을 주(主)로 하라는 학설을 들은 민순(閔純)은 깊이 심취하

여 자신의 서재를 습정(習靜)이라고 이름했다고 한다. 제자 홍가신(洪可臣)도 묘갈명 첫머리에서 그를 습정선생(習靜先生)이라 일컫고 있다.

송도의 한미한 무반(武班) 출신의 서화담(徐花潭)은 벼슬하려고 나서지 않고 줄곧 숨어서 지냈다. 따라서 사화(士禍)를 당하지 않았다. 또한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 현량과에 응하라고 권유했지만 거절했고, 만년에 이르러서야 능참봉으로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산수를 두루 유람하지 않으면 자기 고장 송도의 서실에 들어앉아 오직 천지만물의 이치를 탐구해, 이(理)와 기(氣)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입증하고, 이(理)를 따로 설정하면서 세운 명분이나 규범의 근저를 비판하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그는 「태허설(太虛設)」·「원리기(原理氣)」·「귀신사생론(鬼神死生論)」등 이치를 따지는 글을 짓기도 하였지만, 글을 지어서 행세를 하려는 데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성현의 말을 인용해 증거로 삼으려는 생각도 버리고, 장식적인 문구는 모두 제거한 채 오직 간결하고 명료한 말로 자기 스스로 밝혀낸 이치의 핵심만 밝히기도 했다. 또한 그는 <송침교수서(宋沈敎授序)>에서 시를 쓰는 마땅한 길은, 아름다운 구절을 찾으려 하지 말고, 멈추고 그칠 줄 알아서 모든 것을 버린 채 물러나 소리 나지 않는 데서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무현금명(無絃琴銘)>에서는 줄이 없는 거문고를 즐기듯이 형체를 버리고 없는 것을 만나야 한다고 했으니, 이는 기(氣)가 바로 허(虛)라는 데 최종적인 근거를 둔 이론으로 생각된다. 고사나 수식에 휩쓸려 무엇으로 성취하려고 드는 헛된 희망을 버리고 마음을 텅 비게 해야 진실에 이르는 흥취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 말로 볼 수 있다.

서화담(徐花潭)이 민순(閔純)에게 습정(習靜)에 주력하라고 가르친 것도 위와 같은 평소 자신의 생활태도와 관련하여 우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민순(閔純)은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일생의 교훈으로 삼아 실천궁행하였고, 여러 번 관직에 나아갔지만 선악의 기미를 분별할 줄 알아 세상사가 뜻과 같지 않으면 언제든지 과감히 낙향하여 참된 선비로서 자수(自守)하기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제자 홍가신(洪可臣)은 경학(經學)에 정통하고 분명하며 역리(易理)에 더욱 깊었던 스승의 학문이 화담(花潭)에게서 비롯되어 정(程)·주(朱)에게로 귀착(歸着)되었고, 정(程)·주(朱)에게 귀착하여 구산선생(龜山先生)에게서 더욱 얻음이 있어 법문(法門)이 서로 전하여졌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순(閔純)이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또한 그는 스승의 배움이 일상생활의 가까운 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천리(天理)를 항상 마음속에서 운행하고 있었다고 한 바 있다. 이 말은 스승이 평소 '일용평이명자처(日用平易明自處)'에 나아가 궁리(窮理)했음을 뜻한다. 민순(閔純)이 누차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것은 자신의 뜻과 도(道)를 펴기 어려운 당시 정치·사회 형편도 있었겠지만, 성현의 학(學)에 더욱 충실하려는 의도도 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현실에 불만을 느낀 그는 산수(山水)에 의탁(依托)하여 도의(道義)를 기뻐하고 심성을 길러서 즐기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민순(閔純)의 존양성찰(存養省察)의 정(靜)공부는 퇴계(退溪)의 시적감동(詩的感動) 및 상자연(賞自然)의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평이(平易)한 것을 통하여 본연을 깨닫는 경지를 퇴계(退溪)는 남시보(南時甫)에게 주는 두 편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① 심기(心氣)의 병은 바로 이(理)를 살핌이 투철치 못해, 쓸데없는 천착으로 무리하게 탐구하여, 마음가짐이 어두워 '싹을 뽑아 성장을

돕듯'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괴롭히고 정력을 소모하였기 때문에 이에 이른 것이다. 이 또한 초학(初學)들의 공통된 병통이다.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공(公)이 알고 있듯이, 제일 먼저 세상의 궁통득실(窮通得失)과 영욕이해(榮辱利害) 등 일체를 생각 밖에 두어, 마음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중략) 책을 읽어도 마음을 괴롭힐 정도로 읽지 말 것이며, 절대로 많이 읽으려 하지 말 것이다. 다만 마음 내킴에 따라 그 뜻을 음미하고 즐기고, 이(理)를 궁구함에는 모름지기 일상생활(일용(日用))의 평이(平易)하고 명백(明白)한 곳에 나아가 간파(看破)하여 숙달케 할 것이다. …

② 대체로 이 이(理)는 일상생활 속 어디에나 있다. 동작 중에도 쉬는 중에도 있고, 말하거나 묵묵히 있거나, 이륜(彝倫)에 따라 응접(應接)하는 경우에도 있다. 평실명백(平實明白)하고 세미곡절(細微曲折)하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그렇지 않음이 없다. 눈앞에 드러나 있으면서 또한 아무 조짐도 없는 데로 들어간다. 초학(初學)들은 이것을 버리고 성급히 고원심대(高遠深大)한 것을 일삼아, 지름길에서 재빨리(손쉽게) 얻으려 하지만, 이는 자공(子貢)도 하지 못한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한갓 수고로움만 있을 뿐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망연히 의거할 실(實)이 없다. 연평(延平)은, "이 도리는 순전히 일용처(日用處)에 있다"고 하였는데, 뜻 깊은 말이다.[42]

위 두 글의 요지는, '이(理)를 궁구함에는 모름지기 일용(日用, 일상생활)의 평이하고 명백한 곳에 나아가 간파하여 숙달케할 것이다'(窮理須就日用平易明白處 看破教熟)에 있다. 최진원(崔珍源) 교수는 이와 같은 태도에서 퇴계(退溪)의 도산십이곡(陶山十

42) 윤사순(尹絲淳), 「퇴계명저역주(退溪名著譯註)」 <자성록(自省錄)>, 「퇴계학보(退溪學報)」16 참조.

二曲)의 품격(시성, 詩性)인 온유돈후(溫柔敦厚)가 우러난다고 지적[43]한 바 있는데, 민순(閔純)의 온겸각후(溫謙慤厚)란 덕성도 역시 퇴계(退溪)의 공부와 같은 맥락에서 함양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요컨대 민순(閔純)은 불가(佛家)의 돈오(頓悟)와 도가(道家)의 현허(玄虛)를 배격하고 일용처(日用處)의 평이(平易)한 것에 나아가 순순적구(循循積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습정(習靜)에 주력했음은 퇴계(退溪)의 경(敬)공부 즉 존양성찰(存養省察)과 상통하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4. 당쟁하(黨爭下)의 명철보신(明哲保身)과 상례교정(喪禮矯正)

(1) 현자피세(賢者避世)

홍가신(洪可臣)은 민순(閔純)이 선조(宣祖) 초에 효행으로 조정에 천거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5, 24년 10월조 말미)의 기록과는 일치한다. 앞의 묘갈명(墓碣銘)에서도 보았듯이 민순(閔純)은 벼슬을 그만두고 여러 차례 낙향하곤 했다. 그가 사환(仕宦)의 현달을 마다하고 여러차례 벼슬을 내던지게 된 이유를 홍가신(洪可臣)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선생께서 세상 여러 일을 경력하여 자기의 도를 끝내 행할 수 없고, 자기의 뜻이 끝내 펴질 수 없음을 알자 벼슬살이의 정이 더욱 멀어지고 퇴거(退去)할 생각이 굳어졌다.

윗글에서 말한 도(道)는 성리학의 도(道)라고 할 수 있다. 치인

43) 최진원(崔珍源), 「한국고전시가(韓國古典詩歌)의 형상성(形象性)」, p.34,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88.

(治人)-위인지학(爲人之學)을 베풀 수 없는 현실이라 그는 수기(修己)-위기지학(爲己之學)에 충실하면서 명철보신(明哲保身)하기 위해 관직을 과감히 버렸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出)과 처(處)'의 양면적 생활의 축을 맴돌다가 급기야 처(處)의 세계로 침잠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당시 치인(治人)의 도(道)를 베풀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역시 홍가신(洪可臣)의 다음과 같은 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수십 년 동안 선비들의 당론이 둘로 갈려 시비가 서로 엇갈리는 때라 비록 명인석사(名人碩士)라 하더라도 이 무리에 지목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연(貞然)히 지켜 시종 흔들리지 않아 일대(一代)의 완인(完人)이 되기는 오직 선생 한 분 뿐이었다.

이른바 동·서 양당으로 분열되어 쟁론을 벌이는 어수선한 현실이라 스승 민순(閔純)은 경국치민(經國治民)의 도(道)를 베풀기 어려웠고,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그는 결국 퇴거(退去)하여 자수(自守)하면서 제자들을 기르기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순(閔純)의 사정은 실록의 기록 가운데서도 산견(散見)된다.

> 조수(朝修)·민순(閔純)은 모두 노성숙유(老成宿儒)로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 바인데 단지 시의(時議)에 부합되지 않아 교동(郊垌)에서 좌고(坐枯)하고 있습니다.[44]

한편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김우옹(金宇顒)은 선조(宣祖)에게 민순(閔純)에 관하여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44)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권20, 19년 병술조(丙戌條) 참조.

이이(李珥)가 또 아뢰길, '민순(閔純)이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갔는데 현자(賢者)가 조정을 떠났으니 이는 경계하여 살필만한 것입니다.' 임금이 놀라며 말하길, '나는 듣지 못했다. 무슨 까닭으로 떠났는가?' 김우옹(金宇顒)이 말하길, '그 사람은 정성으로 학문을 연마한 진현인(眞賢人)입니다.' 이이(李珥)가 아뢰길, '세상의 풍조가 도도하여 차츰 몸가짐을 곧게 하는 사람〔直己之人〕이 있으면 무리지어 괴이하다며 꾸짖어 그 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민순(閔純)이 떠나간 까닭입니다. 지금의 세태로서는 현자(賢者)가 어디를 의지하겠습니까. 또 지금은 지극히 성실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자가 아주 적으니 나라의 일에 있어서 이것이 임금의 걱정꺼리입니다. 임금은 홀로 그 걱정을 감당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현자(賢者)를 얻어 함께 걱정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45)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민순(閔純)이 사헌부 지평(持平)이 된 것은 선조(宣祖) 7(1574)년이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민순(閔純)이 고양(高陽)에 살면서 도(道)를 지키고 벼슬하지 않으며, 가난함에 편안해하고 욕심이 적으니 배우는 자들이 무척 높이고 우러렀는데 이에 이르러 지평(持平)에 임명되었다"고 했다. 그 뒤 민순(閔純)은 잠시 관직이 바뀌었다가 선조(宣祖) 8(1575)년 4월 다시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고 그해 6월에 또다시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다. 이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을 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순(閔純)이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정양지공(靜養之功)으로 조정에 등용되었는데, 논의가 구차하지 않았고 상소(上疏)하여 상제(喪制)를 변하게 하니 유속(流俗)이 미워하여 드디어 관직을 떠나간 것이다.46)

---

45) 상동, 권9, 8년 6월 삭(朔) 무진조(戊辰條) 참조.

실록에는 위와 같은 기록 다음에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율곡(栗谷)과 김우옹(金宇顒)의 민순(閔純)에 관한 이야기를 싣고 있다. 위의 기록에서는 그가 유속(流俗)의 미움을 받고 조정을 떠났는데 그 까닭은 그의 논의가 곧고 또 상제(喪制)를 변하게 하였다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 상제(喪制)에 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 그의 사람됨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 왕이 말하기를, '경명행수지사(經明行修之士)를 뽑아 쓰자는 말을 해주니 이는 매우 좋은 일이다. 다만 명실(名實)이 부합되지 않는 이가 비교적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요사이 과연 명실이 부합되는 자가 있는지 모르겠구나.' 정인홍(鄭仁弘)이 아뢰길, '인재가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소신이 비록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조정에 물어본다면 어찌 그런 인물이 없다 하겠습니까.' 왕이 말하길, '만일 그러한 인물이 있다면 차례대로 말해보라.' 정인홍(鄭仁弘)이 아뢰길, '재목이 아주 커서 가벼이 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대(先代)에 있어서는 민순(閔純) 같은 무리 5~6인이 경명(經明)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만약 그 연원을 말한다면 곧 서경덕(徐敬德)의 제자들입니다. 또 정철(鄭澈)이 무함하여 죽인 최영경(崔永慶)도 또한 그 한사람입니다. 이제 그 남아있는 자는 오직 심종도(沈宗道) 한사람으로 곧 민순(閔純)의 문생(門生)입니다.[47]

위의 대화로 보아 화담(花潭)의 제자 행촌(杏村) 민순(閔純)은 명실(名實)이 부합되는 경명행수지사(經明行修之士)로 인정되어 조정에 발탁되었으며, 광해군대(光海君代)에도 그의 제자가 역시

---

46) 상동, 권9, 8년 6월조 참조.

47)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권97, 7년 을묘(乙卯) 11월조. 정족산본(鼎足山本)

경명행수지사(經明行修之士)로 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자는 고양(高陽)에 퇴거(退去)하여 기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윗글에서는 정철(鄭澈)이 무함하여 죽인 최영경(崔永慶)도 민순(閔純)과 마찬가지로 서경덕(徐敬德)의 제자라고 하였다. 홍가신(洪可臣)은 그 최영경(崔永慶)이 민순(閔純)에 관하여 칭찬한 말을 스승의 묘갈명에서 언급하고 있다. 다시 인용해본다.

> 수우당(守愚堂) 최영경(崔永慶)은 평생 남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유독 선생만은 깊이 존경하여, '민순(閔純)은 성의가 간절하니 만약 재상의 지위에라도 있게 했더라면 임금이 감동하여 계발(啓發)되는 점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스승 민순(閔純)이 당대의 쟁쟁한 사대부들로부터 상당한 촉망을 받고 있었음을 홍가신(洪可臣)은 이렇듯이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당시 '진군자(眞君子)·현자(賢者)·진현인(眞賢人)'으로 칭송되며 앞으로 더욱 현달하고, 양심적인 치자(治者)로서의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사명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민순(閔純)이 여러 차례 낙향과 출사(出仕)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퇴휴(退休)의 뜻을 결단하여 실행하게 된 것은 오늘날 생각해도 당대의 정치현실이 안타깝게만 여겨진다.

그는 고양(高陽)에 전장(田莊)을 두었다. 즉 토지에 기반한 생활근거가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어디에도 빌붙지 않고, 관직을 미련없이 버리고 퇴휴(退休)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도 경국제민의 겸선(兼善)을 이념으로 삼고 있던 사대부 민순(閔純)이 생활근거지 고양(高陽)으로 물러나 수기(修己)의 생활을 한 것은 단지 당시 사대부사회에서 유행되었던 청풍고취(淸風高趣)의 관념적 풍조를 편승·이용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일찍이 조윤제(趙潤濟) 박사는 우리 국문학사의 「강호가도

(江湖歌道)」의 형성과 양상을 논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당쟁이라 하면 이조(李朝) 국가사회의 한 암(癌)이라고 이를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허다한 폐해를 남겼을 뿐 아니라 마침내는 국가의 생명까지 빼앗아 버렸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것이거니와, 그 원인에 대하여는 신구세력의 충돌 혹은 경제권의 획득, 정치세력의 상탈(相奪),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지마는 그는 나변(那邊)에 있었든 되어서 당파가 생기고 이루어져 당쟁이 되니, 이것은 도저히 심상치 않은 것이 되었다. 즉 잘 되어서 당쟁에 이기고 본 즉 일국(一國)으 지배권을 잡아 좋은 지위에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문일족(一門一族)과 왼 당이 같이 그 번화(繁華)를 누릴 수 있겠고, 잘못되어서 당쟁에 패하는 날이면 정권을 잃어버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벽지배소(僻地配所)에서 운명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어 그로 인해 또 얼마만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이 될지도 모르게 된다. 그러니까 명철보신(明哲保身)을 꾀하는 사람이면 아예 이러한 파랑(波浪)이 심한 환계(宦界)에 나올 것이 아닐 것이겠고, 나온 즉 결국은 같이 그 풍파에 휩쓸려 들어가 불안과 공포에 일생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뜻있는 사람은 혹은 한번 풍파에 놀란 사람은 도리어 환계생활(宦界生活)을 단념하고 당쟁에서 벗어나와 산야(山野)에 파묻히어 독서삼매에 유유자적하려 하였다. ……48)

위의 조(趙)박사가 논한 글에 비추어 본다면 민순(閔純)의 경우는, 뜻있는 사람으로서 환계생활(宦界生活)을 단념하고 당쟁에서 벗어나와 산야(山野)에 파묻히어 독서삼매에 유유자적한 산림학자(山林學者)에 해당됨직 하다. 그는 당시 당쟁하의 명철보신

48) 조윤제(趙潤濟), 「한국문학사(韓國文學史)」, pp.160~161, 1963.

(明哲保身)을 위해 퇴거(退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전혀 망각했던 것은 아니다. 홍가신(洪可臣)은 묘갈명에서, "비록 집에 계시더라도 시대를 걱정하는 생각이 늘 끊이지 않았고, 혹 시정(時政)의 잘못을 들으면 쓸쓸히 불안하시어 근심스런 안색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몸은 산림(山林)에 가 있지만 마음은 현실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사대부의 일반적인 삶의 한 방식이었다. 조선초 사대부에게는 현실을 부정하는 '도피'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그의 귀거래(歸去來)는 「논어(論語)」에 나오는 '은거이구기지(隱居而求其志)'의 은구(隱求)이며 「맹자(孟子)」의 '궁즉독선기신(窮則獨善其身)'의 독선(獨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자피세(賢者避世)로서의 이 은구(隱求)는 유학적 현실긍정으로 노장적 현실부정인 은둔(隱遁)과는 다르다. 요컨대 그의 귀거래는 경국제민(經國濟民)의 뜻을 구하는 은구(隱求)요, 명철보신(明哲保身)을 꾀하는 독선(獨善)이다. 그것은 현실도피라기보다는 현실이탈로, 한마디로 현자피세(賢者避世)라고 할 수 있다. '때의 만남과 못 만남' 가운데 그의 이념이 때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2) 상례교정(喪禮矯正)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그의 상례교정(喪禮矯正)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리학에 기초한 예의식 및 그 시행은 한국의 경우, 여말(麗末) 성리학의 수용과 때를 같이 한다. 그러나 성리학의 본격적 발달은 조선조에서의 관학화(官學化)-통치원리화(統治原理化) 이후이므로, 그 예의식과 시행 역시 조선조 성립이후에 본격적으로 발달한다.[49] 특히 가례(家禮)의 보급제도는 고려와는

49) 윤사순(尹絲淳), 「한국유학사상론」, <조선조 예사상의 연구>, p.60, 열음사, 1986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눈에 띄는 현상이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에 이르면 「소학(小學)」의 이해와 그 실천이 강조되고, 17세기에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예가 중시되고 강조된다. 이 시대를 '예학시대(禮學時代)'라 일컫기도 한다. 당시를 예학시대라고 부르게끔 하는 이유는 단지 예의 학문적 정리나 해설이 왕성하였던 데만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실제적 실천에서 철저를 기하려는 정신이 드높았던 데에 있다. 그 예를 우리는 우선 당시의 인간평가의 엄격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분 의리에 맞는 합례적 행위를 하였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를 구분하는 의식이 엄격하여, 이것이 결국 인간평가에까지 철저히 적용되었던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간이 곧 군자이고,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간이 곧 소인이라는 지칭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본보기를 우리는 동서당파의 분열, 특히 그 분열의 발단에서 보게 된다. 일찍이 16세기 말엽에 동서 분열의 발단이 심의겸(沈義謙) 등의 김효원(金孝元)에 대한 소인시(小人視)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은 등과(登科)전에 김효원이 당시 영의정 윤원형(尹元衡)의 집에 기식하는 그 비례적(非禮的) 처신 때문이었다.[50]

합례적 행위만을 따르려는 당시의 생활태도는 다만 군자·소인 등의 인간평가에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아가 당쟁까지도 초래한 것이다. 당쟁의 내용 자체가 비록 정치욕망 또는 정치역학이 작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분에 있어서는 합례적 행위를 표방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당쟁이 이른바 복상(服喪)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다는 뜻의 '예송(禮訟)'이라 지칭되는 것으로도 그 점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1659년 효종(孝宗)이 세상을 떠남에,

---

이 글에서는 조선조 예사상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논하고 있어 우리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 글의 논의에 맡기고 따로 부연하지는 않겠다.

50) 이병□(李丙□), 「국사대관(國史大觀)」참조.

효종의 계모이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의 복(服)이 문제로 등장한다. 이때 서인인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은 기년복(朞年服)을, 남인인 윤전(尹鐫)과 허목(許穆) 등은 삼년복(三年服)을 주장하며 서로 맞선다. 이 일차 예송(禮訟)에서 채택된 것은 물론 전자의 것이다. 그리하여 서인이 득세하고 남인이 실세하는 정치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대결에서의 마지막 해결이 결코 진위(眞僞)나 정부정(正不正)에 의한 것이 아님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이들의 양설(兩說)은 그런대로 다 근거가 있다.[51] 마지막 해결은 다만 임금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다. 어느 설의 옳고 그름이 아닌 명분과 그 적용 및 시행을 고려한 선택이 최종 판가름을 하는 것이다. 합례적 명분의 선택이 예송을 좌우하고 승패를 좌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당쟁이 목숨까지 거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그 합례적 명분을 찾는 예 중시 관념의 철저함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상례(喪禮)문제와 결부되어 민순(閔純)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경우를 우선 효종(孝宗)·현종(顯宗)·숙종실록(肅宗實錄)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설명의 편의상 역순으로 인용해 본다.

> 쇠복(衰服)이 아버지와 임금을 위한 것은 처음부터 「의례(儀禮)」에 실려 있었는데 진한(秦漢)이래로 최복이 날로 문란해져 한(漢)의 여러 선비와 당(唐)의 두우(杜祐) 송(宋)의 마단임(馬端臨)의 무리들이 모두 의존하여 저술한 바 있으나 시왕연혁지제(時王沿革之制)를 지

51) 「오례의(五禮儀)」에는 '모위자복기(母爲子服朞)'라 하였는데, 이는 「예기(禮記)」의 기년설(朞年說)과 일치하며, 대명률(大明律)과 국제(國制) 및 「상례비요(喪禮備要)」의 설과도 일치한다. 반면 「의례(儀禮)」 참쇠장(斬衰章) 매소(賈疏)의 주석에는 "立庶子爲後 不得爲三年 妾子故也"라 하면서, 그 대신 "第一子死 取嫡妻所生第二長子立之 亦名長子"라 하였으니 당시의 양설(兩說)은 모두 근거가 있었다.

나지 못하였다. 주자(朱子)의 <군신복의(君臣服議)>에 이르러 고금(古今)을 참작하고 덜어내고 더하여 실상의 정문(情文)을 이루니 그 논설이 잘 갖추어졌다. 그 이치가 지극히 합당하니 고례(古禮)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이를 버리고 무엇을 좇으리오. 우리나라는 선조(宣祖) 때의 일이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가 지은 것에 상세히 보인다. 성교(聖敎) 가운데 민순(閔純)의 의론을 따라 바르게 한 것이 이것이다.[52]

윗글에서는 당시 국상(國喪)의 군신복제(君臣服制)의 경우 주자(朱子)의 논설을 준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순(閔純)이 그 주자(朱子)의 의론대로 좇기를 주장하여 숙종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현종대(顯宗代)의 기록이다.

일찍이 선조대(宣祖代)에 지평(持平) 민순(閔純)이 「국조왕례의(國朝王禮議)」의 졸곡후(卒哭後)에 오모(烏帽)·오대(烏帶)의 잘못됨을 고치기를 청하니 임금이 결단하여 행하게 되었으니 이는 저하(邸下)의 금일(今日) 마땅히 본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53]

위와 관련된 기록은 효종실록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길, 「오례의(五禮議)」를 상고해 보면 졸곡(卒哭)한 뒤의 사복(事服)을 보면, 백포(白袍) 익선관(益善冠) 백립(白笠) 오서대(烏犀帶) 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한다고 실려있고, 백관(百官)의 복(服)은 선조대(宣祖代)의 민순(閔純)의 의론을 써서 졸곡(卒哭) 후에는 백모(白帽) 포리대(布裏帶)로 고친다고 하여 이미 정해진 제도가 되었으니, 이에 의거하여 논한다면, 전하(殿下)의 익선관(益善

52) 「숙종실록(肅宗實錄)」권54, 39년 11월조 참조.
53)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권1, 즉위년을헌(卽位年乙亥) 오월조 참조.

冠)은 소관(素冠)으로 오서대(烏犀帶)는 포리대(布裏帶)로 고쳐야합니다.[54]

요컨대 위의 실록의 기록을 보면 선조(宣祖)이래로 상례(喪禮)의 복제(服制)는 민순(閔純)의 의론이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민순(閔純)은 선조대(宣祖代) 누구의 喪禮의 경우 이러한 논의를 개진하였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8년 정월 2일조에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 의성왕대비(懿聖王大妃)가 돌아가셨다. 시호는 인순왕후(仁順王后)라 하였다. 왕후는 방정하고 엄하게 예를 지키고 곤범(閫範)을 엄정히 지키며 현왕(現王)을 가르쳐 인도하여 정시(正始)의 도움이 넓고 많았다. 임금이 효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일찍이 뜻을 거스름이 없었는데, 돌아가시게 되자 애통해 하며 예의를 다하니 세상이 감동하였다.

실록의 기록은 이 해 정월에 바로 왕대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상(喪)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는 동왕(同王) 유월조(六月條)에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순(閔純)이 상소하여 상제(喪制)를 변하게 하니 유속(流俗)이 미워하여 그는 사헌부 지평(持平)을 그만두고 떠나갔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바로 이 해의 4월에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불과 두어 달 만에 그만둔 것이었다. 실록의 그즈음 몇 달 사이의 기록을 필자가 미처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복상(服喪) 문제와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홍가신(洪可臣)의 묘갈명에는 이와 연관된 언급이 있어 주목된다.

---

54) 「효종실록(孝宗實錄) 권1, 즉위년(卽位年) 유월조 참조.

민순(閔純)은 사헌부 지평(持平)을 내리니 고사하다가 나아갔다. 그 때 마침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상(喪)이 졸곡(卒哭)이 되어 복(服)을 바꿔 입는 때였다. 예관(禮官)이 「국조왕례의(國朝王禮議)」에 따라 오사모(烏紗帽)와 흑각대(黑角帶)를 임시 상복으로 정하니 선생이 개탄하며, '삼년의 상은 천자로부터 서민에게까지 다 같은 것이라' 하여 곧 상소를 올려 송(宋)의 효종(孝宗)이 백모(白帽)로 삼년을 마친 제도를 따르게 하였다. 임금은 그 논거에 따라 하게 하니 선비들이 서로 경하하여 옛 제도를 점차 따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조선조 성리학에 기초한 예(禮)와 같이 고도로 세련된 예(禮) 일수록 단순한 습속 이상의 합리적 근거-사고(思考)를 갖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가 합리적 근거를 지닌다는 것은 곧 그것이 이성의 산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성에 휘말리지 않고 이성에 따라 '별(別)' '서(序)'의 기능, 이른바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예임을 명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선조 선인들의 예의식이 드높았음은 곧 그만큼 그들이 이성적 생활에 투철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예 존중은 분명히 본능적 감성에 의한 동물화와 타락의 방지에 뜻이 있었던 것이며 나아가 금욕적 자기억제에 의한 사회질서의 수립에 뜻이 있었던 것[55]으로 볼 수 있다. 이 예 의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많다고 하겠다. 이 점에 견주어 볼 때 행촌(杏村) 민순(閔純)의 상복(喪服)에 관한 의론은 후대 바른 예법의 한 전범(典範)으로 인식되었고, 그 의론 밑바탕에는 이성적 생활에의 충실과 합리적 사고에 입각한 사회질서의 수립, 이를테면 성리학으로 다져진 명분론적 사고, 그 이성에 뒷받침된 합리주의적 사고가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

55) 윤사순(尹絲淳), 앞의 책, p.75.

5. 문학적 성향

민순(閔純)의 「행촌집(杏村集)」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문집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짜임을 보면, 권 1에는 오언절구 58수・육언절구 2수・칠언절구 191수가, 권 2에는 오언율시 137수・칠언율시 61수가, 권 3에는 칠언율시 174수가, 권 4에는 오언배율 10수・칠언배율 5수・오언고시 58수가, 권 5에는 오언고시 26수・칠언고시 45수가, 권 6에는 소(疏) 9편・전(箋) 2편・책(策) 4편이, 권 7에는 서(書) 13편・논(論) 4편・기(記) 3편이, 권 8에는 서(序) 6편・명(銘) 10수・송(頌) 4수・상량문(上樑文) 1편・제문(祭文) 10편이, 권 9에는 제문(祭文) 9편・애사(哀辭) 9편・잡저 5편이, 마지막 권 10에는 청리제영(淸里諸詠) 33수・추성별장(秋城別章) 9수・만장(輓章) 26수・제문(祭文) 4편이 실려있다. 시(詩)와 문(文)이 문집의 각기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당시 사대부 일반의 문집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민순(閔純)의 문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집의 시(詩)・문(文) 모두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전적으로 그의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므로 이 작업을 본고에서 함께 병행하기는 수월치 않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문학적 검토는 다음 별도의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편의상 한적한 전원생활을 읊은 시 몇 수를 뽑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행촌(杏村) 민순(閔純)이 관직을 맡았다가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삶의 여정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음을 이미 앞부분에서 언급했다. 그는 관직에 몸을 담았을 때보다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시를 많이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향에서의 한가로운 풍류생활에 시적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었고, 친구와의 화답이 많으며, 농사일이나 기타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포함하여 시의 소재들이

다양하다. 이 가운데 <귀가후기견(歸家後記見)>이라는 제목의 칠언율시 한 수를 먼저 들어보기로 한다.

蹇驢歸臥野溪東　다리 저는 나귀 야계(野溪) 동쪽으로 돌아와 누었더니
政値高天有去鴻　바로 높은 하늘에 떠나가는 기러기를 만났네.
叢菊待人嗟晩節　사람을 기다려준 떨기국화의 만절(晩節)이 감탄스럽고
亂林無葉自秋風　어지러운 숲에 절로 가을바람 부니 잎새는 없구나.
連郊黍稷簫條後　들판의 곡식 거둔 뒤
隔座雲山寂歷中　저 멀리 운산(雲山)이 조용히 자리했구나.
自笑幽居多應接　우습다, 그윽이 묻혀 사는데 응접이 많으니
此生將費幾詩筒[56]　이 삶 앞으로 몇 통의 시의 상자를 이룰런지.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마침 가을이었다. 기러기는 떠나가고 만절(晩節)의 상징 국화는 그 자신을 기다렸다는 듯이 피어있다. 숲의 나무들은 가을바람에 잎이 다 떨어졌고 추수로 끝난 뒤인지라 주위가 적막한데 구름이 떠도는 산을 마주 대해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수월치 않다고 끝마무리하였다. 그의 문집에 실린 시들은 대체로 위의 시 끝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고향에서의 한적한 삶을 기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그는 자신의 낙(樂)은 '가거(家居)·대주(對酒)·친우(親友)·문적(文籍)' 네 가지이며, 즐거운 흥취는 '계산(溪山)·시주(詩酒)·전묘(田畝)·어초(漁樵)' 네 가지라고 시를 지어 말한 바 있다. 이 네 가지 낙(樂)과 흥(興)은 관직에 연연한 생활에서는 누리기가 어렵고 세상일이나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에서나 만끽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의 이 네 가지 낙(樂)과 흥(興)은 이를테면 당시 조정의 불만스런 정치행태와 만족을 못 느끼는 관직생활로 생긴 울화를 토닥거

56) 문집 권2, <귀가후기견(歸家後記見)>

릴 수 있는 진정제 역할을 했던 것이며, 양심을 잃지 않으려는 참다운 선비로서의 은거이구기지(隱居而求其志)의 한 방편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襟村惟白水　　마을 울타리는 오직 흰 물결
環屋多蒼山　　집을 둘러싼 것은 많은 푸르른 산.
莫道吾所樂　　내 즐거워하는 것 말하지 말라
但爲郊居閒　　단지 교외에서의 한가로움뿐이니.
吹篪塤必和　　훈과 지를 불듯이 반드시 형제간에 화목하고
弄雛衣常斑　　아이처럼 항상 색동옷입고 재롱부리네
雖居原憲貧　　비록 원헌(原憲—자사, 子思))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木改陶潛顔　　도연명의 얼굴빛 고치지 않으리.
款款村父老　　즐거워하는 마을 사람들
濁醪時往還　　때로 탁주 마시러 갔다 오네.
何須逐靈圍　　어찌 모름지기 영위(靈圍)
永栖靑雲關[57]　　길이 청운관(靑雲關)에 깃들리라.

위의 시는 흰 물결 푸르른 구름과 산이 있는 시골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며, 비록 원헌(原憲—자사, 子思))처럼 가난하게 살망정 옛날 중국의 도연명이 팽택군수를 내던졌던 것처럼 영화와 부귀는 멀리하겠다는 다짐이 돋보이는 <가거락(家居樂)>의 표현이다.

有詩借爾成　　널 빌어 시를 짓고
有懷待爾滌　　너를 기다려 회포를 씻어낸다.
世人知味寡　　맛 아는 세상사람 적나니
葷血待充適[58]　　한갓 냄새나는 더러운 피만 충족시킨다네.

그의 두 번째 낙(樂)인 <대주낙(對酒樂)>의 첫 부분 4구이다.

57) 문집 권5, <杏村子四樂贈荷塘主人尹士必> 기일(其一), <가거락(家居樂)>
58) 상동, 기삼(其三) <대주락(對酒樂)>

그 자신은 술을 빌어 시를 짓고 묵은 회포를 씻어내지만, 남들은 한갓 격정의 냄새나는 더러운 피만 충족시킨다고 했다. 말하자면 민순(閔純)은 건강한 정신생활을 위해 술을 즐긴다고 한 점이 돋보인다.

我心非君心	내 마음 그대 마음 아니고
君身非我身	그대 몸 내 몸이 아니다.
如何兩身心	어찌하여 두 몸과 마음이
便爾平生親	오로지 평생 친구가 되었나.
捉臂傳杯細	팔을 끼고서 세세히 술잔을 돌리고
授詩發興新	시를 찾아 새로운 흥을 돋구었지.
淡水惟君子	군자는 오직 담담한 물 같고
甘醴卽小人	소인은 단 술 같네.
相將勗素志	서로 장차 평소의 뜻 이루기에 힘쓰나니
歲寒指松筠	추운 세월엔 소나무·대나무의 지조를 가리키는 법.
吳肝笑越膽	오간(吳肝)이 월담(越膽)을 비웃으면
終古悲張陳[59]	영원한 슬픔이 베풀어지리.

위의 시는 <친우락(親友樂)>이다. 그대와 나 두 몸과 마음이 하나처럼 합치되어 서로 통하는 친구. 그 친구는 담담한 물 같은 군자이지 결코 달콤한 단술 같은 소인배는 아니다. 자신의 친구는 서로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소나무 대나무처럼 험난하고 모진 세월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지조를 갖고 있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끝으로 네 번째 낙(樂)인 <문적락(文籍樂)>에서는 살아 마땅히 책벌레가 될지언정 죽어 치선(癡仙)이 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독서삼매의 즐거움을 기꺼워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네 가지 낙(樂)은 지조를 지키며 낙향한 선비로서 양심을 지키며 옳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의 표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59) 상동, 기삼(其三) <친우락(親友樂)>

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의 네 가지 흥취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世人趨宦海	세상 사람들 벼슬길로 내닫으나
富貴如氷山	부귀는 빙산과 같네.
出郭外十里	교외로 10리쯤 나가서
誰識吾居閒	내 한가로이 사는 걸 뉘 알리.
水到松橋白	물은 소나무 다리에 이르러 흰 물결 치고
山吐能花斑	산은 꽃무늬를 토해 내네.
濯纓惟滄浪	갓끈 씻는 곳은 오직 맑은 물결
得句皆屠顔	시구 얻은 곳은 모두 준엄한 산 모습에서.
若使向平生	만약 앞으로 평생이 더 있다면
誄茅不得還	뇌모(誄茅)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
吾身有仙骨	내 몸은 선골(仙骨)
所以栖眞關[60]	진관(眞關)에 깃든 까닭이지.

哦詩不願貪	시를 읊조리며 탐욕을 바라지 않고
喫酒以爲年	술 마시며 나이를 먹네.
白篇渾謾興	시 백 편에 그득 넘치는 흥취
三杯合自然	석 잔 술에 자연과 합치되네.
狂來打壺吟	미친 흥이 일면 술동이 두드리며 읊조리고
酣極曝背眠	술 취하면 등에 햇빛 쪼이며 잠잔다네.
岑生及杜子	잠생(岑生;잠참, 岑參)과 두자(杜子;두보, 杜甫)
未必居吾先	반드시 나보다 먼저 살았던 것이 아니라네.
吾生便出世	내 삶 모름지기 세상을 떠났으니
何者爲神仙	누가 신선이 될 것이뇨.
可笑乾沒輩	가소롭다, 건몰배(乾沒輩) 관리(官吏)들
永爲高人憐[61]	길이 고인을 애처롭다 하는 게.

春及耘耔急	봄이 되면 갈기 김매기에 급하고

60) 문집 권4, <杏村四興步前韻再呈荷塘主人> 기일(其一), <계산흥(溪山興)>
61) 상동, 기삼(其三), <시주흥(時酒興)>

歲晏楊圃滌　　세월이 편안하니 양포(楊圃)를 씻어낸다.
田原縱□确　　언덕 밭에 비록 돌자갈이 많아도
田事破自適　　농사일 자못 괜찮다네.
課奴趁時雨　　때맞춰 오는 비에 일 맡은 종은 달려가고
□神禳歲惡　　기후가 나쁘면 신에게 고사지내며 빈다네.
不有黃牛壯　　튼튼한 황소는 없더라도
爭能白畝獲　　다투어 백이랑은 거둘 수 있네.
吾當學老農　　내 마땅히 노숙한 농부에게 배워
山野守驅殼　　산야에서 몸뚜이를 지키리라.
所愧身不耕　　부끄러운 것은, 몸소 농사짓지 않고서도
但自充腸腹[62]　　다만 제 뱃속과 창자만을 채우려는 일.

樵山更漁水　　산에선 나무하고 물에선 고기 잡으며
養我閒中身　　내 한가로운 가운데 몸을 기르네.
僮僕煩擔戴　　종들은 번거로이 메고 이고
□□卽心親　　갈매기는 마음 깊이 친하네.
用桂家全侈　　계수나무 땔감 쓰는 집 온전히 사치롭고
得雋口爲新　　준구(雋口)를 얻고서 새롭다 하네.
山居有至味　　산에서 살면 지극한 맛 있거니
淸福當詑人　　맑은 복 마땅히 남에게 자랑스럽네.
速宜成新句　　의당 속히 새로운 시구를 얻어
八叉慚庭筠　　온정균을 부끄럽게 하리라
家貧君莫笑　　집이 가난타고 그대 비웃지 마소
此樂勝在陳[63]　　이 즐거움의 우수함은 배풂에 있다네.

지루하겠지만 한꺼번에 인용하여 보았다. 위의 첫째 시는 <계산흥(溪山興)>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빙산처럼 녹아 없어질 부귀영화를 붙들려고 벼슬길로 내닫지만 자신은 그 모든 욕심을 버리고 아름다운 산수자연에 묻혀 선골(仙骨)이 되어간다고 자랑스레 표현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을 산천에 묻혀 한가로이 심성을 기르는 것으로 해소·자위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위의 둘

62) 상동, 기삼(其三), <전묘흥(田畝興)>
63) 상동, 기삼(其三), <어초흥(漁樵興)>

째 시는 <시주흥(詩酒興)>이다. 역시 이 작품에서도 관직에 연연한 이들 (건몰배(乾沒輩))을 애처롭다고 하면서 흥에 따라 마음껏 술 마시며 시를 짓는 은거의 생활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다음 세 번째 시 <전묘흥(田畝興)>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을 흥겨워하고 있다. 물론 사대부인 그가 몸소 농사는 짓지 않았을 것이지만 당시 일반 사대부보다는 농촌의 삶의 모습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사림파를 개창한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이나 일생을 방황하며 안주하지 못했던 진보적 지식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같은 이들은 당시 제도의 모순 속에 자행되는 악덕관리와 대지주의 혹독한 착취로 고통당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피지배 소농민층의 궁핍상을 애정 어린 눈길로 포착하면서,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부당한 훈구세력의 횡포를 꾸짖는 시편들을 여럿 남겼다. 민순(閔純)의 시에도 가렴주구에 신음하는 소농민층의 생활상이 약간 담기기는 하였으나 그 표현이 저들에 비교해 그리 심각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소농민들에 대한 다소의 연민과 관리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략 담겼을 뿐이다. 이 점 아쉽게 생각되나 이러한 경향이 그만의 특징이 아니라 당시 대다수 사대부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을 상기할 때 민순(閔純)의 행적에 결코 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사고방식과 행동에 있어서 좀 더 진보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해 볼 따름이다.

위의 끝의 시는 <어초흥(漁樵興)>이다. 제목 그대로 고기 잡고 나무하며 살아가는 한가롭고 평화로운 삶을 노래했다. 시의 표현처럼 그가 가난했다고는 볼 수 없다. 시골로 물러난 선비들이 자신들의 생활형편을 말할 때는 늘 가난하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권력의 주변을 어정거리며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절조를 지키다 정권에서 소외된 선비들이 자연에 묻혀 사는 검소한 삶을

긍지롭게 표현한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고 자위하려는 일종의 안간힘의 역설적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시에서도 역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조선조 사대부의 처사적 문학이 꽃피고 산수(山水)와 합일된 긍지가 표백되었음을 이미 여러 선학(先學)들이 밝히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제 끝으로 그가 시골에서 농사짓는 모습을 보고 지은 시 세 수를 들며 그의 시문학적 성향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稚子前行黃犬隨　　앞서가는 아이를 누렁개가 따르는데
村婆持饁餉東菑　　들점심을 인 아낙 동쪽 밭으로 가는구나.
田花一曲人歸去　　꽃핀 밭 한 구비 사람은 돌아가는데
牛背離離香稻垂[64]　　소의 등엔 향기로운 벼이삭 한 짐 드리웠네.

위의 시는 아름답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전원풍경을 그렸다. 아무 근심걱정이 없는 농촌이다. 그런데 다음 아래의 시에서는 그 평화로운 농촌풍경이 보이지 않는다.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野老治田業□□　　영감은 농사짓느라 김매며 북을 주고
村婆賣菜戴籃萎　　노파는 채소를 파느라 광주리 이었네.
如山酒肉五侯家　　오후가(五侯家)의 산 같은 술과 고기
能識吾民辛苦否[65]　　우리 백성의 괴로움의 산물인줄 알기나 하는지.

앞부분에서는 김매며 북을 주는 농사일에 바쁜 영감과 채소를 광주리에 이고 팔러 가는 아낙이 등장하다가, 전결구(轉結句)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고생의 대가로 양반들은 편안하고 풍족한

64) 문집 권1, <감예(監刈)>
65) 문집 권1, <우차국빈이능사회운(又次國賓李能士會韻)> 15수 기구(其九).

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농민들의 고통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다음의 칠언고시 <애도행(艾稻行)>도 역시 위의 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농민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농촌에서 그들의 삶을 피부로 직접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農人蓑笠出　농부가 부들삿갓을 쓰고서
牛日當山前　오정에 산 앞에 당도했네.
稻葉雖青亦可獲　볏잎은 비록 푸르지만 또한 벨만 하나니
夫持鎌銍婦餉田　사내는 낫을 가지고 아낙은 참을 준비했네.
猶勝前月初　전달 초보다는 나아
冒雨艾新麥　비 맞으며 올보리를 벤다네.
家貧無食當何何　집 가난해 먹을 것 없으니 어찌하랴
秋來可以免塡壑　가을되면 구렁창 골짝에서 굶어죽는 것을 면할 수 있으리
今年耘耔不失時　금년농사 때를 잃지 않았고
況復田中天雨均　하물며 밭에 비가 고르게 내렸음에랴.
可憐稻熟還少食　가련토다, 벼는 익어도 도리어 먹을 게 적으니
門前數有徵糴人　문 앞에는 징수인이 여럿이로다.
南隣北隣同此苦　남쪽북쪽 이웃이 모두 이 괴로움
何時酒熟醉田舍　어느 때 술 익어 농가가 취토록 마시랴.
君子見長安城裏衣錦餐玉人　그대 보지 못했나, 장안성 속의 비단옷에 옥 같은 쌀밥 먹는 이들
不是田頭把鋤者[66]　밭머리서 호미 잡는 이는 아니라네.

당시 중소지주였던 그는 몸소 농사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들의 삶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여 이해하고 동정하며, 치자(治者)로서의 경세제민(經世濟民)하려는 의식과 양심을 잃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과 지조는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다. 행촌(杏村) 민순(閔純)의 행적이 오늘날에도

66) 문집 권5, <애도행(艾稻行)>

연구문제가 되고 귀감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험난한 세태 속에서도 올바른 지식인으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면서 양심을 잃지 않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6.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주체적 삶을 살았던 행촌(杏村) 민순(閔純)의 산림학자적 성격의 극히 일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그의 행적을 단지 칭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지식인의 사명과 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그의 주체적인 삶의 행방을 되짚어본 것이다. 그는 분명 가도학자(假道學者)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노성숙유(老成宿儒)로서의 덕행과 삶은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물론 그는 어디까지나 치자(治者)인 지배층의 일원이었고, 그가 익힌 학문은 조선조 군주지배체제의 권위를 구축하는데 내면적 혹은 표면적 역할을 했던 성리학-주자학이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의 역할을 역사상에 일정한 지위를 주어 놓고, 부정적인 면에 대한 청산을 성취한 뒤 그 긍정적 요소를 섭취해서 민족문화의 창달에 보탬이 되게 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드높이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굳이 민순(閔純)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그의 주체적 삶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은 차후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일단 남겨두기로 한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의 생애와 사상

정 후 수[67]

서(序)
1. 가계(家系)와 생애
2. 학문과 교우
3. 정치사상
결 어(結語)
연 보

서(序)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이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은 숙종 때 함안(咸安)의 서산서원에 제향(祭享)되고 생육신으로 불리면서부터이다. 물론 그 이전인 생전에도 그의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젊은 나이에 소릉복위(昭陵復位)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의 상소문을 올리고 그로 인하여 빗발치는 비난과 주목을 받았던 그였다. 확실히 이 상소문은 남효온으로 하여금 전 생애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자신이 배워왔던 이상적인 세계가 일시에 좌절되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일말의 노력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한 것이다.

---

67) 한성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남효온이 이토록 용기를 내어 부르짖었던 근본적인 생각의 진원은 무엇인가. 이제 그의 생애와 사상의 일단을 살펴보고, 그의 행적을 대강 정리해 봄으로써 스스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1. 가계(家系)와 생애

남효온(南孝溫)의 본관은 의령(宜寧)으로서 자(字)는 백공(伯恭), 호(號)는 추강(秋江)·행우(杏雨) 또는 최락당(最樂堂)이다. 그의 시조는 영의공(英毅公) 남민(南敏)이며, 세조(世祖)인 의령군(宜寧君) 남군보(南君甫)는 고려 충렬왕 때에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내는 등 중앙의 관리를 거쳤으나 크게 나타나지는 못했다. 그 뒤 5대조인 남재(南在)와 남은(南誾) 형제가 이성계(李成桂)를 조선의 시조(始祖)로 추대하면서 벼슬길에 크게 오르게 되었고 이때부터 세상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충경공(忠景公) 남재(南在)는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진사시에 합격한 후 좌부대언(左副大言)이란 벼슬을 지냈다. 조선이 개국되자 1392년(태조 1년)에 포상을 안 받으려고 숨어살았으나 태조에게 그 장소가 알려져 '재(在)'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받으면서 개국공신 1등으로 중추원학사(中樞院學士) 겸 대사헌(大司憲)이 되었고 의령군(宜寧君)에 봉해졌다. 그리고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와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副事)를 거쳐 1396년 도병마사(都兵馬使)로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였다. 1398년(태조 7년) 제 1차 왕자의 난에 아우인 은(誾)이 살해되고, 재(在)는 잠시 유배되었다가 혐의가 없다고 하여 풀려 나왔다가 1400년(태종 원년) 세자사부(世子師傅)가 되었다. 그 뒤에 경상도 도관찰사·의정부 찬성사(贊成事)를 거쳐 우의정이 되었고 1416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남은(南誾)도 역시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조선을 개국하게 하

였으며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가 되었고 개국공신 1등으로 의성군(宜成君)에 봉해졌다. 그 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겸 판상단원사(判尙端院事)·우군절도사(右軍節制使)에 이르렀으나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鄭道傳)과 함께 태종에게 살해되었다. 그러나 남효온의 가계는 이때부터 명문 집안으로 드날리기 시작하였다. 증조인 남간(南簡)은 진사시에 합격하고 음보(陰補)로 형조좌랑(刑曹佐郞)이 되고, 1427년에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하여 좌헌납(左獻納), 1436년에 장령(掌令)을 지내고 예문관 직제학에 이르렀으며 청백(淸白)하기로 소문이 있었다. 증조의 형제인 지(智)는 좌의정을, 그리고 휘(暉)는 동지총제(同知摠制)를 지냈다. 조부 준(俊)은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냈고 부친은 32세에 생원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계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볼 때에 남효온(南孝溫)은 조선시대 명문 사대부 가문에서 그 핏줄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효온(南孝溫)의 생애를 자세히 더듬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그의 행적이 오랜 방랑과 은둔생활로 차 있었으며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갑자사화 때 후환을 두려워 한 나머지 집안사람들이 그의 글을 불태워 버렸으며 시문(詩文) 약간만이 남아 있는데 그나마 거기에 연보(年譜)가 실려 있지 않아 더욱 그의 생애를 찾기에 어려움을 보태준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에서 간간이 보이는 내용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그리고 그와 교류했던 사람들의 문집을 들추어보면서 그의 생애를 엮어 본다.[68]

남효온(南孝溫)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의 집안이 몇 대 째 명문 집안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어느 정

68) 김달수(金達秀), 추강(秋江) 남효온연구(南孝溫硏究), 성균관대, 한국한문학교실, 1986.

도의 노비와 토지를 소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자란 그는 13~14세에 남학(南學)[69]에서 공부하였고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했다는 칭송을 듣기도 하였다.

그의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아니면 아랫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생활태도를 지닌 것 같은 느낌도 간다. 지주이면서 굳이 지주로서 세도를 부리기보다는 몸소 밭 갈고 김매는 일에 손발을 걷어붙이고 살았던 감이 든다. 압도(鴨島)에서 몸소 호미를 잡고 돌부리를 캐며 강촌에 살면서, 고향인 행주(幸州)에서는 농사도 짓고 물고기를 잡는 등 서민의 생활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서호시(西湖詩)>를 예로 들어 보자.

가을 강 가을 흥 포성주 한 통
배 한 척에 밝은 달 싣고 낚시대 곁드려
낚시 끝나자 달 지고 밤 빛은 칠흑인데
거나하게 취한 술 깨자 가슴이 서늘해

그리고 《추강냉화(秋江冷話)》에 보면 갑진년(甲辰年, 1484)에 '행주에서 농사일을 하고 밭 갈며, 한가로울 때는 남포(南浦)에서 고기를 잡는다'라고 한 대목이 나온다. 이것으로 볼 때 소릉추복(昭陵追復) 상소 이후 포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 같다. 그의 생애는 39세라는 짧은 기간이었으며 생활의 어려움으로 큰 고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 쌀을 빌리러 갔으나 한 톨 얻지 못하고 자신의 가난을 한탄하는 모습[70]으로 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신선들이 먹고 사는 연단(煙丹)이란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차라리 나도 그런 신선술을 배웠더라면 굶주림 걱정은 안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가 더욱 일평생 괴로웠던 것은 병든 몸을 이끌고 세상을 마치게 된 것이다. 그에게는

69) 유생을 교육하던 기관의 하나. 동·서·남·북 네 곳에 있었다.
70) 추강집(秋江集), 권2, 관가고조부득(官家告糶不得).

풍병(風病)과 각병(脚病)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평생을 세상에 대한 괴로움으로 인하여 더욱 병세가 악화되었다. 이 때문에 그는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 도가의 불로장생법을 실천하려고 노력도 하였다.[71]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좀처럼 가시질 않았다. 그러자 35세 때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글을 짓기까지 하였다.

> 제자의 예로서 마땅히 엎드려 가서 절을 해야 하옵지만, 삼동에 병이 깊어 두 다리를 못 쓰고, 말을 타도 능히 갈 수가 없어 감히 사람을 보내오며… 지난 가을에 집안에 액이 거듭 생기고 초상이 겹쳐, 분주한 사이에 마음의 병까지 얻었습니다. 요사스런 말과 망령된 헛소리가 발작하면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약의 힘을 빌어 큰 병은 조금 그쳤으나 남은 독 기운이 아직도 있습니다…[72]

이 글은 그의 스승인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에게 보낸 만사(輓詞)의 서문이다. 이 만사는 4장으로 된 매우 긴 글로서 다 소개는 못하지만 대체로 인생을 달관하거나 아니면 체념하는 어투로 이루어져 있다. 그 뒤에 홍주산성(洪州山城)을 오르면서 지은 시는 완전히 인생에 대한 패배, 건강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다시피 하였다. 곧 자신의 몸을 패기(敗器)라고 비유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뼈아프게 노래하기도 하였다.

> 삼동 지나자 병이 조금 나아
> 정월 초이레에 산언덕을 오르니
> 봄 냉이는 푸른 잎이 나오고
> 가을의 시든 띠 꽃잎이 말랐구나
> 물과 하늘은 끝이 없는데

71) 권1, 약호부(藥壺賦).
72) 권1, 자만사장서(自輓四章序).

사람의 생애는 한도가 있네
신선의 단약도 생각은 했으나
깨어진 그릇을 어찌 하려나[73]

남효온에게 한 가지 취미가 있다고 덧붙인다면 그것은 술과 거문고이다. 술이란 본래 조금씩 마시면 약이 되지만 많이 마시면 독이 되는 법이다. 그가 이런 평범한 진리를 모를 리가 없었다. 그 자신이 "술은 적당히 마시면 근심과 답답함을 풀어 주며, 천지와 화합하고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옛날의 성현들을 스승과 벗으로 삼아 천백 년을 유유히 지낼 수 있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적당히 마실 줄 몰랐다. 더구나 술에 취하면 주정에 예의까지도 잃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그 스스로 미치광이라고도 할 정도였다. 27세에는 남산 기슭에서 과음하여 예의를 잃고 뉘우치면서 <주잠(酒箴)>[74]이라는 경계하는 글을 짓기까지 하였다. 그렇다고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 술이었다. 그는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나무라는 모친의 훈계에 몇 번씩이나 술을 끊으려고 <지주부(止酒賦)>를 지으면서까지 노력해 보았으나 병세가 위독해지자 다시 술을 들기도 하였다. 술을 좋아하는 습관은 그의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더구나 그가 소위 죽림칠현이라고 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세상근심을 잊고 살아갔는데 이 모임이 바로 중국 진(晋)나라 때의 죽림칠현을 모방한 성격이었던 것이다. 중국의 그네들도 항상 술과 거문고로 세상을 살았는데 그 중에 유령(劉伶)이란 사람의 이야기는 술에 대해선 가히 일가견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유령이 하도 술을 먹자 그 부인이 도저히 참지 못하여 제발 술을 끊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유령은 술을 끊을 것이니 술 끊는 맹세를 천지신명께 지내는 제사를 가져야 하므로 술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에 부인이

73) 권2, 등홍주산성(登洪州山城).
74) 권1, 주잠(酒箴).

제사 술을 준비하자 이 술을 다 마셔버리고 취해 누웠다고 한다. 이런 행동이 남효온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남효온에게 또 하나의 습관이 거문고였다. 앞에서 언급한 중국의 죽림칠현도 거문고와는 뗄 수 없는 사이였다. 유령은 항상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동자에게 거문고를 가지고 따라다니게 하였던 것이다. 남효온도 거문고 솜씨가 매우 뛰어났던 모양이나 처음에는 거문고를 잘 몰랐고 임흥(任興) 이정은(李貞恩)·이총(李摠) 등과 친하게 지내면서 음률을 좋아했다고 한다. 사실 선비라고 하면 으레 음률을 알아야 한다. 공자(孔子)도 음악에 매우 뛰어났던 인물이었고, 유교에서는 시서예악사어(詩書禮樂射御)라고 하여 음률 공부를 빼놓지 않았던 것이다. 《추강냉화(秋江冷話)》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 옛날의 12율·8음·5성과 같은 것은 사람 마음의 찌꺼기를 녹아 사라지게 하고, 혈액을 시원스럽게 소통하여 준다. 그러므로 성인이나 현인들도 음률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었으며 익히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알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자(孔子)도 장홍(萇弘)에게 음악을 배웠다.

이 말을 볼 때에 남효온이 음률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가를 보여주고 남음이 있다. 그의 실력은 대단히 진보했던 모양이다. 이정은(李貞恩)의 거문고 실력에 대한 논평이나 <현금부(玄琴賦)>라는 글을 보면 짐작이 간다. 그는 이정은(李貞恩)과 함께 청산별곡을 타면서 술을 마셨고,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에게 무현금(無絃琴)을 구해주기도 하였다.[75]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전하지 않는다. 다만 김굉필

75) 권3, 東峰求無絃琴畫小鍾使蒼頭歸之兼寄二絶

연보에 다음과 같이 그 당시의 상황이 전할뿐이다.

> 1492(성종 23년) 일찍이 추강과 절교하였는데, 그가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서 문병하니 추강이 거절하고 보지 않으려 하였다. 선생은 곧 문을 밀치고 바로 그 침실 안으로 들어가니, 추강이 몸을 돌려 벽을 향하고 보지 아니하였다. 선생이 손수 이불을 들고 그 피부를 어루만져 보니 수척함이 너무 심하므로, 선생이 깊이 탄식하고 애석히 여기며 조용히 영결하고 나왔다. 추강은 끝내 말 한 마디도 응답하지 않았다. 얼마 안 가서 추강은 세상을 떠났다.[76]

1504년(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남효온은 김종직의 문인이었다는 것과 소릉(昭陵)복위를 상소했다고 하여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했다. 허봉(許篈, 1551~1588)의 《해동야언(海東野言)》에 의하면 그의 무덤이 수렵금지구역 안에 있어서 양화도강변(楊花途江邊)에 가져와 형을 집행하고 시체를 모래 위에 두고 갔는데 가족들이 수습하지 않아 소재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 갈두리(葛頭里)(경기도 고양군 대장리(大壯里))에 있는 묘는 그 뒤에 찾아 다시 쓴 것인지 알 수 없다. 그에게는 충세(忠世)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미친 증세가 있어 추관(推官)이 살려두려고 하였으나 연산군은 "미친 자가 세상에 있으면 무엇 하랴, 반드시 죽여라"하여 죽음을 당했다.

1513년(중종 8) 소릉(昭陵)이 추복(追復)되면서 신원(伸寃)되고 좌승지(左承旨)에 추증, 장흥(長興)의 예양서원(汭陽書院), 함양(咸陽)의 서산서원(書算書院), 의령(宜寧)의 향사(鄕祠), 고양(高陽)의 문봉서원(文峯書院) 등에 제향(祭享)되었다.

1782년(정조 6) 다시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

76) 경현록(景賢錄), 부록, 연보.

에 가증(加贈)되고 문정(文貞)이란 시호가 내려졌으며 생육신의 창절사(彰節祠)에 다른 생육신과 함께 제향(祭享)되었다.

저술로는 《육신전(六臣傳)》 외에 성종·연산조 문인들과의 일화와 연산군의 학정을 소재로 한 《추강냉화(秋江冷話)》, 자신과 친한 사우(師友) 50여명에 대한 언행·문장·일화를 기록한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 등이 있고 문집으로는 《추강집(秋江集)》이 전한다.

2. 학문과 교우

남효온(南孝溫)의 학문과 교우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저술한 《추강냉화(秋江冷話)》와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이다. 이 두 책은 저자가 자기의 스승인 김종직(金宗直)과, 김시습(金時習)을 비롯하여 자기의 교우 50여명에 대한 언행·학문·일화 등을 기록한 문헌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그의 행동반경과 학문의 성격 내지 사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1453년 진사에서 출발하여 성종 초에 임금의 학문을 보좌하는 경연관(經筵官)이 되었다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 자기 제자를 관계(官界)에 많이 진출시켰다. 그러나 기성세력인 훈구파와 심한 반목 대립을 가져왔다. 일찍이 <조의제문(弔義帝文)>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의 제자인 김일손(金馹孫)이 사관으로 있으면서 이 글을 사초(史草)에 넣은 것이 원인이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부관참시 당하고 제자들도 많은 해를 입게 되었던 인물이다.

신진 사림파의 우두머리격인 김종직(金宗直)을 남효온(南孝溫)이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조신(曺伸)의 《소문쇄록(소聞瑣錄)》에 나와 있다. 여기에 보면 남효온이 26세 때에 호남(湖南)에서 만났는데 그는 김종직(金宗直)을 옛날의 현인으로 칭송했다고 한

다. 그 후 그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이 때부터 스승으로 섬기지 않았는가 한다. 남효온의 스승에 대한 자세는 시종일관 뚜렷하였다. 일찍이 김종직(金宗直)은 사장(詞章)과 경학(經學)의 불가분성(不可分性)을 주장하면서 시는 인간의 성정을 도야한다고 하였다. 그는 김종직이 문장이나 도덕상 당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국가의 기틀이 됨을 칭송하였으며, 밀양(密陽)의 영남루(嶺南樓)로 김종직을 찾아뵙고는 천년에 한 사람인 우리 김종직이라고 하여 천하제일로 꼽았다. 김종직(金宗直)도 남효온의 강직한 성격과 재주를 중히 여겨 낮추어 부르지 않고 항상 '우리 추강'이라고 하기까지 하였다.[77] 이런 태도는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김굉필(金宏弼)과 홍유손(洪裕孫) 등이 말년의 무사안일에 빠진 김종직을 비난하였지만 남효온은 끝내 스승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변치 않았으며 스승 또한 제자에 대한 예우를 버리지 않았다.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3세에 시를 읊었다고 하며 5세에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통하여 신동으로 이름이 났었다.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남효온은 김시습의 인품을 흠모한 듯하다. 김시습에게는 세속에 타협할 줄 모르는 고집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지조,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영리를 멀리하는 태도가 있었다. 이런 태도가 남효온으로 하여금 의기가 투합하게 했는지 모른다. 그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도 하였고 서로의 시를 읊기도 하였다. 이제 그 시의 제목을 살펴보면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행주 시골집에서 동봉(김시습)을 생각하며> <동봉에게 시를 주다> <동봉거사를 방문하여> <동쪽에서 이별하며> <보덕암에서> <동봉이 무현금을 찾기에…> <동봉에게> <동봉산인에게 답함>. 그

77) 권8, 묘갈명(墓碣銘)에는 "내가 그대의 스승이 아니라, 그대가 나의 벗이다"라고까지 하였다.

리고 김시습이 지은 시로는 <추강의 시에 화답함> <남효온에게 보냄> <산중에서 벗을 생각하며> <추강의 글에 답함> 등이 있다. 그밖에 남효온이 지은 <정부원팔수(征夫怨八首)>를 김시습이 수정해 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둘 사이는 인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매우 교유가 많았다고 본다. 비록 김시습이 20년이나 나이가 많았으나 연령을 뛰어넘은 지우(知友)였다고 본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한데 묶어 평가하기도 하였는데 신흠(申欽)은 "김시습은 우리나라의 백이 숙제이고, 남효온은 그 풍도를 듣고 일어난 자이다."[78]라고 하였다. 그리고 홍유손(洪裕孫)은 이 두 사람이 죽자 다음과 같이 둘 사이의 정을 표현하였다.

> 만년에는 추강과 함께 서로 만나 사물을 이야기하는데 숨김이 없었고… 떠나고 만남에 그 믿음을 잊지 않았으니, 이는 추강이 매월당(김시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니 백아(伯牙)로 하여금 거문고 줄을 끊게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몸만 남기고 혼백이 빠져나감을 슬퍼함이니 어찌 구천에서 추모하여 모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구천에서 즐기며 서로 글을 주고받으며 걸으면서 반드시 티끌 같은 세상을 내려보며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웃을 것입니다.[79]

이 글을 미루어 볼 때에 두 사람은 같은 생육신으로서 비슷한 길을 걸었으며 서로가 스승과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김시습이 남효온에게 "나는 세종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이런 고생도 마땅하지만 그대는 나와 다른데 어찌하여 세상을 위해 계책을 세우지 않는가"라고 하자 "소릉(昭陵)에 관한 일은 천하의 큰 변이므로 소릉이 복위된 뒤에 과거에 나아가도 늦지 않다"고

78) 대동야승(大東野乘), 상촌잡록(象村雜錄).
79) 수총유호상(篠叢遺稿上), 제금열경문(祭金悅卿文).

하자 더 이상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남효온의 후반부 생애를 알아보는 데는 죽림칠현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죽림칠현이란 진(晋)나라 초기에 완적(阮籍)·혜강(嵇康)·산도(山濤)·향수(向秀)·유령(劉伶)·왕융(王戎)·원함(阮咸) 등 일곱 사람이 노자·장자의 허무사상을 숭상하여 죽림에서 놀았으므로 붙인 이름이다. 이들은 모두 세상의 부귀영화를 등지고 자연과 벗삼아 평생을 유유자적하게 지냈다.

남효온의 주도 아래에 결성된 조선시대의 죽림칠현도 위와 같은 행동을 자처하며 지낸 모임이다. 여기에 참여한 인물은 남효온(南孝溫)을 비롯하여 홍유손(洪裕孫)·이정은(李貞恩)·이총(李摠)·우선언(禹善言)·조자지(趙自知)·한경기(韓景琦)이다. 이제 이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봄으로써 죽림칠현의 성격과 남효온과의 교유관계를 알아보자.

홍유손(洪裕孫, 1431~1529)은 김종직의 문인으로서 세조가 임금 자리를 빼앗자 세속적 영화를 버리고 죽림칠현을 자처하며 노자·장자의 학문에 심취하여 시와 술로 세월을 보냈다. 흔히 청담파(淸談派)로 불리었고 1498년 무오사화 때 붙잡혀 국문을 당하고 제주도에 유배되어 노예가 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왔다.

이정은(李貞恩)은 태종의 손자로서 수천부정(秀川副正)에 봉해졌다가 종친부도정(宗親府都正)을 지냈고 시와 음률에 뛰어났다.

이총(李摠)은 태종의 증손으로 무풍부정(茂豊副正)에 봉해졌었고, 1498년 무오사화 때에 유배되었다가 1504년 갑자사화 때에 7부자(父子)가 함께 사형당했다. 역시 남효온(南孝溫)·홍유손(洪裕孫) 등과 함께 청담파의 중심인물로서 시문과 필법에 뛰어났다.

우선언(禹善言)도 역시 노장사상에 심취하였고 시국을 논하고 시주(詩酒)로 소일하다가 무오사화 때에 갑산(甲山)으로 유배되

어 노복이 되었다.

조자지(趙自知)도 동대문 밖 대밭 속에 자주 모여 죽림칠현을 자처하며, 소요건(逍遙巾)을 쓰고 세속적인 영화에서 벗어나 시주(詩酒)와 가무(歌舞)로 세월을 보냈다. 이도 또한 노자·장자의 고고한 학풍을 토론하고 벼슬을 멀리했으므로 청담파라고 불리었다. 무오사화 때에 체포되어 국문을 받았다.

한경기(韓景琦, 1472~1529)는 당시 세도 정치가였던 한명회(韓明澮)의 손자로서 1489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뒤 벼슬에 뜻이 없어 대과(大科)에는 응시하지 않았으나 원훈(元勳)의 적손(嫡孫)이라는 이유로 돈녕부(敦寧府) 봉사(奉事)에 등용, 돈녕부정(敦寧府正)에 이르렀다. 죽림칠현의 한 사람으로 글재주가 뛰어났다.

이 죽림칠현이 결성된 것은 1482년이었다. 그 해 봄에 당시 남효온은 29세로서 소릉복위 상소를 올리고 실행되지 않자 세상에 부귀영화를 잊게 된 시기였다. 그 때에 조자지(趙自知)의 집에 모였을 때 홍유손(洪裕孫)이 남효온에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사정이 벼슬살이하기에는 마땅치 않으니 우리들이 모여 죽림칠현이라 하고 호탕한 놀이나 하자"고 하였고 여기에 남효온이 응낙하면서 결성된 것이다. 이들은 동대문 성 밑의 죽림에 모여 소요건(逍遙巾)을 쓰고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남효온은 우두머리가 되고 홍유손(洪裕孫)이 차석(次席)이 되었다. 그 뒤에 이현손(李賢孫)·노섬(盧燮)·유방(柳房)도 참여하였으며, 서로들 술이 몇 번 돌면 손아래부터 연장자에게 돌리는 도소주(屠蘇酒)를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다가 파했다고 한다.[80]

이 모임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생들이었으나 종실(宗室)과 명문의 자손들이었다.

이 죽림칠현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남효온이 세상을 떠난 후

80)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4년 8월 계미(癸未).

연산군 4년(1498) 8월이었다. 곧 당시 윤필상(尹弼商)과 유자광(柳子光)이 홍유손(洪裕孫)을 역모로 고발하면서부터였다. 윤필상(尹弼商)은

> 홍유손(洪裕孫)은 연소한 육~칠 명과 함께 무리를 만들고 자칭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라 하고, 때로는 강상(江上)의 집에 모여 소요건(逍遙巾)을 쓰고 함께 술을 마시며 세상을 비방합니다. 일찍이 과거에 나가기를 싫어하여 온종일 술에 취하거나 장난 섞인 글을 지으니[81]

라고 하였다. 또 유자광(柳子光),

> 홍유손은 사물을 희롱하고 세상을 가벼이 여기며, 그 말은 괴이하고 저술은 기궤하고 기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선비 일곱과 결성하여 칠현이라고 부르니 불러다 국문하소서.

라 하고 또 "진나라 완함 등의 일을 본받아 쇠퇴한 세상의 일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 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남효온을 비롯한 죽림칠현의 행동 방향을 대강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정의가 통용되지 않는 불의의 시대를 통탄하였으며 세상에 대한 분개의 항거로 소요건을 쓰고 술과 시로써 세상을 소일했던 것이다. 이것이 대체로 조선시대 죽림칠현의 성격이었고 동시에 남효온의 삶이기도 하였다.

3. 정치사상

남효온은 25세 때인 성종 9년에 소릉복위(昭陵復位) 상소문을

81) 상동, 4년 8월 계유(癸酉).

올림으로써 정치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반면에 그 자신 생활상의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소릉복위의 배경을 단종(端宗)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단종은 조선 제6대 임금으로서 문종(文宗)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현덕왕후(顯德王后)이다. 세종(世宗) 30년에 왕세손에 봉해지고, 1450년 문종(文宗)이 즉위하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병약한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로 임금자리에 올랐다. 그 이듬해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金宗瑞) 등이 참살당하고 숙부인 수양대군(세조(世祖))이 국권을 장악하면서 유명무실한 임금이 되었다. 1455년에 수양대군이 임금 자리를 억지로 물려받았고 이듬해 사육신이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후 1457년에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되어 영월(寧越)에 유배되었다. 그 해에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다시 복위를 꾀하다가 죽고 단종은 서인으로 되고 자살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사연을 안고 단종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임금 자리를 빼앗은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 꿈에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顯德王后)는 자기 아들이 살해되었다고 꾸짖었다. 이에 세조는 현덕왕후의 묘(소릉, 昭陵)를 폐위하여 물가로 이장하였다. 남효온은 바로 이 소릉을 복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당시 임금은 성종으로서 그는 어진 정치를 베풀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하였다. 매일같이 정치의 한가한 틈을 타서 경연(經筵)에 나아가는가 하면 신하들의 충성스런 말을 받아들일 줄 알았고 백성들을 끔찍이 생각할 줄도 알았다. 이런 시기를 활용하여 남효온과 가까운 이심원(李深源)은 10여조의 항목으로 된 상소를 올렸으며 여기서 훈구파의 집권 아래에 있는 세조(世祖) 공신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심원(李深源)이 상소를 올린 것은 독단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성종 임금의 정치적 방향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

당시 나라에는 크고 작은 변괴가 속출하였다. 성종 1년에는 가뭄이 들고, 8년에는 산이 무너지고 황충이 득실했으며, 9년에는 지진이 일어나는가 하면 흙비가 내렸다. 대개 옛날의 임금은 천지가 변괴 즉, 가뭄이나 홍수, 지진이나 일식, 해충이 번성할 때면 으레 스스로 근신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일종의 생활이었다. 이에 성종도 스스로 근신하는 한편 전국의 유생들에게 세태를 구완하는 조언을 듣기도 했던 것이다. 여기에 이심원(李深源)의 상소는 때를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당시 집권층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강경한 자세는 개선할 수가 없었다.

이에 남효온은 이심원(李深源)의 뒤를 이어 1478년(성종 9) 4월 15일에 상소를 올렸다. 그 조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혼인(婚姻)을 바르게 할 것 - 사치가 만연하여 혼인할 시기를 잃어버린 남녀들을 혼인시켜, 부부의 도를 바르게 하여 안으로 원망하는 여자와 밖으로 원망하는 남자가 없게 하여, 천지(天地)가 음양(陰陽)이 순조롭게 해야 한다.

(2) 수령을 잘 골라야 할 것 - 수령을 잘 골라 백성의 원망을 없애야 한다.)

(3) 인재를 쓰는 것과 버리는 것을 삼갈 것 - 경연(經筵) 등 산림(山林)에 은일(隱逸)하는 선비를 등용하여 왕가(王家)를 좌우에서 돕게 할 것

(4) 내수사(內需司)를 혁파할 것 - 사채(私債)를 놓아 백성들의 고혈(膏血)을 착취하고 주구(誅求)하는 내수사를 혁파하여 수습할 것

(5) 무당과 부처를 물리칠 것 - 국무(國巫)·음사(淫祀)·주지(住持) 등의 이단을 없앨 것

(6) 학교를 일으킬 것 - 성리학을 숭상하고 재덕(才德)을 겸비한 현인군자를 얻어 사표(師表)로 삼으면 백성들이 효제충신(孝悌忠信)의 귀함과 사장(詞章)의 말습(末習)이 비루함을 알게 되어 학교가

일어나고 인재가 나오며 명신(名臣)이 성한다.

(7) 풍속을 바르게 할 것 - 당우(唐虞)와 주문공(周文公)의 풍속에 따라 효제(孝悌)를 돈독히 하고 절약 검소하며 허명(虛名)과 이(利)를 배척하며 교화를 행하여 풍속을 바르게 할 것

(8) 소릉(昭陵)을 추복(追復)시킬 것 - 소릉(昭陵)이 폐위(廢位)되어 원혼(冤魂)이 의지할 곳이 없고 문종(文宗)의 영(靈)이 홀로 향배(享配)되어 있으므로 민심 천심은 물론 조종(祖宗)의 뜻에도 어긋나니 20년 간 폐하였던 소릉(昭陵)의 존호(尊號)를 추복(追復)하고 예장(禮葬)하기를 선후의 예와 같게 하여 민심에 답하고 천견(天譴)에 답하며 조종(祖宗)의 뜻에도 합하라.

등이다.

성종은 이 상소문을 승정원에 보냈다. 이에 대하여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도승지 임사홍(任士洪)은 "소릉(昭陵)을 복위하자는 것은 신하로서 의논할 수 없으므로 옳은 일이 아니며, 일개 선비로서 국가의 정사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82]고 하였고, 16일에는 영의정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홍응(洪應) 등이 "전국시대(戰國時代) 처사(處士)들의 나쁜 풍습"이라고 하여 남효온을 불러 문초하라고까지 하였다. 20일에는 서거정(徐居正)도 유생의 정치참여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충격적인 상소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려는 비열하고도 얄팍한 수단"[83] 이라고 매도하였다.

한명회(韓明澮)도 이심원(李深源)을 탄핵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남효온과 함께 묶어 말하기를 "이심원과 남효온이 서로 무리를 지어 말한 것이 같으니 이들을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노사신(盧思愼)과 성담수(成聃壽)

82) 성종실록(成宗實錄), 9년 4월 을묘(乙卯).
83) 상동, 계해(癸亥).

등은 "이들은 구언(求言)으로 말미암아 말한 것이므로 비록 말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미친 아이의 말이므로 국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84]고 하였다.

이러한 성종의 대답은 이 두 사람의 태도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충간(忠諫)이라고 여겨 용서한 것이다.

> 주계(朱溪, 이심원)가 옛 신하를 쓰지 말라고 한 것과, 효온이 소릉(昭陵)을 추복하자는 말은 나도 그것이 진실로 잘못된 것인 줄은 안다. 그러나 구언(求言)을 하고서 죄를 가하면 옳겠는가. 한명회는 이미 내 뜻을 알 텐데 오히려 내가 그 말을 믿는다고 하니 의정부에 전지(傳旨)를 내려서 여러 공신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믿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혀 깨우치게 하라.[85]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임금으로서 마땅히 취할 태도였다. 이로써 이 사건이 정치의 논쟁거리가 안 되고 일단락 매듭이 지어진 듯하다.

어쨌든 남효온의 소릉추복(昭陵追復) 상소는 당시로서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임금의 덕을 찬양하며 인륜이라고 하는 명분에는 합리화되었지마는 숨은 뜻은 다른 것이었다. 곧 세조의 즉위 자체를 부정적인 태도로 보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새로이 배출된 공신의 출현 자체까지도 부정하는 것이었다.

남효온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었던 성품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더구나 이 때에 그의 나이 불과 25세였던 것이다.

남효온이 태어난 때는 단종 2년이었고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

84) 상동, 을묘(乙卯)
85) 상동.

아 세조의 왕위 찬탈이 있었다. 비록 남효온이 그 당시 세상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 엄청난 사건과 거기에 맞서 항거한 사육신의 굳은 절개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세월이었다. 비록 사전에 모의가 발각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도 끝내 굴하지 않았고 오로지 신하로서의 의리를 택하여 죽음을 자초한 절개는 남효온에게는 커다란 교훈이었다. 사육신의 처형 당시 사회 현실은 죽어 가는 6명의 신하를 눈으로 보고도 아무 말 할 수 없었고, 실록에도 반역이나 음모라는 낱말로 역사의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다. 이는 남효온의 상소문에도 비슷하게 거론되었다. 세조가 단종을 내쫓은 계유정난(癸酉靖難)을 '곽청대란(廓淸大亂)'이라고 하였고 사육신을 '군간(群奸)'이라고 기술한 것이다. 비록 내용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표현만은 온건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이 사육신에 대한 추모와 기개의 정은 그로 하여금 <사육신(死六臣)>이라고 하는 인물 전기를 짓게까지 하였다.

이 <육신전(六臣傳)>이 상소문을 올리기 전인지 뒤인지는 자세하지가 않으나 내용상으로 볼 때 후자인 듯하며 그가 이것을 짓기까지는 평소에 사육신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뇌리에 차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육신전(六臣傳)>의 서두를 짚고 넘어가자.

> 누가 신하가 아니겠는가만 지극하도다, 육신의 신하됨이여. 누가 죽지 않겠느냐만 크도다, 육신의 죽음이여. 살아서 임금을 섬기고 신하된 도리를 다하고, 죽어서 충성하여 신하된 절개를 세웠도다. 그 충성과 절개는 하늘을 꿰뚫었고, 그 의기는 가을 서리보다 늠름하여 백세 뒤에 신하된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 섬기는 의리를 알게 하였으며, 천금은 한 가닥 터럭일 뿐 인(仁) 가운데에 의리를 지켰다. 충절은 천금이요, 한 몸을 터럭같이 여겨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루

고 목숨을 버려 의를 취하였도다. 뜻 있는 선비들이 이르기를 중국 은나라 세 충신과 우리나라 사육신의 발자취가 다를망정 길은 한가지로 같으니 장하도다… 사나운 기운이 가득한데 뭇 구멍이 막혔도다. 서리와 눈이 희게 덮였는데 소나무만 홀로 푸르도다. 신하의 머리가 임금을 위한 마음으로 세었으니 그 머리는 끊을 수 있어도 굽힐 수 없는 절개로다. 다른 사람의 곡식은 죽을지언정 먹지 않으니 백이숙제 같은 맑은 풍도로 자상(紫桑)의 밝은 달이도다. 흙 가운데 귀신이 있으니 원통한 피가 한 움큼이로다.

이 글을 놓고 당시의 가까운 사람들은 논란이 많았다. 글의 분위기로 볼 때에 화를 부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효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내놓았다. 이 때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현(大賢)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 <육신전(六臣傳)>은 숙종 때에 간행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전에 선조의 귀에 들어가 읽혀지게 되었다. 이 글을 보고 선조는 매우 분개하면서

지금 <육신전(六臣傳)>이란 글을 보니 매우 해괴하여 춥지 않아도 소름이 끼친다… 저 남효온이란 자는 감히 사사로이 문묵(文墨)을 희롱하고 요망한 혀를 놀려서 국사를 폭로하였으니 심히 패악 부도하여 그 죄는 붓으로 이루 다 쓸 수 없다. 남효온은 우리 조정의 죄인이다… 이 자가 만일 살아있다면 내가 반드시 국문하여 치죄할 것이다.[86]

라고 하였다. 참으로 충격적인 문제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허후전(許詡傳)>이라는 작품을 하나 더 들어 볼 수

86) 선조실록(宣祖實錄), 9년 7월 을유(乙酉).

있다. 이 글은 영의정 허조(許稠)를 칭송한 글이다. 그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궁중에 불려 연회에 참석하였으나 홀로 눈물을 흘리며 고기를 먹지 않다가 끝내 귀양 가서 죽음을 당하였다. 난리 가운데서 반역죄로 죽어야만 했던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의 무죄를 밝히며 세조와 그 공신들에게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 두 가지 글을 통하여 볼 때 남효온의 행동은 분명하게 밝혀진다.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것을 밝히려는 태도는 물론이지만, 의를 떠나 세욕에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며, 불의에 항거하여 죽음도 불사하는 남효온의 정신적 세계를 단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릉추복(昭陵追復) 상소에 관한 남효온의 근본적 태도는 이 정도로 설명이 되리라 믿는다. 여기에서 남효온은 그 생애의 일대 전환기를 맞는다. 이 상소문으로 인하여 남효온은 주위의 지목을 맡게 되었고 상소는 휴지처럼 지워져 버린다. 이에 그는 세상에서 벼슬할 뜻을 버리고 남은 여생을 처사(處士)로서 행세하며 생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그도 조선 시대 전형적인 선비의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송강(松江) 정철(鄭徹)이 <사미인곡(思美人曲)>을 지어 임금을 그렸듯이 남효온도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임금 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다음의 시를 읽어보면 짐작이 간다.

서새산 앞 온갖 풀 다시 돋아서
가을 바람 쓸쓸하고 기러기 날아
직녀성은 그대로 비단만 짜는데
견우성은 일년 내내 눈물만 흘려
하루에 열두시도 머리 돌려 바라보는데
남으로 오는 어안은 어이 이리 더디다냐
연꽃 이슬에 저패먹 갈고 갈아서
숙진의 창자 끊어지는 시를 쓰네

<유사시(幽思詩)>

소릉복위 상소문 사건 2년 뒤에 모친의 권유로 진사시에는 합격하였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전국을 유람하며 지냈다. 여기서 그가 이후에 유람한 자취를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그의 각종 유람기라고 불리는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 <송경록(松京錄)> <지리산일과(智異山日課)> <유천왕봉기(遊天王峯記)> <유해운대서(遊海雲臺序)> <유가수굴기(遊佳殊窟記)> 등을 보고 정리해 본다.

32세 : 금강산 및 관동지방 35일간,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 지음. 개성~관동지방 13일간, <송경록(松京錄) 지음.

33~34세 : 공주 연말~연초, <공주국선암(公州國仙庵)> <공주유별진백원(公州留別陳百源)>지음. 지리산 17일간, <지리산일과(智異山日課)> 지음. <유천왕봉기(遊天王峯記)> 지음. 해운대 11월, <유해운대서(遊海雲臺序)> 지음.

36세 : 관서지방 봄~겨울, 상원군(祥原郡)을 찾아감. <유가수굴기(遊佳殊窟記)> 지음.

38세 : 부여 1월, <부여회고 20수> 지음. 호남 2월, 담양향교(潭陽鄕校)에 묵음. 여산·장흥 3월

결 어(結語)

39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마친 남효온은 간혹 백이·숙제에 비교되기도 한다. 그가 이렇게 비견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곧 백이·숙제가 불의를 못참고 권력에 도전하였듯이 남효온도 마찬가지였다. 소릉복위(昭陵復位)라고 하는 문제의 상소문을 올림으로써 불의에 항거하는 그의 태도는 후대에 내려오면서 그 행위의 의를 인정받아 소릉(昭陵)이 추복(追復)되자마자 좌승지(左承旨)로 증직(贈職)되었고, 서산서원(西山書院)에 제향(祭享)되는가 하면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일컫게 된 것이다. 또 300년 뒤에는 이조판서에 추증(追贈)되고 문정(文貞)이라는 시호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인정은 그의 행동이 시대가 흐를

수록 세상에 귀감이 되는 것이었음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명문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부러움 없이 출세의 길도 갈 수 있었지만 온갖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오로지 의에 살고 의에 죽기로 생활신조를 삼았다. 여기에는 김시습(金時習) 같은 좋은 벗들의 영향과 김종직(金宗直) 같은 스승의 지도도 있었다.

소릉복위(昭陵復位) 상소문이 자신의 생존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로운 삶의 길로 찾아 나선 것이 죽림칠현(竹林七賢)을 자처하며 세속과 멀리하였으나 죽는 날까지 자신의 의지를 버리지 못했다. 결국 <육신전(六臣傳)>이라고 하는 사육신에 대한 간략한 전기(傳記)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불의에 대한 항거를 계속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소릉복위문(昭陵復位文)>과 <육신전(六臣傳)>만으로도 남효온의 생애와 사상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연 보(年譜)

1478년 25세(성종 9) 4월에 상소문 8개조를 올린다.

1479년 26세(성종 10) 조신(曺伸)이 일본에 갈 때 추강이 시축(詩軸)을 구경하고 한강까지 전송한다. 조신의 소개로 김종직과 만남.

1480년 27세(성종 11) 어머니 명(命)으로 애써 과거시험에 응하여 진사에 급제한다. 벼슬은 안함. 9월에 안응세가 죽자, 9월 20일에 추강이 장사를 끝내고 묘 앞에 술을 올리며 시를 지어 곡한다.

1481년 28세(성종 12) 2월 5일 남산 기슭에서 술이 과하여 예를 잃은 것을 크게 반성하여 <주함(酒箴)>을 짓고 술마시기를 삼간다. 3월 9일 꿈에 귀양 가 있는 이심원(李深源)을 보고 시를 짓는다. 7월 정유(丁酉)에 김일손과 함께 용문산에 놀러간다. 9월 11일 조신 이종준과 개성에서 놀자는 약속 때문에 한양을 출발한다.

1482년 29세(성종 13) 2월에 경징군의 부음을 받고 애부시(哀訃詩)를 지음. 초봄에 이총·이정은·조자지·홍유손·한경기·우선언 등과 모임을 갖고 죽림칠현을 자처하며 시주(詩酒)로 울분을 달랜다.

1485년 32세(성종 16) 4월 보름~윤4월 20일 35일간 금강산 유람. <수향기(睡鄕記)>를 지음. 9월 7일에 개성에서 사위에게 시를 보냄. 9월 8일~19일 송도 유람.

1486년 33세(성종 17) 2월 6일 둘째 아들 종손(終孫)이 죽자 시로 장사지냄(3수). 3월 16일광진에서 사위를 이별하며 11수를 지음. 3월 26일 제종손문(祭終孫文)을 지음. 12월 31일 공주 국선암에서 해를 보낸다.

1487년 34세(성종 18) 공주에서 진백원(陳百源)을 이별하면서 시를 지음(초□). 8월 을유(乙酉) 행주에 있다가 김일손과 함께 파평 남곡에 가 성담수를 만남. 9월 27일~10월 31일 지리산 여행. 11월 4일 의령에 다녀오면서 해운대 들림.

1488년 35세(성종 19) 9월 1일 조령(鳥嶺)의 남쪽에 가 사위의 관을 맞이하여 만시(輓詩) 4수를 지음.

1489년 36세(성종 20) 관서지방 여행(봄~200일 이상으로 추정됨)

1490년 37세(성종 21) 9월 경신(庚申)에 김일손과 함께 삼각산에서 놀다가 중흥사에 있는 매월당을 찾아감.

1491년 38세(성종 22) 1월에 부여에 가서 백마강을 유람. 부여 회고 20여수 지음. 2월 호남지방 여행. <담양향교보상기(潭陽鄕校寶上記)> 지음. 3월 여산에서 <감정기(鑑亭記)> 지음. 장흥 별관에서 <조대기(釣臺記)> 지음. 이심원과 함께 성남 별장에 있는 김굉필을 찾아감.

1492년 39세(성종 23) 김굉필 연보에 "일찍이 추강과 절교하였는데 추강이 병이 위중하단 말을 듣고 문병하니 추강이 거절하고 보지 않으려 하였다. 선생은 곧 문을 밀치고 바로 그 침실 안으로 들어가니, 추강이 몸을 돌려 벽을 향하고 보지 아니하였다. 선생이 손수 이불을 들고 그 피부를 만져보니 수척함이 매우 심하므로, 선생이 깊이 탄식하고 애석히 여기며 조용히 영결(永訣)하고 물러나왔다. 추강은 끝내 말 한 마디도 응답하지 않았다. 얼마 안가서 추강은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전해진다.(10월로 추정됨).

1504년 (연산 10)에 김종직(金宗直)의 문인(文人) 소릉복위건(昭陵復位件)으로 부관참시를 당한다.

1513년 (중종 8)에 소릉(昭陵)이 추복(追復)되면서 신원(伸寃)이 되고 좌승지(左承旨)로 증직(贈職)된다. 숙종 때에 성안(成安) 백이산(伯夷山) 아래 서산서원에 이맹전(李孟專)·조려(趙旅)·김시습(金時習)·원호(原昊)·성담수(成聃壽) 등과 함께 추강이 배향(配享)되고 생육신으로 불리게 된다.

1782년 (정조 6) 이조판서에 추증(追贈)되고 시호(諡號)를 문정(文貞)으로 받는다.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의 생애와 사상

유 권 종*

1. 서(序)
2. 가계(家系)와 학문연원
(1) 가계(家系)
(2) 학문연원
3. 정치적 활동과 사상
(1) 향촌교화
(2) 지치(至治)와 지향(志向)
4. 성리학의 심화
5. 결론(結論)

1. 서(序)

김정국(金正國). 자(字) 국필(國弼), 호(號) 사재(思齋) 혹은 팔여거사(八餘居士). 조선조 성종(成宗) 16년(1485)에 태어나서 중종(中宗) 36년(1541)에 생을 마쳤다. 그는 이른바 사림파에 속하는 유학자이자 관리로서 특히 중종조(中宗朝)의 정치와 학문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파관(罷官)되고 약 20년의 긴 세월을 경기도 고양군 망동(芒洞)에서 은거한다. 기묘사화는 김굉필(金宏弼)의 문인들이 주도하였던 도학정치(道學政治)에

위기감을 느낀 심정(沈貞), 남곤(南袞), 홍경주(洪景舟) 등 훈구세력이 중종임금에 밀계(密啓)하여 일으킨 화란(禍亂)이었다. 이것은 지치(至治), 즉 도학(道學)의 이념을 공유하는 중종조 사림파의 개혁정치를 좌절로 몰고 간 사건이었다. 이 때 김정국은 심정, 남곤 등의 정면표적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림파의 중요인물로서 연루된 것이다.[87] 김정국 등 중종조 사림파가 공유한 이념인 지치(至治)는 덕치(德治)와 예치(禮治)에 의한 왕도정치의 표어였던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당시 매우 중대한 경제적 변동을 겪는 16세기 조선사회에서 경제적 제권익을 독차지하려는 훈구세력을 비판하며 사회전체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일련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정치이념을 말한다.[88]그러므로 그의 생애와 사상 및 업적은 그가 생각한 지치(至治)의 이념과의 관련을 통해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종조 전반기는 그러한 노력이 올바른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사림 간에 팽배하였던 때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학은 제도개혁을 통한 구폐(舊弊)의 일신, 왕의 도화(導化)를 통한 왕도정치의 기틀 마련, 그리고 향촌의 교화를 통한 유교적 예속(禮俗)으로의 이행과 사림파 인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였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철학적으로도 성리학의 가치관이나 이론의 중추에 해당하는 이기론(理氣論) 내지는 태극론(太極論), 천론(天論)에 대한 천착이 서서히 진행되어감으로써 후일의 사단칠정논변(四端七情論辯)과 같은 철학적

---

* 고려대 강사, 철학박사

87) 김정국은 「기묘당적(己卯黨籍)」을 지어서 기묘사화 피화자(被禍者)를 밝힌다.

88) 이태진(李泰鎭),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정치적(政治的) 갈등과 그 해결」 『조선시대(朝鮮時代) 정치사(政治史)의 재조명(再照明)』,범조사, 1985 참조.

사유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김정국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어떠한 점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를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그가 사림파의 학자이자 관리로서 성장하는 배경으로서 가계(家系)와 학문연원에 대하여 고찰한다. 두 번째로 그의 정치적 활동에서 나타난 그의 정치적 입장과 역할 등을 분석한다. 특히 이를 통하여 사림파를 주도하던 인물인 조광조(趙光祖, 호 정암 靜庵, 1482~1519) 등의 급진적 개혁파와 어떠한 연관성 내지는 차이점이 있는가를 설명해 보도록 한다. 한편 학문적으로 아직 그의 시기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시기와 같은 성리학의 철학적 원리론에 해당하는 이기론(理氣論) 등에 대한 이론적 천착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의 시기는 주로 실천의 원칙과 그 방법을 강론하고 실행하던 차원에 국한되던 단계를 벗어나 보다 철학적 원리론에 접근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고의 서술을 진행하기로 한다.

2. 가계(家系)와 학문연원(學問淵源)

(1) 가계(家系)[89]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의 관향(貫鄕)은 의성(義城)이다. 의성 김씨는 신라의 종성(宗姓)인 경주 김씨 일파로, 그 시조는 신

89) 이 부분을 정리하면 김일환,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정치활동(政治活動)」, 고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년 12월. 이병휴, 『조선전기 기호사림파연구』, 일조각, 1987. 김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84. 를 참조하였다. 이 중 특히 김일환의 논문은 많은 참조가 되었음을 밝혀 둔다.

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인 김석(金錫)이다. 석(錫)이 의성군(義城君)으로 피봉(被封)되면서 후손들은 관향을 의성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가계(家系)는 고려의 개국공신이자 호족인 김홍술(金洪術)로 이어진 후 석(錫)의 구세(九世)에 이르면 용비계(龍庇系)와 용필계(龍弼系)로 나누어지는데, 진출의 선후에 따라 크게 전자를 향파(鄕派) 후자를 경파(京派)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김정국계는 경파인 용필계이다.[90] 김안국·김정국 형제의 가계는 기호지방에 거주하면서 기호지방 사림의 주축이 된다.[91]

김정국 가문은 고려후기 이래 계속 상경하여 벼슬하면서 여말선초(麗末鮮初)까지는 이미 기호지방까지 진출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92] 비록 현달(顯達)한 인물은 배출하지 못했지만 그의 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서 관직에 나아간 사족(士族)이었다[93]고 할 수 있다.

그의 형인 김안국(金安國)이 찬(撰)한 김정국(金正國)의 묘지(墓誌)에 의하면 그의 고조(호지好知)는 함흥소윤(咸興少尹)을 지냈다. 증조인 통(統)(1407, 태종7년~1454, 단종2년)은 예조정랑을 지냈는데, 정국(正國)의 가문은 통(統)이 세종 17년(1435)에 문과에 급제하면서 출신자를 배출하였으나, 그는 문종 1년(1451)에 예조정랑으로 재임 시 영릉(英陵)의 제사에서 감결(甘結)을 받들면서 제주(祭酒) 두 글자를 빠뜨린 사건으로 인하여 파직되어서 대동강 하류 관서군으로 솔가(率家)하여 이주한다.[94] 이 때

---

90) 향파인 용비계에 해당하는 것은 영남지방에 거주한 김성일(金誠一), 김우굉(金宇宏), 김우옹(金宇顒)계이다.

91) 김성일의 가문은 의성에서 안동으로 이주하였고, 또 의성에서 성주와 상주 등 경상우도로 이주한 것은 김우굉 가문이다. 경상좌우도에 분포되어 있는 김성일과 김우굉 가문은 이황과 조식문하(曺植門下)를 출입하면서도 대표적인 영남사림파로 발전하였다고 한다.(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4, 86면에서 인용)

92) 김일환, 전게논문(前揭論文), 4면

93) 상동

94) 김정국(金正國), 『사재집(思齋集)』권4, 「척언」. 김안국(金安國), 『모재집(慕

일시적으로 낙향하였으나 통(統)의 사후(死後) 그의 아들인 익령(益齡)이 등과하여 벼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가족들은 다시 상경하였다. 익령은 세조, 성종대에 걸쳐 벼슬하며 관직은 성천부사까지 오른다. 익령은 2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호(瑚)는 장흥고봉사(長興庫奉事)로 재임하였고 호의 자(子)인 정국(正國)은 한성부참군으로 정국원종공신에 책봉된다.[95] 2남인 연(璉)(1452, 문종2년~1494, 성종 25년)은 안국(安國)·정국(正國)의 부(父)로서 1474년(성종5)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문과급제기록은 없으며 관직은 음서를 통하여 예빈사참봉으로 재직하였다.[96] 그의 부계(父系)는 역대에 걸쳐 관직에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국(正國)의 대에 이르러서 그의 가문은 가장 현달하다. 안국(安國)(1478, 성종9년~1543, 중종38년)은 연산군 7년(1501)에 진사 일인, 생원 이인으로 사마시에 합격하고 곧 2년 뒤인 연산군9년(1503)에 별시문과 이인으로 급제한다. 그의 벼슬은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를 시발로 하여 홍문관박사, 부수찬, 부교리, 승문원교리를 지내고 1507년(중종2)에 중시(重試)에 합격한 뒤에는 사헌부지평, 예조참의, 대사간, 경상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한다. 그는 기묘사화(중종14)에 정국(正國)과 함께 연루되어 파관되었다가 중종 32년에 재임용된 뒤에는 오랜 동안 예조판서를 지내고 대사헌, 병조판서, 좌참찬, 대제학, 찬성, 세자이사(世子貳師) 등을 역임한다.[97]

정국(正國) 역시 중종2년(1507)에 생원시에 사인(四人), 진사시에 삼십인(三十人)으로 합격하고, 중종4년 별시문과(갑과, 甲科)

齋集)』권13, 「曾祖奉直郎禮曹正郎府君阡龍石表」. 김일환, 상게논문 5면.

95) 김안국(金安國), 『모재집(慕齋集)』권14, 「漢城府參軍金宏墓小誌」. 김일환, 상게논문

96) 김일환, 상동

97) 김일환, 상게논문, 6면.

에 장원한다. 그로 인하여 승문원검교, 홍문관수찬, 사간원정언, 이조좌랑, 홍문관부교리·교리, 사간원헌납, 이조정랑, 공·호 양조정랑, 승문원교리, 의정부검상, 사간원사간, 군기사부정, 성균관사성, 홍문관전한, 승문원동부승지 등의 경직(京職)과 황해도관찰사의 외직을 역임하다가 역시 기묘사화에 파관된다. 다시 중종32년에 복관되자 전라도관찰사, 병조참의, 경상도관찰사, 예조참판, 병조참판,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다.[98] 그렇지만 그의 형제 이후로는 현달한 인물이 배출되지 못하였다.

한편 그의 학문적 입지(立志)에 있어서 그의 외가는 중요한 연관이 있다. 그의 외가는 양천 허씨로 여러 대에 걸쳐서 벼슬하며 계속적으로 문과출신자를 배출한 거족(鉅族)이다. 그의 외조인 허지(許芝)(1422, 세종4~1487, 성종13)는 영월군수를 지낸 인물이다. 김정국의 외종(外從) 중에 허반(許磐)은 성종대 사림계 인물로서 김종직의 문인이자 김굉필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특히 성리학에 깊이 몰두하였다는 인물이다. 허반은 연산4년(1498)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승문관정자에 재직 중 무오사화(1498)에 연루되어 김일손(金馹孫), 이목(李穆), 권오복(權五福), 권경유(權景裕) 등과 함께 참형된다.[99] 김정국의 형 김안국은 허반에게 종유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김정국 형제가 김굉필에게 수업하게 되는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100]

또한 정국의 외조 허지의 사위이자 정국의 표숙(表叔)인 조유형(趙有亨)(1449, 세종21~1522, 중종17)은 성종대 사림파인 정여창(鄭汝昌)에 종유(從遊)하던 사림파 인물로서, 연산군 즉위년(1494)에 성종의 장례를 불교의식으로 행하려는 국왕의 의도에

98)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작성된 연보를 참조하기 바람.
99) 김일환, 상게논문, 7~8면.
100) 상동

정면으로 반대하여 성균관유생들과 함께 반대건의상소를 올릴 때 소두(疏頭)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갑자사화(1504)에 연루되어 결성(結成)으로 유배되었다. 한편 그가 저술한 『계몽도서절요(啓蒙圖書節要)』는 김안국 형제와 이황을 통하여 영남사류(嶺南士類)들 사이에 보급되었다.[101] 김정국은 10세 때(1494)부터 부친의 유언에 의해서 조유형에게 양육되고 조유형이 결성으로 유배되었을 때 그 곳에 3년간을 머물면서 종학(從學)한다.[102] 이러한 사실들은 김정국이 조유형으로부터 받은 인격적인 감화와 학문적인 영향이 매우 컸음을 추측케 한다.

그러나 그의 외족 중 허손(許孫)의 가문은 그 중 가장 현달한 가문으로서 대표적인 훈구가문을 형성하고 있다. 가령 손(孫)의 아들인 종(琮)과 침(琛)은 각각 좌의정, 우의정을 역임하였고, 손(孫)의 사위인 홍임(洪任)의 아들 중에서, 특히 홍경주(洪景舟)는 정국공신일등으로서 중종의 후궁인 희빈(熙嬪) 홍씨(洪氏)의 아버지로 중종조 훈구대신이며, 나중에는 심정(沈貞), 남곤(南袞)과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리고 종(琮)의 아들 확(確)과 손자인 흡(洽)과 항(沆)은 척신인 김안로(金安老)에 부합하였고, 특히 항(沆)은 안로당(安老黨)의 대표적 인물로서 '정유삼흉(丁酉三兇)'의 한사람이다.[103]

김정국은 처음에 조중문(趙仲文)의 딸과 혼인하여 3남을 두었다. 장남인 사조(嗣趙)는 청주판관 유사기(柳師琦)의 딸과 혼인하였고, 차남 계조(繼趙)는 사간원 대사간 이찬(李瓚)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김정

---

101) 김일환, 상게논문, 10면. 이황,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권60. 발(跋) 「書啓蒙圖書節要後」. 정구(鄭逑), 『한강선생문집(寒岡先生文集)』권9, 「書啓蒙圖書節要後」

102) 『사재집(思齋集)』권1, 「次結城東軒韻」

103) 김일환, 전게논문, 10면.

국의 외가는 외종형(外從兄) 및 표숙(表叔) 등이 사림파로서 많은 활약을 하던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인물들이 김정국 혹은 그의 형제와 직간접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도 김정국 형제의 사림파적인 문제의식의 형성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데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외가계통의 허손(許蓀)의 가문에서 기묘사화의 주동자인 홍경주 그리고 척신 김안로와 밀착된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점은 당시의 가문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엮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는 한편으로 김정국 형제가 지치(至治)의 구현에 온건개량적(穩健改良的)인 정치적 입장을 띠게 되는 것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이다.[104]

(2) 학문연원(學問淵源)

그의 묘지(墓誌)에 김굉필(1454, 단종2~1504, 연산군10)에게 나아가 수업한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 학문연원은 주로 김굉필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굉필은 성종25년(1494)에 유일지사(遺逸之士)로 천거되고 남부참봉에 제수되면서 상경하여 벼슬한다. 이후 무오사화가 발생하여 희천(熙川)에 유배될 때까지 서울에 거주하였다. 김정국 형제가 김굉필에게 수학한 것은 바로 이 기간으로 추측되고 있다.[105]

김굉필은 조선조 「사림오현(士林五賢)」의 한사람으로서 조선조

104) 『사재집(思齋集)』권3, 사재는 김안로와 서로 입장을 달리 하면서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척언」의 '장원(壯元)놀이' 운운한 부분, 김안로가 보내온 식궤(食饋)에 대한 그의 감사편지(『사재집(思齋集)』권3, 「答金左相安老謝存問惠餽狀」, 「答朴秀才衡書」참조)

105) 김일환, 전게논문, 13~14면

「선비정신」의 전형을 보인 도학자이다. 김굉필의 학문은 김종직(金宗直, 1431, 세종13~1492, 성종 23)의 문하에서 이룩한 것이지만, 스승의 학문이 성리학과 사장학(詞章學)이 혼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그의 학문은 사장학을 지양하고 오로지 성리학만을 향하고 있었던 점이 특색이다. 이러한 그의 학문경향이 곧 조선조 성리학의 도학화(道學化)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106]

김굉필 학문의 특색[107]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기(修己)를 통한 도학적(道學的)인 경세(經世)를 주장한 점에 있다. 즉 유학의 본령인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실천을 『대학(大學)』에서와 같이 본말(本末)·선후(先後)관계로 인식하여서, 치인(治人)의 행(行)에 앞서는 수기(修己)의 행(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108] 그가 「소학동자(小學童子)」를 자칭한 이유도 이 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원래 『소학(小學)』은 율신적 수기(律身的 修己)의 지침서[109]로 간주되는 것이다. 「소학동자」라 할 때, 거기에는 율신적 수기의 과정에서 뒤따르는 수많은 고행자적 고통의 감내가 연상되는 것[110]이며,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이상시하는 성리학의 존심양성(存心養性)의 수기(修己)가 『소학(小學)』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111] 그의 『소학』 중시의 또 하나의 의의는

106) 윤사순, 「한훤당(寒暄堂)의 선비정신」『한국유학논구』, 현암사, 서울, 1982. 60면에서 김굉필은 「전기 사림파의 선구적 위치」에 자리하는 학자라고 평가되고 있다.

107) 김굉필 학문과 사상에 대하여는 윤사순 교수의 상게논문을 참조바람

108) 상동

109) 상동 63면 참조. 여기서 『소학(小學)』은 단순한 유학의 입문서가 아니고, 심술지요(心術之要)·위의지칙(威儀之則)을 비롯하여 오륜지도(五倫之道)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주로 「율신적 수기(律身的 修己)를 위한 입문서요, 그 율신적 수기(律身的 修己)가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지향하는 성리학의 존심양성관(存心養性觀)에 뒷받침된 성리학적 수기서(修己書)라고 한다.

110) 상동 68면

111) 상동

기존의 성리학이 대체로 이론적인 차원의 궁구에 그치고 말았다면 그의 소학적 수기의 강조는 성리학을 「심득(心得)」내지는 「체득(體得)」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한 심득(心得)혹은 체득(體得)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유교적인 의리(義理)인 것이다. 여기서 유교적 의리란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근본을 둔 유학의 이념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리(義理)의 체득(體得)이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굉필을 비롯한 도학자(道學者) 일반의 공통된 경세관(經世觀)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세관은 엄격한 수기(修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투철한 의리구현(義理具現)의 정신이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조선조 성리학이 이론적 부면에 대한 탐구로 기우는 경향을 경계하고 유교적 의리 및 명분의 실천에 더 커다란 의의를 두는 도학(道學)을 지향하는 데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라 말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도학풍(道學風)은 기존의 사장적(詞章的) 학문 태도 하에서의 과거(科擧)지향적인 유습(儒習)을 도학(道學)지향적·윤리지향적 사풍(士風)으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112] 이러한 변화는 그들이 정계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일종의 도덕지상주의에 바탕을 둔 개혁을 지향하는 계기가 된다. 이들의 도덕지상주의는 훈구파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축재(蓄財)와 권익의 확보를 사리사욕의 추구로 보아 죄악시하는 입장임은 더 말할 것이 없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정자 개개인의 양심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그와 사우(師友)의 연원(淵源)을 형성한 사림파의 「소학지도(小學之道)」현실비판의 준거(準據)이자 문제의 개선 내지는 개혁에 필수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칙의 의미[113]를 지니고 사회

112) 김일환, 전게논문, 16~17면
113) 가령 「현량과(賢良科)」의 설치는 소학적 수기(小學的 修己)에 충실한 인

에 대두되었던 것이다. 김정국 형제가 지방관직을 수행할 때에 지방 사류(士類)에게 『소학(小學)』을 보급하는 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소학지도(小學之道)」의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서 지치의 완성을 도모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김정국 형제가 김굉필에게서 수업하였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사림파의 이념을 계승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훈구계의 권력이 우세한 당시의 사회상황에서 빚어진 제반 문제를 도학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개혁을 추구하게 된 이면에는 이러한 사우연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사우(師友)연원을 폭넓게 잡으면, 김굉필 외에도 그의 표숙인 조유형(趙有亨)과 백씨(伯氏) 안국(安國) 그리고 인근(隣近)의 이세정(李世靖)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폈듯이 조유형은 그의 부친이 별세한 후 오랜 기간 후견인이 되어줌으로서 김정국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정국이 결성(結城)에 유배당한 그에게 종학(從學)한 것은 조유형에게 받은 학문적인 감화가 컸음을 의미한다.[114] 그리고 그보다 7세 연상인 안국은 정국에게 학문적인 선배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역할 하였던 것이다. 연산군3년(1496)에 그의 모친이 돌아갔을 때 여묘(廬墓)하면서 정국은 안국에게 예서(禮書) 경사(經史)를 배웠던 사실은 정국의 소년기에 안국이 스승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이후로도 형제는 학문적인 교류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물을 등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맡도록 하여 정치의 기풍을 일신하려는 목적이 있다. 동시에 당시 사회의 부와 권력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훈구공신 및 척신들의 부도덕성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김정국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任守令 得其人」(대책(對策))을 강조한다.

114) 김정국이 조유형에게 종학(從學)하는 기간으로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긴 기간이다. 이로써 두 사람간의 학문적 관계가 매우 밀접했고 오히려 김굉필과의 사우관계만큼 중요하다는 추측이 가능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그의 형제는 인근에 경학(經學)에 정숙(精熟)한 이세정(李世靖)에게 나아가 수업하기도 하였다고 한다.[115]

3. 정치적 활동과 사상

(1) 향촌교화

정국의 문집을 보면 그는 24세에 갑과(甲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25세에 출사한 후 기묘사화로 파관되기 전까지 계속 경직(京職)과 지방관직을 수행한다. 그러한 활동이 11년째 접어든 기묘년에는 남곤 및 홍경주의 「북문(北門)의 밀계(密啓)」[116]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화로 인하여 파관되어서 경기도 고양군에 거처를 정하고 은거에 들어간다. 이 은거는 54세에 복직됨으로써 끝나는데, 그는 이 기간에 후학을 양성하고 저술을 남긴다. 복직된 후 그는 과로로 야윈 데다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여러 직임을 맡아 행하다가 결국은 중종 36년(1541) 그의 57세 때에 성균관에서 제생(諸生)에게 과업을 부과하던 중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숨진다.

김정국은 여러 면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으나 특히 '경세치민(經世治民)'에 능하였다는 평이 있다.[117] 좌우에 어리(御吏)하여 수응(酬應)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그 규문(窺聞)하는 것이 신명스럽다고 할 수 있다'[118]는 평에서, 그의 관료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평에 맞는 그

115) 『사재집(思齋集)』「척언」

116) 「척언」에는 기묘사화의 발단을 남곤과 홍경주가 대궐 북쪽 신무문을 통해서 들어가 왕에게 밀계(密啓)한 사실로 보고 있다.

117) 박세채(朴世采), 「신도비명(神道碑銘)」, '探討淵源 終始無間 見識超詣 隨事論訂 各有條理 文章擔敏操筆立 又非同時諸鉉所易及者 其才尤長於經濟治民'

118) 박세채(朴世采), 「신도비명(神道碑銘)」

의 면모는 다음과 같은 「척언」의 기사에서 쉽게 파악된다.

그가 황해도관찰사(중종 14년, 1518)로서 외직(外職)을 수행하고 있을 당시에 김정(金淨)과 유인숙(柳仁淑)이 임금과 대야(對夜)할 때에 『논어(論語)』를 강론하는 과정에서 당세(當世)의 용인(用人)에 이르러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그 기량에 해당하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用人須適其器)라고 하여 공론을 근거로 김정국을 좌승지로 불러들이려고 건의한 일이 있었다. 이에 임금은 황해도의 흉황(凶荒)으로 인한 민리기근(民罹饑饉)을 다스릴 적임자로서 특별히 파견하였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 때는 사림파의 진출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여서 이른바 지치(至治)의 구현이 목전의 성과를 올리고 있을 때였다. 이 때 김정, 유인숙과 같은 사림파 인사들은 김정국을 왕의 측근에 둠으로써 지치(至治)의 원활한 수행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왕의 입장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김정국을 신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서 위에서 말한 그의 경세치민(經世治民)의 능력이 높게 평가되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묘지(墓誌) 및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참조하면 그는 지방관직의 수행에 있어서 남다른 공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는 중종33년(1538)에 복직한 이후로 전라도·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한다. 전라도관찰사를 수행할 당시 그는 「편민거폐(便民去弊」수십조를 지어 올린다. 이것을 짓게 된 동기는 지방행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 그 때의 상황을 그는 '기묘사화로 인하여 습속이 크게 변하여 수재(守宰)는 거리낌없이 백성을 박탈(剝奪)함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에 김정국은 관찰사로서 향촌민의 이익을 증대하고 백성의 고통을 제거하는 데에 힘쓰는(흥리제막(興利除瘼)) 동시에 시비와 선악을 공명하게 가림으로써 향촌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였다고 한다.[119] 이 때 관찰한 지방정치의

119) 「척언」을 보면 그는 엄정한 청옥(聽獄)의 중요함을 여러 기사에서 강조

실정을 바탕으로 하여 지은 것이 곧 「편민거폐(便民去弊)」이다. 이에 중종은 의정부와 제조(諸曹)에 명하여 그것을 시행케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계기가 되어서 도하(都下)에 정성(政聲)이 자자하였다고 한다.[120] 그 후 가선대부(정이품)로 승진하고 다시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게 된다. 이때 경상도민의 환영이 전라도에서와 같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정치적 활동이 지치(至治)의 본질인 위민정치(爲民政治)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위민정치의 노력은 특히 향촌민의 교화를 중요사업으로 하였다. 그가 황해도 관찰사시에 편찬한 『경민편(警民編)』과 「학령(學令)」이 좋은 예가 된다. 이의 목적은 곧 향촌의 교화에 있었음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그는 황해도 관찰사시에 겪은 교화의 필요성에 대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장황하지만 인용하도록 한다.

> "내가 황해감사로 있을 때이다. 연안(延安)에 백성 이동(李同)이라는 자가 있어, 방금 밥을 먹으면서 그 아비와 힐난(詰難)하다가 밥주발을 들어 던져서 아비를 때렸다. 유향(留鄕)이 규찰(糾察)하여서 본부에 보고하였고, 본부에서는 사연을 갖추어서 감영에 보고하여 왔다. 나는 사건이 망상대죄(網常大罪)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곧 동(同)을 추국(推鞫)하기로 정하고 중형에 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추관(推官)이 고문(형신刑訊)을 하지 않아도 곧 변명 없이 자복하였

하고 있다. 가령 안팽수(安彭壽)가 연안부사(延安府使)시에 청옥(聽獄)을 하리(下吏)에게 맡김으로써 결국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사람이 무고(誣告)에 희생된 예라든가, 무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많은 이를 역적으로 몰아 처형하도록 한 사건들을 기사화하고 있다. 그가 청옥(聽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분명하여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백성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관리의 소임인 때문이기도 하다.

120) 박세채(朴世采), 「신도비명(神道碑銘)」

다는 것이다. 법례(法例)에 따르면 반드시 감사가 직접 문초하고 옥안(獄案)을 판결하여 계문(啓聞)하는 것이므로 오래지 않아 본읍(本邑)에 도착했다. 죄인이 쉽게 다 말했다는 것이 괴이쩍어서 죄수를 섬돌에 올라오도록 명하고 묻기를, '너는 무거운 죄를 지었다. 사형이 마땅한데 너는 아느냐', '다만 잡혀 갇혔으므로 나의 실정대로 말했을 뿐이고 딴 것은 실상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부자(父子)간은 하늘과 땅, 임금과 신하 같은 정당한 도리(분의(分義))가 있다. 아비가 없으면 네 몸뚱이는 어찌해서 있겠느냐. 까닭에 부모를 조심해서 섬기면 효자가 되고 구타하거나 욕설을 하면 악역(惡逆)이 된다. 너는 주발로써 아비를 때렸으니 땅이 하늘을 범했고 신하가 임금을 범한 것이다. 법에 비추어서 사형이 당연한 연고로 내가 옥안을 결단하여 너를 사형에 처하려 한다'고 하였다. 죄수는 놀라서 낯빛이 변하면서, '일찍부터 내 죄가 사형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초에 어찌 아비에게 항거하겠습니까. 추문(推問)을 당할 때에도 차라리 형장(刑杖)을 받을지언정 스스로 숨겼을 것이지, 어찌 바로 말했겠습니까. 나는 실상 아비가 소중함이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도 서로 다투다가 혹 욕설을 하고 심하면 물건으로 때리기도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에야 비로소 아비의 소중함이 이런 극도에 이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영공(令公)은 구제(救濟)하시어, 지금은 나를 죄주지 마십시오. 이후부터는 마땅히 나의 아비를 조심해서 섬기겠습니다.'하는 것이었다. 나는 듣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가르치지 않고 형벌 하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비록 천성(天性)의 양능(良能)이나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저절로 능히 깨우치리오. 옛적에 덕으로써 인도하고 형(刑)으로써 가지런히 하고 춘추(春秋) 등 성단(城旦)을 읽고 백성을 가르친 것은 진실로 이런 때문이다.'고 하였다. 추관(推官)을 시켜서 잠시 곤장을 쳐서 경계하고 사면하였다. 비로

소 법을 쓰는 데에도 외길로만 고집할 수 없음을 알았다."[121] (밑줄 필자)

'가르치지 않고 형벌 하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데서 그가 선교화(先敎化)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민편(警民編)』간행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경민편(警民編)』발문에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륜에 관련되고 범법(犯法)하기 쉬운 것 12개조[122]를 엮어서 백성을 경계하려는 취지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곧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거악종선(去惡從善)) 하려는 교화의 취지인 것이다.

또한 「학령(學令)」24조는 황해도 지역의 사자(士子)의 교육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그가 지은 것이다. 그가 「해주도회유생약조(海州都會儒生約條)」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재의 배출에 있어서 당시의 황해도 지역은 호령이남(湖嶺以南)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123] 이러한 이유를 학습의 부진(所習相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학습을 독려하기 위하여 그는 이 약조를 지은 것이다. 이 때 그는 중국의 호안정(胡安定)[124]이

---

121) 「척언」

122) 『사재집(思齋集)』권3, 「경민편발(警民編跋)」에는 12개조라고 하였으나, 단국대 동양학연구소가 영인한 「경민편(警民編)」개간본(改刊本)(규장각소장본)은 원래 13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부자(父子), 부처(夫妻), 형제자매, 족친(族親), 노주(奴主), 인리(隣里), 투구(鬪毆), 근업(謹業), 저적(儲積), 사위(詐僞), 범간(犯奸), 도적(盜賊), 살인(殺人)의 조목으로 구성되었다.

123) 『사재집(思齋集)』권3, .「해주도회유생약조(海州都會儒生約條)」.湖嶺以南人材輩出 而西土曠世無一人鳴世者豈天性使然 所習相遠也

124) 북송(北宋)의 유학자(993~1059). 명(名)은 원(瑗), 안정(安定)은 호(號), 자(字)는 익지(翼之). 그는 궁행실천(躬行實踐)을 위주로 하여 성현도의(聖賢道義)의 대본(大本)을 중시하고 명체달용(明體達用)의 학문을 주장하여 사물의 인식에 있어서 체용(體用)으로 분석하는 태도를 중시하였다. 이른바 안정학파(安定學派)를 형성하였다. 그는 처음에 오중(吳中)(강소성(江蘇省))에서 경술(經術)을 교수하다가 범중엄(范仲淹)의 추천으로 호주(湖州)(절강성(浙江省))로 옮겨서 교수한 일이 있다. (『유교대사전』, 박영

호소(湖蘇) 이주(二州)에서 행한 것과 같은 교화와 훈솔(訓率)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선사(先師)의 격언을 모아서 지었다고 한다.[125] 그리하여 그는 유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거처하는 곳(좌우(座隅))에 걸고서 조석(朝夕)으로 잘 지킬 것을 권한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김안국(金安國)이 김정국에 앞서 전라도·경상도관찰사직을 수행하면서 지방의 사류(士類)에게 『소학(小學)』서를 권장하고 아울러 사우연원(師友淵源)을 맺는[126] 것, 그리고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등을 간행 반포하였던 일과 성격을 같이 하는 일이다. 즉 향촌민의 교화와 사류(士類)의 훈도(訓導)를 통하여 유교적 윤리강상에 바탕을 둔 이풍역속(移風易俗)의 도모가 바로 그 일의 근본 취지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황해도관찰사직에 있을 당시 기묘사화에 연루되어서 낙향하게 된다. 그가 기묘사화에 연루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심정, 남곤, 홍경주가 제거하려고 한 조광조 등을 구하려고 상소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남곤 등이 제거하려고 했던 사림파의 중심인물에 그가 해당되었다는 점이 이유일 것이다.[127] 그렇지만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기준(奇遵) 등이 유찬된 후 사약을 받고 죽은 것과는 달리 김정국 형제는 다만 파

사, 1990)

125) 「해주도회유생약조(海州都會儒生約條)」. 如有任敎化訓率人者 如胡蘇二州則豈無一人能□意自立篤學勵行 窮而爲人師 達而爲佐王哉,……謹拾先師格言爲約條二十四

126) 가령 김인후(金麟厚)는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한 김안국에게 『소학(小學)』을 전수받고 평생 그를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이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는 지방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사유연원을 이룩하고 있다. 이리하여 김안국은 영남과 기호의 사림세력을 확장하여 사림을 전국적인 연대체제로 묶는데 커다랗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127) 그는 사실 초소(草疏)를 작성하였으나 그것을 올리지 않았다. 얼마 후 그 초소를 작성한 사실 자체만으로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파관된 것이다. 이로 볼 때 초소작성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사실은 남곤 등이 어떻게든 사림파의 인물로 제거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에 그치고 후일 복관(復官)되었다.

(2) 지치(至治)의 지향

그의 형제와 조광조는 김굉필의 문하에서 배출되었으나[128] 양자가 정치에 임하는 입장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사재집(思齋集)』「척언」에는 그의 입장이 조광조와 어떻게 다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가 있다.

> 회령성(會寧城) 밑에 사는 속고내(束古乃)는 겉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하는 척하면서 내심에는 딴마음을 품고 있었다. 가만히 먼 것에 있는 야인과 꾀를 통하고 갑산부(甲山府)를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많이 사로잡아 갔다. 변장(邊將)은 속고내가 한 짓인 줄 알고 상부에 급히 아뢴 다음 장차 죄를 다스리려고 하였으나 이들이 먼 곳으로 도망쳐 달아나서 이름을 바꾸고 왕래하는 것이었다. 무인년(戊寅年, 1518)에 남도병사(南道兵使)가 비밀스럽게 아뢰기를 '속고내가 갑산 근처에 숨어 들어와서 왕래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사냥하고 있으나 무리가 많아서 잡기가 어려우니 그들이 미처 생각하기 전에 군사를 내어서 잡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삼공(三公)과 해당 조(曹)와 변방사정을 잘 아는 재상을 불러서 함께 의논하니 '이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성 밑의 야인이 잇달아 서로 반란하여서 뒤에는 장차 구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급히 변방사정을 아는 중신(重臣)을 보내어 감사(監事) 병사(兵使)와 함께 포획할 계책을 조처하고 법대로 다스려서 후일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임금이 윤허하였다. 먼저 밀지(密旨)로 본도(本道)에 유시(諭示)

128) 조광조와 그의 형제는 김굉필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동문수학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김안국 형제와 조광조가 수학한 시기는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수학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김일환, 전게논문, 29면 참조)

하고 또 병갑(兵甲)과 기계(器械)를 직송(直送)하였다. 이지방(李之芳)을 보내도록 하고 특별히 어의(御衣)와 궁시(弓矢)를 하사하여 그 날에 하직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납시어서 소대(召對)하고 이어 전송연(餞送宴)을 내렸다. 삼공 및 해당 조(曹)의 당상(堂上)과 변방사정을 아는 재상이 좌우에 둘러 모셨고 나도 역시 병방승지(兵房承旨)로서 참석하였다. 이 때에 내시가 아뢰기를 '부제학 조광조가 입대(入對)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광조가 나아와서 '이 일은 간사하여 담구멍을 뚫는 꾀와 같습니다. 당당한 성조께서 보잘 것 없는 오랑캐 때문에 구차스럽게 도둑같은 꾀를 행하면서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니 신은 그윽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다시 논의하여 보내지 말도록 명하였다. 좌우에서 다투어 아뢰기를 '병가(兵家)에는 기병과 정병이 있고 오랑캐를 막는 데에는 경법(經法)과 권도(權道)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논의가 이미 같았는데 한 사람의 말로써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병조참판 유담년(柳聃年)은 아뢰기를 '농사일은 농노(農奴)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고 베 짜는 일은 계집종에게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이 젊어서부터 북방에 출입하여 지금 머리가 희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변방 일과 오랑캐의 실정은 신이 이미 갖추어 알고 있사오니 소신의 말을 들으시기를 청합니다. 세정(世情)에 어두운 선비(우유, 迂儒)의 언론을 예부터 이러니 비록 이치에 가까운 듯 하나 그들의 말을 그대로 좇아하기는 어렵고, 이미 계책이 정해졌으니 가볍게 변경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으나, 임금은 오히려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니 여러 재상이 모두 불평을 품고 물러갔다. 광조는 삼품 관원이나 능히 한마디 말로써 임금의 뜻을 움직여서 조정의 대의를 중지시키니 사람들이 모두 눈을 흘겼다.

당시에 조광조는 지치(至治)를 위한 개혁에 심혈을 기울일 때

였고 특히 그가 지향하는 바는 유교적 의리의 실천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의 입장은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띤다. 위의 인용문에서 조광조가 주장하는 것은 왕도정치의 구현은 곧 왕도의 실천이므로 오랑캐에 대해서도 예와 덕으로써 교화함이 옳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그가 원리원칙에 대단히 철저한 근본주의적 입장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광조의 입장은 실질보다는 명분이 중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조광조의 시의(時宜)에 밝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정국의 입장은 조광조를 원리와 실제, 이상과 현실을 제대로 조화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후일 서북변압록강상(西北邊鴨綠江上)의 무창(茂昌)·여연(閭延)·우예(虞芮)·자성(慈城) 4군의 복군(復郡)을 주장한 사실에서 표명되듯이 야인에 대한 정책은 국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129] 그러므로 그는 오히려 조광조를 우유(迂儒)라고 지칭하는 유담년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이는 국익이 되는 동시에 백성을 편안케 하는 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김정국의 입장은 같은 사림파라고 하여도 명분보다는 실질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왕도의 구현도 명분(원리)에만 치우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국익과 민리(民利)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김정국과 조광조는 똑같은 도학자로서 지치(至治)의 구현에 노력하고 있었으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이 같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치(至治)는 요순시대의 정치를 가리키며 원리적으로 보면 군주가 백성을 덕과 예로 대하여서 그들을 교화시켜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 때 위압적인 명령이나 가혹한 형벌은 정치상 이차적

129) 별도로 작성된 「사재김정국연보(思齋金正國年譜)」중종35년(1540)조 참조.

인 도구에 불과할 뿐 어디까지나 덕과 예가 우선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왕의 덕을 닦는 노력이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왕도가 구현되는 선결요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치(至治)를 그것이 적용되는 중종 당시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연산군의 방탕과 폭정으로 인해서 무너진 정치의 도와 사회의 기강을 잡는다는 의의와 함께 사회 전반을 유교적인 체제로 개편한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치(至治)의 추진에서 핵심적인 것은 원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군주의 수덕(修德)이다. 그것은 왕도정치란 왕의 유덕(有德)이 관건이고, 또한 왕의 자리는 국정의 기무(機務)가 총괄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정을 총괄하는 군주가 수덕(修德)을 통하여 마음을 올바르게 지니는 것이 결국은 지치(至治)의 관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130] 그리하여 사림파 관원들은 왕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는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재직할 시에 중종이 사헌부헌관(司憲府獻官)을 추국(推鞫)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항소(抗疏)한다. 그는 '왕의 도량을 넓히고 중대한 일에 밝도록 힘쓴다'(恢聖道 務大明)는 요지의 이 소(疏)에서 임금으로서 자질구레한 일과 시론(時論)에 까다롭거나 세밀하게 살펴서는 아니됨(勿察察於細務時論)을 청한다. 그것은 명주(明主)가 되는 방법으로서 '(정사의) 대체(大體)를 총괄하되 번거롭게 듣고 살피려고 하지 말며'(總其大體而不煩聽察) '정사에서 가장 긴요한 것을 파악할 것이지 시무(時務)에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執其大要而不親世務)의 자세가 요청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림파가 추구하던 군

130) 특히 사림파 선비들은 이러한 군주의 일심(一心)을 바로잡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고 그것이 과감한 상소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일은 직간(直諫)을 통해서 충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국도 예외가 아니다.

주의 도화(導化)작업의 하나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화(導化)의 노력은 대책(對策)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임금이 '백성의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그치도록 하는 방법'을 하문한 데 대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아낌'(敬天而勤民)의 중요성을 역설한다.[131] 또한 그는 '경(敬)으로써 마음을 보존하며 하늘을 섬기는 진실을 다할 수 있고 인(仁)으로써 정치를 내어서 백성을 근심하는 진실을 다할 수 있다'(敬以存心而有以盡事天之實, 仁以發政而有以盡憂民之實)고 하여서 경천(敬天)과 근민(勤民)의 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名)이 아닌 실(實)임을 아울러 그는 역설한다.10[132] 그가 말하는 경천(敬天)과 근민(勤民)의 실(實)은 마음을 경건히 하여서 올바른 마음을 보존하고 동시에 국사(國事)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진지한 자세와 노력을 의미한다. 그는 이 양자의 방법을 '성(誠)'으로 귀결시킨다.[133] 그는 '惟天下至誠爲能化'(『중용(中庸)』를 인용하여서 '지극한 정성인데도 감동하지 않는 것은 일찍이 없었다'(至誠而不動者 未之有也)고 한다. 성(誠)은 『중용(中庸)』에서 강조하는 인도(人道)를 구현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천도(天道)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진실하여 거짓이 없음'(眞實無妄)의 의미로 성리학자들에게 이해된다. 그는 왕에게 '성(誠)에 힘쓸 것'(務誠)을 청하는데, 그것은 곧 군주의 성실한 마음과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경천(敬天)과 근민(勤民)은 무성(務誠)의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군주의 무성(務誠)은 곧 군주에게 남다른 수기(修己)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수양은 바로 '경이존심(敬以存心)

131) 『사재집(思齋集)』권3, 「대책(對策)」
132) 상동
133) 상동, 玆二者之實 不過曰誠而已

을 통한 사천(事天)' 내지는 '경천(敬天)'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경(敬)과 성(誠)은 서로 연관되는 의미를 지닌다. 경(敬)은 주자학에서 '마음이 순수하게 선한 이치만을 주장하여 흐트러지지 않음'(主一無適)의 의미이며 따라서 경이존심(敬以存心)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을 순수한 상태 곧 선한 상태로 보존함이다. 그것이 곧 경천(敬天)내지는 사천(事天)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관점인 것이다. 유학에서 천(天)은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의 실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이를 천리(天理)라고도 지칭한다. 그러므로 그가 강조하는 경(敬)과 성(誠)은 바로 그러한 천(天)(혹은 천리天理)을 지향하는 순선(純善)한 마음을 지니기 위한 자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敬)과 성(誠)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왕이 성(誠)에 힘써야 당시에 우려되는 문제였던 '천도(天道)가 상도(常道)를 벗어나고 성문(星文)이 이상을 나타내고, 음양이 조화를 잃어서 재앙이 거듭 닥치며, 백성이 이리저리 흩어져 떠돌아다녀 아직도 다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며, 전야(田野)의 황무지가 아직도 다 개간되지 못하는'(天道失常, 星文示異, 陰陽失和, 災沴□臻, 生民之流離未盡還, 田野之荒蕪者未盡墾)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34]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선 천도(天道), 성문(星文), 음양(陰陽), 재려(災沴)와 같은 현상을 인력이 미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리(流離)하는 생민(生民)의 문제와 미개간지의 개간사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군주의 성(誠)과 관련하여 그 해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일종의 천인상감(天人相感)의 관점[135]으로서, 그가 왕안석(王安石)이 신종(神宗)

134) 상동

135) 『사재집(思齋集)』권3, 「推誠任下親接群臣疏」는 천인상감(天人相感)의 논리를 통하여 임금에게 성(誠)에 힘쓸 것을 청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 「臣竊 惟君猶天也 君猶地也 天道下降 天道上行

에게 '하늘의 이변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 못 된다'(天變不足畏者也)라고 한 것은 왕을 기만하는 말이었다고 비판하는[136]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후자는 생민(生民)및 전야(田野)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구체적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군주의 수양이 그것의 근본으로서 중요시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말(末)보다는 본(本)을 중시하는 그의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의 요체는 우선 군주의 일심(一心)을 잘 닦아서 성(誠)을 다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즉 군주의 성(誠)은 백성 뿐 아니라 천지간의 자연현상까지도 감화시켜서 결국은 왕의 정치가 순조롭게 펴질 수 있다는 뜻이다.[137] 이는 바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강조인 것이다.

한편 그는 「정귀시의론(政貴時宜論)」에서는 낡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시의(時宜)란 다름 아닌 민심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스림의 도는 민심을 길들이는 것보다 중대한 것이 없다'(爲治之道莫大於順民心而已)라고 한다. 이때 도의 의미는 '그 폐해에 따라 그 제도를 고쳐서 현실에 부합되게 하여 백성의 요구에 능히 따르는 것'(隨其弊而改其制 以求合乎當世而能順於民者)이다. 유교에서 이상시하는 선왕의 도는 '때에 따라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여서 제도를 변화시켜 현실에 통하게 하였던 것인데, 시대마다 각각 차이

上下相交而後 陰陽和□ 萬物生遂而歲功成焉 君推誠以任下 臣竭誠而事上 上下相孚 無有疑阻而後 情志交合 治化流行 而休祥應焉 高高在上 茫茫在下 二氣不交 故陰陽所以爲勵也 深居在上 退(?)然在下 君臣不交 高天下所以無治也」(밑줄 필자) 이 다음에는 이상(異狀)을 들어서 그것이 군신의 불교(不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한다. 특히 군주의 推誠任下할 것을 주장한다.

136) 『사재집(思齋集)』권3, 대책(對策)

137) 상동, 「伏願 殿下苟能存此心之誠而極其至也 則任守令者得其人而承流宣化……」라고 하여 지성(至誠)이면 정치가 풀려나감을 논한다.

는 있으나 모두 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因時損益 變而通之者 代各有異而皆不離於道也)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정치는 구제도의 고수에 있지 않고 오히려 민심의 향방을 따라서 개정해 나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오래된 제도는 제정될 당시의 의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백성을 구속하는 바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오리(汚吏)의 수탈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진보적인 입장 또는 개혁지향의 관점을 시사한다. 동시에 그 개혁정치는 위민(爲民)·민본(民本)을 근간으로 함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그의 정치관은 민본정치의 추구로 귀결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향촌민의 교화를 통해서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과 그리고 제도의 존속과 개폐(改廢)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심이 기준이 되어야 함, 궁극적으로 임금의 덕(지성(至誠))이 천(天)과 민(民)을 아울러 감동 감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4. 성리학의 심화

중종기(中宗期)에 와서는 사림파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연(經筵)을 통한 강론이 활기를 띠게 된다. 경연이 활발해지는 것은 다만 유학경전 및 성리학 서적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연을 통한 임금의 도화(導化)가 궁극적 목적이기도 하였으므로 사림파 학자들은 이를 매우 중요시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중종 임금도 그러한 사림파 성리학자들의 입장에 수응(酬應)하여 경연에서의 강론을 활발히 벌였던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학계의 일반적 상황이 도리의 실천궁행이 중시되는 경향이어서 주자성리학의 핵

심적인 이론인 이기론을 비롯한 정밀을 요구하는 철학적 사변에의 천착과 그에 바탕을 둔 주자성리학의 이론의 독자적인 전개에는 이르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리학의 도리에 대한 정숙(精熟)한 이해를 위하여 필독서로서 중시된 것은 『성리대전(性理大全)』·『근사록(近思錄)』 등이다.

그는 중종 13년(1518) 승문원에서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진강(進講)할 수 있는 인물로 26인을 선계(選啓)할 때에 포함된다.[138] 이 26인은 누구보다도 『성리대전(性理大全)』에 정통한 인물인 것이다. 또한 그의 형 안국(安國)이 중종 13년에 중국에 사은사(謝恩使)로 가서 구입해 온 『성리대전(性理大全)』을 받고서 그는 『성리대전서절요(性理大全書節要)』(이하 『절요(節要)』로 약칭(略稱)함) 4권을 편찬한다. 그가 편찬한 『절요(節要)』의 학술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나, 그것의 편찬은 『성리대전(性理大全)』의 효율적인 이해와 그 교육을 목표로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리대전(性理大全)』의 진강(進講)이 가능한 자 26인에 뽑힌 것과 『절요(節要)』의 편찬은 그의 철학적 관심과 지식이 이미 주자성리학의 체계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육무당기(六務堂記)」는 그가 중요시한 학문방법이 무엇인가를 시사한다. 그가 기묘사화에 좌루(坐累)되어 고양군 망동(茫洞)에 은거할 때에 몰려오는 제생(諸生)을 교육하기 위해 지은 모당(茅堂)을 중수(重修)하고 쓴 「육무당기(六務堂記)」에서는 학생들이 강학(講學)과 더불어 수기(修己)의 공을 쌓기 위하여 지켜야 할 여섯 개의 과업(육무(六務))을 마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육무(六務)」는 유자(儒者)가 힘써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업을 의미한다.[139] 즉 입지(立志)(務篤實遠大而戒之在浮淺), 독서(讀書)(務

138) 이승휴, 전게서, 144면
139) 『사재집(思齋集)』권3, 「육무당기(六務堂記)」, 儒者之所務 不止此六者 然

勤力積苦而戒之懈怠), 학문(學問)(務研窮體己而戒之在放過), 조심(操心)(務平正寬和而戒之在偏僻), 처기(處己)(務檢束收斂而戒之在縱肆), 담론(談論)(務文學行義而戒之在庸雜)의 내용을 말한다. 그는 생도들이 이를 보고서 그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경계하기를 바라고 이것을 지은 것이다. 여기에는 외욕(外慾, 바깥의 사물에 이끌리는 욕망)을 경계하고 내실에 힘쓸 것을 권하는 취지가 동시에 담겨 있다.[140]

특히 학문(學問)의 방법에서 제시되는 체기(體己)는 적어도 진리의 體得이 중요함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심신의 수양(조심(操心) 처기(處己))을 병행하는 것은 실천을 통한 진리의 체인(體認)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내성불구잠(內省不疚箴)」[141]·「수신잠(守身箴)」[142] 등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그의 학문연원이 『소학(小學)』을 중시하는 김굉필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또한 「정지운자설(鄭之雲字說)은 김굉필의 '정(靜)을 위주로 하는'(主靜」) 수양을 중시하는 입장과의 연관성이 발견된다. 김정국의 문인인 정지운(鄭之雲, 1509~1561)의 이름 글자인 지(之)자와 운(雲)자는 모두 동작(動作), 동물(動物)을 상징한다. 그리하여 김정국은 동(動)에 앞선 정(靜)의 중요성을 경계하며 가르치는 취지에서 그에게 '정이(靜而)'라는 자(字)를 지어주었던 것이다. 원래 그의 스승인 김굉필은 '정(靜)은 동(動)의 기틀'[143]이

其要不過於此

140) 「육무당기(六務堂記)」. 玆堂也 □江而背山 環而有之者 江山之勝也 豈不足於取以供堂號 而必姨六務扁之者 遺外而取內也 柳君之請名 亦在此而不在彼也(밑줄 필자)

141) 「試省于內 疚則知愧 莫顯爾愧 惟微之畏 微之能謹 而後不疚 苟疚于中 欲掩曷有

142) 「上戴天下履地 惟吾身道之器 曷以守敬義可 直而防外侮寡 嚴意關禦爾欺戒心官司百爲 愼爾守不失身 身不失而後人」

143) 윤사순(尹絲淳), 『한국의 성리학과 실학』,열음사, 1987, 57면.

라고 하였던 것인데, 이는 「태극도설(太極圖說)」의 관념[144]과 유사한 것이면서 동시에 수기(修己)의 원리를 음양(陰陽)의 동정(動靜)이라는 성리학의 철학적 범주를 통하여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가 김정국에게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제자인 정지운(鄭之雲)의 자(字)(정이(靜而)설(說)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145] 이 때 정(靜)은 감정, 사유 및 행위가 발출하기 이전 상태, 즉 심신의 작위가 멈추어서 고요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태는 체용(體用)관계로 보면 일체의 용(用)이 멈춘 상태이고 순수한 체(體)만이 존재하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김정국은 바로 이 상태에서의 체(體)의 정립이 올바른 작용을 낳는다고 본 듯 하다. 이때 체(體)의 정립이란 본성의 선함을 기르는 것(양성(養性)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경이존심(敬以存心)'과 의미가 다르지 아니하다.

한편 그의 문집에는 철학적인 주제로 쓰여진 「변(辨)」이 셋 있다. 이는 「여와씨련석보천변(女媧氏鍊石補天辨)」·「우녀회변(牛女會辨)」·「장주호접변(莊周蝴蝶辨)」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들의 내용은 이단으로 간주되는 학문의 설(특히 도가의 장자와 열자의 설)이나 그 밖의 속설에 대한 성리학 관점에서의 비판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 글에서는 주자학을 정통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성리학의 원리에 대한 옹호가 함께 행해지고 있다.

우선 「여와씨련석보천변(女媧氏鍊石補天辨)」에서 그는 천(天)

---

144) 주희(朱熹)가 「태극도(太極圖)」의 해설에서 양(陽)은 태극의 용(用)이 행하는 바, 음(陰)은 태극의 체(體)가 서는(립(立)) 바라고 한 것을 보면 동정(動靜)이 용(用)과 체(體)에 해당함으로써 정(靜)을 동(動)의 체(體)로 보고 있다.

145) 정지운(鄭之雲)의 이름은 동(動)을 상징하는 것이다. 구름이 본래 움직이는 물체(동물(動物))인데다 지(之) 역시 동지불이(動之不已)를 의미한다. 김정국은 '靜也 其雲之功用之極乎'라고 하고 그 사정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修齊治平之極功 莫不由靜養而得'이라고 한다. 그것을 경계하여 정이(靜而)의 자(字)를 지었다는 것이다.

을 '이(理)는 있으나 형(形)이 없고 형(形)은 있으나 상(象)이 없다'(有理而無形 有形而無象), '서물(庶物)중에서 으뜸으로 나왔고 음양오행을 두어서 만물을 화생(化生)한다'(首出庶物 有陰陽五行 化生萬物), '천지(天地)가 존재한 다음에 만물이 존재한다'(有天地然後有萬物)고 설명한다. 이는 천(天)은 일종의 만유(萬有)의 궁극적인 실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 때 만유(萬有)의 궁극적 실재라는 것은 천(天)의 형상의 유무(有無)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理)의 실재로써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이다. 이 이(理)야말로 만유(萬有)의 본체인 태극과 같은 것이므로, 천은 곧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의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은 원래 '온전하고 조금의 결함도 없다'(全而無少闕欠)는 것이고 만유(萬有)를 포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자(列子)의 '여와씨가 돌을 갈아 다듬어서 구멍 뚫린 하늘을 메꾸었다'는 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천(天)의 관념과 더불어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도 나타난다. 인간은 바로 '이 이(理)(즉 천리(天理))를 한 마음 속에 본구(本具)하여서 만물 중에서 가장 영명(靈明)한 자'(具是理於一心而最靈於萬物者)로서 사람의 일심(一心)에도 역시 이러한 천(天)이 존재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는 천명(天命)에 의한 천리(天理)의 품부(稟賦)를 말한다. 또한 그 품부의 결과에 의하여 인간은 성(聖) 현(賢) 중인(衆人)으로 구별되는데, 그 기준은 전천자(全天者, 성(聖)) 수천자(修天者, 현(賢)) 궐천자(闕天者, 중인(衆人))이다. 이렇기 때문에 성현이 중인의 궐천(闕天)을 근심하여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보충하였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와씨처럼 천(天) 자체를 보(補)하였다는 것은 결국 성리학의 세계관, 인간관 및 가치관의 근원적 실재로서의 천(天)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의 향촌민 교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의도는「우녀회변(牛女會辨)」에서도 이어진다. 이 글은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이 이합(離合)한다고 하는 것은 호사자(好事者)들이 지어낸 허탄지설(虛誕之說)에 불과함을 천(天)과 음양오행(陰陽五行)에 관한 성리학설을 근거로 논증하고 있다. 여기에서 천(天)은 '일원기(一元氣)'로 설명된다. 그리고 일월성(日月星)은 원기(元氣)의 영화(英華)이나 본질적으로는 음양오행일 뿐이라고 한다. 음양오행이 있기 때문에 28숙(宿)은 경(經), 오성(五星)은 위(緯)라는 설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 중성(衆星)이 각각 제자리에 머무는 가운데 유독 오성(五星)이 유행(流行)하는 것이 천기(天機)의 자연(自然)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녀이성(牛女二星)이 남녀의 도와 부부의 정이 있어서 이합(離合)한다는 말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그는 비판하는 것이다.

한편 「장주호접변(莊周蝴蝶辨)」은 장주(莊周) 제물론(齊物論)의 '물화(物化)'를 이기론적 사고로써 비판하는 글이다. 그에 의하면 장주는 꿈에서 일어난 현상을 생화(生化)라고 보는 것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생(生)은 '기(氣)가 한 곳에 모인 것이 생(生)이 되고 존재(유(有))가 있게 된다'(氣之來聚者 爲生而有有矣), 화(化)는 '기(氣)가 흩어져 없어진 것이 화(化)가 되고 존재(유(有))가 없게 된다'(氣之已散者爲化而無有矣)라고 그는 정의한다. 즉 생화(生化)는 기(氣)의 취산(聚散)에 따라서 존재가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꿈은 '어렴풋이 잠든 가운데 정신이 느끼는 우연한 시위(施爲)를 형색 동작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그것은 환상(幻像)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의 사물의 생화(生化)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화(生化)가 아닌 것을 생화(生化)인 것처럼 말하여서 마침내는 장주(莊周)와 호접(蝴蝶)이 '서로 근본이 되어'(互爲其根)하여서 구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生)한 것이 화(化)하고 화(化)한 것이

또 생(生)하여 생(生)하고 화(化)한 것이 일물(一物)이고 귀(鬼)와 신(神)[146]이 다름이 없어서 살았어도(존(存)) 있는 것(유(有))이 되지 않고 죽었어도(망(亡)) 없는 것(무(無))이 되지 않아서 윤회(輪廻)하여 서로 변하여 마침내는 궁극(窮極)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이는 결국 시비를 어지럽히려는 일로서 '궤변을 좋아하여 세상을 기만하고 이설(異說)을 세워서 성인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는'(好詭以欺世 立異以毁敎) 것이라고 그는 비판하고 배척한다.

이상의 그의 논변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성리학의 관점에서 이단의 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배척하는 글이다. 특히 불교가 아닌 도가의 관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당시 소격서(昭格署) 혁파(革罷)를 건의하고 추진했던 사림파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그의 이기론적(理氣論的) 사유가 비록 명확하고 종합적인 체계로 제시되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주자성리학의 이기(理氣)개념의 운용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그의 천(天)에 대한 관념이 이기론적 사유방법에 의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게서는 천리(天理)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게 나타난 것은 없으나 적어도 천(天)을 천리(天理)의 실재로 확인하는 변론이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같이 그의 논변의 주제가 천(天)내지 천리(天理)와 같은 유학의 궁극적 실재에 맞추어지고 있는데, 이는 『소학(小學)』적 수기(修己) 위의 실천적인 학문 경향에 치중하던 데에서 그런 실천의 원리이자 목표인 궁극적 실재(천(天) 또는 천리(天理))에 대학 궁구(窮究)를 지향하는 단계로 이미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의 제자인 정지운(鄭之雲)에게서 「천명도

146) 「장주호접변(莊周蝴蝶辨)」. 신(神)은 유유자(有有者), 귀(鬼)는 무유자(無有者)라고 그는 규정한다.

설(天命圖說)」과 같은 저술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김정국의 학문적 관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천명도설」은 천(天)으로부터 인간의 존재가 발생하는 이치 및 인간이 선(善)을 행하는 근거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해(圖解)이자 설명인데, 이러한 도설을 작성하게 된 데에는 김정국의 논변에서 보이는 성리학적 원리에 관한 천착이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경향의 가속화로 인하여 결국은 사단칠정논변(四端七情論辯)과 같은 역사적인 이기론(理氣論) 논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학문적 발전의 배경으로서 위에서 살핀 김정국의 철학적 논변은 자못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5. 결 론

이상에서 김정국의 생애와 사상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살폈다. 그의 생애는 사림파 관료로서 지치의 구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점이 특색이다. 그는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경세가(經世家) 그리고 목민관(牧民官)으로서의 자질이 탁월하였고 그의 업적은 역사속에 빛나고 있다. 그의 『경민편(警民編)』,「편민거폐(便民去弊)」와 같은 것이 그 점을 말해준다. 중종에게 많은 신임을 받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림파 내부에서도 김정국 형제의 지치(至治)를 추진하는 자세와 시각은 조광조 등의 그것보다 명분과 상응하는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한편 조광조 등의 입장은 인습과 구제(舊制)의 혁거(革去)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던 반면에 김정국 형제의 활동은 지치(至治)의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지적이 있다.[147] 그러나 김정국은 「정귀시

147) 이병휴(李秉烋)는 그와 같은 증거로서 김안국의 업적을 들어 설명한다.

선론(政貴時宜論)」에서 구제(舊制)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이는 그의 입장이 조광조 등의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묘사화에서 같은 사림파 인사이면서도 생사가 갈렸던 것은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48]

그의 사상적인 기틀은 성리학의 관념과 체제이다. 그리고 학문적 방법에 있어서는 유학적 의리의 체득과 그것의 실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誠)을 중시하는 실천중시의 입장은 『중용(中庸)』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가 천(天)과 같은 유학의 궁극적 실재의 해명에 노력한 것도 역시 『중용(中庸)』중시의 입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그는 궁행실천(躬行實踐)을 중시하는 동시에 논리적 사변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음도 여기에서 밝혀진다. 그러한 경향은 사림파 유학의 학문적인 논변을 지향하는 기본단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가 이른

즉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준행(遵行), 『삼강행실(三綱行實)』·『소학(小學)』『여씨향약(呂氏鄕約)』의 인반(印頒), 향교교육의 진흥, 농잠서(農蠶書)·의서(醫書)의 인반(印頒), 제언(堤堰)의 축조(築造), 조창(漕倉)의 건립 등이나, 수태지(水苔紙)의 창작이 그 판단의 근거라는 것이다. (전게서(前揭書), 159면) 김정국 역시 『경민편(警民編)』·『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의 간행과 향촌교육의 진흥 등에 노력함으로써 그의 형과 성향을 같이 하고 있다.

148) 즉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정치는 그 반대당에게 실권(失權)의 위협을 주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한편 「척언」을 보면 조광조가 기묘사화에서 피화(被禍)한 것은 평소의 독단적인 태도가 무시 못 할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던 중종이 그를 사사(賜死)한 것은 남곤(南袞) 등의 밀계(密啓)를 수용한 까닭도 있겠으나 평소 조광조의 태도에 염증을 느낀 데에도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광조가 소격서(昭格署)의 혁파 건의를 초저녁부터 시작하여 새벽닭이 울 때까지 계속하여 결국은 임금이 마지못해 윤허한 일에 대하여, 김정국이 '임금을 핍박하여 이에 이르고도 무사하게 보전한 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히려 임금에게는 '납약자유(納約自牖)(『주역(周易)』 감괘(坎卦) 육사효사(六四爻辭)'의 방법이 현명한 것임을 그는 말한다. 그 밖에도 조광조의 언행은 원로 및 비사림파 인사들에게 미움을 산 듯하다. 김정국이 조광조에 대하여 '군자의 처신은 지경(持敬)하고 겸손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향복지기(享福之基)'라고 경계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점을 추측할 수 있다(이상 「척언」)

바 후기사림파의 학문적 근원이 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그의 정치적 학문적 활동에 있어서 후일 유림의 종장(宗匠)으로 추앙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생애와 사상의 대강을 살피는 데에 그쳤으므로 앞으로 그의 지치(至治)이념의 본질과 그 추진방식,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성리학적 이론체계 및 『성리대전서절요(性理大全書節要)』편찬에 나타난 그의 철학적 관점과 체제 및 문인들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더 깊이 있는 탐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의 사상이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된다.

연 보

1485 : 성종(成宗) 16년 성화(成化) 을미(乙巳) 윤4월 28일 봉훈랑예빈사참봉(奉訓郞禮賓寺參 奉)인 김련(金璉)과 양천(陽川) 허씨(許氏)와의 사이에서 태어나다. 명(名)은 정국(正國), 자(字)는 국필(國弼)이다.

1491 · <7세> 성종 23년 신해(辛亥). 「척언」에 의하면 다음의 기사가 있다. 「내 나이 일곱여덟일 때에 같은 또래의 이웃 아이들과 함께 희롱하였다. 이웃 아이가 희롱하기를 '고금 천하에 차마 못할 바이고 아까운 것은 서시(西施)와 옥진(玉眞)을 묻은 것 이니, 가장 애석하다'하였다. 내가 옆에서 그 말을 꺾기를 '공자(孔子)와 안회(顔回)를 묻은 것이 참으로 애석하다. 나라를 망친 요염한 계집을 묻은 것이 무엇이 아까우냐' 하였다. 마을 어른들이 듣고 크게 웃었고 그 말이 전해져서 지금도 미담으로 되었다.」

1494 : <10세> 연산 즉위년 갑인(甲寅). 부친 졸(卒). 선친의 임종시의 부탁으로 표숙(表叔)인 조유형(趙有亨)에게 양육됨. 백씨(伯氏) 안국(安國)과 더불어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수업하다. (무오사화로 김굉필이 유배되기 전까지 계속된 듯하다)

1496 · <12세> 연산 3년 병진(丙辰). 모친 졸(卒). 백씨(伯氏)와 더불어 여묘(廬墓)하면서 백씨 안국에게 예서(禮書) 경사(經史)를 배우다. 백씨는 이 때 공(公)이 성(性)이 절영(絶穎)하여 '無不透悟迎節而解'라고 기술하고 있다. 복(服)을 마치고 오로지 학문에만 뜻을 두다.

1504 : <20세> 연산 11년 갑자(甲子). 갑자사화로 결성(結城)에 유배된 표숙(表叔) 조유형(당시 언관으로 있다가 견적(見謫)을 따라가서 3년을 머물면서 그에게 종학(從學)함.

1507 · <23세> 중종 2년 정덕(正德) 정묘(丁卯). 생원시 제4인, 진사시(사마시) 제30인으로 급제.

1509 · <25세> 중종 4년 기사(己巳). 갑과(문과별시) 장원급제. 승문원교검(承文院校檢)을 배(拜)함. 겨울,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배(拜)함.

1510 · <26세> 중종 5년 경오(庚午). 이조좌랑에 천배(薦拜)됨.

1512 : <28세> 중종 7년 임신(壬申). 홍문관부교리에 승배(陞拜)됨. 동료들과 더불어 소릉(昭陵)의 복위(復位)를 극론함.

1513 · <29세> 중종 8년 계유(癸酉). 교리로 승(陞)함.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천배(薦拜)됨. 임금의 사헌부(司憲府) 헌관(獻官)에 대해 추국(推鞫)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항소하여 임금에게 '회성도(恢聖度) 무대명(務大明)', '勿察察於細舞時論'할 것을 청함. 이조정랑으로 체배(遞拜)됨. 공호앙조(工戶兩曹) 정랑(正郎)을 역임하고 승문원교리에 배(拜)함.

1515 : <31세> 중종 10년 을해(乙亥). 다시 이조(吏曹)로 들어감. 마침 뢰전(雷電)으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 임금이 하지(下旨)하여 구언(求言)함에 상소하여 '推誠任下親接群臣'의 의(義)를 극진(極陳)함.

1516 · <32세> 중종 11년 병자(丙子).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에 천배(薦拜)됨.

1517 · <33세> 중종 12년 정축(丁丑). 사인(舍人)으로 승(陞). 잠시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으로 올랐다가 군기사부정(軍器寺副正)으로 옮기고 다시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으로 천(遷).

1518 · <34세> 중종 13년 무인(戊寅).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에 배(拜)함. 얼마 후 특지(特旨)로 직제학(直提學)에 오름. 겨우 10여일 만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승문원동부승지(承文院同副承旨)로 초배(超拜)됨.

겨울, 황해도관찰사로 나감. 이 때 조광조 등이 지치(至治)를 일으켜서 일시에 군현(群賢) 동덕(同德)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때인데 공(公)은 상하로부터 주목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참찬관 김정(金淨)과 유인숙(柳仁淑)이 입시(入侍)하여 임금과의 야대(夜對)에서 논어를 강론하면서 당세의 용인(用人)에 이르러서 '用人須適其器'라고 하여 공론을 근거로 공(公)을 좌승지로 불러들이려고 건의한 일이 있었다. 임금은 황해도의 흉황(凶荒)으로 인한 민리기근(民罹饑饉)을 다스릴 적임자로서 특별히 파견하였다고 함.

『경민편(警民編)』 간포(刊布)-황해도 관찰사 인도(人道)에 관한 것과 백성이 이종(易從) 이범(易犯)하는 바를 취하여 12개조로 엮어서 촌려(村閭)에 배포함.

「학령(學令)」24조-사자(士子)를 훈도(訓導)하기 위하여 지음.

이로 인하여 온 도(道)가 흡연(洽然)히 열복(悅服)하였다고 하며, 이후로 감사(監司)의 선치(善治)를 말할 때에는 공(公)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게 되었다고 함.

1519 · <35세> 중종 14년 기묘(己卯). 남곤, 홍경주 등이 조광조를 모해(謀害)하여 다른 경로로 밀계(密啓)를 내려서 유찬(流竄)시킴이 끊이질 않음에 공(公)은 □연(□然)하여 구원하려고 초소(草疏)하였으나 세(勢)가 이미 어쩔 수 없음을 알고 그만 두었는데, 이 때에 그러한 노력을 하였던 자는 모두 중척(重斥)되었는 바, 공(公) 역시 그 소(疏)를 임금께 올리지 않았으나 결국은 대간(臺諫)의 논박(論駁)을 받았다.

파관(罷官)되어 정묘년(丁卯年)에 복관(復官)되기까지 고양군 망동(茫洞)에 병거(屛居)하게 됨. 띠 풀(茅))를 엮어서 작은 정자를 짓고 그것을 은휴(恩休)라고 이름짓고 그 속에서 날마다 소영(嘯詠)하며 지냈다. 스스로 팔여거사(八餘居士)라고 불렀다. 제생(諸生)이 좇아 배우는 자가 매우 많아서 다시 모당(茅堂)을 짓고 '육무(六務)'로 편(扁)하고 강론을 그치지 않다.

『성리대전절요(性理大全節要)』4권 편찬.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편찬. 이상의 편찬 저술은 모두 세상에 간행됨.

1527 : <43세> 중종 22년 가정(嘉靖) 6년 정해(丁亥). 「문범(文範)」서(序)

1532 · <48세> 중종 27년 가정(嘉靖) 11년 임진(壬辰). 「역대수수승통도(歷代授受承統圖)」 부동국사적발문(附東國事迹跋文) 지음.

1534 : <50세> 중종 29년 가정(嘉靖) 13년 갑오(甲午). 하(夏), 「新溪縣鄕校重修已」

1537 : <53세> 중종 32년 가정(嘉靖) 16년 정유(丁酉). 태학생(太學生)들이 상소하여 기묘사화의 억울함(기묘지원(己卯之寃))을 송(訟)함.

1538 · <54세> 중종 33년 무술(戊戌). 봄, 다시 용양위대호군(龍驤衛大護軍)에 복직함.

4월, 전라도 관찰사-기묘사화 이후로 속습(俗習)이 크게 변하여서 수재(守宰)는 거리낌 없이 오로지 백성을 할박(割剝)함을 일삼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공(公)은 임지에 가서 흥리제막(興利除瘼)하고 부단(剖斷)이 공명하여 막힘이 없었다. 편민거폐(便民去弊) 수십조를 지어올림. 임금은 의정부와 제조(諸曹)에 명하여 그것을 시행케 하니 이로 인하여 백성들 사이에서 공에 대한 칭송이 우러나와서 도하(都下)에 정성(政聲)이 자자하였다. 과로에다 아위어서 병이 심하여 가다.

1539 : <55세> 중종 34년 己亥. 여름, 병조참의에 체배(遞拜)됨. 공조(工曹)로 옮김. 조정에 돌아온 지 십일이 되지 않아서 곧 가선(嘉善)으로 가계(加階)되는 특명을 받고 경상도관찰사로 나가게 됨. 도민(道民)들이 공(公)을 기리고 기뻐함은 전라도에서와 같다. 처음 명(命)을 받을 때 본래 병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으나, 임금의 은총에 감격하여 죽음으로 갚고자 하여 질환을 무릅쓰고 경상도에 부임하다.

경상도는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이어서 기무(機務)가 다른 도의 배나 되는데도 공(公)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을을 순방함에 조금도 쉼이 없었다. 질환은 더욱 고질이 되어서 마침내 누워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1540 · <56세> 중종 35년 경자(庚子). 사직(辭職)을 상서(上書)함. 예조참판으로 체배(遞拜)되고, 여름에 병조로 옮김. 얼마 후 특명으로 형조참판으로 천배(遷拜)됨. 전(傳)에 '김모(金某)는 그 어짊이 진실로 승탁(陞擢)함이 당연하나 다만 근일에 형정(刑政)이 많이 해이해진 까닭에 그것을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잠시 형조에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6월,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을 겸하게 되었는데 이 때에 공의 백씨가 좌빈객이고 공(公)이 보도(輔導)로써 동궁의 중임을 형제가 동시에 한다는 것은 마음에 미안(未安)하여 힘써 사양하니,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7월, 병 때문에 사직하다. 동지중추부사에 체배(遞拜)되어 한직(閑職)에 나가서 조식(調息)하다.

조종조(祖宗朝)에 서북변 압록강 상에 무창(茂昌) 여연(閭延) 우예(虞芮) 자성(慈城) 사군(四郡)을 설치하여서 여진을 막아왔는데, 이곳은 천참위험(天塹危險)한 요새였다. 세조조(世祖朝)에 여러 번 구함(寇陷)을 당해서 그곳을 모두 폐하고 백성을 내지로 모두 이주시키니, 마침내 빈틈을 타고 들어와 여진족이 채렵(採獵)하며 구허(舊墟)에 흩어져 부락을 이루고 살았다. 아국(我國)이 믿을 바는 오직 장강(長江, 압록강)인데 이미 저들은 강을 건너와서 우리의 땅을 점령하였으니 후일에 그들이 자만(滋蔓)하여 만세(萬世)의 환(患)이 될 것이 분명하였다. 조정의 대부들은 일찍이 입시하여 경연에서 그것의 폐단을 역진(力陳)하여 지금의 조처에 이르도록 청하였다. 그 때에 임금이 그것을 경청하였고, 다른 듣는 이도 어느 누구하나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복군(復郡)의 의론(議論)이 크게 일어났다.

1541년 · <57세> 중종 36년 신축(辛丑). 4월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副事)로 자리를 옮기다. 기(氣)가 더욱 리췌(羸悴)하였으나 오히려 직책을 수행하기에 그침이 없었다.

5월 18일 성균관에서 제학사(諸學士)와 더불어 제생(諸生)에게 제술(製述)을 과(課)하던 중 질환이 도져서 환가(還家)하였으나 20일 끝내 일어나지 못한다. 향년 57세로 졸하다.

8월 19일에 장단부치(長湍府治) 동폐(東廢) 임진현(臨津縣) 백목곡(栢木谷, 좌신향을(坐辛向乙))에 장사지내다. 시호(諡號)는 문목(文穆)이다.

복재(服齋) 기준(奇遵)의 도학사상(道學思想)

김 기 현[149]

1. 머리말
2. 복재(服齋)의 생애
3. 도학사상(道學思想)
1) 세계인식
2) 경외(敬畏)의 정신
3) 경세(經世)이념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조 사회의 지배이념으로 작용하였던 성리학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은 고려말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말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1337~1392)를 정점으로 한 몇몇 학자들의 성리학 연구수준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당시의 최고학부인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정식으로 강론하였으며, 그들의 학문과 사상을 정치에 일정한 정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성리학 특유의 도의(道義)정신이 기왕의 유교의 현실순응적 무기력성과 결별하고 당시 불교의 사회정치적 폐해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한다는 획기적 의의를 갖고 있었다. 고려를 전복하고 들어선 조선조는 이 점에서 더욱 훌륭한 터전을 기대케

149) 전북대 교수, 철학박사

할만 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개국은 처음부터 그 기대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방 성리학의 비조요, 도의정신의 표상인-이는 후세의 평가다-정포은(鄭圃隱)을 순절시킨 선죽교의 피의 얼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조 학자들이 성리학의 학통을 포은(圃隱)으로부터, 혁명의 개국공신이요 사실상 학문과 사업의 큰 공헌자였던 三峯 鄭道傳(삼봉 정도전)(1342~1398)이나 陽村 權近(양촌 권근)(1352~1409)에로 잇지 않고 고려의 멸망과 함께 은거한 산림의 학자 冶隱 吉再(야은 길재)(1353~1419)로 이어내린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지향의 학문인 성리학이 당시 정치계와 거리를 두면서 수기(修己) 또는 일상의 처사접물(處事接物)의 의리추구에 기울어졌을 것임을 짐작케 해준다.

그러나 혁명의 격동기를 지나 새로운 왕조질서 속에서 성장한 신진의 성리학자들은 그들의 정치이념을 회복, 서서히 벼슬길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였다. 길야은(吉冶隱)의 제자인 강호 김숙자(江湖 金叔滋(1389~1456)의 진출이 그 예이며, 특히 성리학의 학통상 야은(冶隱)-강호(江湖)에 이어지는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1431~1492)의 출사(出仕)는 각별한 의의를 갖는다. 그는 성종(成宗)의 총애를 받으면서-그의 벼슬은 형조판서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그의 문인들을 관직에 많이 등용했던 바, 이들의 정치이념은 당시 기성세력인 훈구파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에 성리학의 이념으로 무장된 사림의 힘을 꺾기 위해 훈구파가 꾸민 최초의 음모를 우리는 그들이 점필재(佔畢齋)의 「적의제문(吊義帝文)」을 빌미로 일으킨 무오사화(戊午史禍)(연산군 4년 : 1498년)에서 본다. 점필재(佔畢齋)는 이 때문에 부관참시(剖棺斬屍)까지 당했거니와, 역시 함께 연루되었던 그의 제자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145

4~1504)은-그는 당시 형조좌랑(刑曹佐郞)이었다-유배중 갑자사화(甲子士禍)(연산군 10년 : 1504년)를 당하여 드디어 사사(賜死)되었다.

선비들의 사기를 크게 꺾은 이 두 차례의 사화는, 그러나 성리학의 사상적·정치적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중종반정(中宗反正)(1506년) 이후 선비들의 고양된 정치의식 속에서 한훤당(寒暄堂)의 학풍을 이은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1482~1519)가 관계에 진출하면서, 그는 왕의 신임에 힘입어 많은 선비들과 함께 지치(至治)의 기치를 내걸고 요순시대의 구현에 진력하였던 것이다. 이는 성리학의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이념이 그 유입 후 200여 년의 정지기(整地期)를 거쳐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통일된 전망을 얻어 개화의 기회를 맞이하였음을 뜻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선조의 사상사적 발전을 점검하는 과정상 이 관절적 시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이후 조선조 성리학의 특징적 전개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이 시기 또는 이 시기의 선비들에 대한 학계의 기왕의 연구는 주로 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학자들이 역사적 사실들의 분석을 통해 당시(선비들)의 정치·사회학적 맥락을 밝혀낸 것은 확실히 괄목할만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선비들의 저술에 나타난 바 그 시대를 선도했던 그들의 철학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 연구는 자칫 미숙함을 면키 어렵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사상사에 대한 사학과 철학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요구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동안 그 시대의 선비들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소홀했음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조정암(趙靜庵) 등과 함께 당시 지치(至治)이념의 실현에 진력하였던 복재 기준(服齋 奇遵)(1492~1521)의 도학(道學)사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도학이란 성리학의 별칭이지만 특히 성리학의 실천적 도의정신을 강하게

함축하는 관념으로서, 그것은 복재(服齋)가 살았던 시대 및 그의 사상에 적합한 명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의 생애를 일별하고자 한다. 이는 그의 도학정신을 이해하는 데 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복재(服齋)의 생애

그의 본관은 행주(幸州)이며 자는 자경(子敬)·경중(敬仲), 호는 복재(服齋)·덕양(德陽)이다. 그의 선대에는 현달한 인물들이 많은데-가까이는 그의 아버지는 홍문관 응교(應敎)에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추증받았다-유교문화권속에서 조상과 가문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는 그의 학문과 정치의 입지에, 달리 말하면 수기·치인의 이상정립에 상당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1492년(성종 23년) 서울 청파동 만리재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몇 달만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심하여 13세에 문리(文理)를 크게 통하였다 한다. 1506년 그는 중종반정을 목도하였는데 비록 열다섯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 사건이 그의 정치사회적 전망을 밝게 열어주며 따라서 수학(修學)의 열도를 더하게 한 점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복재(服齋)는 일정한 스승이 없이 독학하였던 것 같다. 조정암(趙靜庵)의 문인이라는 설이 있지만, 『靜庵集』에 의하면 그가 정암(靜庵)을 따라 송도(松都)의 산사에 머무르며 같이 공부한 것이 19세의 일이며 그 때 정암(靜庵)이 29세였던 것을 보면, 그들이 그 젊은 나이에 사제(師弟)의 예(禮)를 행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두 사람은 오히려 수학의 동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산사에서 학문에 발분망식하는 복재(服齋)에 대하여, "선생(靜庵)이 말하기를 '자경(子敬)이 이와 같이 열심히 공부하니 힘들지도 않은가'하시니, 이는 서로 장려하는 말이었다."[150]한 것을 보면 그 뜻은 분

명해진다. 기묘사화(己卯士禍)의 공초(供招)시에 복재(服齋)가 "조광조(趙光祖)와는 젊어서부터 사귀어왔다"고 말한 점[151] 또한 이를 보충해준다. 한편 "사우(師友)가 없음을 일찍이 근심했던"[152] 그로서, "뜻이 같고 道가 합했던[153] 정암(靜庵)의 문학연마의 훌륭한 동지로 반겼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복재(服齋)는 중종 8년, 22세의 나이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별시(別試)에 합격하였다. 그는 24세에 홍문관 정자(正字)의 벼슬에 임명되었는데 그 후 사화를 당하기까지 홍문관 박사(博士)· 수찬(修撰)· 응교(應敎), 의정부 검상(檢詳), 사헌부 장령(掌令), 경연시강관(經筵侍講官) 등을 역임하였으며, 기묘년에는 28세의 나이로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에 특진 임명되었다.[154] 주목할 것은 그가 경연시강관으로서 임금에게 성리학이 핵심서적인 『근사록(近思錄)』과 『성리대전(性理大全)』 등을 강론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학문세계와 그 수준의 높음을 말해주는 자료가 된다. 당시 사관(史官)은 그의 학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준(遵)은 쇠처럼 울리고 옥처럼 빛나며 렴낙(濂洛)의 학문에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정응(鄭應)과 함께 : 필자주) 쌍벽이라고 지목하였다."[155]

---

150) 『정암집(靜庵集)』, 「연보(年譜)」. 위의 "서로 장려"하였다는 말에서 우리는 학문상 두 사람의 동지적 관계를 알 수 있다.

15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종14년기묘11월(中宗14年己卯11月)」

152)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불위문화사 弗威文化社), 「독덕양유고당의략(讀德陽遺稿黨議略)」204쪽.

153) 『복재집(服齋集)』하 부록 권 2. 조준의 『익상(謚狀)』. 이는 사화 직후 태학생들이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의 일부다.

154) 직제학(直提學)의 자리는 이내 체직되었다. 그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헌부의 반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주와 역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임금의 주장이 밀렸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종14년 기묘 7월」참조)

155) 『조선왕조실록』「중종14년 기묘7월」. 위에서 염낙(濂洛)의 학문이란 성리학을 말한다.

그는 또한 『수학(小學)』을 매우 중시하였는데,[156] 사람됨의 근본을 윤리도덕에 두어 일거수일투족 엄격한 실천을 강조하는 그 책이 한훤당(寒暄堂) 이래-한훤당(寒暄堂)은 자신을 '소학동자'라 자칭하였다-수기·치인의 이념으로 충만된 선비들의 바른 삶의 교본이었고 보면, 복재(服齋)의 도의정신과 그에 따른 삶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157]

중종 14년 음(陰) 11월 복재(服齋)는 홍문관에서 숙직중 난데없이 붕당의 죄목으로 체포·수감된다. 기묘사화(己卯士禍)의 시작이다. 이 때 그의 나이 28세였다. 복재(服齋) 등 신진사류는 임금의 신임속에서 정치의 요직들을 얻으면서 그들의 투철한 도학이념에 입각하여 정치사회 제반의 폐해를 개혁하고 비박한 풍속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보였던 강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의식은 기득권수호에 급급했던 보수적 관료들과 때때로 마찰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양자간의 마찰은 중종반정(中宗反正)후 남발된 공훈의 삭탈문제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이에 훈구세력은 위기의식속에서, 일의 명분을 바로잡기 위해 거짓된 공훈[僞勳]을 정리할 것을 주장하는 신진사류의 제거를 모의하였다. 남곤(南袞)· 심정(沈貞)· 홍경주(洪景舟) 등이 주동이 된 이 모의는 마침 신진사류의 개혁의지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임금과 상통하여 하룻밤 사이에 거행되었다. 결국 그들은 가치전도의 간사함으로써 당시는 물론 그 이후의 선비들의 도학정신을 차단하고 굴절시키는 우리 역사의 또 하나의 비극을 엮어내었다.

복재(服齋)는 사화 직후 충청도 아산(牙山)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2월 함경북도 최북단 중국과의 접경지대인 온성(穩城)땅

156) 윗책 「중종13년 무인8월」참조.

157) 『소학(小學)』이 사화의 반복속에서 사람들에 의해 화란(禍亂)의 근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사실상 『소학』공부가 기피되기까지 했던 점은 선비들의 수기·치인이념과 관련하여 그 책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주는 바가 있다.

에 이배(移配)되었다. 당시 조정의 논의에 의하면 그는 아산 유배생활 중 그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도망치다가 잡혔다 한다.[158] 그러나 복재(服齋)는 옥중 상소를 통해 이와는 다른 사실을 자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그는 멀리 계신 어머니 생각에 "창졸중에 경망되게" 잠시 유배지를 벗어났다가 사후의 어려움을 깨닫고는 곧 되돌아왔으며 도망의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이다.[159] 그렇다면 그가 도망쳤다는 주장은, 인종 때 태학생들이 복재(服齋) 등의 신원 상소문에서 지적한 것처럼,[160] 무고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에 채록된 「乙卯黨籍補」의 내용은 이들과 또 다르다. 해당부분을 옮겨 본다.

응교(應敎) 기준(奇遵)이 곤장을 맞고 아산에 유배되었다. 그 때에 공(公)의 형인 형(逈)이 무장(茂長)현감이 되어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부임하는데 직산(稷山)을 경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직산은 아산과 거리가 겨우 50여 리 밖에 안되므로 공(公)이 아산현감 배철중(裵鐵重)에게 간청하여 어머니를 뵙고는 하룻밤을 노숙한 뒤 돌아왔다. 이듬해 2월 공(公)이 온성으로 이배된 뒤 일이 발각되자 배철중은 죄인을 자기 마음대로 놓아준 죄를 면하기 위해, 공(公)이 도망을 갔다가 스스로 돌아왔다고 꾸며 말하였다.[161]

이는 복재(服齋)의 "도망"이 아산현감의 사전허락을 얻은 것으로써 전혀 '합법적'이었다는 무죄의 변론이다. 그러나 그의 옥중 자술서(상소문)에 의거한다면 이 역시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 만약 이를 선의로 해석할 경우 그의 옥중 자술내용은 자기에게 호

158) 『조선왕조실록』「중종15년 경진 정월」 참조.
159) 윗책 「중종15년 병진 5월」 참조.
160) 윗책 「인종 원년 을사 3월」 참조.
161)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206쪽.

의를 배푼 아산현감을 보호하기 위해 잘못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재(服齋)의 온성생활은 극도로 곤고하고 비참하였던 것 같다. 그가 당시에 지은 시편들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에이는 바가 있다. 「자비(自悲)」라는 제목의 다음 시를 보자.

흐트러진 머리 한 달에 한 번 빗질하고
때절은 얼굴 열흘에 한 번 씻는다.
음식은 배채우기 힘들고
의복은 몸조차 못 가리운다.
몸뚱어리는 비록 모양을 갖추었지만
행동거지가 어찌 남과 같겠는가.
안 보이고 안 들림에 문득 놀라며
아득히 귀신을 접한다.
하늘 땅 있으나 밤낮을 모르겠고
세월이 흘러도 가을 봄을 못 느낀다.
구멍속의 개미도 제 본성을 다하고
가지위의 뱁새도 참 이치를 갖는데
누가 말했는가, 목숨을 보전해야 한다고.
애오라지 죽음이 이웃한다.
다만 충심(衷心) 있어
때때로 늙으신 어머님 생각한다.[162]

우리의 마음을 처연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의 힘든 유배생활 자체가 아니다. 명리를 떠나 오직 도의만을 숭상하며 살려 했던 한 선비의 비색(否塞)한 운명이, 치세보다는 난세가 많은 이 세상에서 시대와 사회를 넘어 우리의 것으로 공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고난의 삶이 우리를 비애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간난신고 속에서도 그가 소중하게 지키는 숭고한 의식은 우리에게 비극적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가, "높은 말뚝

162) 『복재집(服齋集)』상, 권 1, 「자비(自悲)」

에 빽빽한 가시덤불"로 만든, "둘레 50여 척에 높이4·5장"이나 되는, 그리하여 "햇빛도 들지 않아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는 듯" 한, "세속의 이른바 산 무덤"과도 같은 유배지의 움집[163]속에서 보였던 자강불식의 각오는 이 점을 웅변한다.

옛날 지사들은 몸이 곤고함을 근심하지 않고 도가 성취되지 못할까 근심하였고, 목숨이 소중함을 염려하지 않고 혹 죽음이 가벼울까 염려하였다… 그들은 화복과 영욕을 허공의 뜬구름과 같이 여겼으니, 이 어찌 구구하게 말로써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일은 관 뚜껑을 덮은 뒤에 정해지는 법. 지난 일은 추궁할 것 없고 앞날은 무궁하니, 개과천선하고 이 마음을 새롭게 닦아 죽음을 순순히 맞이하면 자신의 할 일은 끝난다. 다시 무엇을 회한하겠는가? 그러므로 이 울타리는 너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장차 너를 주옥과도 같이 빛나게 하려는 것이니, 아 힘쓸지어다.[164]

그리하여 그가 그 생활 속에서 기초에 드러냈던 회한과 서러움은, 시편의 순서에 따르면, 순화된 슬픔의 정조로 서서히 깔려 내리면서 그의 의식과 삶의 전면에 학문과 수덕(修德)이 일상의 과제로 등장하게 또 실천된다. 그가 『주역』의 공부를 거두지 않았다든지, 또는 고독한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물들에 각기 상징적 명칭을 부여하여 그의 눈길과 손발이 닿을 때마다 그로써 자기 성찰과 수신역행(修身力行)하였다는 데에서[165] 그 점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장절을 달리하여 살피려 한다.

중종 16년(1521년), 조정에서는 기묘사화의 여파로 신사무옥(辛

163) 『복재집(服齋集)』하, 권 4. 「위리기(圍籬記)」 참조.
164) 위와 같음.
165) 윗책, 권 4, 「명물기(名物記)」·「육십명서(六十銘序)」·「명후(銘後)」·「명(銘)」 등 참조.

巳誣獄)이 일어난다. 이는 송사련(宋祀連)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안처겸(安處謙)·류인숙(柳仁淑)·정순명(鄭順明) 등이 남곤·심정의 제거를 모의했다고 무고하여 사림에 화를 입힌 사건이다. 남곤·심정 등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유배중의 "기묘당인(己卯黨人)"들을 다시 추궁, 살해한다. 복재(服齋)가 그 중의 한 희생자다. 그 해 음(陰) 10월 28일 의금부도사가 형집행의 명을 갖고 이르자 그는 임금의 안부를 묻고 한편으로 형과 어린 자식에게 충효를 당부하는 편지를 쓰고는, "목욕하고 자리에 바로 앉아 태연자약하게 숨을 거두었다."[166] 이 때 그의 나이 30이었다. 그는 죽음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한다.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를 다하지 못하였고, 임금을 섬김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학문은 도를 깨우치지 못하였네"(孝未盡於事親 忠未盡於事君 學未盡於聞道) 그는 그 해에 고양군 원당리(元堂里) 선영의 북쪽 언덕에 안장되었다.

사화의 여진이 가라앉아 가면서 그 희생자들에 대한 조야(朝野)의 신원요청이 잇달아 일어났다. 선비들은 특히 복재(服齋)의 경우, 그를 교살로 이끈 "유배지(아산)에서의 도망"건이 간신들의 무고임을 극력 간언하였다.[167] 그러나 중종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칠 줄 아는 군자의 도량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인종 1년(1545년) 태학생들의 여러 차례 상소로 그는 복관(復官)되었고, 명종 때에는 이조판서로 추증되었으며,[168] 영조 22년(1746년)에는 문민공(文愍公)의 시호를 받았다. 그는 온성(穩城)의 충곡서원(忠谷書院), 종성(鍾城)(온성 옆 지방)의 종산서원, 아산(牙山)의 아산서원, 고양의 문봉서원(文峰書院), 장성의 추산서원

166) 윗책, 부록, 권 2, 「행상(行狀)」참조. 『조선왕조실록』「중종16년 신사 10월」에 의하면 복재(服齋)는 임금의 명에 따라 교살되었다.

167) 『조선왕조실록』「중종39년 갑진 5월」 참조.

168) 명종 때의 추증건은 실록에서 확실할 수 없었다. 이는 조준의 「시상(諡狀)」에 의거한 것이다.

(秋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3. 도학사상

1) 세계인식

복재(服齋)의 현존저술-"선생의 저술은 열중 한둘밖에 남아 있지 않다"[169]-을 개관해 볼 때 우리는 그의 체계적인 철학논술을 발견하게 어렵다. 물론 이는 그의 철학적 사색 또는 학문적 진취가 평범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앞서 인용한 것처럼 당시 학자들이 그를 성리학의 거벽으로 칭송했으며, 또 그가 임금의 선생이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우리는 그의 학문적 깊이를 인정해주어도 좋을 것이다. 이제 아래에서는 부족하나마 현존하는 그의 글들을 토대로 그의 사상 전모를 파악하고 아울러 이로써 당시의 도학사상의 수준과 방향을 가늠해보려 한다.

복재(服齋)가 임금에게 『성리대전(性理大全)』·『근사록(近思錄)』 등을 강의했다는 사실은 그가 그 책의 핵심내용, 즉 성리학 또는 도학의 진수를 이미 요해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가 주렴계(周濂溪)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성리의 본원이라 하여 임금에게 강조한 것이나[170], 또는 비록 단편적·비체계적이긴 하지만 태극·이기·오행 등의 용어를 만물의 존재 및 생성과 관련하여 구사하고 있는 데에서[171] 우리는 그의 학문적 범주를 확인한다. 그러므로 성리학 일반으로 보충하면서 그의 사상체계를 엮어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다만 그의 사상은 16세기 중기 이후 조선조사회에서 전개되었던 성리학의 그것에 비하여 비교적 '질박

169) 『복재집(服齋集)』하의 「발문(跋文)」
170) 『조선왕조실록』「중종11년 병자 10월」 참조.
171) 『복재집(服齋集)』상, 권 2, 「서구등사면(書籓燈四面)」 참조.

한' 성질을 띠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째, 16세기 중기 이후 활발한 이론논쟁과 함께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 관념과 체계에 비하여 복재(服齋)의 그것이 뒤떨어짐을 의미하며, 둘째 바로 그 점으로 해서 16세기 중기 이후의 그것이 관념유희의 경향과 실천정신의 약화를 초래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사상은 일상의 세계와 삶에서 유리됨이 없이 절실히 체험되고 실천되었던 강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함축한다. 이 바로 복재(服齋)의 도학사상의 일반적 특색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복재(服齋)는 만물의 존재근원으로서 자연의 생성정신을 추상하며 이로써 사물의 성쇠를 살핀다. 성리학은 이를 태극 또는 이(理)로써 개념화하거니와, 그는 말한다. "자연은 만물에게 고루 생을 주었다".[172] 이는 『주역』의 이른바 "자연의 본질은 만물에게 생을 주는 데에 있다"[173]라든지, 또는 주자의 "자연의 근본정신은 만물을 생성하는 데에 있다"[174]는 말과 다른 뜻이 아니다. 복재(服齋)의 이와 같은 생각은 개체의 사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생성은 사멸을 면치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생성과 사멸의 연속적 계기(繼起)속에서 보면 한 개체의 사멸은 또 다른 새로운 생성의 토대로서 작용하며, 그리하여 만물은 영원한 생성을 지속한다. 자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의 생성정신은 결코 무질서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정한 전개양태를 갖는다. 음양이 그것이다. 음과 양은, 생성론적 관점에서 살필 때, 사물에 내재하여 그의 생성에 작용하는 두 개의 힘으로써, 전자는 수동적·정태적인데 반하여 후자는

---

172) 『복재집(服齋集)』 하, 권 4, 「양어설(養魚說)」, 天之於物 均之以生. 참고로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천·천지·건곤 등은 존재의 형이상학속에서는 일종의 생성적 자연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73) 『주역』, 「계사(繫辭)」하, 天地之大德曰生.

174) 『주자전서(朱子全書)』곤(坤) (중화당(中和堂)), 336쪽, 天地以生物爲心者也.

능동적·역동적이다. 양자는 생성의 단면상에서는 상반적인 모습을 갖지만 사물의 전일적(全一的) 관점에서는 상호보충적 성질을 띤다. 말하자면 음과 양이 서로 의존하고 보충하며 교감·상통함으로써 한 사물의 존립과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음양관념을, 복재(服齋)가 온성(穩城)의 유배생활중 식사시 젓가락을 이용하면서 생각한 바를 기록한 다음의 글에서 엿본다.

세 사람의 동행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므로 그 중 한 사람을 제외시켜야 하며, 혼자 가는 길에는 친구를 얻어야 짝을 이룰 수 있다. 사물이 외톨이 상태에서는 생성의 이치가 끊긴다. 천지가 교감하여 만물이 생성되고 남녀가 교합하여 만사가 이루어진다. 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누가 이 뜻을 알겠는가[175]

일견 사주풀이나 뭇느 비결 같이 들리는 이 말은 복재(服齋)가 『주역』「손(損)」괘(卦)와 「계사전(繫辭傳)」의 글 뜻을 응용한 것이다.[176] 만물의 생성은 음과 양의 교감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착상 속에서 보면 "세 사람의 동행"은 교감의 혼란을 뜻하고 "혼자 가는 길"은 교감대상의 부재라는 뜻을 갖는다. 사물은 "외톨이"를 벗어나 "짝"을 얻어야만 존립·생성할 수 있다는 그의 일련의 존재관에는 『주역』철학의 기본구조인 음양관념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세계는 자연의 생성정신(과 그 전개양태로서의 음양)의 자기실현과정이다. "미물도 모두 각기 존재의 제자리를 가지니, 자연의 조화는 본래 고르도다"[177] "자연은 만물에게 고루 생을 주어, 대

175) 『복재집(服齋集)』하, 권 4「손일저(損一箸)」. 三則疑 損其一 得其友 成配匹 物若孤 生理絶 天地交 萬化生 男女合 萬事作 非知道 誰能識. 위에서 "천지", "남녀"란 실제적으로는 음양을 뜻한다.

176) 『주역전의(周易傳義)』(이이회간(二以會刊)), 685쪽 및 1099쪽 참조.

177) 『복재집(服齋集)』상, 권 1, 「기중경사십운(寄仲耕四十韻)」, 微虫皆有所 造

소를 막론하고 그들이 모두 제 본성을 실현토록 해준다. 그들 본성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고 그 성취를 기다려서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에 알맞은 일이요 인자(仁者)의 마음이다".[178]

그러나 선악의 자유의지를 타고난 인간은 자연의 생성정신에 역행하여 타자의 "존재의 제자리"를 빼앗고 그의 "본성의 실현"을 방해하기도 한다. 정치란 이렇게 반자연적인 사람들의 악한 행태를 교화하고 다스려 인간 및 만물로 하여금 각기 존재의 제자리 속에서 본성을 실현하게끔 하는 데에 궁극의 목표가 있거니와 정치가에게 "인자(仁者)의 마음"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재(服齋)의 정치적 이념 또한 이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자신의 '제자리'를 박탈당하고 본성의 실현을 방해받는 비운을 만난다. 온성(穩城)의 유배생활 중 이웃집 아이가 끓여 먹으라고 준 산 물고기 몇 마리를 차마 먹지 못하고 물단지에 넣어 기르면서, '제자리'를 잃은 그 물고기들에게 자신의 신세를 본 그의 탄식을 들어보자 "교룡(蛟龍)이 제자리를 잃으니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물들이 저마다 그를 침학(侵虐)하려 하는구나. 하물며 네 고기를 먹어 배 채우며 살찌려 하는 자들이랴! 물고기여 물고기여, 사는 것도 운명이요 죽는 것도 운명이라. 내가 자초한 일이니 누구를 허물하랴!"[179]

하지만 그의 탄식이 삶의 체념을 의미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음양의 조화가 순조롭지 못하여 생성의 이치가 끊겨버린 시대에[180] 자신의 비운 속에서도 그는 선비의 꼿꼿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읊는다.

化本來均.

178) 『복재집(服齋集)』하, 권 4, 「양어설(養魚說)」, 天之於物 均之以生 無分細大 咸欲其遂 遂而不闕 成而後用 乃天地之宜 而仁者之心也.

179) 위와 같음.

180) 복재(服齋)는 「유감(有感)」(『복재집(服齋集)』상, 권 1)이라는시에서 시대의 순조롭지 못함을 다음과 같이 읊는다. 豈料梁和未盡數 萌芽旋被霜雪摧 一朝群生生意絶 可憐天心非不仁.

한송(寒松)의 한결같은 절개 四時에 푸르르니
서리와 눈이 어찌 그 가는 길을 바꿀 수 있으랴
명월(明月)은 구름에 가리워도 광채를 드러내고
영천(靈泉)은 장마 속에서도 맑음을 유지한다.
영웅호걸의 인생에 성패를 논하지 말라
삶과 죽음은 모름지기 경중(輕重)을 살펴야 하느니
사람의 일이란 마지막 관뚜껑을 덮은 뒤에나 알 수 있는 것
마음은 이미 신명(神明)에 합했노라.[181]

복재(服齋)의 세계인식은 그의 가치관념에 그대로 반영된다. 먼저 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자. "잡다한 삼라만상, 하나의 근원에 통합되어 있으니, 그 근우너을 찾으면 세계의 | 깊이에 접근할 수 있지만 현상에만 힘쓰는 자는 세계로부터 멀리 벗어난다. 근원을 파지(把持)하여 만상을 이끌고 이치를 가지고 잡다함을 제도한다."[182] 앞서 말한 바에 따르면 자연의 생성정신은 이 세계의 형이상학적 중심이요 만물은 이 중심의 다양한 분화작용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물의 개별적 중심만을 알아 그에 따라 처사하려 할뿐 만물공통의 근원적 중심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이기적 처사나 또는 자타대립의 상대적 가치의 고집은 이의 당연한 결과다. 이에 반하여 그 근원적 중심을 알아 그에 서는 사람은 그들과 사고 및 삶의 차원을 전혀 달리한다. 그는 자연의 생성정신의 체현(體現)속에서 만물을 아우르는 우주적 대아(大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생명의 절대성을 알아 그를 존중하면서 만물의 본성 실현을 돕는 "인자(仁者)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181) 『복재집(服齋集)』상, 권 1, 「우차방득시심추기의(又次紡得詩心推其意)」, 寒松一節四時靑 霜雪寧敎變所行 明月蔽雲猶露彩 靈泉和潦尙存淸 英豪不必論成敗 生死須宜審重輕 身事斷知終蓋棺 中心應已契神明

182) 『복재집(服齋集)』하, 권 4, 「이분즐(理分櫛)」, 萬殊粉綸 一統于本 求源則近 力末者遠 由根連枝 因治制亂. 이 글에서는 성리학의 이일분수(理一分殊)관념이 배어 있다. 이일분수설은 존재론상에서는 만물의 궁극적 근원과 현상의 다양성을 조정하는 관념이며, 가치론상에서는 인(仁)의 이념과 그 실천원리를 함축한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열린다. 인생의 모든 가치는 이에 근원을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현상에만 힘쓰는 자"는 부박하고 소아적(小我的)인 삶을 면키 어렵다. 복재(服齋)의 저 글은 이러한 함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성찰은 결코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지(知)·정(情)·의(意)와 나아가서 일거일동 상, 즉 삶의 구석구석에서 무르익어 펼쳐져야 한다는 평생의 과제를 갖는다. 그의 요절은 이러한 과제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경외(敬畏)의 정신

복재(服齋)의 유배생활시 글들에는 죽음의식이 짙게 깔려 있음을 본다. 그것은 그가 옛 삶의 자리에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을 갖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가 유배생활 초기에 보였던 정신의 혼란은 죽음의 공포의 조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도학자(道學者)로서의 자강불식의 삶을 설계한다. 그는 말한다. "내가 죄인이 되어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지 또한 일 년여 되니, 지혜가 더 나아지지 않아 마음은 날로 어두워지고, 행실이 더 닦여지지 않아 덕은 날로 천박해 간다… 개탄하는 나머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죽을 사람의 여생이 하루를 기약할 수 없는지라, 내 한 몸 밖의 일을 마음속에 더 이상 조금도 두지 않으리라. 다만 자신이 죄를 뉘우쳐 고치지 못하고 마음을 새롭게 닦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죽는다면 끝내 황천에서도 한을 품을 것이니 이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183)

그는 이제 항심(恒心)의 회복과 함께 자신이 그 처지 속에서나

183) 윗책, 권 4, 「명후(銘後)」

마 행할 수 있는 올바른 도가 무엇인가를 궁리한다. 그의 「명물기(名物記)」는 이의 산물이다. 그는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격물치지"의 학문방법론을 동원하여 생활주변의 사물들이 갖고 있는 그 각각의 모양과 이미지에 착안, 그에 가치표상적 명칭들을 덧붙여 그로써 기왕의 삶을 반성하고 심신의 덕을 기르며 처사(處事)의 의(義)를 얻으려 했던 것이다. 예컨대 그는 집의 벽을 "군자벽"이라 명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쓴다. "똑바르면서도 크고 단단하면서도 곧다. 편벽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았으니, 군자의 덕이로다."[184] 그는 60개의 이름과 그에 따른 좌우명을 남기는데, 위의 예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객관적인 가치탐구의 성질을 띤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인 자기성찰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들이다. 거기에는 일면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관념유희의 편린까지도 드러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철저히 파괴당한 사람의 구도(求道)의 노력임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마음의 여유로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재(服齋)는 이제 증자(曾子)의 "역책(易簀)을 기약하면서[185] 부끄러움 없는 도의의 삶을 다짐한다. 인의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가지며(「총리(叢籬)」), 인간의 도덕성을 은폐시키는 욕망의 근원을 막으며(「질욕혈(窒慾穴)」), 시중(時中)과 중화의 덕을 닦으며(「시창(時窓)」·「무량배(無量盃)」),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생활이나마 위의(威儀)를 잃지 않으려 하는 <「양위책(養威簀)」>[186]

---

184) 윗책, 권 4, 「군자벽(君子壁)」, 方而大 周而直 不偏不倚 君子之德.

185) 윗책, 권 4, 「명후(銘後)」 참조. 증자가 임종시에 그의 신분에 지나치는 돗자리[簀]를 깔고 누워 있었는데, 그는 한 동자로부터 예에 벗어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받고는 돗자리를 바꿀[易] 것을 제자들에게 명한다. 제자들이 그를 (그의 신분에 맞는) 새 자리에 눕히자마자 그는 운명하였다. (『예기』, 「단궁상(檀弓上)」) 이후 "역책(易簀)"은 죽는 순간까지 도의로 점철된 삶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186) 『복재집(服齋集)』하, 권 4 해당조목 참조.

등 그는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서 도덕향상의 의지를 곧추세운다. 이러한 의식과 자세는 그의 삶의 어느 시기보다도 치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느 때와는 달리 권위와 명예와 신뢰를 박탈당한 이 시기에 그를 지탱시켜 줄 유일한 힘은 그 자신이 평생 자부해왔던 도학(道學)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그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최상의 방책이었음에 틀림없다.

복재(服齋)는 특히 경외의 정신을 강화한다. 이는 그의 치열한 도덕의식의 자연스러운 유로(流露)라 할 수 있다. 경외란 행위의 표면은 물론 그 이면의 마음활동까지도 도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는 자세로서, 도덕실천의 장에서 일거수일투족한 마음 한 생각의 조심과 근신은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의 원형을 『시경』의 다음 시에서 읽는다. "마치 깊은 못에 임하듯이, 마치 살얼음 위를 걷듯이"(如臨深淵 如履薄氷). 단 한 순간의 방심과 해이도 도덕실존에 손상을 입힐 것이므로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는 마음으로 일상적 자아의 향배를 검찰하고 규율하지 않으면 안됨을 이는 말하고 있다. 이제 복재(服齋)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자.

>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면
> 밝은 예지가 어지러워지지 않고
> 거동을 단정하게 취하면
> 사악(邪惡)이 끼여들지 못한다.
> 사악이 끼여들지 않으면
> 마음을 충실하게 가질 수 있고
> 밝은 예지가 어지러워지지 않으면
> 거동을 조명할 수 있다.
> 마음을 충실하게 갖고 거동을 조명하니
>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리오.[187]

---

187) 윗책, 권 4, 「불미책(弗迷箴)」, 虛其內 明不雜 方其外 邪不入 不入則充內

이는 그가, 만상을 고요히 미추는 바람막이 속의 등잔불을 보면서 심신의 마땅한 자세를 깨달아 적은 자기성찰의 좌우명으로서, 경외의 의사를 주조로 하고 있다. 매우 함축적인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을 갖는다. 첫째 거동의 경외다. 복재(服齋)는 자신의 일거일동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삼갈 것을 자경(自警)한다. 위의 글이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뜻은 그의 다음 글에서 더욱 보강된다. "아주 평평한 것은 물이고 잘 받들기 어려운 것은 수반에 가득한 물이다. 가득한 물은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기울어져 쏟아진다. 항시 이를 생각하여 마치 구덩이에 떨어질 것처럼 하라."[188] 마치 부정과 사악의 "구덩이에 떨어질 것처럼" 언행을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안됨을 이는 말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마음의 밝은 예지를 요구한다. 혼탁한 마음에 경외의 태도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과 행동거지의 경외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한편 복재(服齋)는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동의 경외는 올바른 행위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함축한다. 사실 조심과 근신은 행위의 위축을 뜻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것이 되기 어렵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덕적 삶의 앙양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외의 삶에서 예의의 준행(遵行)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거동의 경외는 예의의 준행과 맞물리면서 그 의의를 극대화한다.

둘째 마음의 경외다. 이는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갖고 오롯하게 지켜야 함을 뜻한다. 마음은 원래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져서 출입에 때가 없어 그 향하는 곳을 알 수 없는"[189] 것이라서 어느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되며, 그에 대하여 삼가 성찰과 주

不雜則照外 旣充且照 何懼何畏.

188) 윗책, 권 4, 「봉수반(奉水盤)」, 至平者水 難持者盈 盈或不謹 平斯傾 念玆在玆 如將墮.

189) 『맹자』, 「고자(告子)상」,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鄕 惟心之謂與.

의를 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마음의 출입과 동정이 방자할 경우 그것은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판단·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마치, 바람막이가 없어 이리 저리 흔들리는 등잔불이 사물을 어지럽게 비추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때 마음의 경외는 그것의 활동 시나 적정시(寂靜時)를 막론한다. 복재(服齋)는 굴뚝의 연통에 대하여 "주일통(主一桶)"이라고 명명하고는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인다. "마음이 명철하고 고요히 깨어 있다. 마음의 활동이 오롯하여 바르고 곧다."190)

마음이 활동 시에는 당면의 일에 대하여 오롯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엇갈리는 마음 또는 잡념 속에서는 일의 중정(中正)한 처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일에의 몰두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철저하게 방심상태로 내몬다는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그보다는 마음의 오롯함이란 순수한 가치심에의 전일(專一)을 뜻한다. 마음은 이제서 비로소 "바르고 곧게" 드러나 사물의 판단과 처리를 중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마음의 적정 시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일이 있으나 없으나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굴리기 때문에 그 적정상태를 갖기 어려우며 기껏 흐리멍텅한 것이 일반인데, 일이 없을 때에는 욕망과 사념의 제거 속에서 순일(純一)한 마음에 오롯이 하여 밝고 맑은 예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재(服齋)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의 작용에는 총명함과 우매함이 있고 그 본체는 혹 밝음과 어두움이 있다. 물욕을 막고 사념을 없애야 하나니, 맑고 고요한 마음에 만상이 밝게 비친다."191) 그는 특히 적정시의 오롯한 마음을 근본으로 세운다. 마음이 활동 시에 아무리 오롯하고자 해도 평소 적정시의 그

190) 『복재집(服齋集)』하, 권 4, 「주일통(主一桶)」, 中而通 虛而實 發非二三 其動也直. 이는 성리학상 '주일(主一)의 경(敬)'을 매우 함축해 놓은 글이다.
191) 『복재집(服齋集)』상, 권 2, 「서구등사면(書簿燈四面)」, 大用有通塞 本体或昭冥 須屛外物牽 且省邪念生 淵澄至靈靜 燦爛群品明.

노력이 없는 한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정(靜)은 동9動)의 근본"[192]이라 한 뜻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에서 조선조 중기 이후 성리학자들의 주정주의적(主情主義的) 경향의 발단을 본다. 그것은 현실지향의 도덕의지가 강제적으로 차단 당하고 또 현실과 괴리되면서 나타난 바 그 의지의 향내화(向內化)현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외의 마음은 자기기만을 거부한다. 이는 가치심에 입각하여 마음의 출입과 동정에 삼가 주의와 성찰을 가하는 그 성질상 당연한 일이다. 선비들의 동기주의적(動機主義的) 도덕관에 의하면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평가의 기점은 그 행위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의 동기에 두어진다. 말하자면 표면의 행위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옳지 않으면 군자는 그 행위의 정당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덕관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행위에 앞서 내면의 성실성을 요구한다. 마음속에 추호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내면의 불성실 또는 마음속의 거짓은 사람의 타고난 양심에 대한 기만의 위장술을 부리거니와, 그러나 그의 양심에는 아무리 사소한 속임수도 통하지 않으며 백일하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유배지 가시덤불 집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 복재(服齋)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아무리 미세한 낌새라도 어찌 밝게 드러나지 않겠으며,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도 어찌 환히 보이지 않겠는가… 하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으리오. 너의 방종한 마음을 다 알리라."[193]

그는 또한 변소의 악취에 거짓없이 반응하는 후각에게, 기만을 모르는 마음을 착상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192) 『복재집(服齋集)』하, 권 4, 「금태석(禁怠席)」, 靜爲動之本.

193) 윗책, 권 4, 「암실(暗室)」, 孰微不著 孰隱不顯……天豈可欺 及爾游衍. 이 글은 공간적 내밀처를 경계하는 뜻도 아울러 갖는다. 말하자면 남이 보지 않는다 해서 방자하게 굴지 말라는 것이다.

"네 마음을 속이지 말고, 호연(浩然)한 기상을 갖도록 하라. 네 마음을 삼가, 성실하도록 하라."[194]

우리는 여기에서, 복재(服齋)가 비탄에서 벗어나, 비록 남루하기 짝이 없는 거처지만 엄정한 기상과 품위를 지키는 모습을 대면한다. 그가 선비의 품격과 이를 떠받치는 경외의 정신을 사화 이전에도 가졌던 것은 물론이겠으나, 죽음의 고초를 겪으면서 죽음을 극복하는 도리로 실행된 그것은 이미 그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몸이 곤고함을 근심치 않고 도가 성치되지 못할까 근심"하였던[195] 그이고 보면 그의 불행은 오히려 도의 행(幸)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경세이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학은 한 개인의 완성만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자타의 완성-『중용』의 이른바 "성기성물(成己成物)"-을 통한 이상사회의 건설에 궁극이념을 둔다. 그러므로 개인의 수덕(修德)이 이를 통하여 "천지만물의 생성과 발육을 돕는다."[196]는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도학의 영내에 들지 못한다. 기묘사화 당시의 신진사류들이 도학자로서 후세에 높이 추앙받았던 것도 기실은 그들이 그 이념실천의 전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선중기 이후 나타난 논쟁중심의 성리학은 엄격히는 도학정신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 자체 뛰어난 철학정신의 산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제 아래에서는 복재(服齋)의 도학정신이 어떠한 경세이념을 구상하고 있었는지, 부족하나마 그의 저술

194) 윗책, 권 4, 「거악측(去惡厠)」, 勿欺其心 務快於志 克愼厥獨 必誠其意.
195) 윗책, 권 4, 「위리기(圍籬記)」
196) 『중용』 제22장.

과 언론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덕치(德治)

사회 내에서 사람들의 악행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그들의 도덕심에 호소하여 부끄러움을 일깨움으로써 그들 스스로 개과천선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률·형법 등 타율적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위협과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악행의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덕치, 후자는 법치라고 불리거니와, 공자는 양자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들을 법령으로 계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그들이 범법을 하지는 않겠지만 부끄러움을 모를 것이다. 사람들을 도덕으로 계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바로잡을 것이다."[197] 이는 공자가 법을 무시함을 뜻하지 않는다. 그는 노나라 섭정 시에 소정묘(少正卯)라는 패덕자를 사형에 처한 일까지 있다. 그의 저 말은 다만 사회질서유지상 법과 도덕 양자 중 어느 것이 위주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가르치려 했던 것일 뿐이다. 그런데 덕치주의나 법치주의는 각기 다른 인간관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자는 인간의 선한 심성을 신뢰하여 그에 호소함으로써 삶의 제반문제를 도덕적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도덕적 호소로써는 통하기 어려운 그의 악한 심성에 주의를 더하여 타율적·강제적 수단으로써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덕치주의의 전형을 복재(服齋)의 다음 글에서 확인한다.

197) 『논어』「위정(爲政)」,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하늘이 사람을 낳으심에 있어서 인의예지의 본성을 그에게 부여하지 않음이 없으며, 이에 따라 그는 군신·부자·부부의 윤리를 갖는다. 그 고유의 본성을 다해서 행위의 마땅한 법칙을 따르는 자는 선각자다. 중인(衆人)은 그러하지 못해서 기질에 얽매이고 물욕에 가리워서 본성의 고유함과 직분의 마땅함을 알지 못하고는 사의(私意)속에서 살아 대부분 금수(禽獸)의 지경에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각자에게서 배운 뒤에 총명함을 개발하고 천리(天理)를 회복하게 된다. 사도(師道)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 옛날 성군명왕(聖君明王)들은 사도의 중차대함을 알아 비단 임금으로서 백성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승으로서 그들을 교화하여 그들 가운데 자율을 모르는 자는 다스리고 본성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는 교화하였으니, 그러고 나서야 군사(君師)의 책무가 완수되었고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기틀이 확립되었다. 그들이 백성을 교화했던 방법 또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윤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곧 임금이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었다. 그러하니 임금된 자로서 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재가(齊家)의 학문을 자기의 임무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198]

치자는 백성의 교화를 위한 스승의 책무를 갖는다는 이 글은 복재(服齋)의 사회적 이상을 보여준다. 그는 사회의 도덕화·인간화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다. 덕치는 그 이상실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그가 법치의 수단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법이나 제도 역시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그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최소한의, 그리고 최후의 수단에 머무른다. 몰인정의 법과 제도가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한 사회의 도덕화와 인간화는 요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은 그가 임금에게, 효도와 공경의 도덕솔선과 함께 백

198) 『복재집(服齋集)』하, 권 3, 「대책」

성들에게 화목과 애경(愛敬)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면서, "후세에는 그렇지 못하여 한갓 법령과 형벌의 말법(末法)에만 얽매어 도덕의 근본에는 힘쓰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간에 화순의 기풍이 없고 패덕하게 서로 다투는 일만 일어난다."[199]

고 충고한 데에서 잘 나타난다. 요컨대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선하게 태어났음을 믿으면서 사람들의 도덕심에 호소하여 삶의 제문제를 해결, 사회를 인격과 윤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복재(服齋)의 생각은 그의 경세이념의 핵심적 내용이 될 것이다.

나) 민생의 보호

복재(服齋)의 덕치이념은 일견 백성들의 물질생활을 소홀시하는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양심과 도덕의 강조는 일면 경제적 궁핍의 인내를 강요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선비만이 가능하다. 일반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선한 마음도 따라서 없어진다."[200] 맹자의 이 말은 치자가 백성들을 도덕에 앞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게끔 해주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적어도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적 토대가 없는 도덕이념이란 한갓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조선중기 이후 성리학의 한 가지 허구성이 이로써 지적되며, 실학태동의 배경 또한 이에 있음은 우리가 주지하는 대로다. 복재(服齋)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것은 그가 중종에게 『근사록』을 강의하면서 행한 다음의 말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

199) 윗책, 권 3, 「병자 10월 조강(朝講)」

200) 『맹자』, 「양혜왕상(梁惠王上)」, 無恒産 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옛적에 반드시 정전(井田)을 중요하게 여겼음은, 그로 인해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일 수 있어서 자연히 교화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전은 행하기 어렵지만 균전(均田)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농토가 균등하지 못하여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 하나 꽂을 만한 땅도 없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이리 저리 떠도는 것은 토지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01]

복재(服齋)는 조선조 개국 이래(아니 사실은 고려때부터) 역대 임금들의 토지개혁실패에 따른 권문세가들의 토지겸병의 폐단을, 그리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모순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덕치의 실현도 무망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러한 인식과 주장이 서책(書冊)강론시의 일과성을 띤 것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현상의 한계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토지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한 사회의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의의를 갖는 것이고 보면 역대 임금들이 실패한 그 문제의 처리를 복재(服齋)에게서 기대하는 것 또한 무리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토지개혁을 통한 경제적 평등과 민생보호의 사상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는 덕치와 민생보호의 사상이 그의 경세이념의 두 수레바퀴임을 알게 해준다.

---

201) 『조선왕조실록』「중종 14년 기묘 7월」. 복재(服齋)가 "정전은 행하기 어렵지만" 운운한 것은, "우리나라는 땅이 평평하지도 넓지도 못하여 정전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임금의 반론에 대응한 말이다. 참고로, 정전은 토지를 정자(井字) 모양으로 9등분하여 중앙의 한 구역은 공전(公田)으로, 주위의 8구역은 사전9私田)으로 하여, 사전은 여덟 농가가 각자 경작하여 그로써 생활하고 공전은 그들이 공동경작하여 국가에 납세하도록 한 토지제도다. 균전(均田)은 토지를 국유화하여 백성들에게 농토를 골고루 나누어주는 제도다.

4. 맺는 말

우리는 이상에서 살핀 바 복재(服齋)의 삶과 사상에서 한 가지 일관된 정신을 발견한다. 그는 원칙과 이상으로 채워진 유교경전의 '말씀'들에 충실히 그 실현에 진력하였던 것이다. 그의 엄격한 도덕율신(律身)이나, 수신(修身)의 연장으로서의 치국·평천하의 식, 민본·위민의 사상에 따른 민생보호의 이념 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염재 정실(念齋 鄭實)은 복재(服齋)의 이러한 정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선생은 세상의 도를 만회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임금에게 선을 개진하고 임금의 사악을 막았으며 왕도를 숭상하고 패도를 배척하였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의리(義理)를 탐색하고 성의·정심·수신·재가의 노력을 다했으며, 조정에 서서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여 혼ㄴ탁한 풍조를 없애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정암(靜庵)선생과 힘을 합하고 뜻을 같이하여 요순의 도가 아니면 임금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202]

그런데 복재(服齋)(와 나아가 신진사류)의 이상주의는 당시 훈구관료들과의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훈구관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복재(服齋)와 기타 젊은 선비들의 엄격한 도덕주의는 상대적으로 훈구관료 자신들의 인격적 열등성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좋게 비칠 수가 없었다. 나아가 신진사류의 도덕주의가 군자와 소인의 분별에 엄밀하여 소인을 배척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저 세속적인 훈구관료들은 일종의 인간적 모욕감과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203] 또한 정치사회 전

---

202) 『복재집(服齋集)』하, 부록, 권 2, 「행상(行狀)」

203) 군자의 등용과 소인의 배척에 관한 복재(服齋)의 주장은 『복재집((服齋集)』g, 권 3, 「정덕정축 상소(正德丁丑 上疏)」또는 『조선왕조실록』「중종14년 기묘 5월」참조. 실제로 훈구관료들에 대한 신진사류의 태도는 좀 지나친 바가 있었다.

반에 걸쳐 제도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복재(服齋) 등의 지치주의(至治主義) 역시 훈구관료들의 경계심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제도의 개혁은 그 자체, 기왕의 제도에 권세의 터전을 마련하였던 자들에게는 정치사회질서의 개편과 그에 따른 기득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도덕주의와 지치주의를 내용으로 갖고 있는 복재(服齋) 등 신진사류의 이상주의는 훈구관료들의 모함에 걸려 된서리를 맞고 만다.

후세의 사가(史家)들은 기묘사화의 원인에 대하여 흔히 당시 신진사류의 과격한 언론과 급진적 태도를 지적한다. 우리는 이 점을 거듭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진사류 가운데 기준(奇遵)은 최연소자로서 문학에 뛰어났으며 그 명성이 조광조(趙光祖)에 버금갔다. 그는 정사(政事)를 강개하게 논하며 앞뒤를 고려하지 않았다. 항상 임금 앞에서 곧은 말로 격하게 말하여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용동(聳動)시켰다. 그러나 대신들은 그를 많이 싫어하였다."[204]고 한 것을 보면 그의 언론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당시 신진사류의 직책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대개 홍문관·사헌부·사간원 등의 관원으로서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해야 할 직업상의 의무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대 삼사의 관원들이 대개 젊은 선비들로 채워졌던 관행도 따지고 보면 그들의 "앞뒤를 고려하지 않는" 직언의 기개를 높이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며,[205] 또 언론상 일종의 면책특권을 가졌던 그들의 바른 말을 노성(老成)의 대신들이 과격하다고 싫어한 것은-게다가 잘못된 사태에 대한

204) 『조선왕조실록』「중종12년 정축 10월」
205) 복재(服齋)는 "언로(言路)를 막으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요지의 말을 임금에게 진언한다.(윗책 참조)

바른 말은 흔히 '지나치고 격하게' 들리는 법이다-일종의 정보견제기관으로서의 삼사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없다. 조선조 정치사상 임금 또는 대신들과 삼사의 관원들 사이에 마찰이 많았던 것도 사실은 이러한 이면을 갖는다.

특히 연산조에 대한 "반정"-중종반정-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중종조에 초기 임금의 크나큰 신임을 받았던 복재(服齋) 등의 강개한 발언과 개혁 논의는 당시 역사의 요청상, 그리고 도학자들에게서 더욱 강화된 공맹(孔孟)의 이상주의에 입각할 때 정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 "반정"은 임금의 자리바꿈으로 일단락되는 것이 결코 아니요 이전의 악정과 폐습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역사적 과제를 군신(君臣)에게 부여하고 있음, 벼슬길의 도학자라면 그 과제수행 및 '요순시대의 재현'을 위해 진력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기묘사화 이후 신진사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신원과 그들의 지치이념의 복권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 복직·관직추증·정엄(靜菴)의 경우 문묘배향까지 하도록 하여 그들을 칭송했던 후세의 유학자들의 수많은 언론에서 입증된다. 이는 문제의 근원이 복재(服齋)등의 급진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종의 무능력과 대신들의 보수반동에 있음을 말해준다. 사실 도학의 범주 내에서 생각할 때 전형적인 도학자인 복재(服齋)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삶의 길은 두 가지 밖에 없었다. 한 가지는 그가 실제로 살았던 삶이며, 다른 한 가지는 벼슬에서 물러나 산림에 묻히는 일이다. 기타 개량주의적 태도는 선비정신의 용납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례는 조선조 정치사에서 흔히 목격된다. 복재(服齋)는 사실 중종의 인순고식적(因循姑息的) 태도와 부딪히면서 은퇴의 의사를 갖기도 하였다. 그는 정암(靜庵)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일이 있다. "관직을 버리고 산림 속에 몸을 거두어 세사(世事)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206] 결국 은퇴의 뜻을 결행하지 못한 그의 "충군(忠

君)"의 념(念)이 화를 자초하고 만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死且不朽) 그의 존재의 족적을 조선조 유학사상사 속에 남기는 의의를 갖는다. 그 족적은 그가 요절함으로써 이루지 못한 학문의 성과를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206) 『복재집(服齋集)』하, 부록, 권 1.

추만 정지운의 생애와 사상

정 대 환*

1. 서 론
2. 추만의 생애와 사상
(1) 추만의 생애
(2) 추만의 사상
3. 결 론

1. 서 론

퇴계는 추만의 제문을 지었는데 거기서 추만의 학덕에 대해서 "그대는 일찍이 바다를 헤아려 보려고 했었다. 나는 울타리를 엿보려고 하였는데, 그러나 이 울타리를 엿보는 것도 그대의 도움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찬탄하면서도, "그대는 어찌하여 실마리만 드러내 놓고 그 끝에는 도달하지 못하여, 나를 어찌할 줄 모르게 만들어 늙은이의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하는가"라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207] 여기서 우리는 추만 정지운의 학문적 성과와 아울러 그의 사상학적(思想學的)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학문적 족적을 남겼기에 퇴계로 하여금 그렇게 찬탄과 아쉬움을 함께 불러 일으켰는가?

추만은 경기도 고양군 출신으로 일직이 김안국(金安國)(慕齋,

* 전주 우석대학교 강사, 철학박사

207) 君曾測海 我要窺藩 藉君伊始……, 君胡發端 弗極其致 使我俛俛 難禁老淚

1478~1543), 김정국(金正國)(思齋, 1485~1541) 형제의 문하에서 수학(修學)하였다. 그는 성리학의 연구에 몰두하면서 세상에서의 공명(功名)과 영화(榮華)를 구하지 않고 처사(處士)로서 고요히 일생을 마친 유학자였다.[208] 이런 추만이 세인(世人)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작도(作圖)한 천명도(天命圖)와 그에 대한 해설 즉 천명도설(天命圖說)이 이황(退溪, 1501~1570)에 의해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수정된 내용에 의심을 품은 기대승(奇大升)(고봉(高峰), 1527~1572)의 반문에 의해 퇴계(退溪)와 고봉(高峰) 간에 토론이 전개되고, 이로 인해 당시의 많은 유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변을 기점으로 조선조의 성리학이 본격적인 발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추만의 생애와 그 사상적 편력 그리고 학문적 수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먼저 그 자신이 세속적인 명리(名利)를 탐하지 않은 은자적인 삶을 추구함으로써 이 세상에 뚜렷한 자신의 행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의 독자적인 저작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작도(作圖)하고 해설한 천명도(天命圖)와 도설(圖說)의 내용이 이황에 의해 수정된 형태로 세상에 전해졌기 때문에 그 자신의 본래적인 성리학적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데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추만의 생애를 간략하게 더듬어 보고, 그가 체계화한 성리학적 구도를 살펴봄으로써 추만(秋巒) 성리학의 특징과 한국 유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사상사적인 위치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나마 이런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다행히 얼마 전에 추만의 본래 저작으로 인정되는 천명도(天命圖)와 도해(圖解)가 발견됨

208) 이병도(李丙燾), 「한국유학사(韓國儒學史)」, p,220.

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09]

2. 추만의 생애와 사상

1) 추만의 생애

추만 정지운(秋巒 鄭之雲)은 1509년 즉 중종 4년에 태어나 1561년 즉 명종 16년에 죽었다. 그의 본관은 경주(慶州)로서 시조는 신라 낙랑(新羅 樂浪)의 지백호(智伯虎)라 한다. 그의 선조들은 그 후에 경기도 고양 사포(巳浦)로 이주하여 여기에서 터를 닦고 살았다. 그의 집안은 그렇게 현달한 가문은 아닌 것 같다. 그의 증조는 이름이 하(夏)인데 통례원인의(通禮院引儀)를 지냈다 하며, 조부는 이름이 한숙(漢淑)이며, 부친은 인필(仁弼)인데 다 숨어살고 벼슬을 하지 않았다 한다. 정지운의 자(字)는 정이(靜而)이며 그가 추산(秋山)에 거처를 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호(號)를 추만(秋巒)이라 했다 하며, 또 가옹(稼翁)이라고도 한다.

그는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 범상치 않았으며 풍채 역시 단아하고 근엄하여 어렸을 적부터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뜻을 두면서 항상 옛 성현을 본받기를 원하였으며, 성현의 가르침을 몸소 행하는데 열성이었다. 때마침 사재 김정국(思齋 金正國)이 벼슬을 물러나 고양땅 망동(茫洞)에 살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추만(秋巒)은 이때부터 사재(思齋)를 스승으로 받들고 더욱 더 학문에 정진하게 된다.[210] 그가 성

---

209) 류정동(柳正東), <천명도해고(天命圖解考)>, 「동서사상(東西思想)의 만남」, 1982.

210) 이 시기는 김정국(金正國)이 1519년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된 다음 고양에서 강학(講學)에 몰두하던 시기이다. 김정국(金正國)은 이 때부터 1537년에 재등용될 때가지 약 20년동안 고양에 머물면서 성리학을 가르

리설(性理說)에 맛을 들인 뒤에는 항상 성현의 가르침을 직접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속의 비루한 습속에 집착하지 않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면서 몇 해를 보내니, 사재(思齋)도 이를 자주 칭찬하여 그를 대할 때는 마치 어려운 친구를 대하듯이 했다 한다.

그는 효의(孝義)가 돈독하여 부모의 상(喪)을 치를 때에는 슬퍼함이 예에 지나쳤고 몸소 밥을 짓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다. 또 그는 부모의 상을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치룸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으며, 그후 1541년에 사재(思齋)가 죽었을 때는 심상(心喪) 3년을 했다.[211] 이 후로는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의 문하에서 계속 학문을 닦아 나갔다. 그러나 추만(秋巒)은 1543년 김안국(金安國)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스승을 섬기지 않고 주로 독학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 같으며, 그는 동생 정지림(鄭之霖)과 처남인 안홍(安鴻) 그리고 김은휘(金殷輝)등과 자주 강론을 하여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얻었다. 이들 중 안홍(安鴻)이 추만(秋巒)의 학문을 이어받았다.

추만(秋巒)의 학문이 높다는 것이 세상에 차츰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당시의 여러 학자들과 학문적인 교유(交遊)를 하게 된다. 퇴계 이황(1501~1570), 하서 김인후(河金 西麟 厚)(1510~1560)[212], 일재 이항(一齋 李沆)(1499~1576), 고봉 기대승(高峰

친다. 그렇다면 추만(秋巒)이 사재(思齋)에게 학문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10대부터 였을 것이다.

211) 이렇게 볼 때 추만(秋巒)은 사재문하(思齋門下)에서 가장 걸출한 학자였던 것 같다. 이는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의 사재문인(思齋文人) 가운데 제일 처음에 기재된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 추만(秋巒)이 성리학에 뜻을 둔 이래 10여년간을 주역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스승이나 친구들도 모두들 그 앞에서 주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212) 김인후(金麟厚)는 추만(秋巒)과 동년배로써 그는 추만(秋巒)보다 한해 늦게 태어나 한해 먼저 죽었다. 그는 추만(秋巒)의 학문을 인정하여 이를 높이 평가했던 아주 가까운 학우(學友)였던 것 같다. 이점은 하서(河西)가

奇大升)(1527~1572)[213] 등이 그들인데,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퇴계(退溪)와의 고유(交流)이다.[214]

그러나 이후 죽을 때까지 추만(秋巒)이 뚜렷한 행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퇴계(退溪)가 지은 묘갈명을 통해서 추만(秋巒)의 삶에 대한 윤곽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따르면, 추만(秋巒)은 본래 가난하여 집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의 서문(西門)안에 우거하면서 처와 첩이 삼베를 짜서 생활을 하였으므로 매 끼니를 제대로 연명할 수 없었다 하나 이런 가난 때문에 그가 근심에 빠

추만(秋巒)을 칭송한 다음 시(詩), 즉 "海內秋巒翁 獨觀造化妙 秀吾兄弟中 附仰思惟肖"(하내에 추만옹이 있는데, 그만이 홀로 조화의 오묘함을 관찰하였다. 우리 형제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니 하늘을 올려다 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오직 그대만이 천지를 본받았다고 생각한다.)에서 확인된다. 이외에 최근에 발견된 추만(秋巒)의 「천명대해(天命大解)」본에 하서(河西)가 추만(秋巒)의 천명도(天命圖)를 보고 깊이 느낀 바가 있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천명도를 그렸다는 내용의 발문과 도(圖)가 실려있는 것을 보아도 이들 사이의 학문적 교류와 인간적인 친분관계를 짐작하게 된다.

213) 기대승(奇大升)은 추만(秋巒)보다는 상당히 후배인데 추만(秋巒)의 학문을 무척 공격했던 것같다. 그는 추만(秋巒)이 죽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만사(輓詞)를 지었다. "往歲哭河西今歲哭秋巒 善人相繼行道喪無時還 念我固姿 已矣何所攀 寂寞臥幽齋 流溪空溪"(작년에 하서를 보내더니, 금년에는 추만을 보내는구나. 착한 사람들이 연이어 돌아가니 도는 상하여 돌아올 때가 없구나. 생각하니 나는 고루한 바탕인데, 이제는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구나. 고요히 깊은 재실에 누워 있으니, 흐르는 시냇물은 속절없이 잔잔하여라.) 또 추만(秋巒)이 죽기 한해 전에 퇴계(退溪)가 추만(秋巒)에게 서신을 보내어 고봉(高峰)의 학문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보아도 고봉(高峰)과 추만(秋巒)사이에 많은 학적(學的) 교유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14) 사실 추만(秋巒)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퇴계(退溪)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퇴계와 추만의 최초의 만남에 대한 기록이 서로간에 차이가 난다. 먼저 추만의 가상(家狀)이나 행상(行狀)을 보면 퇴계가 추만의 명성을 듣고 우연히 고양땅을 지나다가 추만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퇴계가 쓴 천명도설후서(天命圖說後敍)를 보면 퇴계와 추만은 서울에서 서로 이웃간에 살았으나 오랫동안 교류가 없다가, 우연히 퇴계가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얻어보고 난 다음 그 저자를 수소문해 본 결과 바로 이웃에 사는 추만임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몇차례 사람을 보내어 만나볼 것을 청한 다음에 서로 만나게 되어 이때부터 추만과의 학적(學的)인 교유(交流)가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진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안회(顔回)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 바로 추만(秋巒)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추만(秋巒)은 천성적으로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번잡한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무리 지어 어울려 지내는 것조차 꺼려했던 것 같다. 이점은 다음의 일화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그 당시 서울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사대부들이 모여 무리를 이루어 서로 상종하면서도 뜻이 다른 사대부들간에는 서로 비난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에 동몽학(童蒙學)을 새로 설치하여 이 직을 지킨 자는 녹을 먹고 벼슬길도 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추만(秋巒)을 천거하여 이 직무를 맡게 했다 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사절하고서 더욱 이름을 감추고 자취를 숨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속의 명리(名利)에 초연했던 추만(秋巒)이었기에 그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그가 이런 가난과 궁핍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기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추만(秋巒)이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그가 세속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초탈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점은 그가 술을 매우 즐겨했으며, 말년에는 술로 인해 건강을 크게 해쳤기 때문에 스스로 술을 삼가려고 무척 조심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사화기(士禍期)라는 난세(亂世)를 살아가는 한 지식인의 고뇌 어린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215]

---

215) 추만(秋巒)이 살았던 시기는 두 차례의 사화(士禍)가 일어났던 시기이다. 즉1515년에 기묘사화가 있었고 1545년에 을사사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따라서 선비들의 사기는 극도로 위축되어 벼슬을 단념하고 산속에 숨어 버리거나 초야에 묻혀버리는 일들이 많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학문을 포기해 버리는 경향도 있었다.

추만(秋巒)은 신유년(辛酉年) 즉 1561년 봄에 자신에게 학문을 배운 문인(文人)이자 처남인 풍덕군수(豊德郡守) 안홍(安鴻)을 만나보고, 이어 천마산(天摩山)에 가서 놀고 난 다음 병이 갑자기 심하여 돌아오다가 승천부(昇天府)의 강구(江口)에서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53세였다. 그는 해주최씨(海州崔氏)를 맞아들여 여기서 딸 둘을 보았으며, 최씨(崔氏)가 죽은 다음 다시 순흥안씨(順興安氏)를 맞아들여 여기서 아들을 하나 보았다.[216] 그의 딸들은 각기 이학명(李鶴鳴)과 송대훈(宋大訓)에게 출가시켰다.

그는 평소에 서울은 숨을 곳이 못된다 하여 자신의 고향인 고양강(高陽江)위에 땅을 가려서 몸소 밭을 갈면서 살아가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재물이 없어 끝내 이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되었다고 퇴계(退溪)는 이야기한다. 이후 선조(宣祖) 때에 추만(秋巒)에게 백의예조판서(白衣禮曹判書)가 증직(贈職)되고, 정숙(貞肅)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칠현사(七賢祠)에 제향되었다. 그후 칠현사(七賢祠)는 숙종조에 문봉서원(文峰書院)으로 사액(賜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추만의 사상

추만(秋巒)은 사재(思齋)로부터 성리학을 배우면서 나름대로의

---

216) 퇴계(退溪)의 묘갈명(墓碣銘)을 보면 추만(秋巒)에게는 딸만 둘이 있고 아들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있으나 사실은 그가 죽기 일년전인 경신년(庚申年) 여름에 아들 충손(充孫)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추만(秋巒)의 장례(葬禮)를 치른 다음에 그의 아우 정지림(鄭之霖)이 얼마 안되어 갑자기 죽게 되고, 또 그의 처남이었던 안홍(安鴻)도 얼마 뒤에 병으로 죽는 등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를 나서서 추스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만(秋巒)의 집안이 극도로 가난하여 안씨(安氏)부인은 남편이 죽은 뒤에 아들을 데리고 멀리 남쪽으로 600여리 떨어진 남원(南原)의 운봉(雲峰)땅으로 이주해 거기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무도 이를 정정하지 못하고 추만(秋巒)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목으로 성리학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구성해 보려고 시도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천명도(天命圖)와 도해(圖解)이다. 추만(秋巒)은 중종 38년(1543) 천명도(天命圖)와 도해(圖解)를 저술하였다.[217] 여기서 우리는 그가 생각했던 성리학의 기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그는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를 탐구하려 한 것 같다. 즉 우주의 운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간과 사물의 근원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인간 행위에 있어서 선과 악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또 이런 심성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의 내용을 탐구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修養論)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서의 논의 또한 이 순서를 밟아 가지고 한다.

가. 우주론

추만이 천명도(天命圖)를 작도(作圖)하고 이에 해설을 붙인 기본적인 이유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늘과 합일될 수가 있는가,

---

217) 퇴계 이황(退溪 李滉)이 수정(修訂)한 <태극도설>에 첨부되어 있는 정지운(鄭之雲)의 서문을 보면 그는 동생을 위해 일찍이 천명도와 도해를 작성했으나 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자신의 스승인 김안국(金安國), 김정국(金正國) 등에게 이를 문의했으나 역시 화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다. 그 후 이들 형제가 연이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질정(叱正)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퇴계(退溪)를 만나서 서로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상당히 수정하여 이를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가 1554년이다. 그런데 <천명도해(天命圖解)>에 있는 추만(秋巒)의 자서(自序)를 보면 1543년 2월에 이를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추만(秋巒)이 천명도와 도해를 완성한 다음 이황으로부터 수정을 받은 것은 약 10년 뒤의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천명도해(天命圖解)>의 내용을 추만(秋巒)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입장이나 수준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라고 간주하고 본고(本稿)의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즉 천인합일의 근거를 이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것인 만큼 먼저 천, 즉 하늘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찰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이는 또한 성리학자들의 일반적 연구경향이기도 하다. 그는 천인합일의 근거를 「중용」의 첫 구절 즉 "天命之謂性"에서 찾고 있음은 본도(本圖)의 이름이 천명도(天命圖)라는 사실이나 그의 서문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저술동기가 「중용」의 기본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는 언급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218] 그럼 그는 하늘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하늘은 곧 이(理)이다. 그 덕에 넷이 있는데, 원(元)과 형(亨)과 리(利)와 정(貞)이 (성(誠)은 그 가운데 있다.) 그것이다. 대개 원(元)이란 시작함의 이(理)요, 형(亨)이란 자라남의 이(理)요, 리(利)란 여물음의 이(理)요, 정(貞)이란 이룸의 이(理)이다. 그래서 그 시작함이 있기 때문에 이루게 되며 이룸이 있게 되면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순환하는 것은 그침이 없는데 이는 성(誠)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誠)은 사덕(四德)을 일관(一貫)하여 그 이(理)를 하나로 하기 때문에 드디어 사물을 명(命)하는 근원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명이다.[219]

그는 하늘을 이(理)로 파악하고 그 이(理)는 원(元)과 형(亨)과 리(利)와 정(貞)의 네가지 형태의 덕으로 변화 유행(流行)하여 시(始), 통(通), 수(遂), 성(成)하면서 만물을 생성, 즉 명(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천도(天道) 즉 하늘의 운행이다.

---

218) 천명도해(天命圖解), 서문(序文) : 中庸之書 以天命二字爲一篇之始 余當取以究之

219) 상게서(上揭書), 논천명지이(論天命之理) ; 天卽理也 而其德有四 曰元亨利貞(誠在其中)是也 蓋元者始之理 亨者通之理 利者遂之理 貞者成之理 而其所以始之通 通而遂 遂而成 成而復始 循環而無息者 乃誠之爲也 故此誠也 貫四德一其理 遂爲命物之源 此所謂天命也

그리고 하늘의 운행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誠) 때문이라는 것이며, 이런 운행을 통해서 하늘은 만물에 각자의 고유한 본성 즉 성(性)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이런 까닭에 천도(天道)가 유행할 즈음에 당하여 이 이(理)는 항상 그 가운데 깃들어 있으며, 그 만물이 와서 받게 될 때 이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사물의 성(性) 또한 넷이 있는데 인의예지(신(信) 또한 사성(四性)에 갖추어져 있다.)가 그것이다. 따라서 하늘에 있어서는 명(命)이라 하고 사물에 있어서는 성(性)이라 하는데, 성(性)과 물(物)은 비록 그 이름은 다르나 그 이(理)는 곧 하나인 것이다.[220]

이처럼 하늘의 이(理)를 만물에 부여(命)한 것이 성(性)이기 때문에 이 이(理)를 바로 성(性)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만은 하늘과 사물 그리고 인간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형이상학적 설명의 근거를 「중용」과 「주역」의 개념들을 원용해서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 우주만물의 생성과 변화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을 할 때 이기(理氣)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추만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천지의 사이에는 이(理)도 있고 기(氣)도 있는데 하늘에서 그 체(體)가 되는 것은 이런 만물의 성(性)을 부여한 이 이(理)다. <이(理)는 체(體)와 용(用)으로 나눌 수 없다. 이를 반드시 체(體)라고 하는 것은 기(氣)의 입장에서 이(理)를 보면 곧 본체가 되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그 용(用)이 되는 것은 이런 만물의 형(形)을 이룬 것은 이 기(氣)다. <기(氣)는 곧 스스로 체(體)와 용(用)으로 나누인

220) 상 동 ; 是以當天道流行之際 此理常寓於其中 聽其萬物之來受者而賦與之 故物之性亦有四 仁義禮智(信亦其於四性)是也 故在天曰命 在物曰性 性與物其名雖異其理則一也

다. 여기서 홀로 용(用)만을 말한 것은 이(理)의 입장에서 기(氣)를 보면 곧 대용(大用)이 되기 때문이다.> 이(理)는 기(氣)의 체(體)이고 기(氣)는 이(理)의 용(用)이다. 이(理)가 있으면 곧 기(氣)의 조짐이 있게 되고 기(氣)가 있으면 곧 이(理)의 따름이 있게 됨으로써 천지의 공(功)을 이루게 된다. 이기(理氣)가 같이 기다림이 빠짐이 없음이 이와 같으니 저 사덕은 이른바 이(理)요 오행은 이른바 기(氣)다.[221]

이처럼 추만은 우주만물의 생성과 변화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을 이기설에 입각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이(理)와 기(氣)를 체(體)와 용(用)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이체기용(理體氣用)' 또는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등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주계(程朱系) 성리학에서는 공통된 입장이며, 이 점에서 그의 성리학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는 인간과 사물의 생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이(理)와 기(氣)의 특성을 설명한 다음 이런 이기(理氣)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물의 차이를 논하고 있다. 그는 이기(理氣)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천지의 이(理)는 하나이지만 기(氣)는 만가지로 같지 않다. 그러므로 그 이(理)를 궁구하면 만물이 합하여 성(性)을 하나로 같이할 수 있지만, 그 기(氣)를 살펴보면 만물이 나누어져 하나의기(氣)를 각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理)가 이(理)됨은 본래 그 체(體)가 허

221) 상게서, 논오행지도(論五行之道) ; 天地之間 有理有氣 其所以爲體(理不可分體用 而於此必謂之體者 自氣而觀理則爲本體故也) 於天而賦此萬物之性者此理也 其所以爲用 (氣則自分體用 而於此獨謂之用者 自理而觀氣則爲大用故也)於天而成此萬物之形者此氣也 理爲氣之體 氣爲理之用 讒有理使有氣朕焉 以遂天地之功 理氣之相須 無關者如是 夫是以四德者 所謂理也 五行者 所謂氣也

(虛)하기 때문이다. 허(虛)한 고로 대(對)가 없으며, 대(對)가 없는 고로 사람에 있어서나 사물에 있어서나 본래 더할 것도 감할 것도 없으니 거기에서 하나가 된다. 기(氣)의 경우는 처음에 음양이라는 대(對)가 없을 수 없고 양 가운데 음이 없을 수 없다. 음 가운데 있는 양의 가운데 또 음이 없을 수 없고 양 가운데 있는 음의 가운데 또 양이 없을 수 없으니, 그 변화가 비록 십백천만에 이르러도 또 각기 대(對)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222]

그런 다음 인간과 사물이 다르게 생성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런 즉 무릇 이런 이(理)와 기(氣)를 받은 물(物)들은 그 성(性)에는 간격이 있을 수 없으나, 그 형(形)은 그 음양의 바른 기(氣)를 받는 것이 있고 그 음양의 치우친 기(氣)를 받는 것이 있고 그 음양의 치우친 기의 치우친 것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에 물(物)들의 형(形)이 만가지로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이며 물(物)들의 기(氣)가 만가지로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과 물(物)의 생이란 그 음양의 바른 기(氣)를 얻은 것이 사람이 되고 그 음양의 치우친 기(氣)를 얻은 것이 물(物)이 된다. 사람은 이미 음양의 바른 기(氣)를 얻었으니 그 기질(氣質)이 통하고 또 밝은 것을 알 수 있다. 물(物)은 이미 음양의 치우친 기를 얻었으니 그 기질이 막히고 또 어두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과 물(物)을 놓고 보면 사람은 바른 것이 되고 물(物)은 치우친 것이 된다. 금수와 초목을 놓고 보면 금수는 치우친 것 가운데서 바른 것이 되고

222) 상게서, 논인물지수(論人物之殊) ; 天地之間 理一而氣萬不齊 故究其理則合萬物而同一性也 祭其氣則分萬物而各一氣也 何者 理之爲理 其體本虛 虛故無對 無對故在人在物 固無加損而爲一焉 至於氣者 則始有陰陽對立之象而互爲其根 故陰中不能無陽 陽中不能無陰 陰中陽之中 又不能無陰 陰中陰之中 又不能無陽 其變雖至於十百千萬而又各不能無對焉

초목은 치우친 것 가운데서 치우친 것이 된다.[223]

이와 같은 추만의 견해를 요약해 보면, 먼저 이(理)의 경우는 만물이 다 같이 하나의 이(理)를 가지고 있으나 기(氣)의 경우는 만물이 저마다 다른 기(氣)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런 기(氣)의 차이로 인해서 만물은 저마다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물(物)의 차이는 기(氣)의 치우침(偏)과 바름(正)에서 비롯된다는 것, 즉 정(正)하고 통(通)한 기를 받은 것이 사람이고 편(偏)하고 색(塞)한 기를 받은 것이 물(物)이 된다는 것과 물(物)들 중에서도 금수는 기(氣)의 치우친 것 중에서 바른 것이고 초목은 치우친 것 중에서도 치우친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처럼 그는 기(氣)의 편정통색(偏正通塞)의 성질을 가지고 모든 존재의 양상을 설명하려 하는데, 이것 역시 그 자신의 독특한 견해라기보다는 정주(程朱) 성리학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심성론

추만은 정주(程朱) 성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심성문제까지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심(心)이란 허영(虛靈)하며 그것 역시 이(理)와 기(氣)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허(虛)하면서<이(理)다> 또 영(靈<기(氣)다>

223) 상 동 ; 然則凡物之受此理氣者 其性則果無所有間也 其形則有受其陰陽之正氣者 有受其陰陽之偏氣者 有受其陰陽偏氣之偏者 此物之形有萬不同而物之氣有萬不齊者也 是故人物之生也 其得陰陽之正氣者曰人 其得陰陽之偏氣者曰物 人旣得陰陽之正氣 則其氣質之通且明可知也 物旣得陰陽之偏氣 則其氣質之塞且暗可知也 然就人物而觀之 則人爲正 物爲偏 就禽獸草木而觀之 則禽獸爲偏中之正 草木爲偏中之偏

하니 이는 곳 이(理)와 기(氣)가 모인 것이다. 고로 그 이(理)는 사덕(四德)의 이(理)에 통하여 사성(四性)이 되고 그 기(氣)는 오행의 기(氣)에 연결되어 칠정(七情)이 된다. 그런 즉 사람의 성(性)과 정(情)은 하늘의 이(理)와 기(氣)이다… 이는 심(心)이 성(性)과 정(情)을 통솔하며 성(性)과 정(情)이 이(理)와 기(氣)로 되기 때문이다.[224]

사람의 사성은 바로 하늘의 사덕이며, 사람의 칠정은 바로 하늘의 오행이다. 고로 인(仁)과 원(元), 예(禮)와 형(亨), 의(義)와 리(利), 지(智)와 정(貞)은 하나의 이(理)가 되고, 희(喜)와 애(愛)는 목(木)에서 락(樂)은 화(火)에서 노오(怒惡)는 금(金)에서 애(哀)는 수(水)에서 하나의 기(氣)가 된다. 신(信)의 경우는 바로 성(誠)에 짝하기 때문에 희노애락애오(喜怒哀樂愛惡)가운데 다 갖추어져 있다. 이 도(圖)에서 서로 대등하게 배열한 이유는 하늘과 사람이 일체가 됨을 알려주기 위함이다.[225]

여기서 추만은 심(心)을 허영(虛靈)으로 파악하면서도 허(虛)는 이(理)로 영(靈)은 기(氣)로 해석한다. 또 사성(四性)을 사덕(四德)의 이(理)에 연결하여 파악하고 칠정(七情)을 오행의 기(氣)에 연결시켜 파악한다. 이렇게 추만은 사람의 사성과 칠정을 다 같이 하늘의 사덕과 오행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천인합일(天人合一)의 형이상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성(性)을

224) 상게서, 논차심지구(論此心之具) ; 吾人之心 虛(理也)而且靈(氣也) 是乃理氣所聚 故其理也通乎四德之理而爲四性 其氣也連乎五行之氣而爲七情 然則人之性情 乃天之理氣也 …… 此所以心統乎性情 而性情之爲理氣者也

225) 상게서, 논성정지목(論性情之目) ; 人之四性 卽天地四德也 人之七情 卽天之五行也 故仁與元 禮與亨 義與利 智與貞 爲一理也 喜愛之於木 樂之於火 怒惡之於金 哀之於水 爲一氣也 至於信則配乎誠 而俱在於仁義禮智之中 欲則配乎土 而俱在於喜怒哀樂愛惡之中 此圖之所以相準列之 使知天人之爲一體也

이(理)로 정(情)을 기(氣)로 파악하고 의(意)를 '심지발(心之發)'로 심(心)은 '통성정(統性情)'으로 보는 것 등은 주자(朱子)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心)의 발(發)인 의(意)의 경우 선악의 문제가 제기되곤 하는데 추만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 성(性)은 곧 이(理)며, 이(理)는 곧 태극(太極)의 이(理)다. 태극 가운데는 본래 물사(物事)가 없는데 성(性) 가운데도 어찌 또한 이름할 수 있는 사(事)가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이 심(心)이 아직 발(發)하기 전에는 마치 태극이 동(動)과 靜)의 이(理)를 다 갖추어 음과 양으로 갈라지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때는 선과 악의 이름을 모두 얻어 더할 수가 없다. 이 심(心)이 이미 발(發)한 후에는 마치 태극이 이미 나뉘어 동(動)하여 양이 되고 음이 된 것과 같다. 이때에 비로소 선악의 구분이 있게 되어 의(意)에 싹이 나타난다. 그런즉 이 심(心)이 아직 발(發)하기 전에는 혼연(渾然)히 성(性)이 되며 기(氣)는 아직 용사(用事)함이 없다. 고로 갖추어 있는 것은 단지 이런 천리(天理)일 뿐이다.226)
>
> 즉 심(心)이 발(發)하기 전에는 선악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는 심(心) 가운데 천리(天理)만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순선(純善)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심(心)이 발(發)하게 되면 의(意)에 선악의 싹이 나타나게 된다. 왜 그럴까?

> 이 심(心)이 이미 발(發)한 후에 기(氣)가 비로소 용사(用事)하여 그 성(性)을 해친다. 고로 발(發)한 것에 비로소 선악의 구분이 있게

226) 상게서, 논선악지분(論善惡之分) ; 性卽理也 理卽太極之理也 太極中本無物事 性中亦豈有何名之事也 是以當此心未發之前 如太極具動靜之理 而未判而陰陽者也 此時則善惡之名 皆不可得以加之 及此心已發之後 如太極已判而動爲陽靜爲陰者也 於是始有善惡之分 對萌於意焉 然則此心未發之前渾然爲性而氣未用事 故所具者只此天理而已

되고 그 선악의 씨앗은 성(性)에 뿌리를 두지 않고 기(氣)에 뿌리를 둔다.[227]

선악의 문제는 바로 심(心)이 발(發)한 후에 기(氣)가 여기에 적용하여 성(性)을 해치게 될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악의 문제는 성(性)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기(氣)에 관련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악의 문제를 기(氣)에만 한정시키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의문, 즉 "그러나 기(氣) 또한 이(理)에서 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무릇 기(氣)의 발(發)한 것 또한 모두가 천리(天理)가 깃들어 있는 것인데, 선은 반드시 천리(天理)의 공(公)이 되며 악은 반드시 인욕의 사사로움이 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228]라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해 추만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대개 선이란 양에 속한 것인데 양의 기란 청(淸)하고 명(明)하며, 악이란 것은 음에 속하는데 음의 기란 탁(濁)하고 암(暗)하다. 고로 이 심(心)의 발(發)이 근원을 성(性)<심(心)의 공(公)이다>에 두면 곧 그 기가 양에 속하게 되어 막히거나 거리낌이 없게 되므로 천리(天理)는 자연스럽게 환히 드러나 선이 된다. 그러나 물(物)<심(心)의 사(私)다>에 뒤섞이게 되면 곧 그 기가 음에 속하게 되어 가리고 막히게 되므로 천리(天理)가 간혹 그 진(眞)을 잃고 악이 된다. 이것에 선악이 멀어져 다르게 되는 이유이다.[229]

---

227) 상 동 ; 此心已發之後 氣始用事而其性繫矣 故所發者 始有善惡之分 此善惡之萌 所以不根於性而根於氣者也

228) 상 동 ; 然氣亦不離乎理 則凡氣之所發亦皆天理之所寓 而善必爲天理之公 惡必爲人欲之私者 何也

229) 상 동 ; 蓋善者陽之屬也 而陽之氣淸而明 惡者陰之屬也 而陰之氣濁而暗 故此心之發也 原於性(心之公也)則其氣也 屬乎陽而無所滯礙 故天理自然昭著而爲善 雜乎物(心之私也)則其氣也 屬乎陰而有所蔽塞 故天理或失其眞而爲惡 此善惡之所以異者也

단순히 기(氣)만 가지고는 악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추만은 음양의 개념에다 선악이라는 가치관념을 부여함으로써 기(氣)를 맑고(淸) 흐린 것(濁)과 밝고(明) 어두운 것(暗)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양(陽)의 기(氣)는 청(淸)하고 명(明)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되고, 음(陰)의 기(氣)는 탁(濁)하고 암(暗)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氣)는 어디까지나 심(心)이 발(發)한 다음에 거기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양기와 음기가 제각기 발(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식의 설명, 즉 심(心)의 발(發)인 의(意)가 성(性)에 근원을 두게 되면 그 기는 양에 속하게 되어 천리(天理)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선이 실현되고, 반대로 의(意)가 물(物)에 뒤섞이게 되면 그 기는 음에 속하게 되어 천리(天理)의 진실함을 잃고 악에 빠지게 된다는 형이상학적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인간이 선 또는 악을 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과라는 주장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인간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율성 즉 의지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또 이렇게 될 때만이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수양공부(修養工夫)의 효과(効果)와 필요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 수양론

이렇게 인간의 행위가 의지의 자유로운 발현이라는 전제 하에서 수양공부(修養工夫)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추만이 제시한 수양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

그는 먼저 인간의 품격이 대개 세 등급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

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氣)의 청(淸)과 탁(濁), 수(粹)와 박(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기(氣)의 청(淸)하고 수(粹)한 것을 받으면 중인(中人)이 되며, 탁(濁)하고 박(駁)한 것을 얻으면 하우(下愚)가 된다는 것이다.[230] 그런데 만약 이런 형이상학적 주장을 사실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모든 인간은 타고 날 때부터 각자의 성품과 자질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더 이상의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운명론적인 입장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 극단적으로는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수양공부(修養工夫)와 같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추만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타고난 품성이나 자질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 그러나 비록 기(氣)가 있다 해도 반드시 그것(理氣)이 양편을 이루어 서로를 기다리기 때문에 비록 상지(上智)의 마음이 있다 해도 기질의 찌꺼기를 없애지 않는다면 이(理)가 있어도 아는 것이 풍족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막지 못하며, 비록 하우(下愚)의 마음이 있다 해도 천리(天理)의 전체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질의 아름다움은 상지(上智)가 스스로 믿어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천리(天理)의 근본은 하우(下愚)가 스스로 극진히 할 수가 있는 것이다.[231]

---

230) 상게서, 논기질지품(論氣質之品) ; 人之氣正則正矣 而其氣也 有陰有陽則其氣質之間 亦豈無情濁粹駁之可言乎 是以人之生也 稟氣於天而天之氣有粹有駁 故稟得情且粹者爲上智而上智之於天理 知之旣明 行之又盡 自與天合焉 稟得淸而駁 濁而粹者爲中人 而中人之於天理 一則知有餘而行不足而行有餘 始與天有合有違焉 稟得濁且駁者爲下愚之而下愚於天理 知之旣暗 行之又邪 遠與天違焉 此人之品 大概有三等者也

231) 상 동 ; 雖然氣之所在 必成其兩 各有對侍 則雖在上智之心 不得無氣質之查滓 理之所在不以智豊 不以愚塞 則雖在下愚之心 不得無天理之全體 故氣

이렇게 기질이란 훌륭한 자질을 타고 난 사람이라도 그것만을 믿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외없이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인정하는 순(舜) 임금같은 대성인(大聖人)이나 안회(顔回)와 같은 대현인도 각기 자신에게 알맞는 지행(知行)의 도로서 스스로를 갈고 닦았다는 것이다.[232] 이처럼 타고난 자질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인간들에게 훌륭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며, 훌륭한 삶이란 결국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런 즉 기질의 미악(美惡)은 군자의 우락(憂樂)이 되지 못하며, 우(憂)하고 락(樂)하는 것이 오직 천리를 아는 것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으냐와 천리를 행하는 것이 지극하냐 지극하지 못하냐에 달려있는 것이다."[233] 고 말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 천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극진하게 행할 때만 훌륭한 삶이 보장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런 천리를 알고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인간에게 어떤 수양공부(修養工夫)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 사람이 하늘에서 명을 받아 사덕의 이(理)를 갖춤으로써 일신의 체(體)를 세우는 것은 이 심(心)이다. 심(心)이 밖에 있는 물(物)에 응하면서 선악의 기미가 싹트게 되는데 일심(一心)의 용(用)을 발하는 것은 이 의(意)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이 심(心)을 보존하고 길러서 그 체(體)를 보존해야 하며, 반드시 이 의(意)를 성(省)하고

質之美 上智之所不自恃者也 天理之本 下愚之所可自盡者也

232) 상 동 ; 是故舜大聖人也 而堯必以惟精惟一 爲知行之道而勉之 顔子 大聖人也而夫子必以博文約禮 爲知行之道而勉之‥‥古昔聖賢 若以上智爲可以自恃 則堯不必以精一勉於舜也 夫子不必以博約勉於顔子也‥‥明矣

233) 상 동 ; 然則氣質之美惡 君子之所不爲憂樂也 而所可憂樂者 惟在知天理之明不明行天理之盡不盡如何耳

찰(察)하여 그 용(用)을 바르게 해야 한다.[234]

그는 여기서 심(心)과 의(意)를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의 체용(體用)관계로 파악하여 그 각각에 대한 수양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먼저 심(心)을 존양(存養)함으로써 미발지시(未發之時)의 체(體)를 보존해야 하며, 의(意)를 성찰함으로써 이발지시(已發之時)의 용(用)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존양과 성찰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는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심(心)의 이(理)는 허허연(虛虛然)하여 찾아낼 수가 없으며 혼혼연(渾渾然)하여 한계가 없으니, 진실로 경(敬)으로써 마음을 한결같이 하지 않으면 어찌 그 이(理)를 보존하여 그 체(體)를 세울 수 있겠는가? 이 심(心)의 조짐은 미세하기가 털끝과 같아 관찰이 어려우며 위태하기가 포객 알처럼 지탱하기가 어려우니, 진실로 경(敬)이 아니면 이를 한결같이 하여 어찌 그 조짐을 바르게 하여 그 용(用)에 통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군자의 학(學)은 이 심(心)이 아직 발하지 않은 때를 당해서는 반드시 존양공부(存養工夫)를 더하고 항상 경(敬)을 주로 해야 한다. 또 이 심(心)이 이미 발한 때를 당해서는 반드시 성찰공부(省察工夫)를 더하고 또한 경(敬)을 주로 해야 한다.[235]

존양과 성찰은 결국 경(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

---

234) 상게서, 논재성지요(論在省之要) ; 人之受命于天也 具四德之理 以立一身之禮者 此心也 心之應物於外也 萌善惡之幾 以發一心之用者 此意也 故君子於此心必存而養之 以保其禮 於此意必省而察之 以正其用

235) 상 동 ; 然此心之理 虛虛然不可模捉 渾渾然不可涯 苟非敬以一之 安能保其理而立其體哉 此心之幾 徹而爲毫釐之難察 危而爲累卵之難恃 苟非敬以一之 安能正其幾而達其用哉 是以君子之學 當此心未發之時 必加以存養工夫 而常主於敬 當此心已發之時 必加以省察工夫 而亦主於敬

럼 추만은 모든 수양공부를 이 경(敬)이라는 한 글자에 집약시키고 있으며, 이 점 역시 그가 정주(程朱) 성리학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3. 결 론

이제까지 본고에서는 추만의 생애와 성리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이미 확인한 것처럼 그는 조선조의 사림파 유학자로서의 수준 높은 철학적 사색(思索)을 해 왔으며, 그 삶에 있어서도 처사로서의 은자적인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서 주목되는 점은 그가 보여준 삶의 양식이라기보다는 그가 <천명도해(天命圖解)>라는 저술을 통해 후세에 남겨준 철학적 탐구의 내용일 것이다.

이 <천명도해>는 여년 후에 이황의 수정을 받아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논쟁을 야기하게 된다. 그런데 수정된 <천명도설>과 <천명도해>를 비교해 보면, 형식이나 구조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36] 이들이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다 같이 정주(程朱) 성리학의 신봉자라는 점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236) 양자(兩者)의 목차를 보면, 먼저 <천명도해(天命圖解)>의 경우 천명지이(天命之理), 오행지도(五行之道), 3. 물생지원(物生之原), 4 인물지수(人物之殊), 5 차심지구(此心之具), 6 성정지목(性情之目), 7 선악지분(善惡之分), 8 기질지품(氣質之品), 9 존성지요(存省之要)와 잡해(雜解)로 구성되어 있고, <천명도설9天命圖說)>은 1 천명지이(天命之理), 2 오행지기(五行之氣), 3 이기지분(理氣之分), 4 생물지원(生物之原), 5 인물지수(人物之殊), 6 인심지구(人心之具, 7 성정지목(性情之目), 8 의기선악(意幾善惡), 9 기질지품(氣質之品), 10 존성지요(存省之要)와 후서(後敍) 등으로 구성된다.
양자의 내용은 대략 <천명도해>의 1, 2, 3절(節)에 해당되는 내용이 <천명도설>의 1, 2, 3, 4절(節)에 해당하고, <천명도해>의 4, 5, 6, 7, 8, 9 절(節)의 내용이 각각 <천명도설>의 5, 6, 7, 8, 9, 10절(節)에 해당된다.

다만 추만이 간혹 상수적(象數的)인 설명에 보다 흥미를 보이는 점이 이황과의 차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기(理氣)관계의 파악에서 추만은 이기관계를 체용(體用)관계로 파악하여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 같고, 이황은 이기관계를 이수기졸(理帥氣卒)의 관계로 파악하여 이우위적(理優位的)인 이원론(二元論)의 입장을 뚜렷이 보이면서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 같다는 점에서 서로간에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뚜렷한 대조는 심성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즉 추만은 심(心)에 갖추어 있는 사성과 칠정을 단순하게 사덕의 이(理)와 오행의 기(氣)에 연결시켜 파악하고 있는데 반해, 이황은 사덕의 이(理)를 오상(五常)과 사단(四端)에 음양오행의 기(氣)를 기질로 파악하여 칠정에 연결하고 이에 선악이 개념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추만은 사단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 '발(發)한다'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일인 것 같다.[237]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고찰에서 드러난 추만의 <천명도해>는 어떤 사상사적인 의의를 갖게 되는가? 먼저 눈에 뜨이는 것은 그의 <천명도해>가 성립된 시점이다. 그의 서문에 보면 가정(嘉靖) 계묘(癸卯) 2일 신묘(辛卯)(명 세종 22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중종 38년(1543년)이 된다. 이 무렵이면 조선조의 성리학이 이론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즉 당시의 대표적 유학자로 간조되는 화담 서경덕(花潭 徐敬德)(1489~1546)이 죽기 3년 전이며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1491~1553)은 죽기 10년 전이된다.[238] 따라서 이 시점에서

237)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황(李滉)과 기대승(奇大升)과의 논쟁의 출발점은 정지운의 천명도에 나타난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는 표현을 이황이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 고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본 <천명도해>에 수록되어 있는 천명도와 도해에는 위와 같은 표현이 전혀 발견되니 않는 것이 의문점이 아닐 수 없다.

추만이 비록 소략(疏略)한 내용의 성리학적 저술이기는 하지만, 성리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 나름의 체계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조선조 성리학의 흐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 성리학의 특징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국에 성리학이 도입되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중국성리학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도설류(圖說類)가 많이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북송의 주돈이(周敦頤)가 처음으로 태극도(太極圖)와 도설(圖說)을 제시하여 신유학(新儒學)의 우주론적 기초를 세움으로써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의 합일을 유학의 새로운 목표로 확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양촌 권근(陽村 權近)(1352~1409)이 이를 바탕으로 천인심성합일도(天人心性合一圖)를 작도(作圖)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추만의 천명도(天命圖)가 나왔고 이를 수정한 이황의 천명도가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도식(圖式)을 비교해 보면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한 관심에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太極圖)는 주로 우주만물의 생성 즉 천도(天道)에 관한 묘사에만 머물러 있고 인도(人道)에 관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태극도설이 주장하는 바는 천도와 인도의 합일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태극도에는 천도와 인도가 어떻게 합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성리학이 한국에 전래된 이후 한국의 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천도로부터 인도가 도출되며 어떻게 이 둘이 합일될 수 있는가를 표현하

238) 이 무렵까지도 서경덕(徐敬德)은 그의 대표적 논문인 원이기(原理氣), 이기설(理氣說), 태허설(太虛說), 귀신사생론(鬼神死生論) 등을 저술하지 않았으며, 이언적(李彦迪)은 공직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성리학 저술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도식(圖式)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권근과 정지운과 이황의 천인심성합일도(天人心性合一圖)나 천명도(天命圖)라는 것이다.239)

여기서 우리는 한국 성리학의 한 특징을 파악하게 된다. 한국의 유학자들은 형이상학적 탐구에 있어서 그들의 관심을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의 세계 즉 본체(本體)의 세계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만물이 생성된 이후의 세계 즉 현상의 세계에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의 관심이 생성의 문제보다는 존재의 문제에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유학자들이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에 관심을 더 보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현실관이 적극적인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말선초(麗末鮮初)부터 조선중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여준 유학자들의 강력한 현실개혁의지나 사림파 유학자들의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신념도 이런 맥락에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추만의 사상사적인 위치는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조선조 성리학의 발전적 수용과정에서 볼 때 이론적 탐구의 측면에서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정지운(鄭之雲)이기 때문이다. 비록 평생을 은둔적인 처사로서 살아왔지만 김안국(金安國)과 김정국(金正國)에서 비롯되는 그의 학문은 바로 사림파 유학자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일인 것이다.

---

239) 이상은(李相殷), <퇴계의 학문과 사상>, 「퇴계학연구」, pp.77~95

1509년 (중종 4년) 경기도 고양 사포(巳浦)에서 정인필(鄭仁弼)의 자(子)로 태어남. 명(名)은 지운(之雲), 자(字)는 정이(靜而). 호는 추만(秋巒) 또는 가옹(稼翁). 시(諡)는 정숙공(貞肅公).

1519년 (중종 14년) 11세. 기묘사화 발생. 사재 김정국(思齋 金正國)이 이에 연루되어 파직당하고, 고양땅에 이주하여 제자들에게 강학(講學)을 시작함. 이 무렵부터 추만(秋巒)은 사재(思齋)에게 학문을 배우게 됨.

1538년 (중종 32년) 29세. 사재 김정국(思齋 金正國) 등 기묘사화에 파직당한 인물들이 복직됨.

1541년 (중종 36년) 33세. 이 해에 사재 김정국(思齋 金正國)이 세상을 뜨자 추만(秋巒)은 이를 위하여 심상(心喪) 3년을 함. 이후에는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에게 학문을 배움.

1543년 (중종 38년) 35세. 정월에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이 세상을 뜨자, 이월(二月)에 추만(秋巒)은 그 동안 자신이 연구해 왔던 내용을 정리하여 <천명도해(天命圖解)>라 명(名)하고 이에 서문을 씀.

1549년 (명종 4년) 41세.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가 추만(秋巒)의 천명도(天命圖)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 그 자신도 천명도를 지어 추만에게 보냄.

1553년 (명종 8년) 45세. 퇴계 이황(退溪 李滉)이 추만(秋巒)의 천명도(天命圖)와 도설(圖說)을 얻어보고 그 내용에 의심을 품은 나머지, 추만(秋巒)을 만나 같이 그 내용을 연구 토론한 다음 천명도(天命圖)와 도설(圖說)의 내용을 정정하고 이에 후서(後敍)를 씀.

1554년 (명중 9년) 46세. 추만(秋巒)이 퇴계와 같이 연구하고 수정한 천명도설(天命圖說)에 서문을 씀.

1559년 (명종 14년) 51세.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이 추만(秋巒)의 천명도(天命圖)를 퇴계가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품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사칠논쟁(四七論爭)이 시작됨.

1560년 (명종 15년) 52세. 정월에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가 세상을 뜸. 여름에 아들 윤손(允孫)이 탄생함. 고봉(高峰)은 추만에게 퇴계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서찰을 보내고, 퇴계 역시 고봉의 학문하는 자세를 비난하는 서찰을 추만에게 보냄.

1561년 (명종 16년) 53세. 봄에 추만은 처남인 풍덕군수 안홍(安鴻)을 만나보고 이어 천마산(天摩山)에 들러 놀다가 갑자기 병이 심하여 돌아오는 길에 승천부(昇天府)의 강구(江口)에서 세상을 떠남. (3월 9일)

모당(慕堂) 홍이상(洪履祥)의 생애와 경세관(經世觀)

임 민 혁*

머리말
1. 가계(家系)와 생애
2. 학문과 사우관계
3. 경세관과 정치활동
(1) 붕당관(朋黨觀)
(2) 향촌교화
(3) 임진왜란기의 구국활동
맺음말
연보

머 리 말

홍이상(洪履祥)<초휘(初諱)는 인상(隣祥) 혹은 천상(天祥)>은 자(字)가 원예(元禮)<초자(初字)는 군서(君瑞)>, 호가 모당(慕堂)이며, 풍산인(豊山人)이다. 그는 조선시대 사림파의 한사람으로서 성리학자요, 정치가요, 또한 시인이었다. 그의 학문과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16세기 이후의 학문적 경향과 현실정치에 대한 사림파의 의식적 토대와 맥을 같이 하면서 성리학적 실천윤리에 충실하였던 인물이다. 16세기의 사림파는 소학(小學)을 학문과 처신의 기본으로 삼은 것이 가장 특징적이어서 소학으로 율신(律

身)함과 동시에 그것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 제례의식을 가례(家禮)대로 실행하며, 유향소와 사마소를 설치하여 향약을 비롯한 향사음례 및 양로회 등을 설행하는 것이 당시의 풍조였다. 모당 또한 양로회 등을 자주 설행하여 우로(優老)의 전범이 되기도 하고, '걸군소(乞郡疏)'에서도 나타나듯이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리고 중민(重民), 애민사상에 입각하여 향촌의 안정과 교화에 노력하는 등 이도(吏道)를 잃지 않는 고결하고 청렴한 선비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모당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의 붕당관(朋黨觀)이다.[240] 동서분당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당파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는 붕당의 국가적 폐해를 지적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편당에 의한 각종의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왕의 덕치와 신하의 간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붕당의 폐해를 극복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기축옥(己丑獄)(정여립모반사건) 발생 이전이 정여립의 이이(李珥)에 대한 배위(背違)를 질타하고 당쟁의 산물인 기축옥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개진하여 백유함(白惟咸), 이발(李潑)형제와 각각 쟁변, 탄론하는 등 동서의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그리고 최영경(崔永慶)의 무고(誣告)에 실질적 역할을 한 당시의 간관들을 지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그는 '강관 제일(講官 第一)'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언관의 직간원칙(直諫原則)을 준행하는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 그는 당쟁의 폐단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간관의 역할을 가장 중시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사림이 그들의 정치철학을 실현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언관기능과 상소 등을 최상의 방법으로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모당의 「답자(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문학원 박사과정

240) 分黨論起皆被指目而公獨屹然爲一大完人(「성적도」, 동방유림연원록)이라고 하여 모당이 편당하거나 당론에 휩쓸리지 않고 일대(一大) 완인(完人)으로 우뚝 섰음을 밝히고 있다.

子)」와 「봉사(封事)」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군신의 관계, 군왕의 치도 등 성리학의 충의사상에서 발로하는 것이었다.

정치와 사회에대한 뛰어난 경세관과 그에 따른 정치적 활동 외에 그는 문학가적 자질도 겸비하였다 그의 문집 가운데 시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의 시작활동(詩作活動)은 매우 활발하였다. 총 187수가 실려있는 시의 종류는 오언절구 12수, 오언사운(五言四韻) 67수, 오언배율(五言排律) 6수, 오언고시 5수, 칠언절구 63수, 칠언사운 32수, 칠언배율 1수, 칠언고시 1수 등이다. 그 내용은 대체로 자연이나 벗(혹은 인간)을 노래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즉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의 친화성을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이입하여 주옥같은 서정적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그는 시사회(詩社會)를 자주 갖기도 하였다.

이처럼 모당은 탁월한 경세가요 문학가로서 선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생애와 문학, 철학, 정치활동 등을 고루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은둔처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철저하였던 습정 민순(習靜 閔純)선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모당의 중도노선(中道路線)과 언관활동이 당시 사림이 지향한 정치적 목적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의 그러한 활동의 연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고찰될 것이다. 그의 문학활동과 시세계에 대해서는 필자의 능력상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 같으며, 다만 본고에서 필요로 하는 몇 수만 살피기로 하겠다.

1. 가계와 생애

풍산홍씨(豊山洪氏)가 고양에 세거(世居)하기 시작한 것은 홍이상의 5대조인 우낭장 구(龜)가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풍산으로 하향 도중 고봉현(고양군) 귀이동(歸耳洞) 성산촌(城山村)

에 복거(卜居)하면서부터이다. 모당의 고조 숙은 좌군사정이고, 증조는 사포별제 계종(繼宗)이다. 조는 부사용 우전(禹甸)으로 후에 좌승지로 증직되었다. 고 수(脩)는 부사직에서 좌찬성으로 증직되었는데, 그는 사실 부장 세경의 자(子)로 승지공이 아들이 없어 양자로 갔다. 수는 문경백씨(聞慶白氏) 습독관(習讀官)인 승수(承秀)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기유년(1549) 9월 18일 정묘시에 고봉 아래 귀이동에서 모당을 낳으셨다. 모당은 안동김씨(보선무랑 고언(父 宣務郞 顧言))와 혼인하였다.

모당의 가세는 상당히 빈한하였다. 어려서부터 가업이 빈소(貧素)하여 죽(粥)이라도 항상 잇지 못할까 근심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그는 1579년(기묘년)에 문과에 장원하면서 6품직인 예조좌랑에 배해지는 등 꾸준한 부경종사(赴京從仕)하였으나, 경직(京職)을 통한 경제적 곤궁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지난하였던 모양이다. 그는 찬성공이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가난함을 면치 못하자 '걸군소(乞郡疏)'[241]를 올리게 되었다. 선초부터 재지사족으로 상경종사(上京從仕)한 신진사류들은 부모봉양을 위한 위친걸군(爲親乞郡)이 일반적으로 숭상되어 본관지 또는 부모소재읍의 수령이 되어 나가곤 하였다.[242] 그가 25세에 사마시에 응시하여 진사가 된 것도 집안의 가난함과 친병(親病)이 그 원인이었다.[243] 입지(立志)를 과거가 아니라 도(道)에 두었던[244] 그가 부시(赴試)한 것은 그 목적이 빈궁함을 면코자 하는 데에 있었다. 그의 걸군이 부모가 나에게 바란 바요, 내가 부모에게 원한 바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불우한 경제적 처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심각

241) 「모당문집(慕堂文集)」, 소답(疏劄), 걸군소(乞郡疏), (한국고전간행회, 1974, 대제각)
242) 이수건(李樹健),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출판부, 1979), p.239 참조
243) 「모당문집(慕堂文集)」, 연보
244) 모당은 16세에 이미 뜻이 과거에 있지 않고 스승을 찾아 도를 듣는 것에 두었다고 한다. (상게서, 연보)

성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그의 부모를 승봉(承奉)하는 태도 또한 소홀한 바가 없었다. 모당이라는 호도 그의 나이 33세에 부친 찬성공이 돌아가시자, 복상(服喪)이 끝났어도 그 사모하는 정이 그치지를 않아 영모(永慕)의 뜻에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245)

그의 걸군소의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 (전략) 신의 노모는 지금 나이 칠십이세온데, 어려서부터 가업이 보잘것없어서 죽을 항상 잇지 못할까 걱정하였고 백구를 봉양함이 힘들었습니다. 오직 어미가 밤낮으로 고되게 일하고 손발이 닳도록 일하여 피로가 쌓여 다치게 되었고 어린아이는 질병으로 겨우 마른 형상을 부지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가난한 아낙네를 누가 불쌍히 여기고 민망해 하지 않겠으며 평생토록 가난의 고통이 신의 어미에게 있은 적이 없다고 하겠습니까.(후략)246)

라고 하여 집안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가

---

245) 모당은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써 표현하기도 하였다.
識面今朝始　　아침이 되어 얼굴을 들어보니
輸心晩契親　　마음을 쏟아 느지막이 어버이를 맺으니
何須驚一別　　어찌 한 이별에만 놀라리오
西郭近芳隣　　서쪽 성곽에 꽃다운 이웃이 함께 하리라
<별회부(別晦父)>
이처럼 모당은 부친에 대한 그리운 정이 깊어 꽃다운 이웃으로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을 갈망하고 있다. 찬성공이 늙게 풍질에 걸렸을 때, 모당은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성으로 약을 드리고 의사를 보면 반드시 절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심지어 옷을 벗고 자는 일조차 없었다.(「대사헌홍공신도비명(大司憲洪公神道碑銘)」) 부친이 돌아가시자 모당은 상장을 한결같이 주자가례에 의거하였다. 외곽을 쓰지 않고 유회와 송지를 많이 썼다. 그리고 죽과 채소만을 먹으며 3년을 혈읍하니 애회유제하여 거의 멸성에 이르렀다고 한다.(「모당문집」, 연보)

246) (前略) 臣有老母今年七十有二歲 自小家業寒素 饘粥常患不繼 艱難百口之養 惟母當之日夜辛勤 手拮足据積勞致傷 早嬰疾病僅扶枯形以至今日 貧家寒婦孰不哀憫而 平生食貧之苦嘗有臣母(後略) (상게서, 소답(疏劄), 걸군소(乞郡疏))

상경종사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 소를 올린 시기(1599.7.)까지 약 20년 동안에도 빈곤함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관료로서의 청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예조좌랑을 시작으로 경외직을 두루 거친 그의 관력은 매우 화려하나 부의 축적을 도모하지 않아 생활고를 견디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소를 통하여 부모에 대한 효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금이 효리지화(孝理之化)를 밝혀줄 것과 우노지전(優老之典)을 돈독히 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현의 수령의 명을 입게 되면 오조(烏鳥)의 정과 모자함은(母子含恩)하여 여생을 마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이에 선조는 이를 가엾게 여겨 춘천부사의 직에 배하였다.

청백리로서의 모당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극진한 정성과 엄정한 부친의 교육환경에서 성장하였던 것 같다. 인척들과의 원만한 관계와 조카들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 등등이 그의 행적상에 두루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의 가정윤리와 실천적 인식이 부모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를 알아볼 수 있는 근거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모당이 32세 때 동지사 서장관으로 부경 시 부친이 경계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번화한 관서를 지날 때 장생벌생(藏生伐生)이 색(色)보다 지나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지조를 잃을까 염려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부친의 모당에 대한 가르침은 유년기 뿐 아니라 성장한 이후에도 철저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으며, 모당 또한 거스름 없이 부모의 봉양에 극진하였다.

모당의 가난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물질적으로 다하지 못하는 송구함으로 걸군소를 올린 것이지 자신의 여유 있고 풍족한 생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다음의 시가 그의 청빈한 내면적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즉 모당은 태평성대를 희구하는

소박하면서도 서민적인 전원생활을 통하여 유유자적하는 마음의 평정상태를 스스로 간직하고자 했던 것이다.

老圃收秋實	농사꾼이 가을 열매를 거두고
霜殘苦葉凋	서리가 내리자 나뭇잎이 시드는구나
山■喧可厭	산이 둘러쳐져 떠들어도 괜찮고
窮巷樂還饒	궁벽한 마을에 풍년이 옴을 즐거워 하니
何必多三爵	어찌 반드시 삼작만 좋다 하리오
惟恩任一瓢	오직 한 표주박에 생각을 맡기고
邊民太平樂	변방의 백성은 태평가를 부르니
耕鑿不知幸[247]	밭가는 이는 임금행차를 알지 못하네

그의 이러한 삶의 추구는 말년에 관직을 청산하고 곧바로 돌아와 송추를 쳐다볼 수 있고 조그만한 축대가 있는 물가에 한 정자를 축조하고 날마다 이웃의 친척과 시주(詩酒)를 즐겼다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이 정자의 편액을 '낙양(樂洋)'이라 하였다. 그 뜻은 '시경에 있듯이 샘솟는 물이 양양(洋洋)하여 굶주림도 즐거워할 수 있으니, 이제 내가 여기에 이르러 강호의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여러 밭을 갈더라도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는데 주리더라도 즐거움이 없으면 그 즐거움 오랠 수 없으니 내가 그래서 이름한 것이다.'[248]라고 한다.

이같은 그의 삶은 속세를 떠나 자연과 합일을 이룸으로써 도를 즐기고자 하는 달관된 경지를 보이고 있다. 그의 스승인 행촌 민순이 그러했듯이, 자신 또한 안빈낙도적인 삶의 관념적 이상형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어쩌다 조정의 시비나 관장의 득실을 말하는 이가 있으면 그는 곧 손을 흔들어 제지하였다. 시사가 날로 망극하여 가는

247) 전게서, <차영표운(次詠瓢韻)>
248) 詩不云乎 泌水洋洋可以樂飢 今吾到此 得專江湖之樂 而耕數畝田 飢在其中 飢而不樂則樂不可久 吾所以名吾軒也(상게서, 연보)

현실을 보면 밤새 잠을 못 이루거나 눈물로 옷깃을 적시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월사 이정구(月沙 李廷龜)가 문병을 왔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세도(世道)가 이에 이르렀으니 그대로 물리쳐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 일찍 죽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고 하였다. 1615년 9월 19일에 돌아가시니, 그의 나이 67세였다. 고양의 고봉 선영, 신좌지원(辛坐之原)에 장사지냈다.

2. 학문과 사우관계

모당은 4세에 벌써 글자를 알아 사략을 읽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7세에는 참판 이식(李栻)이 문달산(聞達山) 아래에 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배우기를 청하였다. 이식이 이 아이의 비상함을 알고 소학을 가르치니, 암송한 것은 한자도 틀림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풍우한서(風雨寒暑)에도 폐함이 없이 왕래하면서 공부에 전념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정을 쏟았다. 그리하여 9세에는 사략과 소학 그리고 시서의 대문(大文)을 통하고 소학지도(小學之道)를 다하고자 하였다.

모당이 어려서부터 소학의 도를 다하고자 한 것은 이식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의 학문풍토가 일정하게 반영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16세기의 사림파 학자들은 당시의 폐습인 기송(記頌), 사장(詞章)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의 사풍을 조성하고 이학(理學)의 근본을 세우고자 우선 소학실천운동을 벌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도덕정치의 실현이었다. 모당도 이를 위하여 먼저 과거보다는 스승을 찾아 도를 듣는 것에 뜻을 두었음은 물론 기송의 학문은 뜻을 상하게 할 뿐이라고 하여 배척하였다.[249]

---

249) 이는 창석 이준(蒼石 李埈)이 시독관이 되었을 때, 모당이 그에게 선조가 사학을 희람(喜覽)하여 이미 고질이 되었으니 잡서가 범람하는 폐단을

그는 20세에 행촌 민순(杏村 閔純)이 개강하였음을 듣고, 사서(四書)와 선유(先儒)의 성리지서(性理之書)에 몰두하여 의리(義理)를 탐색할 뿐만 아니라 '성(誠)'을 함양지지(涵養之地)로 삼았다[250] 정자(程子)는 주역의 '敬以直內 義以方外'를 받아들여 경과 의로써 수양공부를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성(誠)은 「중용」에서 말하는 본체 내지 덕성(德成)의 개념을 가진 수양의 중심이다. 그러나 이 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敬)이 필요하다. 정자(程子)는 경(敬)을 시폐사지도(是閉邪之道)라 하여 사특함을 막는 도라 하였으며, 폐사존기성(閉邪存其誠)이라 하여 사특함을 막으면 곧 성이 보존된다고 하여 경이 성을 보존하는 도임을 말하고 있다. 즉 경은 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지(誠之)(진실무망(眞實無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당도 성을 함양지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을 주로 하였다. 그가 사간원정언(32세)이었을 때, 경연에 참석하여 군덕(君德)의 성취는 학문에 있으며 학문의 도는 주경(主敬)을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영경연 정지연(領經筵 鄭芝衍)[251]이 말한 것처럼 '실득(實得)'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실득에 대하여 퇴계는 '경을 주로 하여 능히 마음에 이삼(二三)이 없어야 바야흐로 실득이 된다.'고 하여 주경의 근본목적이 됨을 말하고 있다. 광해군이 즉위한 후 오래도록 경연에 참석치 않는 사실에 대해서 모당은 '강학(講學)은 금일의 급무인데 경연석(經筵席)이 오래도록 비어 있으니 군덕이 성취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막아줄 것을 부탁하는 말 가운데 있다.(전게서, 연보)

250) 이 때에 이미 모당은 학문적 명성이 자자하여 제문생(諸門生)이 존경하고 행촌도 불급으로 여겼다고 한다.(상게서, 연보)

251) 정지연은 호가 남봉(南峰)으로 광필(光弼)의 손자이다. 이소재 이중호(履素齋 李仲虎)를 사사하기도 하였으며, 역시 화담의 문인으로 행촌과 동문수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림으로 명망이 있었던 그는 이이와 이황을 천거하여 왕자사부(王子師傅)로 중용케 하였다.(「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宣祖朝)

제왕의 학문은 실지(實地)를 근본으로 해야 하는데 박학(博學)이나 부문(浮文)을 일삼게 되면 완물(玩物)이 되어 뜻을 잃게 되므로 학문을 연마하여 치도를 갖추소서'라고 간언한 바와 같이 군덕과 치도는 실지를 근본으로 하는 학문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역설함으로써 실학적 학문탐구를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뜻을 세워야(입지) 하는데 이이(李珥)도 이 입지를 하기 위해서도 성(誠)하여야 뜻이 스스로 서는 것이요, 경(敬)으로써 이를 잘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주자(朱子)는 이 경사상을 발전시켜 거경궁리란 말로 정립했다. 퇴계는 정주(程朱)의 거경궁리와 존양성찰로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경이직내를 일용(日用)의 제일로 삼고 거경궁리함으로써 성의 경지, 즉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림파 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도덕적 최고가치에 도달하는 수양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모당이 성과 경을 중시한 것도 당시의 학문풍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모당의 학문적 태도와 그 연원은 그를 경술지사(經術之士)요 진유(眞儒)라 일컫게 하였다. 모당이 31세에 전시에 장원하였는데 이때 선조가 그의 문장을 보고 칭찬해 마지 않았다. 즉 정대(庭對)의 체통(體統)을 터득한 경술지사라 하고, 이에 윤두수(尹斗壽)와 노수신(盧守愼)도 각각 문행(文行)이 상계(相契)한 당세의 준망(雋望)이라거나 의리에 투철한 진유라 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철학적 깊이와 흐름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찾아지는 것이 없어 심도있는 고찰이 불가능하다. 다만 그의 사우관계와 그들의 철학적 사상적 연원 및 영향을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그 한 측면을 일별하고자 한다.

모당의 스승인 행촌 민순(1519-1591, 習靜先生)은 화담 서경덕(花潭 徐敬德)의 문인이다. 화담은 장구(章句)보다 천리공부(踐履工夫)를 앞세워 그의 도학은 은연중 심학계열(心學系列)과

통하는 데가 있었다. 따라서 행촌은 그의 심학적 학문을 전수받아 우리나라 심학의 선류(先流)가 되었다.[252] 모당은 52세때인 8월에 성균관대사성이 되었는데 학정(學政)이 퇴폐한지 오래라 제생들을 모아놓고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대학(大學)등을 강독하였다. 이로 보아 모당의 학문은 화담으로부터 민순의 영향으로 심학적 위기지학의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55세에 통감(通鑑)에 소주(小註)를 달고 발(跋)을 써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모당의 교우인 구암 우복룡(懼菴 禹福龍) 역시 민순의 문하였으며, 악록 허성(岳麓 許筬)은, 화담의 문인으로 관계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인물인 초당 엽(草堂 曄)의 아들이다. 이들은 승가사(僧伽寺) 등에서 시축(詩軸)을 하기도 하였다.

모당은 습전선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東魯茫茫緖	노나라 동쪽 망망한 저 끝
靑丘有幾傅	청구에 스승이 몇이나 있을까
斯文不墜幸	공자의 가르침이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夫子間生賢	부자 사이에 어진 이를 낳았네
習靜心常逸	습정은 마음이 늘 편안하더니
安貧意愈堅	안빈낙도의 뜻이 더욱 굳고
襟懷貯秋月	옷깃의 회포가 가을 달을 품더니
世利付魚筌	세사의 이로움은 통발에 붙이네
孝友成吾性	효우가 내 성품을 이루어
行藏聽彼天	행하고 감춤이 저 하늘에 들리고
一官宜擊折	한 관리는 격양가가 마땅하고
數邑賦歸田	두어 고을엔 귀거래를 읊는다
啓手今知免	손을 펴 보고서 이제야 면함을 알겠더니
前膠誰續絃	아교를 지져서 누가 현을 이으며
吾生更何托	내 삶을 어디다 다시 붙일꼬
世道益堪憐	세상의 도는 더욱 불쌍하기만 하다.

252) 김충열(金忠烈), 「동양사상산고(東洋思想散稿)」, (범학도서, 1977), p.315 참조

遽飭延平柳　　문득 연평의 버들을 경계하고
空悲茂叔筵　　부질없이 주렴계의 연꽃을 슬퍼하네
平生恩義淚　　평생에 은의의 눈물 속에
寂寞洒重泉[253]　　적막한 가운데 깊은 샘물을 빚지 말라

위에서 모당은 행촌의 안빈낙도를 매우 부러워했음을 알 수 있다.[254] 세상의 이(利)를 좇지 않고 은거하여 후학의 양성에 매진한 스승의 높은 덕성과 효우 그리고 행장(行藏)(진퇴출처(進退出處))의 철두철미함이 그가 세상을 등짐으로써 전포(展布)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모당은 화담 서경덕을 매우 흠모하였다. 그는 이항복(李恒福), 한백겸(韓伯謙)과 함께 선비들에게 통문을 돌려 화담이 살던 곳에 서원을 세우고, 사액을 청하여 이를 화용서원(花容書院)이라 하였다.[255] 뿐만 아니라 개성유수 시절(64세, 1612년)에 정몽주를 향사(享祀)하는 숭양서원(崧陽書院)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퇴미함이 너무 심해 이의 복원을 청하는 계사를 올렸다. 그 가운데 정몽주(鄭夢周)를 문장과 절의가 동방 이학(理學)의 조(祖)라 하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화담이 수도독학(修道篤學)함이 근대유림의 사표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화담의 사묘를 방문하여 참례한 후 그의 느낌을 시로 표현하였다.

平生夢想始來參　　평생을 꿈에 그리다가 이제야 참례하니
山似圍屛水似藍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고 물은 쪽빛이더라

253) 「모당문집(慕堂文集)」, <만습정민선생(挽習靜閔先生)>
254) 모당은 습전선생을 '온겸각후(溫謙慤厚)하고 하늘이 만들어 낸 그 자질이여, 어려서 시문을 좋아하고 학자됨이 훌륭하다. 멀리 화담을 향하니 안씨(안회)에 가깝도다. 음풍영월하고 호연하여 돌아가니 한결같이 주정(主靜)을 맛보고, 선악을 살피며, 가운데를 구하여 발하지 않으니 큰 근본이 섰도다.(하략)'(전게서, 제문(祭文), 습정선생위판봉안제문(習靜先生位板奉安祭文)라고 하여 안자(顔子)에 가까움을 비유하고 있다.
255) 「대동야승(大東野乘)」, 권 71, 이덕동 찬(李德洞 撰), <송도기이(松都記異)>

欲識當年眞樂地　그 해에 정말로 즐기던 곳인지 알고자 한 것은
一天明月照空潭[256]하늘의 밝은 달이 빈 연못을 비추는 것

모당은 습정선생을 통하여 성리지학을 전수받으면서 화담의 철학과 학문의 깊이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화담을 평생토록 꿈에 그렸다고 회고하고 역시 화담의 안빈낙도적 삶과 풍류, 그리고 스승에 대한 진정한 사모의 정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모당의 학문과 철학은 화담과 행촌의 심학(도학)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곡 이이(1536-1584)와도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 없으나 율곡은 모당이 36세 때인 1584년에 그를 천거하여 이조좌랑에 배한 일이 있었다. 이때 율곡의 모당에 대한 생각은 가세가 한미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나온 것은 매우 귀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257] 이듬해에 정여립(鄭汝立)이 율곡을 배위(背違)한 사실에 대해 그 패만함을 통렬히 비난한 것도 모당과 율곡의 밀접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율곡에 대한 만사를 지었으니,

斯文宗匠國蓍龜　사문의 종장이요 국가의 시귀라
海內聲名走卒知　해내의 명성이 마침내 알려졌다.
落下正逢司馬日　서울에서 바로 벼슬하던 날은
蜀中新喪孔明時　촉중에 새로 공명을 장가지낼 때
靑衿共切摧樑痛　청금이 모두 들보가 꺾인 듯 애통해 하니
丹扆重深失鑑悲　붉은 병풍이 더욱 깊어 슬픔을 더하는구나
何意挺生何意奪　무슨 뜻으로 삶과 뜻을 빼앗는고
蒼天漠漠問憑誰[258]막막한 푸른 하늘에 믿을 이 누구일고

256) 「모당문집(慕堂文集)」, <화담알묘유감(花潭謁廟有感)>
257) 전게서, 행록(行錄)
258) 전게서, <만율곡(挽栗谷)>

라고 하여 그의 죽음을 큰 불행으로 여겼다. 그는 스승인 화담과 행촌을 초월하여 이이를 조선 성리학의 종장이요, 국가의 최고 지성으로까지 추존하여 숭앙하였던 것이다.

그가 시에 능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는 교우인 구암, 악록 등과 시회(詩會)를 자주 가졌으며, 65세에는 태평관(太平館)에서 용두회(龍頭會)라는 시사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 용두회에는 운록 이시정(雲麓 李時楨), 만촌 윤영현(晩村 尹英賢), 창주 차운로(滄州 車雲輅) 등 3인이 참가하였다. 특히 창주는 동방문사라 일컬어지는 천로(天輅)의 제(弟)로서 문장과 시, 글씨에 뛰어났다. 이들은 모두 문과에 장원한 자들로서 송도의 동료이기도 하다. 이들은 각각 사계절의 풍경을 읊은 시 한 수씩을 짓고, 여기에 그림과 서경 유근(西坰 柳根)의 서(序)를 넣어 병풍을 만들었다. 그들의 시는 운록이 <만월대회고(滿月臺懷古)>, 만촌이 <지족사문종(知足寺聞鍾)>, 창주가 <박연폭(朴淵瀑)> 그리고 모당의 <화곡심방(花谷尋芳)>을 지었다. 여기에서 모당의 <화곡심방(花谷尋芳)> 한 수를 감상해 보자.

松都形勝五冠南　송도의 명승은 오관산 남쪽이고
翠壁粧紅倒玉潭　푸른 벽에 붉은 치장이 옥담에 거꾸로 비치네
數子息榮俱第一　몇몇이 영화로움을 쉬고 제일 경관에 모이니
老夫僥倖亦同參　노부가 요행이 함께 참석하였어라
僚筵邂逅眞奇遇　동료들의 만남이 진실로 기이한데
好事流傳作美談　좋은 일이 흘러서 미담을 만드네
最是賢祠遺躅在　이 어진 이의 사당에 남아 머뭇거리고 있으니
萬庭芳草綠毿毿　뜰에 가득한 향풀이 푸르기만 하구나

3. 경세관과 정치적 활동

(1) 붕당관

사림계의 동서분당은 선조8년 이조전랑직을 놓고 김효원(金孝元)과 심의겸(沈義謙)이 대립한 사건이 그 기원이 된다. 이후 사림은 각각의 학연 등을 중심으로 파당을 형성하여 결속을 도모하고 정치적 주도권의 쟁탈에 골몰하고 있었다. 이때를 당하여 사림치고 어느 당이건 지목되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초기에는 중립노선을 걷는 자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모당이다. 그는 동서붕당간의 대립관계 속에서 중립을 견지하며, 이의 폐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서슴없이 하였다. 이러한 그의 붕당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자.

모당은 1585년인 37세에 홍문관교리가 되었다. 하루는 경연 중에 정여립(鄭汝立)이 율곡 이이를 심히 비방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정여립은 기축옥사(1589년)의 중심인물이다. 1571년(선조4) 에 문과에 급제하면서 율곡의 문하에 출입한 그는 박학다재하여 일찍이 이이의 천거를 받아 벼슬이 홍문관수찬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1584년에 율곡이 죽자 동인이 정권을 천단하게 되었다. 여립은 이에 동인에 가담하여 공공연히 율곡을 훼척(毁斥)하니 서인들의 집중적인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여립에 대하여 모당은 이르기를, '여립은 항상 이이를 사사(師事)하였는데 드디어 배반하였구나. 그말이 극히 패만하니 이러한 무리는 마땅히 미워하여 끊여야 합니다.'고하여 직척(直斥)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선조께서 공의 말이 옳다 하시고 하교하시되, '여립은 형서(邢恕)라 이를 만하다.'[259]고 하셨다. 이처럼 모당의 정여립에 대한 배척은 그의 당파간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이와의 사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헌(趙憲)의 상소에 홍이상은 이이의 천거로 중용되었으며, 그는 이이를 어질다고 하고 성혼(成渾)을 옳다고 말을 발하매 여러 입이 배척하지 않는

259) 이 말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권 13, p.61에도 나오며, 「송사(宋史)」열전, 제230, 간신 1, 형서전(刑恕傳)에서의 간신 형서를 말한다.

이가 없었다고 한다.[260] 그러나 이것이 곧 모당의 편당을 의미하여 그를 서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의 사림과의 교류관계와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도 있으며, 더욱이 그의 중립적 자세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 이의 질시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서붕당에 의한 정쟁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시작한 계기는 이이 사후 열세에 있던 서인이 세력만회를 위해 조작한 정여립모반사건으로부터이다. 정여립은 자주 선조의 꾸지람을 당하자 낙향하여 소일하고 있었다. 이때 천인출신으로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고 정철(鄭澈), 성혼(成渾) 등과 친분이 두터운 송익필(宋翼弼)은 안씨가의 노복으로 다시 전락하게 되자 아우인 한필과 멀리 도망하여 변성명하고 해서에 숨어살면서 동인에 대한 복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참설을 유포하고 무력양성과 거병설까지 전파하여 이를 정여립의 소행으로 누명을 씌웠으니, 이것은 정철을 구심점으로 한 서인들의 날조와 결합된 당쟁의 산물이었다.[261]

정여립의 모반사건이 고변되자, 동인타도를 외치면서 맨먼저 상소를 올린 양천희는 이발, 이길 형제와 김우옹, 정언신 등이 여립과 밀교했다고 논척하였다. 뒤이어 올린 백유함의 소도 같은 내용이었다. 이에 반하여 이발형제는 고변 초에 이 사건이 이이문인들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여립을 두호하였다. 그러나 이발은 정철 등이 꾸며낸 죄상의 날조로 혹독한 고문에 못이겨 죽고 말았다.

이러한 동서의 분열에 의한 대립에 편당하지 않은 명사가 없었다. 그러나 모당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하여 중립자로 지목되었을

260) 「대동야승(大東野乘)」, 권65, <혼정편록(混定編錄)> 3
261) 이희권(李羲權), <정여립모반사건에대한 고찰>, (「창작과 비평」10-3, 가을호, 1975) 참조

뿐 아니라 스스로도 중립을 견지하였다. 그는 재야에 묻혀 지내다가 기축옥사 이후 사간원헌납에 등용되고 이이가 이조판서에 배해짐을 계기로 전랑이 되어 서인을 전용(專用)한 백유함과 옥석구분지화(玉石俱焚之禍)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달라 쟁변하였다고 하고, 이발형제에 대해서도 탄론하였다고 한다. 동인인 이발은 이소재 이중호(履素齋 李仲虎)의 자(子)로 행촌 민순의 문(門)에 종유(從遊)하였다.[262] 혹 모당과의 사우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나, 설제로 모반사건이 서인의 조작이었다고 할지라도 모당의 입장에서는 이이와의 특별한 관계 위에서 여립의 사제지간의 인륜 도덕적 배위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학연에 따른 문인관계보다는 주자학적 가치를 상위에 두고 그 판단기준에 따라 처신한 모당이 여립을 두둔한 이발을 탄론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 모반사건은 서인의 날조 뿐 아니라 정여립 개인의 학문과 사상에 반주자학적 성향이 있었던 것도 발단의 한 원인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은 학통과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여립은 천하는 공물(公物)이라는 전제하에 혈통에 의한 왕위의 계승이 결코 절대성을 가질 수 없는 것임을 강변하는 한편 주자학적인 절의관(節義觀)인 불사이군론(不事二君論)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이다.[263] 그의 역모는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도모되었으며, 더욱 주목되는 사실은 연루자들에게도 이같은 공통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여립을 당시 제일인물(第一人物)이라 추거(推擧)하던 이발이 사건 직전 낙향하면서 '시사불가위(時事不可爲)'라 하는 한편 선조 아래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음을 통탄한 것이라든지, 백유양(白惟讓)이 '이 사람은 인군(人君)으로서 조금도 도량이 없다'고 한

262) 「전고대방(典故大方)」문인록
263) 김용덕(金龍德), <정여립연구>, (「한국학보」4, 1976, 가을) 참조

것, 그리고 여릅의 질(姪) 이진길(李震吉)이 '주혼일심(主婚日甚)'이라 한 것 등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그리고 다음에 논할 최영경의 경우도 '시사(時事)를 다저(多詆)하고 역옥을 사화에 비긴'글로서 옥사하였다. 또한 처음에는 여립과 상지(相地)한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정개청(鄭介淸)이 동한절의(東漢節義)의 폐(弊)를 논한 배절의(背節義)의 죄로 끝내 장사(杖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학문적 연원은 주자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계열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개청이 화담문인이고, 이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최영경은 남명문인이었다. 화담·남명계의 학문은 퇴계나 율곡으로부터 주자학적 입장에서의 비순수성을 비판되고 나아가서는 노장적 요소까지 지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절의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급진적인 체제혁신의 방법을 모색하게 된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정여립모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관련자에 공통되는 주자학적 절의관에의 불패성향은 이같이 학통상의 문제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264] 그러면 이같은 사건의 성격상 화담의 학통을 행촌을 이어 계승한 모당의 당시의 입장 혹은 위치는 어떠했을까, 그의 당쟁을 보는 시각은 학통과 관련이 없는 것일까, 그의 붕당관은 어디에서 근원하고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모당의 정여립모반사건을 보는 시각은 최영경의 무고를 해명하는 계사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최영경은 호가 수우당(守愚堂)으로 벼슬이 지평에 이르렀으나 퇴거하여 산림에 은거하던 처사였다. 그는 역변 초기에 역도들이모두 삼봉(三峯)으로 상장(上將)을 삼았다고 한 진술에 따라서 그 혐의자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그

264) 이태진(李泰鎭), <서인의 집권과 군영증설(軍營增設)>,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 pp.59-62 참조

의 무죄가 판명되어 석방을 허용하였으나, 이때 간원에서 영경이 여립과 상종했으므로 다시 추국할 것을 청하니 재차 투옥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옥사의 지연으로 영경은 결국 옥에서 병사하고 말았다.

모당은 최영경이 다시 무함을 받아 옥사한 것은 서인인 정철과의 심한 반목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미 정철은 선조24년 건저의(建儲議) 문제로 동인의 집중공격을 받아 실각·유배당함으로써 죄의댓가를 치뤘다고 보겠으나, 당시의 간관도 무고죄를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작을 보전하고 심지어는 청현을 출입하면서 태연자약하니 인심이 심히 통악할 만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아직도 살아있는 공론과 공분에 따라 그때의 대간을 삭탈할 것을 청하였다.[265] 그러나 왕은 이를 윤허하지 않고, 시공시찰(緦功是察)이라 하여 사소한 일로 치부해 버렸다. 이에 그는 수차에 걸쳐 계를 올렸으나 모두 허사였다. 왕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양사(兩司) 그리고 개인의 상소가 연일 대간을 치죄할 것을 요청하니 결국 왕도 굴복하고 말았다.

정여립모반사건이 학통과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모당의 당쟁 혹은 정치적 갈등에 대한 가치기준은 항상 도덕적 명분논리에 두어졌다. 즉 성리학의 가치규범 및 행동양식이 그의 정치활동에 어떠한 실질적 정향을 갖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구양수나 주자의 붕당론에 바탕을 둔 당론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가 아니라 경연에서의 진강(進講)이나 언관에 의한 간쟁을 통하여 치도를 정착시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공론에 관계없이 자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당쟁의 폐해를 척결할 것을 극력 주장하면서 대간의 역할을 붕당의 폐해를 막는 가장 긴요한 방법으로 생각했다. 정여립에 대한 인식 및 최경영에 대한 무고에 대한 계사를 통하여 그가 반드시 학통에 따른 편당적, 반주자

265) 「모당문집(慕堂文集)」, 소답(疏劄), 대사헌계사(大司憲啓辭)

학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학통(혹은 도통)에 있어서는 모당의 스승인 행촌 자신 뿐 아니라 그의 동문인 석탄 이신의(石灘 李愼儀)의 경우도 은둔하거나 견중(堅中)하는 보신적(保身的) 태도를 보임으로써 동일한 학통 내에서도 일면 다소 상이한 학문적, 사상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모당은 붕당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국가가 불행히도 사론이 둘로 나뉘어 뿌리가 없고 이치없는 말은 붕당에서 싹트니, 수십년 이래로 고질이 되어 분열이 이미 심하고 상호 기울어져 모이고 있다. 국사가 날로 그릇되고 공의가 흔적도 없어 이백년의 종사가 날로 위미퇴패한 데로 나아가 수습할 수 없는 것은 실로 여기에서 근원하는 것이다.[266]

위의 글은 61세에 홍문관부제학으로 올린 차자의 일부분이다. 그는 사론과 공의가 형성이 안되는 것은 붕당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하였다. 사림의 공론형성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붕당으로 인해 대신이나 대성의 신하가 치인지도를 밝히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빚어지는 폐해는 종사의 위기로까지 발전해[267] 현재 그 위험수위는 마치 중유파선(中流破船)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즉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붕당의 폐해를 알고 이를 타파하고자 하였고, 붕당타파를 위해 천망된 제신들은 일정한 역할을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

---

266) 國家不幸士論携貳 不根無理之說 萌蘖於分黨 數十年來 展轉深痼 分裂已甚 互相頗軋 國事日非 公議掃地 使二百年宗社 日就於委靡潰敗 不可收拾者 實原於此 (「모당문집」, 소답(疏劄), 홍문관답자(弘文館劄子))

267) 붕당의 폐는 모당이 그의 제자들에게 계칙(戒飭)하는 가운데 편당은 반드시 인가를 망하게 하고 국가는 큰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고 하여 모당의 붕당에 대한 폐해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였다.

이 실패하고 오히려 공론이 분분하고 탄핵이 이어지는 등 당쟁이 격화되었다. 따라서 충성을 다하고 간관의 역할을 다하여도 쓰이지 아니하고 염치를 알고 명절(名節)을 사랑하는 신하도 물러날 뜻이 있어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신(大臣), 특히 삼공(三公)과 간쟁하는 신하 그리고 전랑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

그는 삼공의 부재가 목전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대신은 인주(人主)의 팔다리인데, 사람이 팔다리가 없으면 하루라도 제대로 사람구실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낭묘(郎廟)가 오랫동안 비고 온갖 규찰이 계통이 없으며 군국서무가 모두 타락한 것도 모두 거기에서 발단된 결과이다. 그리고 순국애군(循國愛君)의 정신이 있는 국가의 원로들도 국정운영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회하고만 있으니, 이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도 대신의 책임이 전중하지 못하고 체모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당계도 낮아지고 국체도 엄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그는 경각에 달려있는 종사의 위기의식과 함께 당쟁의 폐단이 심각한 지경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 파당적 이익과는 무관한 '염치를 알고, 명절을 사랑하거나, 충성을 다하고, 순국애국의 정신이 있는' 신하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에 의해 아직은 정치적 부패, 타락의 쇄신의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하의 전일(專一)한 역할은 군주의 인신(仁信)에 있다. 군주가 인신(仁信)하면 신하가 의(義)와 충(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당이 바라보는 당시의 정치상황에서의 군신관계는 천위의 출척을 신하가 두려워한다거나 붕당의 폐단을 수수방관하고 혹은 마치 당이 같으면 다른 당을 치고, 공에 의탁하여 사를 구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인촌(人村)의 수습은 국

가의 대무(大務)인데, 아첨하는 무리들이 앞을 다투어 국가가 서지 못하는 당시의 형국을 그는 '가시'(棘)라 규정하였다. 「예기(禮記)」를 보면,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를 공(公)으로 삼으며, 어진 이와 재능있는 이를 뽑아 일을 맡기며, 신의를 강(講)하고 화목을 닦도록 한다.'라고 하여 현능자, 즉 인재의 발굴이 대동사회 건설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대동사회의 건설이라는 유고정치의 이념적 지향은 도학을 숭상하는 사림의 위정(爲政)의 목적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치인지도를 아는 인재의 수습이 반드시 요청되었으며, 이는 군주의 심과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모당은 주자(朱子)가 말한 것처럼 '천하의 대본(大本)은 인주(人主)의 심(心)에 있으며, 치심(治心)의 요체는 성의정심지학(誠意正心之學)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것이 모든 의리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개성유수로 나가기 전 광해군이 인견한 자리에서도 그는 조정 안의 붕당의 화를 역진하였다. 광해군이 '하북(河北)의 적은 제거하기 쉬워도 붕당을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하니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그는 정색하여 말하기를, '이는 조정을 혼탁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입니다. 인군이 먼저 본원의 바탕을 세워서 사정을 분별하면 당화는 저절로 살아질 것입니다.'라고 하며 다시 대학의 성의정심과 홍범구주(洪範九州)의 건극(乾克)을 극론하였다. 이처럼 그는 당쟁의 화를 제거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서 군덕에 의한 치인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광해군의 정치 행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전하가 평일에 존양성찰 해야 하는데 강연을 폐한지 오래고 신료들을 만나는 것이 드물며 좌우에 모시는 자들이 환관과 궁첩이니'라고 하여 군주의 치심을 위한 존양성찰이 급선무인데, 강연을 폐하고 신하들의 충언을 기피하는 등 수명자(受命者)로서의 군주가 천도(天道)를 상실한 국면으로 생각하고 있

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군주가 근원을 맑게 하고(澄源) 근본을 바르게 하는 공을 다하며 체건가공(體乾加工)할 것을 청하였다. 그렇게 하면 천의(天意)가 스스로 돌아와 시폐(時弊)와 재이(災異)가 일어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모당의 정치질서확립의 이론적 근거는 의리론이었다. 사림은 군왕을 정치의 주체로 상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이념달성을 가능토록 하는 삼사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매개로 강력히 전개하였다. 모당 역시 언로의 개방은 소당연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서 언관의 순기능이 가능하며, 이것은 정치적 주도권의 쟁패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의리와 명분에 두어진 도학의 실천이며, 군신에게 공히 적실해야 할 의무였다. 따라서 모당은 학통에 관계없이 군주의 심학을 포설하는 등 성리학의 본질적 이해에 접근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스승인 습정선생의 영향이 있었다. 행촌은 '수십년 동안 선비들의 당론이 둘로 갈려 시비가 서로 엇갈리는 때라 비록 명인석사라 할지라도 이 무리에 지목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탁연히 지켜 시종 흔들리지 않아 일대의 완인이 되기에는 오직 선생 한 분뿐이었다.'[268]고 하여 역시 편당하거나 당론에 휩쓸리지 않아 홀로 우뚝 섰다고 하는 모당에 대한 사림의 평가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2) 향촌교화

모당은 향촌질서의 확립과 폐습의 제거는 먼저 교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형법으로 각종의 폐해를 척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269] 향촌교화는 사림의 지배질서 구축 및 안정책의 일환으로 향사례, 향음주례를 통한 양반의 결속을 도모하는 가운데 향약의

268) 「습정선생민공묘비명(習靜先生閔公墓碑銘)」, (홍가신(洪可臣) 찬(撰))
269) 「모당문집(慕堂文集)」, 행상(行狀)

실시와 양로회의 설연 등 가정과 사회의 윤리 및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데서 이루어졌다. 모당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모에 대한 봉양이 지극하여 우로(優老)와 양로(養老)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모당이 54세(1602년)때인 6월에 안동부사에 배해졌을 당시 그의 치성(治聲)은 자못 자자하였다. 그때 10월 16일에 계유사마(癸酉司馬) 합격자들의 회연이 안동관아에서 있었다. 이들은 모두 영남 및 안동인이 13인이요, 호남인이 15인이었다. 무가가 밤을 이어서 계속되었으며, 이를 본 부로(府老)들은 '사군지효(使君之孝)'요, '인간의 성사(盛事)'라고 차탄하였다. 이때 월성 이시발이 계유방중(癸酉榜中)의 일원으로서 발문을 지었다. 이 발문에서 이 모임이 계유사마 당시의 득이(得人)으로 일컬어진 모당과 월성의 상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한 번 헤어진 이후로 만나지 못한 벗들이 함께 모이는 성(盛)함을 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특히 모당의 경우는 장소를 안동관아로 정한 것과 참석자들이 당에 올라가 봉수(奉壽)하고 무가가 밤을 이어 계속되는 등 모친을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모당의 우로(優老)는 수연(壽宴)을 축하하는 시로서도 표현되어 몇 수를 남기고 있다. <경차월천수석운(敬次月川壽席韻)>, <경수연후기시동린(慶壽宴後寄詩同隣)>, <수석제증윤통판<壽席題贈尹通判)>, <차홍옥헌수석운(次洪玉獻壽席韻)>, <수석차송좌랑인급운(壽席次宋佐郎仁及韻)>3수 등이 그것이다. 그 중의 하나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春萱八十一堂中　팔십일세 되신 어머님 거처하시는 뜰 가운데
鼓笛喧喧沸晩空　북과 피리소리가 어우러져 늦은 하늘에 가득하구나
歌詠還慚謝康樂　노래소리 도리어 사령운에게 부끄럽고
親朋幸遇郭林宗　친한 벗 그대 곽림종을 다행히 만나

只緣惠好遇臨遠　인연이 고맙고 좋아서 멀리서 오고
更覺衰遲臭味同　다시금 늙었서도 냄새와 맛이 같음을 깨달았네
莫怪當筵狂熊足　자리에서 미친듯한 곰의 발을 괴이히 여기지 말고
肯將今日換三公　이제야 삼공과 바꾸어도 좋으리라
<차홍옥헌수석운(次洪玉獻壽席韻)>

모당의 우로(優老)는 다음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1602년에 이거의 모가 100세로 은전을 입은 것을 계기로 참판 한겸준이 노친을 위해 설연하여 칭헌수작할 것을 상달하고 경연에서 연수의 지급이 특허되었다.

이에 계를 조직하고 절목을 마련하였다. 계원은 13인으로 재열에 이른 자들로서 진흥군 강신(晋興君 姜紳), 금계군 박동량(錦溪君 朴東亮), 판서 윤돈(判書 尹暾), 동지 홍이상(同知 洪履祥), 참판 한준겸(參判 韓浚謙, 참판 남이신(參判 南以信), 동지 이거(同知 李遽), 진창군 강인(晋昌君 姜絪), 여흥군 민중남(驪興君 閔中男), 참지 윤수민(參知 尹壽民), 주부 이원(主簿 李遠), 익위 강담(翊衛 姜紞)이 그들이었다.[270] 이를 구경하러 모인 자들이 태평성거광(太平盛擧曠)이라 하였다. 이후 모당은 외관으로 나아가면 봉수연을 자주 설행하였던 같다.

모당은 위와 같은 양로회의 설행 뿐만 아니라 학교 혹은 서원을 복원하는 등 교화에 힘썼다. 그가 춘천부사가 되었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학교를 일으켰다. 흥학은 물론 수령칠사 중의 하나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성유수 시 숭양서원의 복원이라든가 성균관대사성시 성균관의 복원 등 그는 학교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듯 모당은 학교를 일으키고 양로회를 자주 설행하는 등 위민정신에 입각한 향촌교화에 적극적이었다.

---

270) 이 봉수계(奉壽契)는 수연(壽宴)의 한 전례요, 미담이 되었다.(「대동야승(大東野乘)」 권 48, <응천일록(凝川日錄)> 5, 경오년 10월 13일조)

모당은 목민관으로서 향촌의 안정에도 노력을 다하였다. 41세에 그는 안무사로 황해도 해서지방에 나아갔다. 역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심이 해이해지고 소요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모당은 덕의로써 위무하여 안집시키고 민폐를 조목조목 진술하여 모두 제거하니 백성들이 안도하고 그를 선정어사라 칭하였다고 한다. 또한 경기감사 시절에도 폐단의 제거에 노력하고 출척이 엄하고 밝아 생민의 안집이 이루어져 열군이 점차 안정되었다. 이런 모당의 위민은 중앙에서도 나타났다. 동부승지 윤선각이 왕자들이 전택을 광점하여 그 폐단이 심함을 항론하자 선조가 못마땅한 교서를 내렸다. 이에 모당은 선각을 두둔하고 나섰다. 왕자작폐는 그가 통민하여 진계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간곡히 설명하지 그제야 선조의 감정이 누그러졌다는 것이다.

(3) 임진왜란기의 구국활동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모당은 강원도 도순찰사의 종사관 겸 소모대장으로서 활약하게 되었다. 그는 통문을 발하여

> (전략) 당직은 일찍이 제독의 직에 있어 외람되게 스승의 직에 앉았으나 평시에 강론할 제 대의로써 가르치지 못하고서, 이제 난리의 때를 당하여서야 무리를 불러모으고자 의병의 선창이 되어 강토에 요망한 기운을 맑히기를 맹세하고 회복의 큰일을 성취하려고 하니, 이것은 자신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후략)271)

라고 하여 독서인인 선비로서 대의를 위하여 구국의 선봉에 서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는 '신자(臣子)로서 눈물을

271) 「모당문집(慕堂文集)」, 통문(通文), 강원도도순찰사종사관겸소모대장통문(江原道道巡察使從事官兼召募大將通文)

뿌리며 팔을 걷고서 창을 베개삼아 적을 쳐야 할 때임'을 천명하고 창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272]

이 같은 그의 위난에 처한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일념은 투철한 선비정신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선비는 국난을 당하여 충군구국(忠君救國)을 위해서는 의리의 명분을 생명보다 중시한다. 모당도 의를 위하여 떨쳐 일어설 것을 호소하고 스스로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니, 그의 임란기의 구국활동을 「왕조실록」을 통하여 일별해 보도록 하자.

1594년 8월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모당은 전쟁이 2년 경과한 와중에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인 경상도를 맡게 되어 그의 직위는 매우 중요함에 틀림없었다. 그는 당시의 전쟁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관련기사를 살펴보면, 의령에 진을 치고 있던 경상우병사 김응서가 왜사의 강화요청을 수락하여 본진의 왕래를 허용하였다. 그는 이를 우려하면서 이것이 아군의 동정을 염탐하기 위한 계략이니 회담장소와 방법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요동경략아문과 유독부의 영에 이자해야 함을 치계하고 있다.[273]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 중인 제장들의 군공에 대한 욕구로 허위보고가 발생하고, 이것이 곧 전쟁의 불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자 그는 이에 관한 정확한 진상을 보고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선조 27년 12월 1일부터 있었던 거제도에서의 조왜(朝倭)전투에서 마치 태산이 새알을 누르는 것보다 더한 아군의 극히 유리한 형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선과 왜군의 일종의 게릴라전법에 어이없이 패배한 사실에 대해 전혀 보고를 않거나 적세 혹은 군공만을 망령되이 늘어놓는 등 그 폐단이 심하였다.

---

272) 그러나 각지에서 의병을 각각 일으키니 용하는 수가 적었다고 한다.(「대동야승(大東野乘)」권 26, <난중잡록(亂中雜錄)> 1, 임진년 10월조

273) 「선조실록」 권 14 선조 27년 11월 계사조

더욱이 군공에 대한 제장들의 알력과 시기가 마치 초월동주(楚越同舟)격으로 몹시 통탄스럽다고 할 지경이었다. 이러한 모당의 치계에 따라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 체찰사 윤두수 등에 대하여 사헌부와 사간원 양사에서 탄핵하고, 이들의 정죄와 파직을 간하였다.[274]

모당은 전쟁의 와중에도 치도(治道)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한 예로 경상도의 사세(事勢)와 도리(道里)가 넓고 멀어서 감사 홀로 책응, 관리할 수 없는 폐단이 있으니 좌우 두 도로 따로 나누어 감사를 두고 일을 분장했으면 하는 계를 올리기도 하였다.[275] 이것이 받아들여져 모당은 좌도 감사가 되었다.

당시 전쟁에 의한 전답의 피폐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군량의 부족은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에 걸쳐서 야기되었는데 각 도의 관찰사는 군사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군량 확보와 구휼이 무엇보다도 절실하였다. 이때 모당의 장계를 보면 절약에 의한 군량확보계획을 말하고 있으나, 조정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별다른 계책이 없어 사세를 참작해서 조치를 극진히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남의 식량조달은 당초부터 두서 없이 문란하였는데, 모당에 의해 다행히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다.[276]

모당은 경상도관찰사로서 당시의 전세를 감안한 군량 및 군정(軍丁)의 확보책으로 그의 특유의 제도를 실시하였으니, 이것은 의승군제도(義勝軍制度)이다. 그는 전쟁에 대비하여 전답을 넓히고 의승군(義勝軍)을 설치하여 적당한 훈련을 시켰다. 이 의승군제도는 유민을 널리 초집(招集)하고 각 고을의 군병의 수효를 초록하여 윤번으로 입방(入防)시키며 그 나머지는 양식을 마련하여

---

274) 상동
275) 「선조실록」 권14 선조 28년 2월 정미조
276) 「선조실록」 권 14 선조28년 1월 정유조 ; 2월 기유조

공급하게 하여 군사의 농군(農軍)을 분별한 제도로서 일정기간 실효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도 이 제도의 실시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시행여부는 확실하지 않다.[277]

의승군제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이 제도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과 농사의 풍흉 정도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먼저 병농을 구분하여 9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납속책(納粟策)도 차등을 두어 실시함으로써 신역(身役)을 대신하게 하였는데 사대부와 공사천(公私賤)을 막론하였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모두 농적(農籍)에 등재하고, 구수(口數)를 헤아려 군역을 부과하되 곡식의 조만(早晩)과 선후 및 그 성숙도에 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빈부를 살펴 차등을 두고, 이에 따라 납세를 독촉하여 병민의 군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사서공천(士庶公賤)과 역(役)의 유무를 물론하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자는 군역의 대상이 되나 군(郡)의 대소에 따라 액수를 작정(酌定)하게 하였다.[278] 이러한 의승군제도는 당시의 병농일치제도가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하는 모순을 제거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로 대두된 모순이 군량의 부족이었던 것이다.

이 의승군제도는 당시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서애 유성룡은 방수(防戍)이 일에 대하여 계하기를 경상도의 진관군(鎭關軍)의 군량과 조발한 군사의 일이 전에는 문란하여 두서가 없었는데 관찰사 홍이상에 의해서 조리 있게 정돈되었다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279] 이렇듯 모당이 난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의승군제도를 실시하고, 의리정신을 실천하고자 한 것은 평소에도 의리

277) 「선조실록」권 16 선조 28년 9월 을해조
278) 「모당문집(慕堂文集)」, 연보
279) 상동

를 담론하면서 고식적이거나 무사안일한 태도에 젖지 않고 완전히 초월한 경지에 있었음을 말한다.

전쟁이 끝난 후 중국 측의 결정에 따라 왜인의 거류지로서 부산이 허용되자, 모당은 이의 부당함을 중국사신에게 정문(呈文)하였다. 여기에서 그의 대외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정문의 내용을 옮겨보면,

> 조선국 배신(陪臣) 홍이상은 성유(聖諭)를 받드는 일로 말씀드립니다. 원래 약속한 세 가지 이외에는 다시 달리 요구하지 않고 한 명의 왜인도 남지 말아야 책봉사(冊封使)가 가서 봉하라는 명지(明旨)를 받들었으니 이를 삼가 준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비직(卑職)이 듣건대, 부산에 배를 대고 기다리는 왜인을 머물려 두어 통행에 편리하게 하려 한다 합니다. 비직이 전해 들은 말을 조회해 보니 다 믿을 수는 없었으나 이쪽 강토와 저쪽 경계에는 본래 정한(定限)이 있어 관진(關津)과 하해(河海)에 각기 주관하는 자가 있으므로 책봉사가 도해(渡海)한 뒤에 공차(公差)로서 일본에 간 조선의 선장(船裝)은 대마도에 도착하였다가는 즉시 돌아오고 공차로서 일본에서 돌아오는 대마도 선장도 부산에 도착하였다가는 즉시 돌아가는 것인데, 어찌 반드시 부산에 왜인을 머물려 둔 뒤에야 통행에 편리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를 대마도에 머물려 두면 저들이 반드시 좋아하지 않을 것인데 저들을 부산에 머물려 두는 것을 우리가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종족이 아니면 혐극(嫌隙)이 생기기 쉬운 법이니 근원을 뽑아버리는 것은 바로 이때에 달려있습니다. 바라건대 노야(老爺)는 유격 심유경에게 공문을 보내어 만을 왜적이 과연 이러한 요구를 한다면 명지를 준봉하여 의리에 의거해서 바로 끊어버리어서 뒷날의 재앙을 끼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진실로 편익하겠습니다. 경계와 관진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므로 갖추어 정문(呈文)합니다.[280]

라고 하여 그는 전쟁 후의 왜의 부산 거류지 설정이 국경과 무역관계에서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을 예견하고 그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조선의 대왜정책(對倭政策)은 회유책의 일환인 교린관계로서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왜의 전쟁도발로 그 의미는 이미 사라졌다. 따라서 왜인의 국내 거류지 설정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 문제는 명(明)의 선택에 좌우되어서는 안될 조선의 주권의 문제로서 주체적 독자적인 결정을 요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맺 음 말

이상을 통하여 조선시대의 사림파의 한사람이었던 모당 홍이상의 생애와 사상, 학문, 정치활동 등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그의 생애의 전과정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형성된 도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점찰되어 있었다. 자연을 즐기면서 시와 더불어 안자(顔子) 혹은 행촌의 안빈낙도를 연민했으며, 정계에서는 성품이 개절강직하여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고 직간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다.

그의 사후 사관의 평을 들어보면,

> (전략) 선조(宣祖)가 강관(講官)의 제일이라 칭하였으며, (중략) 사람됨이 다방온아하고 논의가 치우치지 않으며, 혹 조정의 대의를 만나서 곧음을 유지하여 꺾이지 않았다.(후략)[281]

라고 하여 군주와 신하의 의리를 항상 강조하고, 당쟁의 폐해를

---

280) 「선조실록」 권16 선조28년 12월 신축조

281)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정족산본(鼎足山本) 권95, 광해군 7년 9월 임진조

군신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척결할 수 있음을 누차 주장하였다. 신하는 간관과 전랑의 그들의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하며, 군주는 신하의 직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도량을 지니고 이를 위해서는 심학(心學), 즉 성의정심지학(誠意正心之學)에 충실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처럼 그가 간관의 역할을 가장 중시한 것은 당시의 사림이 언관기능과 개인적인 상소 등을 통하여 군주의 자의적인 통치행위를 견제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실천적 지향과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림이 그를 평하기를, '편당하지 않고 일대 완인으로 우뚝 섰다'고 하는 것도 그의 높은 학문적, 도학자적 수준을 현실정치에 적용, 실현코자 하는 사림정치의 본질에 접근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라든가 개인적, 집단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파쟁을 일삼는 데서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사림이 표방한 도덕정치의 이념추구를 위해서 간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의 불편부당(不偏不黨)은 학통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그의 사우(師友)가 모두 중립을 고수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화담이 둔거하였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행촌 민순 또한 고양에 퇴거하여 후학의 양성에만 매진하였다. 그리고 모당과 교우관계이었을 석탄 이신의도 당파에는 거의 무관심할 정도이었다. 그러나 정여립모반사건에서 연루자로 죽임을 당한 이발이 행촌을 종유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자체를 학통과의 관계선상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경향도 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동일한 학문계통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다양한 부류들이 혼재해 있었다. 따라서 오히려 이 사건은 성리학의 정착단계 및 과정 그리고 당시의 전반적인 정치적 상황이 심도있게 천착된 후에 관조하는 것이 보다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549. 9. 18. 정묘시(丁卯時). 고양면 고봉 아래 귀이동에서 태어나시다.

1551년 (3세) : 용모가 단정하고, 외연숙성(巍然夙成)하여 아이의 행동거지가 아니니 보는 자가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1552년 (4세) : 글자를 알아서 사략을 배우기 시작함.

1555년 (7세) : 봄여 참판 이식(參判 李栻)이 문달산(聞達山) 아래에 거함을 듣고 찾아가 배움을 청하니, 참판공이 그 비상함을 아는지라 소학을 가르쳐 암송케 하니 한자도 틀리지 않았다

1556년 (8세) : 이참판 댁까지 10여리의 길을 풍우한서에도 아랑곳 않고 폐한 적이 없이 공부에 열중하였다.

1557년 (9세) : 사략, 소학, 시서대문(詩書大文)을 통하다.

1558년 (10세) : 한결같이 소학을 지키니 친척이 보고 놀랐다.

1559년 (11세) : 사서이경(四書二經)의 대문(大文)을 읽고 문의가 통하다.

1560년 (12세) : 홀로 서울에 내우(來寓)하여 주야로 학문에 정진하기를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다.

1563년 (15세) : 사서삼경을 모두 읽는 것이 삼사백편을 넘으니 드디어 대유(大儒)를 이루다.

1564년 (16세) : 시험에 합격하여 향교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스승을 찾아 도를 듣는 것에 뜻을 둠.

1568년 (20세) : 봄에 행촌 민순(杏村 閔純)선생이 개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왕종(往從)하여 사서 및 선유(先儒)의 성리지서(性理之書)를 강론하였다. 심오한 뜻을 연구하고 의리를 탐색하였으며, 경(敬) 한자로서 함양지지(涵養之地)를 삼았다. 재 문생이 모두 그를 존경하고 행촌도 흐뭇하여 미치지 못할까 여겼다. 이때부터 그의 명성은 자자하여 그를 찾는 사우(士友) 및 거경(鉅卿)이 매우 많았다.

1569년 (21세) : 안동의 김부인에게 장가드시다.

1570년 (22세) : 참판 이경유(李敬裕)에게 시집간 장녀를 낳다.

1573년 (25세) : 친병(親病)과 집안의 가난으로 뜻을 버리고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시다. 악록 허성(岳麓 許筬)과 구암 우복룡(懼菴 禹伏龍)과 함께 태학에 들어가시다. 장자 방(雱)이 태어나다.

1575년 (27세) : 악록, 구암과 승가사(僧伽寺)에 모여 시축(詩軸)이 있었다.

1577년 (27세) : 이자(二子) 립(霖)을 낳다.

1578년 (30세) : 정시(庭試)에 합격하에 문과에 직부(直赴)하시다.

1579년 (31세) : 전시에 1등으로 합격하시다. 예조좌랑에 배해졌으나 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아우 오상, 봉상(鳳祥)이 연벽(聯壁)하여 사마시 생원에 합격하다.

1580년 (32세) : 봄에 호조좌랑에 배하다. 여름에 사간원 정언이 되시다. 가을에 체직되어 성균관 전적에 배해지고 동지서 서장관으로 부경하시다.

1581년 (33세) : 봄에 형조좌랑에 배하시다. 여름에 홍문관수찬지제교겸경연검토관춘추관기사관에 선입(選入)되고 경연에 입시하시다. 6월 초 8일에 찬성공이 돌아가시고 10월에 고양 성동(城洞) 선영에 장사지내다.

1582년 (34세) : 삼자(三子) '집'이 태어났다.

1583년 (35세) : 상이 끝났는데도 극진한 사모함이 그치질 않아 자호를 모당이라 하여 영원한 경모의 뜻을 붙였다. 성균관 전적에 배해지다.

1584년 (36세) : 수찬겸경연검토관춘추관기사관에 배해짐. 겨울에 병조좌랑에 배해졌으며,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율곡 이이가 천거하여 이조좌랑에 배하다. 사가(賜暇)하였다. 호당(湖堂)이 경서를 교정할 유신을 천선하니 공도 이에 참여하시다. 상(上)이 삼공에게 명하여 당하문관 중에서 학행과 재망이 있는 자를 각각 천거하라 하니 임당 정유길(林塘 鄭惟吉)이 공을 수천(首薦)하시다. 사자(四子) 영(瀅)이 태어나다.

1585년 (37세) : 봄에 경시관(京試官)으로서 호남을 왕래하였다. 돌아와 홍문관교리에 배해졌다. 사헌부지평에 이배되시다. 아우 봉상이 식년문과에 합격하다.

1586년 (38세) : 이조정랑 겸 교서관교리에 배하시다. 지평 조숙(趙淑)에게 시집간 이녀(二女)가 태어나다.

1588년 (40세) : 봄에 감시시관을 파직당하고, 학관에 배하시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조정랑에 서용되시고, 정체되어 성균관직강, 사헌부집의에 숭배, 홍문관응교에 체배, 의정부사인검상사복시정에 이배되시다.

1589년 (41세) : 봄에 사간원사간에 배하시고, 또 의정부사인사헌부집의에 배, 의정부사인을 체수, 사간원사간에 이배, 사복시정에 체수되시다. 가을에 사간원사간사헌부집의에 배하시다. 겨울에 안무사로서 황해도 해서 일도에 나가시다.

1590년 (42세) : 돌아와 의정부사인겸선위사에 배해졌으나 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헌부집의 사간원사간의정부사인사제감첨정사복시정을 체수하시다. 겨울에 의정부사인에 배하시다. 오자 태어나다.

1591년 (43세) : 3월 직제학, 4월 승정원동부승지겸당상호당에 숭배되시다. 상(上)이 삼공에게 명하여 재보(宰輔)로 합당한 사람 6인을 당상중에서 천선하라 하니 공도 그 중의 한사람이다. 6월에 우부승지에 오르시다. 7월 어필(御筆)로 이조참의에 제수되시다.

1592년 (44세) : 봄에 일로 인하여 파직당하시고, 4월에 예조참의에 배하시다. 왜란으로 대가(大駕)가 서행(西幸)하실 때 공이 호가(扈駕)하시다. 5월 초 1일에 동파역(東坡驛)에 도착하였는데 부제학에 배하시다.

1593년 (45세) : 여름에 사간원대사간에 배하시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성절사로 부경하시다. 겨울에 돌아오니 우승지에 배하시다. 12월에 좌승지 또 우승지에 배하시다.

1594년 (46세) : 6월 좌승지, 8월에 가선에 특승되시고 경상도관찰사에 배하시다.

1596년 (48세) : 봄에 경상도감사 사체하시고, 중추부사겸비변사당상에 부하시다. 7월에 경기감사에 배하시다.

1597년 (49세) : 겨울에 중추부사로 체부되시다. 11월 동지중추부사, 형조참판, 부제학겸비변사유사당상에 배하시다.

1598년 (50세) : 8월 한성우윤, 12월 홍문관부제학겸비변사유사당상에 배

1599년 (51세) : 3월 한성좌윤, 6월 충좌위상호군에 체부되시다.

1600년 (52세) : 7월 호군겸만경리접반부사, 8월 성균관대사성에 배하시다.

1601년 (53세) : 정월 상호군에 체부, 9월 겸세자좌부빈객

1602년 (54세) : 정월 호조참판사헌부대사헌에 배, 4월 상호군에 체부, 6월 안동부사에 배하시다.

1603년 (55세) : 통감을 간행하시다.

1604년 (56세) : 9월 관직을 버리고 귀향함. 12월에 호조참판에 배, 성균관대사성에 이배, 장손 주일(柱一)이 태어나다.

1605년 (57세) : 4월 동지중추부사에 배, 호조참판에 이배. 장자 방이 중공무과에, 사자(四子) 영이 사마시 생원에 합격하다.

1606년 (58세) : 봄에 성균관대사성에 배, 5월 부호군에 체부하시다. 삼자(三子) 집과 조카 정(霆)이 사마시 생원에 합격하다.

1607년 (59세) : 2월 청주목사로 출수하시다.

1608년 (60세) : 10월 사간원대사간에 배하시고, 중추부사에 체부되시다. 11월 사헌부대사헌에 특배되시고, 12월 홍문관부제학에 배하시다.

1609년 (61세) : 여름에 사헌부대사헌에 배, 성균관대사성에 체배, 대사헌에 배, 가을에 사헌부대사헌에 배하였으나 친병으로 사체되시다. 10월 초 7일에 대부인 백씨가 돌아가시다.

1611년 (63년) : 복상이 끝ㅌ나자마자 부제학겸여고에 배했으나 사양하여 호군에 체부되시다.

1612년 (64세) : 봄 사간원대사간에 배, 사체. 여름 성균관대사성겸동지춘추관사에 배하시다. 9월 개성유수로 출위하시다.

1615년 (67세) : 9월 19일에 졸하시다.

석탄 이신의(石灘 李愼儀)의 생애와 사상

임 민 혁

머 리 말
1. 가계(家系)와 성장과정
2. 학문적 연원(淵源) 및 사우관계(師友關係)
3. 정치적 활동과 사상
(1) 정치적 활동과 위민정신(爲民精神)
(2) 도학정치의 실천
맺 음 말
연보

머 리 말

이신의(李愼儀)는 자(字)가 경칙(景則), 호가 석탄(石灘)이며,[282]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어 과거를 통한 관계진출을 거부하고 구도(求道)에 힘쓰다가 34세(1584년)에 스승인 행촌 민순(杏村 閔純)의 권유로 처음 사로(仕路)에 나아갔다. 그러나 2년 후에 관직을 그만두고 향촌에 묻혀 지내면서

282) 이신의는 맏아들이 태어났을 무렵인 27세(1577)에 교외의 석탄에 양소당(養素堂)이라는 서실(書室)을 지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두루 소나무를 심어 숲을 배회하면서 성리(性理)에 침잠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부터 그는 스스로 석탄한인(石灘閑人)이라 호칭하고 석탄(石灘)을 자호(自號)로 삼았다고 한다.

「대학차록(大學箚錄)」과 「가례차록(家禮箚錄)」을 짓는 등 학문 활동에 전념하였다.

석탄은 42세(1592년)부터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구국(救國)과 도학정치(道學政治)의 구현을 위한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임진왜란, 이몽학의 반란 등에서 군공을 세우는가 하면,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출사건에 대한 패륜적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봉사를 올려 병국(病國)의 근원과 그 치유책을 논리정연하게 펼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석탄의 생애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기는 도학에 심취하여 수신에 힘쓴 시기요, 후기는 사림파 유학자로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시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석탄의 생애는 사군자의 대절(大節)인 선비의 출처거취(出處居就)를 철저히 이행하는 선비의 정신 및 정치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수신을 우선한 후에 치인에 힘쓰는 그의 인간존재적 가치추구는 도덕적·의리적 윤리관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성리학자들은 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요순시대의 도학정치에 두었다. 그러므로 사림은 우선적으로 이상적인 인격체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기(修己)와 수도공학(修道攻學)을 첫째의 요건으로 삼았다. 그리고 성리학 의리를 구현하는 치인(治人)은 지치주의(왕도정치)를 지향하였음은 물론이다. 석탄도 상소나 봉사 등에서 군주가 '대순(大舜)의 심(心)'과 '대순(大舜)의 도(道)'를 체용(體用)으로 삼을 것과 '심학'을 강조하는데서 그의 경세관과 도덕정치 추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군주 중심의 지치추구는 의례의 뜻인 정통(통서(統序)를 바로함) 의식에서 발로한 것 같다. 말하자면 가통(家統), 족통(族統), 왕통(王統), 종통(宗統), 국통(國統) 등의 질서를 바로잡는 의례의 기능을 통한 예치의 실현이었다.[283] 16세기 퇴율단계에서 심화된

283) 유사순, <조선조 예(禮)사상의 연구>, 「한국유학사상론」, p.73~74 참조. 이러한 '종법질서', '정통'의식은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에 의해 확립되

이기론과 심성론이 수기에 중심이 두어진 이론이었다면 인조반정 후 사림이 정계의 주도층이 되어 예치를 정치의 기본으로 설정한 17세기 이후에는 예론의 주요관심사가 치인에 비중이 두어졌던 것이다.[284] 석탄의 심학적 학문태도와 예학의 깊이를 보건대 그도 이러한 조선 성리학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석탄은 그의 생애의 두 줄기의 특징적 성격을 지니면서 도학자적 정신에 철저한 인물이었다. 그의 도학정신은 정치이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목민관으로서 득민(위민)과 교화에도 희생을 다하는 다원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석탄은 당시 사림계열의 학문적 본질과 정치에 대한 인식 및 그 사상의 일면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석탄이 당시의 정치사회적 변화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의 도학정치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리고 성리학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외에 본고에서 다룰 내용들은 석탄의 생애, 사우관계 그리고 관력 등이다. 특히 고양8현 중의 한사람으로서 고양군 내에서의 석탄의 학문적, 사회적 위치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자료가 영성하여 언급치 못하게 됨이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1. 가계(家系)와 성장과정

이신의는 명종 6년(1551) 4월 9일에 한성부(漢城府)에서 태어

었으며(김장생, <전예문답(典禮問答)>, 「사계전서(沙溪全書)」권21 참조), 석탄과 사계의 교우관계로 보아 그의 학문적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84) 정옥자(鄭玉子), <17세기 사상계의 재편(再編)과 예론(禮論)>, (「한국문화(韓國文化)」10, 1989), p.213 참조

났다. 전이이씨(全義李氏)의 시조는 도(棹)(초휘(初諱)는 도(稻))로서 그의 명(名)은 고려 태조의 스승이 금강(錦江)에 행차하였을 때 말을 채찍질하여 따라가서 그를 보호하여 건너게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여(賜與)되었다고 한다.

그는 개국공신으로 훈관(勳官)이 삼중대곡태사에 이르렀다. 이후 여조기간(麗朝期間)에는 가문의 영현(榮顯)이 계속되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12세손인 구(龜)는 벼슬이 한성윤(漢城尹)에 이르렀으며, 그의 자(子) 진간(眞幹)은 호조정랑(戶曹正郞)으로 이 분이 이신의의 오대조(五代祖)가 된다. 고조 굉식(宏植)은 구례현감(求禮縣監)이요, 증조 익희(益禧)는 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이었다. 이처럼 석탄의 가계는 시조 이래 종사(從仕)가 끊이지를 않았다. 부조(父祖)대에 이르러서도 사환(仕宦)은 계속되었으며, 특히 부(父)와 석탄의 형제들은 남다른 특징적 성격들을 보여주고 있다.

석탄의 조(祖) 간(侃)(참의공(參議公))은 연산조에 선공감역(繕工監役)이었다. 그러나 연산군의 난정(亂政)을 부끄러이 여긴 그는 조정에서 물러날 정도로 곧고 강직한 인물이었다. 문장도 있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 후에 호조참의를 증직받았다. 그의 자 원손(元孫)은 명종조에 초사(初仕)하여 옥당에 있었는데, 이이가 바로 석탄의 부친이시다. 그는 윤원형(尹元衡)을 탄핵하였다고 하여 이후 계속 사진(仕進)치 못하였다. 윤원형은 명종의 생모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친동생으로 명종연간에 외척으로서 정권을 농단한 권신이다. 그는 이기, 정순명 등과 모의하여 대윤 윤임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을사사화(1545년, 명종 즉위년)를 일으켰으며, 이것은 당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그를 원손이 옥당의 문신으로서 탄핵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기개가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후 외직에 보임되기도 하였는데, 그는 퇴계(退溪) 및 제현(諸賢)과 교유하여 시를 창수(唱酬)하기

도 하고 약간의 시도 남겼다고 한다.[285] 이러한 사실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퇴계나 동시대의 인물로서 그와 교우관계에 있었거나 저명한 학자로서 당세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와 부의 청풍준절하고 강직한 성품은 석탄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석탄의 부는 그의 나이 4세되던 해에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석탄은 부(父)의 후(後)비 종실처인도정(宗室處仁都正) 성종(盛終)의 여(女)이며, 공정대왕(恭靖大王)의 현손녀(玄孫女)인 정부인(貞夫人) 이씨(李氏)에게서 태어났다. 전(前)비는 밀양박씨(密陽朴氏)이다. 석탄은 부(父)를 일찍 여의었을 뿐만 아니라 10세(1560) 때인 3월에 모(母)인 이씨까지 졸하여 어려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란 그는 주위에서 과거의 응시를 권하면 부모를 일찍 여읜 것에 대한 회한으로 등과(登科)한들 그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과거에 응시하지 아니할 정도로 부모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었다. 그의 17세인 1567년에 명종이 승하하니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읜 죄인으로서 국상(國喪)을 당하매 군친(君親)을 일체(一體)로 여기고 성긴 음식을 먹으며, 밖에서 잠을 자면서 3년의 상을 다할 정도이었다.

석탄은 백씨(伯氏)의 손에 의해 정의(情義)를 다해 무애(撫愛)되었는데 이것이 성덕(成德)의 기초가 되었다[286]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유년기의 성장과정에서 백씨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백씨인 선전공(宣傳公)은 글에 관통하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지기가 호매하여 유업(儒業)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궁마를 익힌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석탄과 계씨인 목사공(牧使公)(이신충(李愼忠))에게 날마다 이를 권하여 가로되 남아가 세상에 나

285) 「석탄집(石灘集)」곤(坤), 세덕(世德)
286) 「석탄집(石灘集)」곤(坤), 행상(行狀)

서 마혁나시(馬革裸屍)를 배워야 하는데 어찌 창을 향하여 독서를 하여 부유(腐儒)를 만드는가 하였다고 한다. 그는 외구(外舅)인 판서 원이검(元李儉)이 천거하여 사산감역(四山監役)으로 삼고자 한 사실에 대해 처가에 의지하여 작록(爵祿)을 받을 수 없다[287]하고 세이(洗耳)(더러워진 귀를 씻음 : 필자주)할 정도로 강고한 의지를 지녔다. 이러한 백씨의 권고에 목사공은 투필하였으나 석탄은 더욱 학업에 정진하였다. 목사공 또한 임진란 때 길천목사(吉川牧使)로 왕자를 보호하다가 왜적의 포로가 되었는데 불굴의 정신으로 절개를 지킨 인물이었다.[288]

석탄은 20세(1570)에 승훈랑 응용(承訓郞 應龍)의 여식인 경주이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26세(1576)에 맏아들 정길(貞吉)이, 39세(1589)에 안길(安吉)이 태어났으며, 2녀를 두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나이 71세에 선무랑(宣務郞) 정길의 상을 당하고, 나머지 1남 2녀도 병자호란 때 모두 죽어 후사가 없는 등 후대의 가문의 영락성을 보였다.

석탄은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扈從)하여 강도(江都)로 가는 도중 병이 심하여 77세(1627) 7월 16일에 수원 마정리(馬井里)에서 돌아가셨다. 문봉서원에 배향된 시기는 숙종 45년(1719)으로 고양유생 신비(申泌) 등의 상소로 이루어졌다.[289] 그 이전에도 석탄의 추향소(追享疏)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경종연간에 도승지까지 오른 홍계적(洪啓迪)이 찬한 '고양장보추향문봉서원소(高陽章甫追享文峯書院疏)'[290]가 있은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위판(位版)은 그 이듬해에 봉안(奉安)되었다.

현종연간에는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출사건시 정청에 참여치도

287) 상게서, 세덕(世德)
288) 상게서, 연보
289) 「서원등록(書院謄錄)」권5, 숙종45년(기해) 9월 18일조 ; 상게서, 연보
290) 「석탄집(石灘集)」곤(坤)

않고 헌의입절(獻議立節)한 제신(諸臣)에 대한 증시(贈諡)가 이루어졌다. 석탄도 현종 11년에 조복양(趙復陽)의 청에 의해 증시의 허락이 내려졌다.[291] 그러나 시장(諡狀)이 없을 뿐 아니라 자손의 유무가 불확실하여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숙종 9년 우의정 김석주(金錫胄)가 증시 이전에 정경(正卿)에 가(加)하여 정이품으로 증자(增資)할 것을 청하고[292] 이듬해에는 영부사 김수흥(領府使 金壽興)이 재청하였다.[293] 이에 따라 자헌대부이조판서(資憲大夫吏曹判書)에 증직되었고,[294] 다음해 8월에 문정(文貞)의 시호가 내려졌다.[295] 그리고 그는 문봉서원 이외에 영주 15년 괴산(槐山)의 화암서원(花巖書院)에도 추향되었다.

2. 학문적 연원 및 사우관계

석탄은 어려서부터 경서읽기를 좋아하여 이미 그 대의를 통했다고 한다. 심지어 진신(縉紳)이나 노성(老成)한 사람이라도 의난(疑難)한 점이 있으면 와서 질문을 하곤 했다는데, 이를 본 초당 허엽(草堂 許曄)은 석탄을 애중(愛重)하였다고 한다.[296] 이로써 석탄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초당으로부터 체계적인 학문 및 수양방법을 전수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석탄은 자라면서 행촌 민순(습정선생(習靜先生))의 학문이 연원이 있음을 듣고 16세(1566)에 그의 문하의 취학함으로써 행촌이 타계할 때까지 약 20여년동안 구도(求道)에 전심(專心)하였다. 행촌은 벼슬을 버리고 일찍이 고양에 퇴거하여 자수(自守)하면서

---

291) 「현종실록(顯宗實錄)」 권18, 현종11년 5월 경진조
292)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권27, 현종 14년 12월 무신조
293) 「숙종실록(肅宗實錄)」권14하, 숙종 9년 윤6월 병진조
294) 상게서, 권15하, 숙종 10년 9월 무진조
295) 상게서, 권 16, 숙종 11년 8월 기해조
296) 「석탄집(石灘集)」곤(坤), 행장(行狀)

후학의 양성에 몰두하고 있었다. 석탄은 심경(心經)과 근사록에 통하여 이를 입덕지문(入德之門)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16세기 중엽의 학문적 분위기와 관련된다. 즉 사장학이 후퇴하고 도학(심학)이 위기지학으로서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때 성리학자들은 주자가 여조겸과 함께 1175년에 편찬한 근사록과 심경을 성리학서의 원조로 여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심학적 측면이 강한 화담 서경덕(1489~1546)과 행촌, 초당 등 그의 문인들의 영향과도 관계가 깊다.

그러면 먼저 초당과 행촌에 대하여 알아보자. 초당 허엽(1517, 중종 12-1580, 선조 13)은 화담 서경덕(花潭 徐敬德)[297]의 문인이며, 노수성(盧守成)과 벗한 동인의 영도자이다. 동부승지로 참찬관(參贊官)이 되어 근시야대(近侍夜對)할 때 조광조(趙光祖)와 구수담(具壽聃)의 신원을 청하였다. 그는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관건은 인재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인재가 없으면 민심이 바르지 못하고, 인심이 바르지 못하면 성도(聖道)에 근원함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98] 그러므로 정도전의 신원은 인심을 바로하고 국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화담의 문인이면서 회재 김언적(晦齋 金彦迪)을 스승으로 높이 형가하고 그의 저서를 탐미하였다. 회재도 주자의 정통을 계승하였으며, 마음을 함양하는 방법을 경(敬)에 두었다.

행촌 민순(1519, 중종 14-1591, 선조 24)은 낙봉 신광한(駱峰

297) 화담은 공자가 가장 아끼는 안연(顔淵)처럼 안빈낙도했고, 증점(曾點)처럼 풍아고결(風雅高潔)했으며, 증참(曾參)처럼 효행을 다한 진유(眞儒)이며, 주정장주(周程張朱)의 성경공부(誠敬工夫)를 몸으로 실천한 도학자라고 평가되고 있다.(「화담집(花潭集)」, 권수(卷首) 1)

298) 國家所賴以維特者 人才也 人才不作 由人心不正 人心不正 實原于聖道不明臣此첨掌成均無敢信者 良以其來有自也(노수신(盧守愼) 찬, 「초당비명(草堂碑銘)」) 초당은 조광조를 요순(堯舜)으로까지 비유하여 극찬함으로써 흠모의 대상으로 삼았다.(「인물고(人物考)」, 허엽(許曄))

申光漢)에게 사장학을 익혔으나, 위기지학을 통한 경명행수지사가 되고자 사장학을 거부하고 화담 서경덕에게 사사(師事)하였다. 화담은 「화담집(花潭集)」권수(卷首)를 보면, '先生心學之正窮格之極致'라 하였듯이 장구(章句)보다는 천리공부(踐履工夫)를 앞세워 그의 도학은 은연 중 심학계열과 통하는 데가 있었다. 따라서 그의 문인인 행촌은 우리나라 심학의 선류가 되었다.[299] 석탄은 이러한 행촌의 심학적 도학사상을 수용하였을 것이며, 이것은 뒤에 언급할 「웅지봉사」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행촌은 예의 실천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사헌부 지평(1575)에 있을 때 명종의 비인 인순왕후의 상을 당했는데 졸곡이 되어 복을 바꿔 입는 때였다. 예관이 「국조오례의」에 따라 오사모(烏紗帽)와 흑각대(黑角帶)를 임의 상복으로 정하니 민순은 '삼년의 상은 천자부터 서민에게까지 다 같은 것이다.'고 하면서 송(宋)의 효종(孝宗)이 백모(白帽)로 삼년을 마친 제도를 따를 것을 상소하였다.[300] 이것은 이후 상례의 한 전범이 되었다. 행촌의 이러한 주자가례의 실천은 석탄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탄도 예학에 조예가 깊어 40세(1590)애 가례차록(家禮箚錄)을 지었던 것이다. 가례차록은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선유(先儒)의 주소논변(註疏論辯)을 모두 끌어 모아 주(註)가 난해한 부분을 토(吐)를 붙이고 해석을 한 것이다. 그의 예학에 대한 관심은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301]과의 교우관계에서도 알 수 있으며, 당시

---

299) 김충열(金忠烈), 「동양사상산고(東洋思想散稿)」, (범학도서, 1977), p.315 참조. 화담의 문인으로 행촌 이외의 이구(李球), 남언경(南彦經), 홍인우(洪仁祐), 이중호(李仲虎)가 있다. 나중에 남언경은 양명학자로 이름이 높았다. 그리고 관계(官界)에서 활약한 문인으로 허엽(許曄), 박순(朴淳), 정지연(鄭芝衍)을 들 수 있다. 남봉(南峰) 정지연은 사림으로 명망이 있었으며, 이이(李珥)를 천거하여 중용케 한 일이 있다. 단순히 둔세주의(遯世主義)에만 흘러든 것이 아니고 경세치용면에서도 크게 진출하였다. (김충열, 전게서, p.322 참조)

300) 「습정선생민공묘비명(習靜先生閔公墓碑銘)」, (홍가신(洪可臣) 찬)

301) 사계는 「가례집람(家禮輯覽)」과 「의례문해(疑禮問解)」를 지은 대표적인

사림계의 일반적인 학문경향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예론의 발달은 사회윤리지향의 측면이 강하여 유교적 사회질서의 확립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여기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교환수단이 소학 실천운동이었다. 석탄도 율신(律身)과 수기(修己)의 기본서인 소학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소학의 보급은 중종조의 사림파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 신진사류들은 도덕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소학실천운동을 벌였다. 당시의 폐습인 기송(記誦), 사장(詞章)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의 사풍을 조성하여 이학(심학, 도학)의 근본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학의 숭상은 사우지도(師友之道)의 실천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소학에서 "人生 內無賢父兄 外無嚴師友 而能有成者 小矣(善行1)"라고 하여 사람을 인격자로 길러내는 것은 부형 뿐만 아니라 사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사장(師長)은 사진(仕進)에 집착하여 문사(文詞)만을 숭상하는 선비들을 수기치인지도를 닦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어야 하며, 붕우는 서로 모여서 절차탁마(切磋琢磨)하여 인(仁)을 행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학지도의 실천은 학파와 정치집단의 형성이 당연한 귀결로 이것은 소학지도의 실천이었다.[302] 이로 말미암아 소학은 종신지학(終身之學), 심독지서(心讀之書)로 인식하게 되었다. 석탄이 수신대법(修身大法)과 부귀양명이 이 소학에 있음을 그의 자손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소학을 평생의 행이(行已)의 방도로 삼

예론가이다. 이 책들은 관례와 혼례는 소략하고 상례와 제례가 주가 되어 있다.「주자가례」를 모본으로 속제(俗制)의 편의에 따라 융통성을 살리도록 자신의 의견을 써 넣거나 당시의 조선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사계는 아들 김집(金集)과 더불어 율곡 이이(栗谷 李珥)의 뒤를 잇는 서인학계의 예설(禮說)의 기반이 되었다.(정옥자, 전게논문, p.218~221 참조)

302) 윤병희(尹炳喜), <조선 중종조(中宗朝) 사풍(士風)과 소학(小學)>, (「역사학보」103, 1984), p.64 참조

았으며, 이를 부형과 자녀를 경애하는 것처럼 중시하였다. 따라서 석탄의 도의 근기(根基)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석탄의 학문적 연원은 어디에 있으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글로서는 '자우헤(自愚解)'[303]와 한편의 시(詩)[304]가 있다.

석탄은 경제적으로 곤궁함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공명심도 없었다.[305]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는 청빈한 선비의 기질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는 '무사무려(無思無慮)로 북창(北窓)에 누웠거나 혹 거문고를 타고 혹 소리를 길게 빼어 읊조리기도 하였다. 책을 펴 자득하니 마음은 태고(太古)의 위에서 놀고, 기(氣)는 우주 간에 충만하였다'[306]고 하여 그의 학문적 입장과 삶의 철학을 형이상학적 인식론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당시의 독경식 학문방법을 지양하고, 자득을 통한 격물치지를 내세웠던 것 같다. 격물치지는 독서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을 검토하여 그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 주자(주희)에 의하면 '격(格)은 지(至)요, 물(物)은 사(事)와 같다.'고 하고, '지(至)는 추극(推極)이요, 지(知)는 식(識)과 같다.'고 하였다. 즉 격물이란 사(事)와 물(物)의 이(理)에 궁지(窮至)하여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그 극처(極處)에까지 다 알고자 하는 것이고, 치지(致知)란 나의 지식을 추극(推極)하여 그 지식을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자의 인식론은 정이천(程伊川)의 이른바「함양수용경 진학즉재치지(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의 정신을 이어

---

303) 「석탄집(石灘集)」건(乾), 잡저(雜著), 자우헤(自愚解)

304) 「석탄집(石灘集)」건(乾), 시(詩), 존경음차강절청야음운(存敬吟次康節淸夜吟韻)

305) 初學之大可先務者 克去物慾也(전게서, 건(乾), 서(書), 기차손(寄次孫)) 이것은 석탄이 손자에게 보낸 편지의 첫구절로서 물욕을 물리치는 것이 학문의 급선무임을 일깨우고 있다.

306) 無思無慮偃臥北窓 或鼓琴而長嘯 或披書而自得 心遊太古之上 氣充宇宙之間(「석탄집(石灘集)」건(乾), 잡저(雜著), 自愚解)

받은 것이다. 또한 퇴계도 정주(程朱)의 존양성찰의 방법을 계승하여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인(求仁)의 방법으로 거경궁리를 말하고 있다.

> 격물도 진실로 쉽지 않지만 지경(持敬)도 또 어찌 쉬우리오. 대개 경이란 것은 철두철미하여 진실로 능히 지경의 방법을 알면 이(理)가 밝혀지고 심(心)이 정정(貞定)해진다. 이것으로 격물하면 물(物)은 나의 심감(心鑑)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으로 사(事)에 응하면 사(事)가 심(心)의 누(累)로 될 수 없다.307)

즉 주경공부(主敬工夫)로써 존양성찰하면 이(理)가 밝혀지고 심(心)이 정(定)해지므로 궁리가 극진해 진다는 것이다. 퇴계는 주경의 근본목적을 '경을 주로 하여 능히 마음에 이삼(二三)이 없어야 바야흐로 실득(實得)이 된다.'고 하여 진지(眞知), 즉 실천지(實踐知)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경을 통한 존심양성에 의해 지리(至理)에 이르는 구인(求仁)방법을 석탄은 그의 시 '존경음차강절청야음운(存敬吟次康節淸夜吟韻)'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至理求何處	지극한 이(理)는 어디에서 구할고
存心主一時	마음을 둠은 한 때에 있는 것
靜中無限味	고요한 가운데에 무한한 맛은
非敬最難知	경이 아니면 가장 알기가 어렵지

이 시에서도 석탄은 지리(至理)의 체인(體認)방법을 경(敬)에 두고, 존심을 정(靜)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행촌이 화담으

---

307) 格物固不易 然特敬亦豈易乎 蓋敬者 徹頭徹尾 苟能知特敬之方 則理明而心定以之格物 則物不能逃吾之鑑 以之應事則事不能爲心之累(「퇴계집(退溪集)」권28, 답김돈서(答金惇敍))

로부터 정을 주로 하라는 학설을 듣고 서재를 습정이라 했으며, 사람이 정에 주력하면 총명이 절로 열리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라고 한 것과[308] 같이 행촌의 주정적 인식론의 틀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주자도 또한 심(心)은 동정(動靜)의 주재자요, 정(靜)할 때는 경(敬)과 불경(不敬)을 성찰할 수 있으므로 경(敬)은 다만 이 마음의 주재처가 된다고 하였다.[309] 동정(動靜)에 대해서 퇴계는,

> 정(靜)에 대해서는 천리(天理)의 본연을 함양하고, 동(動)에 대해서는 인욕을 기미(幾微)에서 결단(決斷)한다. 이와같이 진적역구(眞積力久)하여 순숙(純熟)함에 이르면 정(靜)은 허(虛), 동(動)은 직(直)으로서 일용지간(日用)之間)에 비록 백기백멸(百起百滅)해도 심(心)은 진실로 자고(自苦)하므로 한잡(閒雜)한 사려(思慮)가 저절로 나의 근심이 될 수 없다.[310]

라고 하여 정은 처리의 본연을 함양하여 인식하는 본질적 수기방법인 것이다.[311] 따라서 석탄은 경을 통하여 존심양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리를 구하고 자득, 자락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주자의 경자관통동정(敬者貫通動靜)(기)의 사상에 따라 석탄은 천지만물에 가득한 물질적 기에 대한 인식과 태고의 허(정)의 경지에서 놀고자 하는 그의 안빈낙도적 삶의 철학이 그의 특징적 삶의 태도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교유를 사절하고 언어를 금하여 백치를 따르고자 한 삶의 방식[312]은 그의 철학적 체현이었다. 석

---

308) 「습정선생민공묘비명(習靜先生閔公墓碑銘)」
309) 「주자전서(朱子全書)」권2, 22., 권3, 1., 권45, 4.
310) 靜而涵天理之本然 動而決人欲於幾微 如是眞積力久 至於純熟 則靜虛動直 日用之間 雖百起百滅 心固自苦 而閒雜思慮 自不能爲吾患(「퇴계집(退溪集)」권28, 답금돈서(答金惇敍))
311) 주자(朱子)는 수위존양(修爲存養)의 방법으로서 거경과 궁리를 제시하여, '학자(學者)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궁리의 이사(二事)에 있다.'고 하였다.

탄이 37세(1587)에 「대학차록(大學箚錄)」을 지어 장구의 해석이 미진한 부분을 축조하여 서술한 것도 공자가 「대학」을 경서(敬書)로 본 것처럼 그의 이러한 학문적 연구 경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석탄은 이것이 과연 어리석은가 어리석지 않은가 하는 자문자답을 하고 있다. 그 해답은 '愚與不愚之間 自樂者存焉'이라 하여 어리석음과 어리석지 않음 사이에 스스로 즐기는 것(自樂)이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논어의 옹야편(雍也篇)에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라 하였듯이 석탄의 자락은 그의 인식론적 극치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도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13]

자락(自樂)의 한 예를 들어보자. 석탄은 거문고를 매우 잘 탔던 모양이다. 60세(1610)에 그는 수양산(首陽山) 신당리에서 금재(琴材)를 얻게 되었다. 이 오동나무는 암석 위에서 자라난 것으로 이를 괴이하게 여긴 석탄은 이것으로 거문고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주자의 자양금(紫陽琴)을 본딴 수양금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또한 회녕유배시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때 커다란 공훈을 세운 계림군 이수일(鷄林君 李守一)(1554~1632)에게서 소현금(小玄琴)을 얻게 되었다. 이때 송죽매국(松竹梅菊)의 사우가(四友歌)를 지으니 고고한 향취가 물씬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

312) 絆影於朱門 謝絶交遊 掩扉龜縮 用則行 舍則止. 括囊惟從如啞如癡(「석탄집(石灘集)」건(乾), 잡저(雜著), 자우해(自愚解))

313) 석탄의 도학적 위치를 알 수 있는 한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석탄이 홍양의 유배에서 돌아와 이조참의가 되었을 때 경중(京中)에 집이 없었다. 이때 서소문 내에 빈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귀사지변(鬼事之變)으로 폐치된 지 오래되어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석탄이 이 집을 빌려 사니 귀사지변이 없어졌다. 이러한 사실이 소문나자 사람들은 선생이 정기가 바르므로 귀신을 물리친 것이라 하였다고 한다. 하나의 흥밋거리일 수 있는 단편적인 얘기이기는 하나 석탄의 도학자적 경지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음악에도 뛰어났던 그는 이배되었을 때에도 항상 거문고로써 치심양성(治心養性)하였다.

이처럼 석탄의 학문은 화담의 문인인 행촌의 심학을 계승하였다. 그는 행촌의 주정론과 화담의 학문, 즉 자득(自得)의 묘(妙)가 있으며 문자와 언어의 학문을 초월한 이들의 학문경향을 계승하여[314] 자득(자락)을 최고의 가치로서 발현코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존심양성의 방법은 주자의 거경궁리에 두어졌다. 행촌의 학문이 화담에게서 시작하여 정주에로 귀착하였다고 한다면 석탄도 화담과 행촌에게서 시작하여 정주에게로 귀착하였다고 할 수 있는 학문의 연원이 뚜렷하였다.

3. 정치적 활동과 사상

(1) 정치적 활동과 위민정신

앞서 언급하였듯이 석탄은 성리학자로서 수신에 치중하였을 뿐 영환에 뜻이 없었다. 선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신 즉 학문에 의하여 우선 치국의 도리를 알고 그 자질을 갖춘 연후에 현실정치에 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비가 벼슬에 나아가고 안 나아가고는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데 있다. 석탄은 이러한 선비의 유교적 실천도덕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석탄은 유일지사로서 32세(1582) 되던 해에 6품에 대한 선사(選士)의 논의가 조정에서 일어나 예빈시 참봉에 제배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또한 2년 후인 34세에 다시 효릉(孝陵) 참봉에 제배되었어도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에 스승인 행촌이 세록(世祿)의 신하는 한번 사양할 뿐으로 나아가 힘쓸 것

---

314) 율곡(栗谷)이 화담을 비판하는 가운데 '敬德則深思遠詣 多有自得之妙 非文字言語之學也'라 하고 있다.(「석담일기(石潭日記)」, 선조8년 4월조)

을 권하여 마지못해 나아갔다. 다시 2년 후인 종묘봉사(宗廟奉事)에 배해졌으나, 그 해 가을에 고양으로 돌아왔다. 이렇듯 석탄은 입신양명보다는 구도와 수신을 우선으로 여겼다.

석탄은 벼슬에 나아가면 자신의 정치철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임진왜란 및 내란을 당해서는 구국의 선봉에 섰으며, 간관으로서는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석탄이 관계의 진출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42세(1592)인 8월에 사옹원직장에 배해지고 이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석탄은 의기충천하여 향병 300여인을 이끌고 전장에 나아갔다. 석탄이 향병을 소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촌민들이 믿고 복종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의장대라는 단을 쌓고 군졸이 고영하여 진영을 만들지는 못하였으나 약속이 엄정하고 조획이 실마리가 있었다. 이들이 우뚝 서자 적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약탈하러 나오는 자는 포로가 되거나 죽은 자가 심히 많았다. 그는 군공에 욕심이 없어서 모두 이홍립에게 돌렸는데 이 공이 너무 높아서 면할 수가 없었다. 10월에 의병장 김천익(金千鎰)이 그의 성절(誠節)을 치계(馳啓)하니 중부주박(中部主薄)에 배해졌다.

석탄은 임진왜란 시의 공군뿐만 아니라 국내의 반란에 대한 진압으로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12월에는 직산현감(稷山縣監)으로 나아갔다. 이때 역적 송유진(宋裕進)이 이 곳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막기 위하여 석탄이 전조(銓曹)에 의해 천거되어 파견되고 이들을 사로잡았다. 7월에 봉정대부군자감정겸현감에 올랐으며, 이때 이몽학(李夢鶴)의 반란이 있었다. 서얼출신인 이몽학은 모속관 한현(募粟官 韓絢)의 지시로 1596(선조 29)년에 충청도 홍산(鴻山)(부여(夫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수년을 끈 왜란으로 나라가 황폐해진데다 흉년까지 겹쳐 민심이 극도로 흉악해진 때이므로 '왜적의 재침을 막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반도들의 선동이 크게 호응을 얻어 한때 그 세력이 홍산(鴻山), 임천(林

川), 청양(靑陽), 대흥(大興) 등지를 휩쓸었다. 이때 선생은 천안군수 정호인(天安郡守 鄭好仁) 등과 더불어 군사를 이끌고 병사(兵使)에게 달려가 온양(溫陽)에 집결하고 군성(軍聲)을 떨쳐 반란군을 궤멸시키니 그 공로로 이듬해 정월 중직대부(中直大夫)에 올랐으며, 이것은 토역공(討逆功)으로 2계(階)가 오른 것이다. 10월에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왜적이 남원부를 함락하고 명군이 패하자 명장 해총병과 천병(天兵) 8천이 공주에서 직산으로 이주하여 두원야(斗院野)에서 접전이 벌어졌으며, 선생은 한명의 관노(官奴)와 함께 이들의 접대를 7일 동안 소홀히 하지 않은 결과 감사 김신원(金信元), 윤경립(尹敬立)이 치계(馳啓)하고 명장(名將) 해총병이 왕에게 아뢴 고로 이자(二資)가 특가(特加)되었다.

이처럼 석탄은 국가적 위기에 처해서는 살신성인의 의리를 실천하였다. 그의 의리사상은 20여 년 간의 수기공부로 수양을 쌓아서 도달한 도심(道心)의 발현이었다. 이 도심은 뒤에서 언급할 것처럼 인심즉천심(人心則天心)이라고 하는 그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의 존재가치를 인심과 일치토록 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그는 목민관으로서 외직에 나아가서는 백성에 대한 애휼이 극진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특히 괴산군수로 부임한 이래 감사와 어사의 계나 몇 가지 사실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드러난다. 한 예로 괴산군수로 부임한 이후 2년만인 52세 정월에 승서(陞敍)를 명받았다. 그 이유는 감사 유공근이 올린 석탄은 자상하고 청신한 리(吏)로서 백성의 생각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요지의 계와 어사 김정일이 몸을 보지함이 청고하여 정사의 이치가 실마리가 있다고 한 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석탄의 치민은 백성의 여론을 중시하고 자신의 몸을 보전하기보다는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위민정신에 철저하였다.

석탄의 애민은 괴산군수에 체직되어 귀향할 즈음에 일읍의 백성들이 며칠동안 길을 막고 눈물을 흘리며 머물러 줄 것을 청한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때 석탄은 자신의 입장을 글로써 표현하여 효유하였는데, 이 '차수해(遮首解)'를 통하여 석탄의 애민사상의 일면을 살펴보자.

(전략)길을 막고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바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건대 두어 이 군을 다스린 지 지금 거의 4년이라. (중략) 향로도 또한 내 뜻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내가 가는 것이 불가하다고 진술하니 이에 붙잡고 보아 치우치지 말라. 내가 절민함이 네 가지가 있는데 마땅히 진술해야 할 것이라. 머리가 희어지고 쇠약해져 마침내 상환이 중첩되고, 정신이 혼미하여, 근육과 뼈가 쇠미해지고, 먼저의 것을 잊고 나중의 것도 잃는다. 이를 당하여 양전이나 중한 일을 결코 친히 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첫 번째 절민함이라. 슬하의 일녀가 항상 질환이 위중함을 근심하여 절명함이 아침이 아니면 저녁이라. 의사를 찾아 약을 묻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만약 서울을 가지 못하면 이 자식을 살리기 어렵다. 이것이 두 번째 절민함이라. 군의 한 지경이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각식하는 자가 열에 항상 여덟, 아홉이로되 백가지 역가 조세가 중첩되고 앞의 역이 아직 행해지지 않았는데 뒤의 역이 발뒤꿈치에 이르러 교란분요가 바람에 뜰의 낙엽이 쓸려감을 따라서 다시 생겨나는 것과 같다. 뭇 백성이 근심하면서 수장(愁狀)함을 바라보니 엄독(嚴督)을 가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세 번째 절민함이라. 속현인 연풍이 멀리 이식쯤에 있어 대소의 명이 길을 이어 다함이 없고, 매번 빈례가 과하여 반드시 일이 생기고 또한 양처의 연대와 봉군이 다 도망가고 민결을 내어 그 해를 물리치고 불을 드는 것이 태만하며 촌민이 이것이 중함을 알지 못하고 혹 들고 혹 개하며 조만완급하니 반드시 중죄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네 번째 절민함이라. 기타 종종은 자질구레하고 민망한 일이니 어찌 번거롭게 일일이 진술하고 사람의 절민함이

하나라도 있으면 또한 보전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셋에 이르고 넷에 이르리오. 지금 내 사정이 이와 같아서 부득이 가야 하는 것이다. 모인 귀하고 천한 사람들이 이 뜻을 안다면 생각건대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리라.[315]

이처럼 석탄은 절실한 고민거리를 네 가지로 축약하여 자신의 귀향의 당위성과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는 괴산군수 부임 이래로 4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의 건강의 악화를 귀향의 첫째의 이유로 들고 있다. 둘째는 딸의 병이 매우 위중함을 들어 가족내적 절민함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사회의 병폐가 너무 깊어 목민관으로서, 치자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음을 고백하고 있다. 역과 조세의 폐단으로 발생하는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봉수군의 직무유기, 태만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비중에 비추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적 괴리에 회의를 느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일은 해주목사로 부임한지 4년 만에 귀향할 때에도 있었는데, 수천의 노소가 문을 지키며 머물 것을 청하였다고 한다. 본디 해주에는 왕자의 전장(田莊)이 많았는데, 이들이 백성의 전토를 빼앗는 사례가 심히 많았다. 이에 석탄은 도임하자마자 타량하여 민전을 다 돌려주니, 왕자들이 선조에게 읍소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해주목사를 나 또한 꺼린다고 하여 왕자들의 하소를 막았다. 이렇듯 석탄은 강어(强禦)한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임기가 차 돌아가는 날까지도 후폐가 있을까 염려하여 결송(決訟)을 다하는가 하면 관고(官庫)가 넘쳐흐르고 구피(狗皮)가 삼천령(三千領)이나 쌓였다고 하는 등 그를 양리(良吏)로 칭찬해 마지않았다.[316] 이러한 그의 선정에 대하여 감사 윤훤

315) 「석탄집(石灘集)」건(乾), 잡저(雜著), 차도해(遮道解)
316) 「인조실록」권21, 인조 7년 10월 을축조, 해주목사 시절의 석탄의 치적은

(尹暄)이 계한 것을 보면 석탄은 지신겸근하여 거관봉공이 시종일심이었으며 학생을 일으키고 재정이 한결같아 유루가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의 위민정신을 통한 치적은 당시나 후세에도 마땅히 추앙받을 만하였다.

(2) 도학정치의 실천

석탄의 도학정치의 실천은 앞의 관력과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이미 알 수 있으나, 그의 실질적인 정치에 대한 인식적 사상적 모습을 「정사헌의(丁巳獻議)」[317]와 「재이후응지봉사(災異後應旨封事)」[318]를 통하여 알아보자.

석탄은 그의 나이 67세(1617)에 광해군이 모후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자, 그는 이에 대의(大義)로 이항복(李恒福), 정홍익(鄭弘翼), 김덕성(金德誠) 등 제공(諸公)과 함께 헌의(獻議)를 하여 항론(抗論)하였다. 광해군과 당시의 대북(大北)정권은 자신들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식(曺植)을 높이고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을 폄하시키는 소위 회퇴변척(晦退辨斥)이 발단이 되어 사림들의 지지를 상실하자 이에 불안을 느끼고 새로운 왕위옹립의 가능성을 없애고 왕권의 안정을 위해 임해군(臨海君)과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유폐하였다. 이에 석탄은 '정사헌의(丁巳獻議)'를 올려 천하의 일을 용

높이 평가되어 당상직(堂上職)이 중가(重加)되었으나, 이에 대한 의논이 분분하여 사간원에서의 수차례에 걸친 연계(連啓)가 있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끝내 좇지 않았다.(「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권37, 광해군 3년 정월 기유조~갑인조)

317) 전게서 건(乾), 소(疏), 정사헌의(丁巳獻議). 석탄의 이 정사헌의와 인목대비 폐출의 사건전말은 「조선왕조실록」뿐 아니라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대동야승(大東野乘)」의 <응천일록(凝川日錄)>, <광해조일기(光海朝日記)> 등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318) 전게서 건(乾), 소(疏), 응지봉사(應旨封事)

인(容忍)과 용덕(容德)으로서 인정(人情)과 천리(天理)에 따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후를 폐함은 패륜행위로 그 부당함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그의 정치사상의 일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석탄은 인(忍)과 용덕(容德)을 강조하고 있다. 반드시 인이 있어야 국가가 다스려지고, 반드시 용덕이 있어야 크게 된다는 것이다.(必有忍其乃濟 必有容德乃大) 그러면 이 인용(忍容)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정(人情)과 천리(天理)를 올바로 파악하는데 있다. 천하의 모든 일은 반드시 먼저 인정과 천리를 살핀 연후에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극히 중차대하다. 따라서 인정과 천리를 살피지 않고 일을 행하면 이는 용인치 못한 것이다. 그러면 천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정의 열처(悅處)와 불열처(不悅處)의 여부에 있다. 인정이 열처하면 이것은 천리의 당연한 극치요(人心則天心 天心則人心), 불열처하면 천리의 당연한 극치가 아니다.(人心不順則天理亦不順) 즉 인정과 천리는 인용(忍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석탄은 이것을 곧 신(愼)으로 규정하고 있다.

석탄이 제시하는 왕도는 우선 천인의 이치를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인정의 열처와 천리의 당연함을 따른다면 중국 고대의 지치인 대순(大舜)의 건곤(세상)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고 있다. 정치는 반드시 삼대를 본받는 연후에 화민성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319] 따라서 왕은 '대순(大舜)의 심(心)'과 '대순(大舜)의 도(道)'를 체용(體用)으로 삼아야 천인(天人)이 희열(喜悅)하고 이것이 진실로 국가와 생민(生民)의 복(福)이라 하였다. 인치는 순지자가 성하면 요순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정

319) 이 말은 석탄이 73세때인 6월에 경연참찬관으로서 주강에 입시하여 인조가 치국의 도리를 묻는 자리에서 한 대답이다.(『석탄집(石灘集) 곤(坤), 연보) 이처럼 석탄은 정치의 근본이 왕도에 있음을 항상 역설하였다.

치의 기본이다. 즉 왕은 먼저 인심과 도심, 천리와 인욕을 구별해야 하는데 조정은 이를 살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인효의 덕을 갖추도록 간언을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석탄은 자신이 양조의 은혜를 입은 음관으로서 입을 봉하여 자신만 보전하고 성상은 저버릴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것이 신하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함구하는 것은 결국 이로 인한 폐륜적 행위의 발생과 국가의 부패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여 군신에게 공히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군의 인(仁)과 신의 경(敬)이 당연한 법칙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즉 군이 인하고 신이 경하는 것은 천리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석탄은 치국평천하의 근본이 천리에 있으며, 군신의 인과 경은 소당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의리사상의 발로이다. 그는 유학자로서 무실(務實)을 근본으로 삼고 충(忠)을 다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간언하였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국광(李國光), 하인준(河仁俊), 민심(閔심) 등이 중죄로 다스릴 것을 청하고 이듬해에 삼사(三司)에서 원찬(遠竄)을 청하는 합계(合啓)를 연일 계속하니, 결국 3월에 회녕(會寧)으로 원찬(遠竄)되었고, 북로(北虜)의 위협이 급박해지자 9월에 흥양(興陽)으로 이배(移配)되었다.

위와 같이 군의 인과 신의 경을 정치의 근본으로 인식한 그의 정치철학은 신하보다는 왕의 역할을 더 중시여기는 군왕의 심학에 근거하고 있다. 인목대비의 유폐가 당쟁의 부산물로 대북정권이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달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석탄은 당쟁의 폐해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오직 성리학적 가치규범에 의한 근본적인 정치질서 확립과 그 개혁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석탄의 붕당(朋黨)에 대한 인식은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1548-1613)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그 편린이 엿보이고 있다. 석탄은 사계보다 세살 연하이므로 호형하였으나, 거의 동년배로 매우 친밀하게 교우하였던 것 같다.[320] 석탄이 유배시절에 사계가 보낸 편지를 보면, 그는 석탄을 남인(南人)이라 지목하고 오늘날 쓸만한 자가 한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붕당의 견해를 묻는 내용이 있다.[321] 이에 대해 석탄은 편당(偏黨)에 대한 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 스스로 중립을 지켜 불의무편무당(不倚無偏無黨)하였는데 지금 오직 형(사계를 지칭 : 필자주)만이 나를 남(南)으로 지목하고 있으니, 마음이 가만히 의혹됩니다. 나는 본래 남(南)도 아니요, 본래 서(西)도 아니요, 또한 북(北)도 아닙니다.[322]

그는 이와 같이 철저히 중립을 지켰다. '동서남북이 일어나는 것은 국가의 큰 불행이 싹트는 것이다.'[323]라고 하여 붕당에 의해 일어난 폐해만을 염려할 뿐이었다. 그러한 그를 당인으로 지목한 것은 그의 교우관계에서 빚어진 오해일 것으로 추측된다.

석탄은 자신의 교우관계에서 편당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느끼고 자신의 취우(取友)의 방도를 설명하고 있다. '선비는 대저 취우지도(取友之道)가 다만 이 피차를 물론하고 그 지향(志向)이 취할 만한 자면 취하고 취할 만하지 못하면 버리니 이것이 오도(吾道)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324] 라고 하여 취우의 도

---

320) 우암(尤庵)이 찬한 비문(碑文)을 보면 석탄은 문원공 김선생(文元公 金先生)과 서로 가장 친애하였다고 한다.(상계서 곤(坤), 신도비명(神道碑銘))
321) 석탄의 서(書) 가운데 사계서(沙溪書)를 부록(附錄)하였다.(상계서 건(乾), 서(書), 부사계서(附沙溪書))
322) 自許中立不倚無偏無黨 今者惟兄以我目之南 心竊惑焉 我本非南也 本非西也 亦非北也(상계서 건(乾), 서(書), 답김철원(答金鐵原)
323) 東西南北之所由起 乃國家大不幸之將萌也(상동)

는 선비의 지향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세상의 물욕을 떠나서 평생토록 마음에 두고 호고독학(好古篤學)하여 효제(孝弟)를 행하는 자면 오류(吾類)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호오명정(好惡明正)하고 일을 따라 이치를 살피며 아는 바를 굳게 지키고 이험불개(夷險不改)하여 고인(古人)에 부끄럼이 없고자 하는 자들이니, 내가 이러한 이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남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파당의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았다.

1626년 정월에 가의대부형조참판겸오위도총부부총관에 제배되었을 때 석탄은 왕지(王旨)에 응하여 올린 봉사(封事)에 매우 잘 묘사되어 있다. 1강(綱) 12목(目)으로 구성된 이 '재이후응지봉사(災異後應旨封事)'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정을 주도하여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를 옹립한 서인은 '숭용산림(崇用山林)'과 '무실국혼(無失國婚)'을 기치로 내세웠다. 자파(自派)만이 아니라 남인계 사류의 진출도 한계적이나마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남인의 진출은 얼마가지 않아 국혼 문제를 둘러싼 서인과의 마찰로 일시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조3년에 남인계 윤의립(尹毅立)의 여(女)의 국혼문제(國婚問題)로 남인의 후퇴를 가져올 정도로 양파의 관계는 매우 심각하였다.[325] 그러나 이것은 성리학적 붕당정치의 원리에 입각한 서인정권의 강화·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서인의 대중국 외교정책은 친명배금(親命排金)의 외교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명을 압박하고 있던 후금(後金)은 명장(明將) 모문룡(毛文龍)이 철산(鐵山)의 가도(椵島)에 주둔하고 요동지역의 회복을 꾀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조선의 이러한 태도는

---

324) 大抵士相取友之道 只是勿論彼此 觀其志向 加取者取之 不可取者去之 此乃吾道之當務者(상동)

325) 이태진(李泰鎭), <서인(西人)의 집권과 군영증설(軍營增設)>,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1977), pp.71~73 참조

그들의 신경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때 마침 이괄(李适)의 난(亂)이 일어나 후금으로 하여금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게 되는 매우 급박한 형세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석탄의 진단은 국가의 불안이 서로(西虜)의 위협에 있지 않고 국내의 각종 폐해에서 나온 것이라 지적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로서 1강 12목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석탄은 병국(病國)의 근원을 군(君)이 심학(心學)이 없는 것에 두고 이를 강령의 제일로 삼았다. 사림파 유학자들은 사장학(詞章學)을 경시하고 심학(도학)에 치중하였으므로 훈구파와 학문적 성향과 이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그는 학문을 '출치지원(出治之源)', '만화지본(萬化之本)'이라 규정하고, 따라서 이는 도(道)의 근본이요 선(善)은 도(道)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문은 마음이 진실하되 거짓이 없는 것이며, 또한 광명정대한 것이다. 곧 학문과 도와 선은 일직선상에서 상호 원유(遠遊)작용을 하는 왕도정치의 출처(出處)라고 하겠다. 그런데 임금이 경연 등을 통하여 학문을 밝히지 않으면 정심수신(正心修身)이 불가능하므로 그 틈을 타 백폐(百弊)가 일어나니 석탄은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면 석탄이 제시하는 12목은 무엇인가. 먼저 이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보면, 1) 용현취명불책기실(用賢取名不責其實) 2) 거간불종멸시대관(拒諫不從蔑視臺官), 3) 훈다잡적의횡교(勳多雜迹意橫驕), 4) 조신분식문구시사(朝紳粉飾文具是事), 5) 서관다잡구미혼효(庶官多雜狗尾混淆), 6) 택다홍명유양미문(澤多鴻鳴惟良未聞), 7) 방혜불색사의횡치(旁蹊不塞私意橫馳), 8) 내수의구어염불파(內需依舊漁鹽不罷), 9) 농이진명세가횡점(農以鎭名勢家橫占), 10) 축무삼년경용난계(蓄無三年經用難繼), 11) 성우백마군원방심(城于白馬軍 方深), 12) 산무호세사명비인(山無扈勢司命非人)이다. 이러한 병국(病國)의 원인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의 모든 부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에 대한 모든 논의는 성학(聖學)(심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석탄은 왕은 천의(天意)에 의해 치병(治病)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세도와 국가의 병폐를 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함을 애통해 하였다. 그 구제의 방법은 인정선교(仁政善敎)에 있고, 이것의 근원은 장향(張向)의 심학(心學)이다. 이 심학은 '유지원(流之源)'이요 '망지강(網之綱)'으로서 백치(百治)의 근원이요 만화(萬化)의 근본이다. 따라서 이것은 왕의 실천궁행(實踐躬行)과 심득지실(心得之實)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심학의 요체는 우순(虞舜)의 위미정일(危微精一)로부터 대학(大學)의 격치성정(格致誠正)에 이르기까지이다. 이것이 출치(出治)의 근본이므로 이 심학을 밝혀야 그 마음이 지명(至明), 지허(至虛), 지강(至剛), 지용(至勇), 지공(至公), 지결(至潔), 지인(至仁), 지간(至簡)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선진미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정치는 폐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앞서 열거한 12목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석탄의 중심사상은 왕의 심학을 통한 수기결정론(修己決定論)이다. 이것이 각각의 12목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12목의 내용구성은 대략 정치적으로는 군신관계요, 도덕적으로는 왕의 덕치로서 국방, 경제적 모순까지 설명되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중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과경에 의한 군신관계에 따른 치국의 방법과 도리이다.

석탄은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백성을 도탄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현(用賢)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국가적 어려움은 왕이 심히 명(名)을 좋아하여 용현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석탄이 말하는 선비의 표준이요 국가의 시구(蓍龜)는 연고덕소(年高德邵)하고 충효출세(忠孝出世)한 자

로서 그 자질이 문(文)에 뛰어나고 명(名)보다는 실(實)한 자인데 이들이 당세의 덕기(德器)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은 이러한 자들을 신하로 맞아 정성스럽게 대하고 말도 비손(卑遜)하게 하여야 신하의 전포(展布)(진술;陳述)가 있어 간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특히 석탄은 간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간관은 왕의 이목(耳目)으로 조정의 기강을 세우고 백료를 규찰하며, 풍헌을 유지하고 습속을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각은 공론의 소재처이다. 이 공론은 지위나 사람과는 달리 어느 누구도 감히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간관은 공론에 따라 왕에게 직언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곧 신하의 도리이다. 그런데 간관은 그의 임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신하는 왕에 대한 실천윤리를 망배(忘背)하고 분식(粉飾)과 문구(文具)에만 매달리니 이러한 조신(朝臣)의 폐습을 혁거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은 조신의 허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왕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여 그 원인을 왕의 분식에 돌리고 있다.

이러한 간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림의 정치참여가 여론형성기능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매개수단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당시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즉 사림들은 도학정치의 실천적 기능으로서 언관의 간쟁이나 재야에서의 상소 등을 통하여 군왕의 통치행위를 일정하게 규제하였다. 그리고 군왕은 치도(治道)의 주체로서 항상 민의와 공론을 바탕으로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하는 이념적 지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석탄도 공론에 입각한 간관의 역할을 중시하고 몸소 이를 실천코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의 용현이 정실에 의해 이루어져 관리들이 자목지도(字牧之道)를 알지 못하고 명(名)과 칭(稱)만을 좋아하

거나 불학무식한 자들이 많음을 개탄하고 있다. 왕의 친민(親民)은 중차대하다. 그런데 그 중간역할을 할 이는 자상경사한 관인이며, 이들의 자목(원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함 : 필자 주)에 의하여 백성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관리들은 용렬하여 세상의 웃음거리 밖에 되지 못하고 백성은 그들에 의한 가혹한 정치를 견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왕의 백성을 근심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왕의 덕치는 국방정책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고양군 내의 백마를 예로 들어 지리를 이용한 축성 등의 유형적 국방정책은 국가를 견고히 하는 실질적인 방책이 못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형인 왕의 수덕에 의거하여 인화, 화민해야 하는 것이지 축성이라는 말무(末務)를 계책으로 인화를 얻지 못하면 수국(守國)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득장(得將)에 있으며, 이것은 곧 왕의 택양(擇良)에 달려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서관(庶官)의 용잡한 폐단과 사의(私意)의 번성함을 논하고 있다. 서관은 세가의 관절(關節)에 눌리고 친인척의 사사로움으로 인하여 서무가 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사로움은 옛날(혼시)에는 뇌물로서 봉작이 가능하였다. 뇌물에 의한 관직수수와 여기에 권문세가의 전횡이 가중되어 그 작폐가 막심하니, 왕은 구중궁궐에서 여항간의 원성이 들리겠느냐고 하면서 왕의 여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사의의 번성함은 반정의 초에 이미 현저해지고, 이러한 현상은 훈신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도는 행해지지 않고 사가 온세상에 가득한데 왕의 마음에만 사의가 없겠느냐고 하여 이 폐단이 왕에게서 나옴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의 모든 부정적 누수현상이 경제적인 부면에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내수(內需)와 어염의 폐단에 대한

지적이 그것이다. 즉 왕토사상에 근거하여 척토일민(尺土一民)이 왕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는데 궁실이 부를 독점하니 백성의 궁핍이 여기에 원인한다는 것이다. 궁실과 관리의 전택의 점유는 목을 진으로 삼을 정도로 그 작폐가 심하였다. 이러한 사인의 물적 독점은 국가의 재정결핍현상을 초래하여 석탄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저축이 없는 무형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렇듯 석탄은 군신간의 인경(仁敬)을 근간으로 한 용현(用賢)과 간관(諫官)의 역할을 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민(親民), 인화(人和)(화민(化民))를 궁극적 지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백성은 가까이 하여야 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편안하다."[326]고 하는 민본정치사상에 따라서 군주의 치인(治人)이 민의(民意)(민심)에 두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천명(天命)관념에 의한 군신관계와 치도(治道)의 명분론적 불가변성이 민본유교의 이념에 근거하여 유교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석탄이 인정(人情)과 천리(天理)를 결부시킨 관념적 정치의식도 민의에 토대를 둔 것이며, 이의 결여를 위정자는 경계하고 수덕(修德)하여-이것이 곧 왕의 심학(心學)이다-백성이 받아들이는(民受之) 순(舜)의 정치, 곧 회천(回天)이 석탄의 정치사상적 이상이었다.

맺 음 말

이상에서 조선 중기 사림파의 한사람인 석탄 이신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에 대한 평가는 사계(沙溪) 김장생과 오간 서(書)[327]와 우암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326) 「서경(書經)」, 하서(夏書), 우자지가편(五子之歌篇)

327) 사계가 조존성(趙存性), 김흥국(金興國), 김경인(金景仁) 등과 모인 자리에서 '공(公)은 부모를 명예롭게 하고, 드러나게 한 자라'고 하고, 김경인이 '그의 치군(治郡)은 진기인(眞其人)'이라 하였으며, 사계 스스로도 공

사계는 석탄을 학문적 연원의 바름이 있으며, 일신(一身)으로 강상(綱常)의 무거움을 맡길 정도로 도(道)에 충실하였다고 하고,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도 그 학문의 공이 큼을 칭찬하였다.[328] 이러한 평가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석탄의 학문적 연원과 도학자적 실천정신에 투철한 그의 면모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석탄은 화담의 심학적 학문을 계승한 행촌의 문인으로 그의 학문적 경향은 「정사헌의」와 「재이후응지봉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즉 치국평천하를 위해서는 인군이 먼저 인심과 도심, 천리와 인욕을 구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군이 학문을 통하여 정심수신함으로써 심학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과 경에 의한 인치와 화민성속이 이루어져 요순의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심학적 정치윤리사상은 정치질서 안정의 수단으로 여기게 된 붕당정치와는 전혀 별개이었다. 다만 그는 당쟁으로 인해 발생할 폐해만을 우려할 따름이며, 자신이 남인으로 지목된 것은 사림의 교유관계에서 (交遊關係)에서 빚어지는 오해의 소산으로 치부하였다. 따라서 그의 붕당관 및 정치관은 붕당의 성립에 의한 상호견제를 통하여 구조화될 양당정치의 정착이 아니라 군신의 도덕적 지치의 구현에 있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중립(中立)으로서도 표방하지 않는 그는 오로지 인간의 내면적 가치의 외화(外化), 즉 도학정치·위민정치 등을 실천과제로 삼는 의리사상과 인성적 가치체계에 입각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석탄은 경세에 대한 심학적 덕치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그는 스스로 위기지학을 통한 수신을 우선으로 하여 치국을 위한

(公)에게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석탄집(石灘集)」건(乾), 서(書), 부사계서(附沙溪書) 별지(別紙)

328) 주39)참조

자격요건 갖추기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선비의 본질에 해당하며, 수기후치인(修己後治人)은 성리학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이렇게 하여 내화(內化)된 그의 학문과 철학은 임진왜란과 각종의 내란 등 때를 만나서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공훈을 세우거나 지방관으로서 백성에 대한 애휼을 극진히 하는 데서 구체화되었다. '차도해'에서 나타나듯이 석탄의 애민, 위민사상은 높이 평가할 만하였다.

석탄의 학문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화담의 심학적 계열에 선행촌 민순의 학문적 정통을 계승하였다. 화담과 행촌의 안빈낙도적·은둔처사적 삶의 양식이 역시 석탄의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그의 철학적 심연은 거문고를 퉁기고 책을 펴 자득(自得)을 맛봄으로써 궁극적인 지리(至理)의 경지에 이르는 거경과 궁리의 인식체계였다. 「자우해(自愚解)」에서 보듯이 그는 독득(獨得)의 묘(妙)를 투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화담의 일기론적(一氣論的) 원리가 은연중 내포되어 석탄의 철학은 조선 성리학의 주기(主氣)의 조류에 승(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우주론(宇宙論)이나 본체론(本體論), 인성론(人性論) 등은 관련저술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심도있는 논의는 불가능하나, 현존하는 문집이나 기타 자료에 대한 보다 세물하고도 깊은 천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1551년 (명종 6) : 4월 초 9일 장시(長時)에 한성부(漢城府)에서 태어나시다.

1554년 (4세) : 7월 고 참판공께서 돌아가시다.

1560년 (10세) : 3월 모 정부인 이씨께서 돌아가시다.

1564년 (14세) : 선생은 학업에 전념하여 경전읽기를 돈독히 하시니 이미 대의가 통하였다. 비록 조신(朝臣)이나 노성(老成)한 사람이라도 의문이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찾아와서 서로 질문하였다고 한다.

1566년 (16세) : 행촌 민순선생의 문하에 들어가시다.

1567년 (17세) : 명종이 승하하자, 선생은 일찍 고아가 되어 집상(執喪)을 다하지 못한 죄로 국휼을 당하여 임금과 어버이는 일체이니 식소거외(食素居外)로 3년상을 다하였다.

1570년 (20세) : 승훈랑 응룡(承訓郎 應龍)의 여(女)인 경주이씨께 장가드시다.

1576년 (26세) : 아들 정길(貞吉)이 태어나다.

1577년 (27세) : 양소당(養素堂)을 지으시다. 선생의 학문이 심히 돈독하여 교외의 석탄에 양소당을 지으시고 소나무를 심어 그 숲을 거닐면서 성리에 침잠하셨다. 이때 자호를 석탄한인이라 하셨다.

1582년 (32세) : 예빈사 참봉(禮賓寺 參奉)에 제배되셨으나 나가시지 않으시다.

1584년 (34세) : 효릉참봉에 제배되시다.

1586년 (36세) : 종묘봉사에 제배되시다. 가을에 사직하고 고양으로 돌아오시다.

1587년 (37세) : 대학차록을 지으시다.

1589년 (39세) : 아들 안길(安吉)이 태어나다.

1590년 (40세) : 가례차록을 지으시다.

1591년 (41세) : 8월 행촌선생께 가서 강론을 들으시고 돌아오시다. 9월에 행촌선생의 상을 당하시다. 11월 행촌선생의 장례에 참석하셔서 제문을 올리시다.

1592년 (42세) : 8월에 사옹직장(司饔直長)에 제배되시다. 10월 중부주부(中部主簿)에 제배되시다.

1593년 (43세) : 10월 사재감주부가 되시다. 11월에 공형이조좌랑(工刑二曹佐郎)이 되시다. 12월 직산현감에 제배되시다.

1594년 (44세) : 정월 봉훈랑을 제수받으시다. 3월 군자감첨정겸현감에 제배되시다.

1595년 (45세) : 정월 조산대부군자감부정겸현감에 오르시다.

1596년 (46세) : 6월에 봉렬대부에 오르시고, 7월에 봉정대부군자감정겸현감에 오르시다. 이때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켜 홍산, 임천 등을 함락하자 병사 이시언(李時言)이 군사를 징발하지 못하고 온양에 이르러 어쩌할 바를 몰랐다. 선생은 직산군졸을 조발하여 천안군수 정호인(鄭好仁)과

함께 8천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공을 세우시다.

1597년 (47세) : 정월에 중직대부에 오르시고, 10월에 승서(陞叙)되시다. 이때 왜군이 남원부를 함락하고 명군이 패퇴하여 명장 해총병과 살아남은 병사가 8천여 인이었다. 이들이 공주로부터 직산으로 이동하여 두원야에서 교전을 하였는데 이때 선생은 이들을 7일 동안 극진히 대접했다고 한다. 감사 김신원(金信元)이 치계(馳啓)하여 승서가 있었다.

1598년 (48세) : 9월 명장 해총병이 선생의 공적에 대해 칭찬하니 선조께서 명을 내리어 통훈대부로 오르시다. 10월 직산현감에 잉임(仍任)되시다.

1599년 (49세) : 고부군수에 제배되셨으나, 칭병으로 나가시지 않으시다.

1600년 (50세) : 정월 평시령에 제배되셨으나, 칭병으로 나가시지 않으시다. 3월 괴산군수에 제배되시다. 12월 15일 부인 이씨께서 졸하시다.

1602년 (52세) : 정월 승서의 명이 내리시다.

1603년 (53세) : 괴산군수 이래로 4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으시다가 체직되어 돌아갈 때 일읍이 며칠 동안 길을 막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물러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선생이 글을 지어 깨우쳤다. 광주목사에 제배되셨으나, 병으로 나가시지 않으시다.

1604년 (54세) : 3월 임천군수가 되시다. 이 해에 임진효충복의협력선무공신(壬辰效忠伏義協力宣武功臣)으로 녹훈(錄勳)되시다.

1605년 (55세) : 정월 남원부사가 되시다. 그러나 간원에 회계하여 임천군수에 연임되시다. 이때 왕이 비국에 명하여 학술이 정심(正心)하고 재행(才行)을 겸비한 사람을 천거하니 선생이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과 함께 피선되시다.

1606년 (56세) : 정월 홍주목사에 제배되시다.

1607년 (57세) : 3월 해주목사에 제배되시다. 해주는 본래 왕자의 전장이 많은데, 이들이 민전을 빼앗는 사례가 심히 많았다. 선생이 도임 후 전답을 타량하여 민전을 주인에게 돌려주니 왕자들이 선조께 읍소하셨다. 선조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삼갈지어다. 해주목사는 나 또한 꺼리느니라.'라고 하셨다고 한다.

1608년 (58세) : 정월에 표리 일습(表裏 一襲)을 내리시다. 선조대왕이 승하하시다.

1609년 (59세) : 6월에 표리 일습을 내리시다.

1610년 (60세) : 참판공의 묘비문을 진원부원군 서경 류근(晋原府院君 西坰 柳根)에게 청하시다. 수양금(首陽琴)을 만드시다. 12월에 해주목사에 부임한지 4년만에 귀향하시는데 그 주의 노소가 문을 지키며 머물 것을 청하기를 날마다 수천이었다는 말을 감사 최동립(崔東立)에게 듣고 계문하니 통정대부에 가자되시다.

1611년 (61세) : 정월에 선정으로 포미(褒美)(칭찬)의 교서를 내리시다. 가을에 표리를 내리시다.

1612년 (62세) : 3월 해주목사에 연임되시다.

1613년 (63세) : 체직되어 고양으로 돌아오시다. 절충장군행호분위부사용겸오위장에 제배되셨으나 나가지 않으시다.

1614년 (64세) : 7월에 아들 정길이 종사랑을 제수받다. 10월 절충장군호분위부사겸오위장에 배해졌

으나 나가지 않으시다.

1615년 (65세) : 정월 아들 정길이 선무랑을 제수받다. 7월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에 배해졌으나 나가지 않으시다.

1616년 (66세) : 정월 부인 이씨께서 숙부인이 되시다.

1617년 (67세) : 광해군이 모후를 폐하려고 하자 대의로써 항론하여 4백여언으로 헌의하시다.

1618년 (68세) : 3월 회녕으로 귀양가시다. 계림 이수일(鷄林 李守一)에게 청하여 소현금(小玄琴)을 얻으시다. 이때 송죽매국(松竹梅菊)의 사우가를 지으시다. 9월에 흥양으로 이배되시다.

1619년 (69세) : 9월 참판공의 묘비를 세우시다.

1620년 (70세) : 사계 김장생의 글에 답하시다.

1621년 (71세) : 12월 장자 선무랑 정길의 상을 들으시다.

1623년 (73세) : 3월 형조참의에 배한다는 왕지에 의해 환조(還朝)하시다. 절충장군용양위부호군에 배해지시다. 4월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 5월 가선대부행장예원판결사겸경연특진관에 승배되시다. 6월 주강(晝講)에 입시하시다. 10월 광주목사에 제배되시다.

1624년 (74세) : 정월 병으로 광주목사를 체직시켜 줄 것을 정소하시다. 호분위사직에 배해졌으나 병으로 나가지 않으시다.

1625년 (75세) : 3월 용양위부호군, 6월에 다시 장예원판결사겸경연특진관에 배해졌으나 모두 병으로 나가지 않으시다.

1626년 (76세) : 정월 가의대부형조참판겸오위도총부부총관에 재배되시다. 왕지에 의하여 1강 12목의 봉사를 올리시다.

1627년 (77세) : 정묘호란으로 강화도로 피신하는 왕을 수종(隨從)하시다가 병이 심하여 인천에서 수원 마정리(馬井里)에 이르렀으나, 7월 16일에 촌사(村舍)에서 돌아가시다. 9월 고양 원당리에 장사지내다.

만회(晩晦) 이유겸(李有謙)의 생애와 학문

임 종 욱329)

Ⅰ. 머리말
Ⅱ. 이유겸의 생애
Ⅲ. 학문과 평가
Ⅳ.끝맺는 말
*참고자료(번역문 및 원본)

Ⅰ. 머리말

만회(晩晦) 이유겸(李有謙)은 조선조 선조 19년(15869) 병술(丙戌)년에 태어나 현종(顯宗) 4년(1663) 계묘년에 사거(死去)한 조선 중기의 저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다. 자(字)는 수익(受益)이라 하였고 호는 만회(晩晦) 또는 송탄(松灘)이라 하였으며 본관은 우봉(牛峰)이다.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큰 전쟁을 치렀고 광해군 때의 인목대비 폐출사건, 인조반정 등의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졌다. 이런 점에서 그는 역사의 격동기를 살다간 인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동시에 이는 이유겸 개인에 대한 주목의 차원을 넘어서 선조시대로부터 인조대까지의 정치사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유겸처럼 어느 한 파당에 경도

329) 동국대학교 강사

되지 않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삶을 살아간 이의 경우는,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 시대를 저울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인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쉬운 일은 이유겸은 78세라는 짧지 않은 생을 살다 갔지만 문집이라든가 유고(遺稿) 등과 같은 개인 저작을 전혀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시작(詩作)이나 산문 등과 같은 개별적인 작품들도 눈에 띄는 게 없어 그의 생애의 재구(再構)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유겸을 중심으로 17세기 초·중반의 시대사를 조명하는 일은 갑자기 난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송시열(1607~1689)이 찬한 묘비명이 실려 있어 그의 삶의 대강의 윤곽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 묘비명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유겸의 생애와 학문, 그리고 당대의 평가 등을 간략하나마 정리해보고 아울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글의 말미에 관련자료들을 번역해 인용하고 원문을 달아 부족한 글 내용을 보충하고자 한다.

Ⅱ. 이유겸의 생애

이유겸은 선조 19년인 1586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승지를 추증받은 이갈(李劼)이었고 어머니는 한산 이씨(韓山 李氏)로 외조부의 이름은 이공로(李公潞)이다. 본관은 우봉(牛峰)이었는데 이유겸을 기준으로 하여 13대조인 이공정(李公靖)이 시중(侍中)이라는 벼슬을 지내면서 명문(名門)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2대조는 이자성(李子晟)(?~1251)이고 고조는 이승건(李承健)(1452~1502)으로 참판을 지냈다. 증조는 이심(李諶)으로 사의(司議)를 역임했으며 할아버지 이지신(李之信)(1215~1581)은 관찰사를 지냈다.

이유겸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어머니 이씨의 품안에서 성장하였다. 그의 나이 7살 때 임진란이 터지자 이유겸과 이씨는 여기저기 유랑하며 숱한 고생을 하였는데 주변에는 돌봐줄 친지조차 찾을 길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학업은 중인(中人)인 서리들에게서 처음 사서(史書)를 익혔다. 그러다가 풍옥 조수륜(風玉 趙守倫)(1555~1612)의 문하에 들어가 우계 성혼(牛溪 成渾)(1535~1598)과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1548~1631)의 학문을 접하면서 속학(俗學)외에 용심처(用心處)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학문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질병으로는 벽에 기대거나 몸져 눕는 일이 없을 정도로 의지가 굳기도 했다. 또한 선(善)을 즐기고 의(義)를 좋아하였으며 퇴폐한 풍습은 가차없이 폐지하는 강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강직한 태도는 그의 생애 곳곳에서 실천으로 드러났다.

광해군 4년(1612)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 때 스승 조수륜이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누구도 후환을 두려워하여 그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가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여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뤄 주었다. 또 광해군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시키자 동지와 함께 항소(抗疏)하여 어머니를 원수 취급하는 불의를 극론(極論)하였다. 이 때문에 오지로 유배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병자호란 때에는 친구들과 의려(義旅)를 결성하여 강도(江都)로 들어가 망령된 행락(行樂)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고을의 자제들을 인솔하여 가례심경(家禮心經)을 강독하거나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하고 기로회(耆老會)를 베풀어 인심을 안정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덕행은 백성들의 신망을 한몸에 안았을 뿐만 아니라 포의(布衣)로 있을 때도 사우(士友)들의 추종을 받았다. 그가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어 좌천된다는 소식을 들은 고을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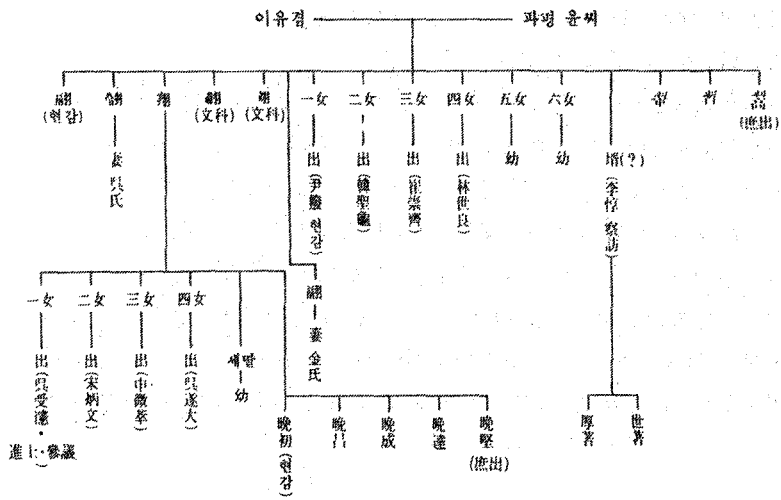
몰려가 곡식으로 대속(代贖)할 것을 청원한 일은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일화이다.

그의 관직생활은 인조반정 후 유일학행지사(遺逸學行之士)를 선발할 때에 천거되어 신녕현감(新寧縣監)을 제수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위솔(衛率)을 거쳐 공조좌랑(工曹佐郞)에 올랐다가 함흥판관(咸興判官)으로 전임되었다. 인조 15년(1637), 병자호란이 마침내 굴욕적인 폐배로 마감한 뒤 은퇴하고자 하였으나 차마 떠나지 못하고 형조좌랑(刑曹佐郞)과 순창군수(淳昌郡守), 태복사 판관(太僕寺 判官), 대구부사(大邱府使), 판결사(判決事) 등을 지내면서 국기(國基)를 다잡기에 힘썼다. 외직(外職)으로 나가서는 금성군수(錦城郡守)와 김제군수(金堤郡守), 성주목사(星州牧使)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여기서도 그는 큰 치적을 쌓았다. 공조참의(工曹參議)에서 호조(戶曹)로 옮긴 뒤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다가 은퇴하였다. 한가롭게 노닐면서 기영회(耆英會)를 만들어 벗들과 어울렸고 낙사(洛社)에서 시우(詩友)들과 시회(詩會)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부인은 파평 윤씨(坡平 尹氏)로 그녀의 아버지는 윤홍유(尹弘裕)였고 할아버지는 참판을 지낸 윤인함(尹仁涵)(1531~1597)이었다. 부덕(婦德)이 있는 것으로 칭찬이 자자했다. 이유겸과는 동년생으로 강도(江都)에서 변고가 있을 때 아들과 함께 순절하였다. 이유겸은 현종 4년(1663) 12월 20일, 7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묘지는 용인현(龍仁縣) 동쪽 냉천동(冷泉洞)에 있으며 부인과 함께 합장(合葬)되었다.

후손으로는 적자(嫡子) 다섯과 서자(庶子) 셋, 딸 일곱을 두었다. 이를 도표를 통해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가계도>>


이유겸
파평 윤씨
翮 (현감)
翛
翔
翩 (文科)
翊 (文科)
一女
二女
三女
四女
五女
六女
增(?)
(李惇 察訪)
(庶出)
出(尹鑴 현감)
出(鄭聖龜)
出(崔崇齊)
出(林世良)
幼
幼
厚著
世著
翮 — 妻 金氏
晩初 (현감)
晩昌
晩成
晩達
晩堅 (庶出)
出(兵曹參議)
出(宋炳文)
出(申徽革)
出(兵遂大)
幼
進士

Ⅲ. 학문과 평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유겸은 어려서 곤궁한 가정형편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서리에게 글을 익히다가 소년기를 지나서야 비로소 풍옥 조수륜(風玉 趙守倫)의 문하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학업을 닦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혼과 김장생에게도 수학하여 학문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이때부터 학문에도 속학(俗學) 밖에 진정한 용심처(用心處)가 있음을 깨우치고 학업에 잠심(潛心)할 수 있었다. 생애에서 본 바와 같은 강직한 성품과 애민정신, 불의를 용서치 않는 태도 등은 모두 이때의 학문연마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보인다. 종실(宗室)에 이난수(李鸞壽)란 분이 있어 그가 《역경(易經)》을 즐겨 이야기했는데 그를 좇아 강구(講究)하여 도서괘획(圖書卦劃)의 이치를 터득하기도 하였다. 인조반정 뒤 그가 유일학행지사로 천거를 받아 관직에 나선 것을 보더라도 학문적 성숙도가 어떠했는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이 그의 학문을 높이 칭찬하고 송시열(宋時烈)이 의리와 덕행을 깊이 사모했던 사실로도 이는 반증이 된다. 송시열은 명(銘)을 통하여 그의 학문을 강직(剛直)하고 명철(明哲)하며 엄(嚴)하고 간략(簡略)했다(강명엄간(剛明嚴簡))고 결론내리고 있으며 아울러 "검약(儉約)하지만 진충(盡充)하다(約而盡)"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가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고을 자제들에게 가례심경(家禮心經)과 향음주례(鄕飮酒禮)를 익히게 했다는 사실로도 그의 학문적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Ⅳ. 끝맺는 말

영성하기 그지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대략 만회 이유겸(晩晦 李

有謙)(선조 19, 1586~현종4, 1663)의 생애와 학문 및 당대의 평가 등을 종합해 보았다. 워낙 전해지는 저작(著作)이 없어 그의 가치 중 극히 일부부만 소개되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부 기록만을 통해서 볼 때도 조선중엽,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인목대비 폐출사건과 인조반정 등 역사의 격동기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행동했던 한 지식인의 상을 목격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고 광범위한 자료가 발굴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글을 마감하고 아래에 실릴 몇 가지 자료가 그의 생애와 학문을 이해하는데 조그마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번역문 및 원문)

《인물고(人物考)》 중 이유겸조

이유겸(李有謙)의 자는 수익(受益)이고 우봉인(牛峰人)이다. 현감(縣監)과 위솔(衛率), 판관(判官), 부사(府使)를 역임하고 통정판결(通政判決)로 승차(勝差)하여 공조(工曹)와 호조(戶曹)의 참의(參議)를 지냈다. 계묘년(1663)에 서거하였다.

인조반정이 있은 뒤, 유일학행지사(遺逸學行之士)를 천거할 때, 공은 선비들 중에서 선발되어 현감직을 제수받아다.

처음에는 풍옥 조수륜(風玉 趙守倫)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우계(牛溪)(성혼)의 학풍을 공부하였고 다시 사계(沙溪)(김장생)를 섬겼다. 함께 교유한 이들이 모두 당시의 명사들이었다.

광해군(光海君) 때, 조수륜이 화를 입어 죽었는데 친구중 누구도 감히 돌보지 않는 것을 공이 손수 수의를 입히고 염(殮)을 하니 예의가 갖추어진 정중한 것이었다. 또 동지와 더불어 항소(抗疏)하여 어머니를 원수 취급하는 불의를 극론(極論)하였다가 오지로 추방당하기도 하였다.

병자년(1636)에 강도(江都)가 함락되었다. 공은 일찍이 여러 선비와 함께 의려(義旅)를 조직하고는 분사(分司)에 들어가 망령된 행락(行樂)을 질책하였다. 오랑캐를 만나자 문을 걸어 잠그고는 순절(殉節)하고자 하였는데 적들이 공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맞추지는 못하였다.

대구에서 관직을 맡고 있을 때 고을의 자제를 인도하여 가례심경(家禮心經)을 강독하고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하면서 기로회

(耆老會)를 베풀기도 하였다.

李有謙, 字受益, 牛峰人, 歷官縣監衛率判官府使, 陞通政判決, 事工戶議, 癸卯卒.

仁祖反正, 擧遺逸學行之士, 公起諸生, 除縣監. 始公從風玉趙公守倫, 學得聞牛溪緖餘, 又事沙溪, 所與遊皆一時名流.

光海朝, 風玉罹禍死, 親舊莫敢視, 公親執紼衾襲殮如禮, 又與同志抗疏, 極論母不可讐, 仍自廬于荒野.

丙子江都陷, 先時公結士友爲義旅, 入見分司責其玩嬉, 及遇賊闔門殉節, 賊射公不中.

大邱時, 率邑子, 講家禮心經, 行鄕飮酒禮, 設耆老會.

묘비명 <송시열>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중 이유겸조

공(公)의 이름은 유겸(有謙)이며 자는 수익(受益)이다. 처음에는 풍옥 조수륜(趙守倫)에게 수학하다가 우계선생(牛溪先生)의 학풍을 익히고 다시 사계선생(沙溪先生)을 섬기면서 비로소 속학(俗學)밖에 용심처(用心處)가 있음을 알았다. 함께 교유한 이들이 모두 당시의 명사들이었다. 광해군 때, 조수륜이 화를 입어 죽었는데, 친구중 누구도 돌아보지 못했는데 공이 직접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니 예의를 갖춘 정중한 것이었다. 또 동지와 더불어 항소(抗疏)하여 어머니를 원수 취급하는 불의가 가하지 않음을 극론(極論)하였다. 이 때문에 오지로 유배되었다.

종실에 덕신정 난수(德信正 鸞壽)가 있었는데 《역경(易經)》을 이야기하기를 즐겼다. 공이 좇아 강구(講究)하여 도서괘획(圖書卦劃)의 학설을 다 깨우쳤다.

인조반정이 있은 뒤, 유일학행지사(遺逸學行之士)를 천거할 때, 공은 여러 선비들 중에서 선발되어 신녕현감(新寧縣監)을 제수받

았다. 학정(虐政)을 없애고 은혜를 베풀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마침 국가에 사명(師命)이 있었는데 향사(餉使)가 공이 변론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탄복하여 "서생(書生)도 또한 저와 같구나."라 하였다. 민공 성휘(閔公 聖徽)(1582~1648)가 감사가 되자 이공 경여(李公 敬輿)(1585~1657)가 뒤이어 관리들의 고과를 담당하였는데, 공적이 혁혁하여, 뒤이어 포상이 내려졌다. 상을 치른 뒤 위솔(衛率)을 제수받고 공조좌랑(工曹佐郞)을 거쳐 함흥판관(咸興判官)이 되었다. 백성을 비루하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배우기를 권하고 가르침을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일에 연루되어 파직된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은 서로 사자(使者)앞에 달려가 곡식을 바쳐 대속(代贖)할 것을 청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임금께서는 특별히 명을 내려 파직을 취소하였다. 후에 사자(使者)가 와서 별로 기뻐하지 않고 어리석은 백성을 윽박질러 그를 무고(誣告)하였다. 공은 이조전랑(吏曹銓郞)을 대면하면서 명쾌하게 변설하여 석방되었다. 이는 대개 임금이 공을 잘 이해하였던 덕분이었다. 병자년에 강도(江都)가 함락되었다. 공은 앞서 사우(士友)를 모아 의려(義旅)를 결성하여 분사(分司)로 들어가 그들의 망령된 행락을 질책하였다. 오랑캐를 만나자 순절하고자 하였다. 공이 앉아 기다리는데 외적이 뒤쫓아 와 화살을 쏘았지만 맞히지는 못하였다. 공은 나이 7살 때 임진년의 왜변을 겪었는데 왜적이 칼날을 들이댔지만 끝내 해치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공에게는 조물주의 가호가 있었던 까닭이었을 것이다.

이미 공이 왕실로서 잔적은 소탕됐지만 차마 떠나지 못하고 정축년(1637)부터 을유년(1645)까지 형조좌랑(刑曹佐郞)과 순창군수(淳昌郡守)를 역임하고 네 번 태복사(太僕寺)에 들어가 판관(判官)이 되었다. 내승(內乘)에서 다시 첨정(僉正)이 되고 뒤이어

대구부사(大邱府使)에 취임하였다. 대구는 워낙 사무가 많은 고을이었는데 공은 한가한 때를 맞이할 때마다 고을의 자제들을 이끌고 가례심경(家禮心經)을 강독하거나 향음주의(鄕飮酒儀)를 행하면서 기로연(耆老宴)을 베풀기도 하였다. 직지사(直指使)가 그의 치행(治行)을 제일이라고 올리니, 특별히 통정(通政)으로 품계가 올랐다. 아울러 마침내 입시(入侍)하여 판결사(判決事)가 되었는데 송사(訟事)를 처결하는 것이 권귀(權貴)에 흔들리지 않았다. 또 외직으로 나가 금성현감(錦城縣監)과 김제군수(金堤郡守), 성주목사(星州牧師) 등을 두루 역임하였는데 모두 남쪽의 큰 도회지였다. 판서 채공 유후(蔡公 裕後)(1599~1660)가 어명을 받들어 지방을 순시한 뒤 돌아와 말하기를 김제 지방의 치적이 뛰어남을 알렸다. 임기가 다 차자, 임금은 백성들의 희망을 받아들여 재임기간을 늘려 주었다. 간관(諫官)들이 이를 거부하여 중지시키고 성주부사(星州府使)를 제수하였지만 사직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공조참의(工曹參議)에서 호조(戶曹)로 옮기고 수년 뒤 관직을 바꾸어 다시 (왕실의) 부족하고 소홀한 부분을 보충하기에 힘쓰니 (업적이) 뛰어나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은퇴하여서는 한가롭게 노닐었다. 이 때 기영회(耆英會)를 조직하여 유연히 낙사(洛社)의 승경(勝景)에서 자적(自適)하였다.

고조 승건(承健)(1452~1502)은 참판을 지냈고 증조 심(諶)은 사의(司議)를 역임하였으며 할아버지 지신(之信)(1512~1581)은 관찰사를 지냈다. 아버지 갈(勘)은 승지(承旨)에 추증되었다. 승지의 12세조 공경(公靖)은 고려대의 시중(侍中)이었는데 우봉(牛峰)의 이문(李門)이 이로부터 비로소 현달(顯達)하였다.

공은 어려서고아가 되어 따로 선생을 모실 처지가 못되었다. 모부인 이씨(母夫人 李氏)는 한산(韓山)의 대성(大姓)인 이공로(李公潞)의 여식이었다. 공을 이끌고 떠돌아다니다가 경사(京師)

에 돌아왔지만 조석 끼니를 청할만한 이도 없었다. 마침내 리인(吏人)에게서 사서(史書)를 익혔다.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업하였는데 심한 질병이 아니면 일찍이 기대거나 눕지 않았다. 비록 천진하고 순박하여 겉으로 드러내어 자부하기를 일삼지 않았지만 법도가 심히 엄하였고, 효제(孝悌)의 행동은 추급(推及)하여 종당(宗黨)에까지 미쳤다. 선(善)을 즐기고 의(義)를 좋아함이 남달리 출중하였고 퇴폐한 풍습은 마땅히 폐지하였다. 조정(朝廷)에 있을 때에는 특별히 우뚝 서서 홀로 행하였고 풍채가 의연하여 이 때문에 포의(布衣)로 있을 때에도 사우(士友)들이 추종하여 따랐던 것이다. 밝은 시대를 당하여 성심을 다하여 힘써 실천하여 직책과 임무에 충실하였다. 만년에는 주장과 지식이 더욱 높아져 마침내 강명엄간(剛明嚴簡)의 권장됨이 있었으니 이는 검약(儉約)하였지만 진충(盡充)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호라, 가히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볼 수 있을진저.

부인 윤씨의 아버지는 홍유(弘裕)이고 할아버지는 참판 인함(仁涵)인데 육친들이 모두 부덕(婦德)이 있다고 칭찬하였다. 공은 계미년 12월 20일, 나이 78세를 기일로 별세하였다. 부인은 동년생으로 8년 앞서 세상을 등졌는데 합장(合葬)하였다. 묘지는 용인현(龍仁縣) 동쪽 냉천동(冷泉洞)에 있다. 후손으로는 아들 편(翩)은 현감이었고 흡(翕)과 상(翔)이 있었는데 상(翔)은 천거를 받아 지평(持平)이 되었다. 숙(翻)과 익(翊)은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숙(翻)은 감사, 익(翊)은 참의가 되었다. 사위는 찰방 이돈(察訪 李惇)이다. 강도(江都)에서 변고가 있을 때, 부인은 불에 몸을 던져 적의 칼날을 받았고, 편(翩)과 영(翎)이 부인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영(翎)과 그의 처 오씨(吳氏), 핵(翮)의 처 김씨(金氏)도 모두 죽었는데 핵(翮)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표(表)를 내려 절효문(節孝門)이라 하였다. 서출(庶出)로 휘(翬), 습(習), 학(翯)이 있다. 첫딸은 현감인 윤발(尹

撥)에게 출가하였고 세 딸은 한성구(韓聖龜), 최숭재(崔崇齋), 임세량(林世良)에게 출가했으며, 나머지 두 딸은 아직 어리다. 지평인 상(翔)에게는 딸이 셋 있는데 각각 송병문(宋炳文), 신미화(申微華), 오수대(吳遂大)에게 출가하였고 세 딸은 아직 얼다. 서출로 만초(晩初)는 현감이 되었고, 만창(晩昌), 만성(晩成), 만견(晩堅)이 있으며 딸은 진사(進士)이며 참의인 오수헌(吳受濂)에게 출가하였다. 서출로 만달(晩達)이 있다. 사위인 찰방 이돈(李惇)은 후저(厚著), 세저(世著)를 낳았는데 감사를 역임하였다. 그 고귀함 때문에 아경(亞卿)의 칭호가 내려졌다.

나는 일찍이 사계선생(沙溪先生)을 섬겼는데 선생께서는 늘상 공을 칭찬하며 소개하곤 하였다. 나중에 공의 존안(尊顔)을 직접 뵈었는데, 공은 동문(同門)이라면서 외람되이 대우해 주었다. 아울러 공과 그의 자식들과 전후 40년간을 교유하였다. 그간에 그 분의 의리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그 분의 덕성(德性)을 앎이 더욱 두터워졌다. 지금 여러 후손들이 나에게 묘도지문(墓道之文)으로 부탁을 하니 의리상 어찌 사양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명(銘)을 다음과 같이 썼다.

風玉之學	풍옥선생의 학문은
出自坡山	파산으로부터 나왔다.
公從講問	공이 좇아 묻기를 청하니
實先其難	실로 그 어려움을 앞섰구나.
後登溪門	나중에 계문에 오르니
潛翁統脈	스승의 계통과 학맥은
如呂藍田	여선생 남전과 같네
東見于洛	동으로는 낙에서 뵈오니
蓋公初終	어찌 공의 한결됨이 아니리오
寔有淵源	이 또한 연원이 있는 것이라
旣仕于朝	이미 조정에서 벼슬하였지만
志無飽溫	뜻은 배부르고 따스한 데 있지 않았네
剛明嚴簡	강직하고 명철하며 엄하고 간략하여

上有褒言	임금께서 포상의 말씀 있었네
一節三朝	한결같은 절개로 세 임금을 섬겼지만
終不緇磷	끝내 닳고 헤지지 않았구나
由身及家	몸에서 말미암아 집안까지 미치니
家道莘莘	집안의 도가 풍성하구나.
節孝之門	절개있고 효성스런 가문이여
棹楔是宜	두드러져 우뚝함도 마땅하구나.
不有君子	군자가 있지 않았다면
斯焉取斯	이를 어디서 취하였겠는가.
其餘存者	그 남은 사람들은
文行祇飭	문장과 학행을 단지 조심할진저.
惟公之儀	공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庶徵不.	거의 징험되어 부끄러움이 없으리.
我作銘詞	내 여기 묘비의 명을 쓰노니
永世無劫	영원토록 빼앗김이 없으리라.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중 이유겸조

자는 수익(受益)이고 호는 만회(晩晦)이며 우봉인(牛峰人)이다. 감사(監司) 지신(之信)의 손자로서 풍옥 조수륜(風玉 趙守倫)을 좇아 수학하고 오계선생(牛溪先生)의 학풍을 얻어들었다.

광해군 때, 조수륜이 화를 입고 죽었으니 친구들 중 아무도 돌아보지 않자 유겸이 직접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니 예를 갖춘 정중한 것이었다. 또 동지와 함께 항소(抗疏)하여 어머니를 원수 취급하는 불의를 극론(極論)하였다. 이 때문에 오지로 유배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뒤, 유일학행지사(遺逸學行之士)를 천거할 때에 유겸은 여러 선비들 중 선발되어 현감에 제수되었다. 관직이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이르렀다.

병자년에 강도(江都)에 들어가 의려(義旅)를 결성하였고 도성이 함락되자 문을 걸어 잠그고 순절코자 하였는데, 왜적이 활을

쏘았지만 맞히지 못하였다. 자식 중 숙(翻)이 문과에 급제하여 우상(右相)이 되었다.

字受益號晩晦牛峰人監司之信孫從風玉軒趙守倫學得聞牛溪緖餘光海朝守倫罹禍死親舊莫敢視有謙親執絞衾襲殮如禮又與同志抗疏極論母不可讐仍自廬于荒野仁祖反正擧遺逸學行之士有謙起諸生除縣監官至戶曹參議丙子入江都結義旅及城陷國家殉節賊射有謙不中子翻文科右相

원문

公諱有祿字受益號公隸晨崇巍公符倫學洛關中
濂先生鍾餘又事洪濂先生知儒學外有用心處所
與遊皆一時名流先為劉羅公羅福先觀舊莫敬
觀公親親後參贊如權又與閔思默觀相論學不
可擊竹肖鋼字義野有宗實德信正齋易學得易公
後而講究實知圖書算書之說仁祖五正樂遺逸學
行之士公想搢紳論新寧縣監除倉廟恩典大說
遺國家有師命納使書公儀對曰書生乃能如此
聞公寔難為監司考公故與主騎抄先從與其積遺
有衆賜丁內奏使除耕衡率田三省狀論為式與判
官不都質其民知學明教本義民聞其宗事將藍相
奔詰使者請輸米以贖之事聞上惜命無罪使使者
至乘不說與頗民被極之公對曰動爵普發寄蓋上
雅知公也丙子亂都論先是公論亡友為義旅入見
公日賢疾病狀及遍賊閒門剛勢公待及賊殺
後剝不中至公之政植三原倡變賊將知其終不能
屈公實終始有相之者叛亂公以忠實為賊不忍去
自下然以至乙酉除刑曹郎遷為縣回入又復曹為
判官尚求去為餘正及為大丘府使府號劇邑公處
之有方暇日集邑子講究禮心經行鄉飲酒儀設學
先處宜稍使上治行為華一時從遊後皆達人為判
決事其撫公不就權貴又出為錦城郡其倉境郡守

星州牧後皆南方大都會也判書慕公裕後舉使還
為言公撫治績之美特為 上教命褒陞從職
書考殿最之而星州則特不起自上實命錄勞少會
欽奉遺復入務寔職瑞韓有氣象既而引年請閑時
作書英會悠然有治社之勝南極俵後參判曾祖諱
當議社之信觀察使贈 贈參吾李公之十二世
祖公淸為高龍傳中中參之李始願於此公妙値
附從母夫人李氏雜山大姑李公游女同公終治熙
遺宗無後諸從家遵受文書于吏人常風興夜寐非甚
疾疫未嘗敎倒蓋雖其旅不事奉繩而幃堂莫敢蒼
恃之行雅及孫黨齋名好義雅出賴俗寄蘇朝時詩
立獨行風采凝然以斂錦衣布衣而安貧樂覺猶烏為
滌 明時奮誠竭力以供職事既歸家知至德遂有
判明行之資術可謂約而盡矣嗚呼可以觀其風
矣夫人尹氏考裕祖參判仁洪女祖有德公
癸卯十二月二十日卒年七十八而夫人同年先
八年後而合葬龍仁縣東治原洞向鄉地
翔翔用鳥為樹平明與文科累官刑曹參議
詩書將也江都之變夫人自投火而終錦樹
之明與其豪英久會曾鐵隆
廷並焉之曰卸崇門樹出當賞當一女歸尹
三女適鄭定寔林世良二女如尹三女適

如禮者貧不能舉者亦許行之二兄年皆八十皮堂
通萬仲兄嘗病溫瘧舉家相戒人不敢通其門公日
疫伏秋不去惧得全活後及人家亦病瘧而之醫治
恒累於不舉人異之余村塾子姪貧窮及夫人喪費
多出諸門人而公家儲之時郡縣每催亂助給
遇兵燹日迫喪食日絀公又東給衡里中人無不遂
請公獨不言以此益親重與人交一定不易直友之
宽不避乎嫌疑亂急一馬與所識納官身自徒從其
隊如重義又如此閭人善行至於數落而其有貴乱
不義者嗤之甚篤居家訓子女有法嗚呼二子四女
又子婆國家屢恩無以報德為善遇之臨歿神氣不
亂屏去女使所御箕用一盤餅有序曙猶正卧嘱然
而逝遵命用緇衫幅帽見先人于地下卦闔 上
命前引弟時如禮以是年十月甲午合葬子京川縣
冠盖山下兩生之原高夫人墓右夫人引有誌公有
三男三女長景禧兵曹參判次景禹金溝縣令先夫
人景興副提學女適承旨朴知誠次縣監尹瑾次察
訪崔徵之參判三男三女長英起義正與女李時中
姜弘益尹世昌縣令四女沈潤權克敬申檍尹瀋副
學一男一女曲與女初朴知誠四男三女尹瑾一男
崔徵之四男三女內外會孫若干人銘曰
先生隱德高而為澤永世不斬公誰則支監子或視

家姆天申檍尹興遠大三女幼倒出男晛初監司男
晛昌晛成晛堅女適延安吳受福參議倒出男晛遠
李緯朝生存著世著監司以共貴 贈公弘獅余嗜
事汝漢先生先生無公以詔之襲襲永料公類公
懷山岡門見持節遵公之子開有德培四十年墓義
念深觀德念篤今指予銘以無遠之文義不可辭銘曰
益之琴山白城山金銀銅鐵兼備門
譜蔚乾坤如吾益公見子時益公初然實有淵源
既仕者 翻名無能過則明發開 上有慈吉一郎
三朝郎不幽碣由君孫家。遠尊。卿孝之門將振
是望不有君子孰為振斯其餘務勉文行述前修公
之儀庶徵不 我作銘幻永世無窮

文峯書院 과 高陽八賢

편　저 . 고양명륜대학 교육운영위원회
발행인 . 이세준
발행처 . 고양향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1(유림서원)
전화 . (031)967-1992
　　(031)962-0612
전송 . (031)969-1992
E-mail.(향교사무국) hosool54@hanmail.net

* 본 책자는 경기문화재단과 고양시의 지원
으로 제작된 책입니다.

(비매품)